

성제고역주

譯城
註制考



원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성
제
고

역
주

譯 城
註 制
考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번역

경기대 사학과 번역팀(책임 이왕무 교수, 정규완, 권도현, 김다해, 강태희)

윤문·교열

지금완(성균관대학교 한문고전번역학 박사,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교정

이우석(건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고전번역원 연수원 수료)

기획

유현희(수원학연구센터 센터장)

이성호(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Tel. 031-220-8057

ISBN 979-11-90343-97-8

편집디자인·제작

아이콘커뮤니케이션

원문 출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비매품/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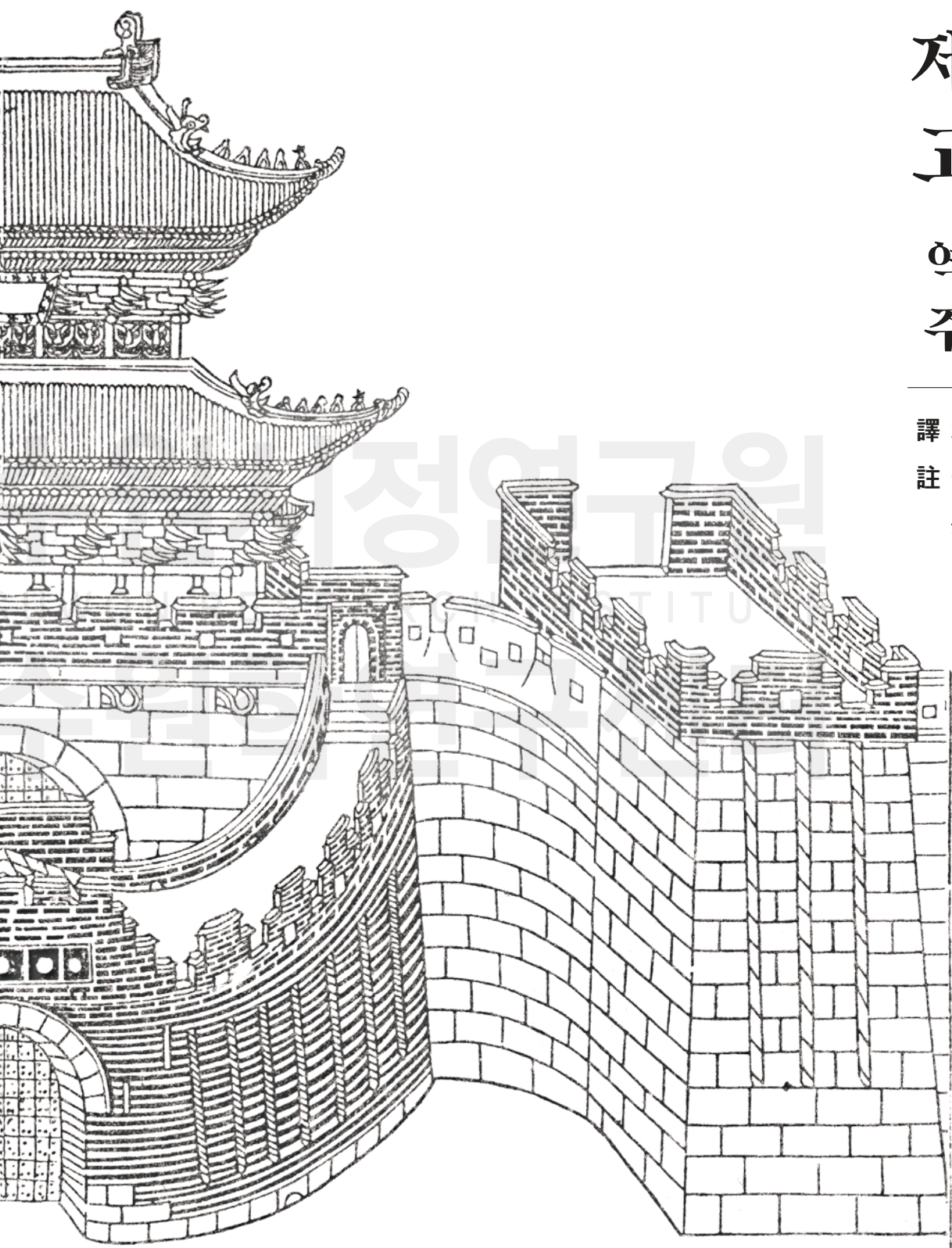
9 791190 343978

ISBN 979-11-90343-97-8

ISBN 979-11-90343-88-6 (세트)

성제고역주

譯城
註制
考考



차례

次
例

I. 『성제고』 해제 6

사료적 가치와 서지사항 9

주요 내용과 구성 11

번역 범례 13

II. 『성제고』 역주 14

성제도설과 성제제론 17

중국성제 81

동국성제와 동국성제론 214

참고문헌 315

III. 『성제고』 원문 317

천(天) 성제도설 318

지(地) 중국성제 344

인(人) 동국성제 382

성제고해제

解題 城制考

I



III 사료적 가치와 서지사항

『성제고(城制考)』는 18세기 말 화성 축성의 기초 자료가 되었던 『성제도설(城制圖說)』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성제도설』은 정조가 수원 화성을 축성하기 전에 성제(城制)를 정리하고 규칙화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성제고』는 조선, 중국, 일본의 축성술을 도설과 함께 제시하고, 조선과 중국의 주요 성곽들에 대한 연혁과 시설 등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성제고』의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으나, 『증보문헌비고』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제고』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세 본은 구성 순서만 다를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고려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본은 성제도설(城制圖說)과 성제제론(城制諸論)이 천(天), 중국성제가 지(地), 동국성제가 인(人)으로 각각 1권씩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대학교의 소장본은 중국성제가 천, 성제도와 성제론이 지, 동국성제가 인으로, 천권과 지권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다.

소장처	천(天)	지(地)	인(人)
고려대학교	성제도와 성제론	중국성제	동국성제
국사편찬위원회	성제도와 성제론	중국성제	동국성제
연세대학교	중국성제	성제도와 성제론	동국성제

『성제고』 천(天)은 평지성의 축성법, 양마장, 웅성, 노대, 오성지, 공심돈 등 다양한 방어시설물을 도설(圖說)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인용서는 『무비지(武備志)』, 『기효신서(紀效新書)』, 『삼재도회(三才圖會)』이다. 후반부에는 성제와 관련된 논설을 실었다. 인용서는 『두씨통전(杜氏通典)』, 『몽계필담(夢溪筆談)』, 『도서집성(圖書集成)』, 『고공전(考工典)』, 『형천무편(荊川武編)』이다.

『성제고』 지(地)는 중국의 190여 곳의 연혁 및 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인용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성제고』 인(人)은 『문헌비고(文獻備考)』를 인용하여, 조선의 270여 곳의 연혁과

시설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후반부에는 조선에서 논의된 성제 관련 논설을 실었다. 내용은 포루의 설치와 수성법, 일본의 수성법, 산성의 중요성, 치성의 효용성 등을 말했다. 인용서는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징비록(懲毖錄)』이다. 평지 읍성의 중시, 축성시의 인력 동원, 성의 규격, 중국과 일본의 성제에 관해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인용하여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를 인용하여 수원도호부 축성의 입지 조건을 밝히고 있다.

SRI

III 주요 내용과 구성

조선시대 주요한 군사 방어체제는 산성 방어체제였다. 조선 건국 이후 북방지역의 영토 개척이 이뤄지면서 백성들의 거주를 위한 읍성이 축조되었다. 다만 효과적인 수성을 위해서는 읍성이 아니라 산성이 필요함을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임진왜란기 조선의 읍성은 백성들을 수용하는 것에만 주력하여 수성에 문제가 있었다. 류성룡(柳成龍)은 조총의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산성을 수축하여 수성할 것을 말하기도 했다. 전쟁으로 여러 산성들이 수축되고 명의 병서인 『기효신서』가 도입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수성법과 웅성(甕城), 현안(懸眼), 양마장(羊馬牆) 등 다양한 방어시설물이 조선에 소개되었다. 이것은 당시 방어의 중심이었던 산성에 집중되었다.

조선의 산성 중심의 방어 정책은 청의 위협이 나타나는 17세기에도 주요했다. 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과의 평지전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유형원은 읍성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함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조선은 보장처(保障處)로서의 남한산성과 강화도 수비체제의 정비에 우선했다.

숙종 중반 이후 도성인 한성의 급속한 인구증가, 소비 인구 증가로 인한 시전의 확대 설치 등의 변화가 생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포기하고 강화도나 남한산성으로 입거하기에는 제약이 많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숙종 30년(1704)을 전후로 도성방어논의, 삼군문(三軍門) 도성수비체제의 정비, 도성 및 북한산성의 수축이 나타났다.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교통로에 위치한 평지 읍성의 방어력 증가가 요구되었고, 영조 대에 도성 및 진영과 읍성의 신·개축과 기존 성들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17~18세기에 진행된 조선의 도성방어체제는 국제 환경 변화의 영향도 있었다. 조선은 왜란과 호란 같은 외침의 위협이 줄어들고 안정화되면서, 국내적인 정치상황이 중요시되었다. 영조 대의 무신난(戊申亂)과 정조 등극 초기 암살 기도는 국내 정치 안정을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도성방어체제는 국내정치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던 것이다. 특히 국왕과 지배층이 왜란과 호란 때 도성의 백성을 버리고

다른 방어처에서 적군을 상대한 것은 정치적 오점이 되었다. 이와 함께 오랑캐로 불리던 청에게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한 것은 중화주의를 외치던 지배층에게 큰 정신적 타격이었다. 이러한 전란의 경험으로 군제의 개편과 도성방어체제의 정비, 수도권 방어체제인 유수부 체제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의 유수부는 개성, 강화, 수원, 광주 4부 체제였다. 유수부 체제는 도성방어와 상보적 관계에 있었다. 도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는 도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형적 문제가 많았다.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면서 도성을 방어하는 4부 유수부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정조는 성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화성은 조선의 주요한 방어체제인 산성 방어체제가 아니라, 평지 지형을 포함한 성이었다. 또한 유수부로서 실제적인 방어능력을 갖춰야 했다. 정조는 화성 축성 이전에 성제를 규격화하고 축조의 기준이 되는 규모와 공력 등을 확정하려 했다. 정조는 서영보(徐榮輔) 등에게 명하여 두우(杜佑)의 『통전(通典)』과 당순지(唐順之)의 『무편(武編)』에 수록된 성제에 관한 논설과 그림을 붙여서 『성제도설』을 편찬했다.

『성제도설』은 성제론(城制論)·성제도(城制圖) 1권, 중국성제(中國城制) 1권, 동국성제(東國城制) 1권 등 총 3권으로 편찬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성(省)과 부(府)의 성제, 조선 팔도 영부(營府)의 성제를 부록하였다. 정조는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을 직접 검토할 만큼 성제 이론서 편찬에 관심을 기울였다. 『성제도설』은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성제고』는 『성제도설』과 동일한 책으로 보인다. 첫째로, 『성제고』의 편목과 내용은 정조가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밝힌 『성제도설』의 편목 및 내용과 같다. 둘째로, 『성제고』가 인용한 책 중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 있다. 이 책은 정조가 즉위한 해인 1776년에 중국에 갔던 사신들이 책방에서 구입해 온 책이다. 그러므로 『고금도서집성』이 인용서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은 『성제고』가 최소한 정조대나 그 이후에 편찬되었음을 뜻한다. 셋째로, 『성제고』는 『반계수록』 보유편에서 ‘수원도호부’의 내용을 옮겨다 실었다. 이 글에서 유형원은 수원의 형세가 산으로 둘러져 있고 땅이 크고 평평해 번진(蕃鎭)의 기상이 있고, 많은 백성들을 수용할 만하다고 평했다. 정조는 유형원을 증직하는 전교에서 “유형원이 『반계수록』에서 수원의 읍치(邑治)를 평야로 옮기면 하천을 끼고 지세에 따라 읍성 쌓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은 대단한 탁견”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정

조는 수원 읍치에다 화성을 건설했다. 따라서 『성제고』에 『반계수록』 보유편 가운데 ‘수원도호부’의 내용만 수록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정조의 의중이 보이는 의미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성제고』를 통해 화성 축성 당시 정립한 성제와 성제 이론 등은 물론 정조의 복심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성제고』가 화성 축성의 기초 자료였으며, 추후 수원 성곽 연구의 토대 자료라는 것을 말해 준다.

III 번역범례

1. 『성제고』 역주 연구의 번역 대본은 고려대학교 소장 『성제고』를 기본으로 하고 연세대학교본과 국사편찬위원회본을 참조했다. 원문 텍스트와 이미지는 각 소장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번역은 직역(直譯)으로 원문에 충실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역만으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역 및 보충역을 하였다.
3. 본문의 체재는 원문의 체재를 위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원문은 번역문 뒤에 실었으며, 본문에 인용된 인용문의 경우 원서와 대조하여 교감하고 교감 사항은 각주로 밝혔다.
5.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6. 연도는 서기력과 왕력을 차례대로 표기했다.
7. 도량형과 통계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했다.
8. 저본의 소자(小字) 원주(原註)는 【 】로 묶어 처리하였다.

성제고역주

譯 城
註 制
考 考

II

III 성제도설과 성제제론

성제도설(城制圖說)¹

■ 1

모자(茅子)²가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을 쌓는다. 그러나 성을 쌓는 제도에 있어서는 잘 된 것이 드물다. 그러므로 내가 성을 쌓는 법을 갖추어 연구하고 대(臺)와 돈(墩)³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하였다.” 『태백음경(太白陰經)』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왕의 제도에 대도(大都)는 그 크기가 국도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중도(中都)는 국도의 5분의 1, 하도(下都)는 9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도 이외의 도성이 100치(百雉)⁵를 넘는 것은 국가에 해가 된다⁶고 하였다. 지금 제후의 성인 장안과 낙양의 넓이를 합하면 국도의 5분의 1이 된다. 그 성의 높이

1 성제도설(城制圖說) : 정조가 화성의 축조를 구상하면서, 기존의 모든 성제(城制)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기존 성제를 집대성하고 새롭게 편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당시 중국과 조선의 성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리된 것이 1794년(정조 18)에 편찬된 『성제도설』이다. 『성제도설』은 성제론과 성 제도에 대한 1권과 ‘중국성제’ 및 ‘동국성제(東國城制)’ 각 1권씩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의 3개 이본이 파악되고 있으며, 그 원본의 향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정조가 수원에 기획하여 축성한 화성의 군사 기술적 배경이 된 자료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조선 후기 축성술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모자(茅子) : 모원의(茅元儀, 1594~1640)를 말한다.

3 돈대(墩臺) : 성벽 위에 석재 또는 벽돌로 쌓아 올려 망루(望樓)와 포루(砲樓)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누대(樓臺)를 말한다. 돈대의 형태는 원형과 방형 두 가지가 있으며, 내부에는 2~3단의 마루를 만들고 외부를 향한 벽면에 각 층마다 작은 구멍을 내어 대포·총·화살을 사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축조하였다. 1679년(숙종 5)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冑)의 건의에 따라 강화도에 48개소의 돈대가 설치되었다. 1796년(정조 20)에는 수원 화성의 서북·남·동북의 세 곳에 돈대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을 공심돈(空心墩)이라 불렀다. 공심돈은 화성에 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성벽 방어시설이다.

4 태백음경(太白陰經) : 당나라 전기의 도가사상가이자 군사이론가인 이전(李筌, ?~?)이 편찬한 병법서이다. 정식 명칭은 『신기제적태백음경(神機制敵太白陰經)』으로 태백성(太白星)이 살육과 정벌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여 군사와 연관 짓던 관습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총 10권이다. 한국에서는 종합적인 연구는 물론 역주도 되지 않았다. 다만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신진연구 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치(雉) : 성벽의 높이와 길이를 재는 단위이다. 보통 높이 1장(丈), 길이 3장을 1치로 본다.

6 선왕의……된다 : 이 내용은 『춘추좌씨전』 노 은공(魯隱公) 원년 기미(己未)조의 기사 내용을 『태백음경』에서 절록해 인용하였다. 글자의 출입이 있어 번역은 『춘추좌씨전』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祭仲曰 都城過百雉 國之害也. 先王之制, 大都不過參國之一, 中五之一, 小九之一, 今京不度, 非制也. 鄭大夫, 方丈曰堵, 三堵曰雉, 一雉之牆, 長三丈高一丈. 侯伯之城, 方五里徑三百雉, 故其大都, 不得過百雉.”

는 변방을 지키기 위해 제한하면 안 된다.

대체로 성을 짓는 경우 높이는 아랫너비의 배가 되고 아랫너비는 윗너비의 배가 되게 한다. 성의 높이는 5장이면 아랫너비는 2장 5척이며, 윗너비는 1장 2척 5촌이다. 높고 낮음과 넓고 좁음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茅子曰, 夫天下皆城也. 然城之制, 其善者寡也. 故我備講築城之法, 而臺墩附之. 太白陰經曰, 先王之制, 大都不過三國之一, 中都不過五之一, 下都不過九之一. 故曰都城過百雉, 國之害也. 今諸侯之城方, 兩京之闊狹, 合五之一. 其高⁷爲邊隅之⁸守不可爲節制.⁹ 夫城下闊與高倍, 上闊與下倍, 城高五丈, 下¹⁰闊二丈五尺, 上闊一丈二尺五寸, 高下闊狹, 以此爲準.

■ 2

공력(功力)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윗너비에 아랫너비를 더하면 3장 7척 5촌이 된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1장 8척 7촌 5푼이고 여기에 다시 높이 5장을 곱하면 1척의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양이 92장 7척 5촌이 된다.¹¹ 매번 공사 1일마다 흙 2장을 쌓는 것의 공력을 계산하면 46명이 된다.

하루에 성을 쌓는 것이 1장 7척 5촌이라면 1보로 공력을 계산하면 278명이며 여토(餘土)는 5장이고, 100보로 공력을 계산하면 27,825명이며 여토는 1장이고, 1리를 계산해서 100,170명이며 여토는 1장이니 흙 1리를 비율로 계산한다면 10리를 파는데 필요한 흙의 양과 몇 짐을 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흙을 2장 쌓는 공력을 계산할 수 있다. 양마성¹²은 해자 안에 높이 8척으로 쌓고 그 위에 여장을 둔

7 高: 저본에는 '高下'로 되어 있으나 『흙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자부(子部)2 병가류(兵家類), 『태백음경(太白陰經)』 권5 「축성편(築城篇)」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8 隅之: 저본에는 '城處'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9 不可爲節制: 저본에는 '不可制節'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0 下: 저본에는 없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1 92장 7척 5촌이 된다: 저본과 『태백음경』 모두 92장 7척 5촌으로 되어 있다. (영인본 『흙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자부2 병가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1~2쪽) 그러나 93장 7척 5촌이 되어야 맞다. 아래 위 두 길이의 합에 높이를 곱한 뒤 1/2 하는 사다리꼴 면적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93장 7척 5촌이 산출된다.
 $2장5척+1장2척5촌=3장7척5촌$ $37.5 \div 2 = 18.75$ $18.75 \times 5 = 93.75$

12 양마성(羊馬城): 성 밖 사면(四面)의 참호 안에 다시 작은 성을 쌓은 것인데, 대개 두께는 6척이고 높이는 5척쯤으로 만든다.

다. 공력의 계산은 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¹³

料功以下闊加上闊，得三丈七尺五寸，半之得一丈八尺七寸五分，以高五丈乘之。一尺之城積數，得九十二丈七尺五寸。每一功日築土二丈，計功四十六人。

日築城一丈七尺五寸，一步計役功二百七十八人，餘土五丈，¹⁴一百步計功二萬七千八百二十五人，餘土一丈，一里計功十萬一百七¹⁵十人，餘土¹⁶一丈，土率一里，則十里可知其出土¹⁷負蕘，竝計二丈土之功。¹⁸其羊馬城於¹⁹壕內，築高八尺，上置女牆，計功準上。

■ 3

“해자를 파는 법은 다음과 같다. 성의 해자를 면의 너비는 2장, 깊이는 1장, 바닥의 너비 1장으로 파려면 면의 너비에다 바닥의 너비를 더하여 나온 수 3장을 반으로 나누면 1장 5척이 되는데 거기에 깊이를 1장을 곱하면 해자를 1척을 파면 흙이 15장이 된다. 한 사람이 매일 3장씩 파낸다고 하고 해자 1척을 파는 데 필요한 공인의 수를 계산하면 5명이다. 1보를 계산하면 30명,²⁰ 1리를 계산하면 10,800명이다.²¹ 1리를 비율로 계산한다면 100리를 파는 데 필요한 인원도 알 수 있다.”²²

13 선왕의……한다 : 이 내용은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보인다.

14 丈 : 저본에는 ‘尺’으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5 七 :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는 ‘九’로 되어 있다.

16 土 :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는 없다.

17 土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8 之功 :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以工’으로 되어 있다.

19 於 : 저본에는 ‘下’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0 30명 : 저본과 『태백음경』 모두 30명으로 되어 있으나 25명이 되어야 맞다. 1척당 필요한 인원이 5명이고, 1보는 5척이므로 $5 \times 5 = 25$ 로 25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근거한다.

21 10,800이다 : 저본에는 10,800명, 『태백음경』에는 1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리를 몇 보로 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전한시대(B.C. 202~8) 저술인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너비 300보, 길이 300보가 1리이다.[廣三百步、長三百步爲一里.]”라고 하였고, 121년 허신이 편찬한 『설문해자』에서는 춘추 곡량전을 인용해 300보가 1리라고 하였다.[穀梁傳曰，古者三百步爲里.] 그리고 6세기경 하후양(夏侯陽，?~?)이 편찬한 수학서 『하후양산경(夏侯陽算經)』에서는 5척이 1보이고, 360보가 1리라고 하였다.[以五尺爲一步，三百六十步爲一裏] 앞서 10보를 계산하면 250명이라고 했으니 1리를 300보라고 하면 $250 \times 30 = 7,500$ 으로 7,500명이 필요하다. 또 1리를 360보라고 하면 $250 \times 36 = 9,000$ 으로 9,000명이다. 『태백음경』에서 18,000명이라고 한 것은 『한시외전』을 근거로 길이와 너비를 각 360보로 했을 때 나온 수의 합 즉, $9000 + 9000 = 18,000$ 으로 추측할 수 있다.

22 해자를……있다 : 이 내용은 『태백음경』 권5, 「착호편(鑿濠編)」 제44에 보인다.

有鑿壕法, 壕面闊二丈, 深一丈, 底闊一丈, 以面闊加底闊, 積數三丈半之, 得數一丈五尺,²³ 以深一丈乘之, 鑿壕一尺, 得數一十五丈. 每一功日出土三丈, 一尺, 計功五²⁴人. 一步, 計功三十人, 一里, 計功一萬八百²⁵人, 一里爲率, 則百則百里可知也.

■ 4

“노대를 쌓는 법은 다음과 같다. 노대의 높이는 성과 같고 우리 성과의 거리는 100보이며 대와 대 사이 서로 떨어진 거리도 그와 같다. 아래의 너비는 4장, 높이는 5척, 위의 너비는 2장이다. 여장을 세우고 대의 내부는 비밀통로[暗道]와 통하게 하면 무릎을 굽혀 사다리를 타기 편하고 사람이 올라가 그것을 걷어 들이기 편하다. 중간에 전막(羶幕)²⁶을 설치하여 노수 5인을 배치하고 마른 식량[乾糧] 및 물과 불을 비축하고 적이 성루에 접근하면 적의 수장(首將)을 향해 노를 집중하여 발사한다.”²⁷

有弩臺法, 臺高下與城等, 去我²⁸城有百步,²⁹ 臺相去亦如之. 下闊四丈高五尺, 上闊二丈, 上³⁰建女牆, 臺內通暗³¹道, 安屈膝梯, 人上便捲之³²收之,³³ 中設羶幕, 置弩手五人, 備乾糧水火, 敵近城壘, 則攢弩射其首³⁴將.

23 尺: 저본에는 ‘寸’으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4 五: 저본에는 ‘立’으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5 百: 『태백음경』 권5, 「축성편」 제43에는 ‘千’으로 되어 있다.

26 전막(羶幕): 짐승의 가죽으로 둘러친 막을 말한다.

27 노대를……발사한다: 『태백음경』 권5, 「노대편」 제45에 보인다.

28 我: 저본에는 없으나 『태백음경』 권5, 「노대편」 제45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29 百步: 저본에는 ‘百步’ 앞에 ‘有’자가 더 있으나 『태백음경』 권5, 「노대」 제45에 근거하여 삭제하였다.

30 上: 저본에는 없으나 『태백음경』 권5, 「노대편」 제45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1 暗: 저본에는 ‘闊’로 되어 있으나 『태백음경』 권5, 「노대편」 제45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32 之: 저본에는 없으나 『태백음경』 권5, 「노대편」 제45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3 之: 저본에는 없으나 『태백음경』 권5, 「노대편」 제45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4 首: 『태백음경』 권5, 「노대편」 제45에는 ‘來’로 되어 있다.

『무경총요(武經總要)』³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옛 법에 3리 되는 성은 만가(萬家)를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금 만약 적이 가까이 들이닥쳐 인력으로 어쩔 겨를이 없으면 즉시 일군의 병사와 말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니 한가한 때 성을 쌓는다면 반드시 약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문은 4개를 만들어 2개는 관문(關門)으로 하고 2개는 폐문으로 한다. 문밖에 옹성을 만들고 성 밖에 해자를 파는데 대성과의 거리는 약 30보이다. 해자의 위에는 조교를 만들고 해자의 안쪽에 양마성을 만드는데 대성과의 거리는 약 10보이다. 대체로 성 위에는 모두 여장이 있고 10보마다 마면(馬面)³⁶이 있는데 모두 그 위에 적봉, 적단, 적루를 만들고 옹성【적단은 성의 모서리이다.】에는 전봉이 있으며 봉루(棚樓)의 위에는 백로옥(白露屋)³⁷이 있다. 성문의 중문은 널빤지로 빗장을 지르고 두 짝 문[扇門]³⁸을 만든다. 성 밖의 4면에는 노대가 있고 적봉에서부터 성문에 이르기까지 항상 병사를 배치해 지키게 하면서 적군을 감시하게 한다. 도형은 다음과 같다.

武經總要曰, 古法曰三里之城, 萬家守之足矣. 今若遇敵逼近, 人力不暇者, 卽且約容一軍人馬. 如築於閑時, 須稍寬闊, 作四門, 二開³⁹二閉, 門外築甕城, 城外鑿壕, 去大城約三⁴⁰十步, 上施釣橋, 壕之內岸, 築羊馬城, 去大城約十步. 凡城上皆有女牆, 每十步及馬面, 皆上設敵棚, 敵團, 敵樓. 甕城【敵團城角也.】有戰棚. 棚樓之上, 有白露屋. 城門重門⁴¹插版鑿扇. 城之外, 四面有弩臺, 自敵棚至城門常設兵守, 以觀候敵人, 圖形於左.

35 무경총요(武經總要) : 1040년 송(宋) 인종(仁宗)이 병서를 만들라고 명령하여 북송의 중공량·정도 등이 찬술한 군사상의 기술서이다. 1044년에 완성되었으며 전 40권으로 되어 있다. 당시 서하의 반란이 일어난 뒤 인종은 병법에 뛰어난 인재를 구하여 작전·군사기술 등의 지식을 정리시키고, 병기류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나누어 전집은 제도 15권과 변방 5권으로, 후집은 병전(兵戰)의 고사 15권과 점후(占候) 5권으로 기술해 놓았다.

36 마면(馬面) : 치 위의 평면을 말한다.

37 백로옥(白露屋) : 망을 보기 위하여 성 위에 대나 버들가지 등으로 엮어 만든 집이다.

38 두 짝 문[扇門] : ‘선(扇)’자는 문짝의 뜻인 지계호(戶)와 날개의 뜻인 우(羽)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로 문짝이 문의 양쪽에 있어 새의 날개처럼 열림을 나타낸다.

39 開 : 저본에는 없으나 『무경총요(武經總要)』 전집 권12, 「수성(守城)」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40 三 : 저본에는 없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41 插 :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는 ‘插’으로 되어 있다.

■ 6 성제도(城制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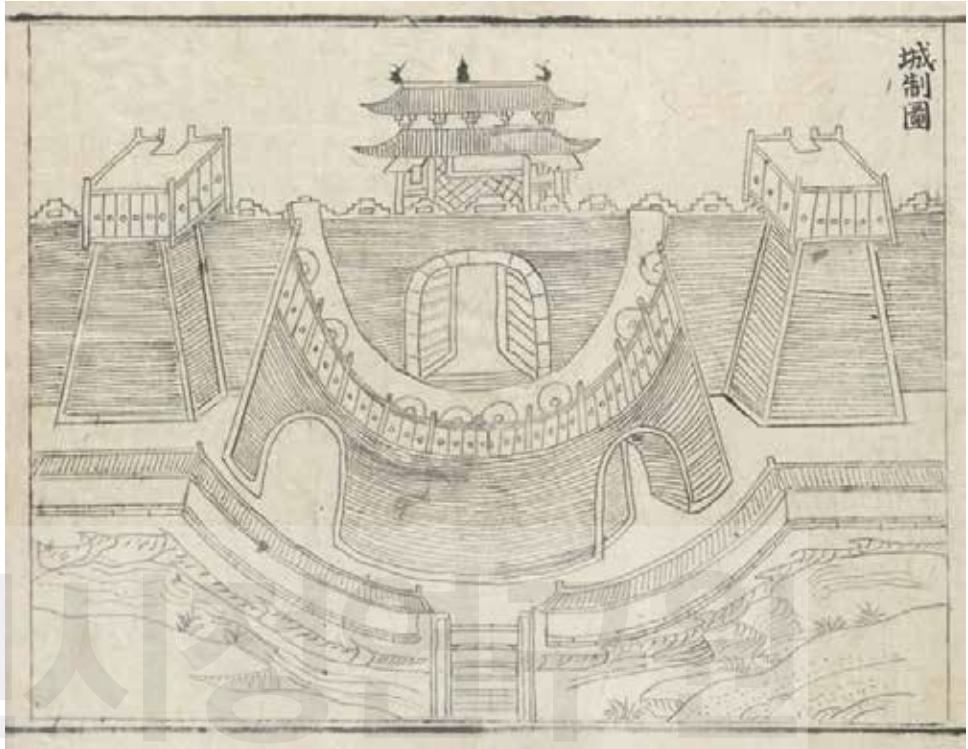
평지의 축성에서 아랫너비는 위의 배이고 그 높이도 아래의 배이다. 가령 성의 높이가 5장이면 아랫너비는 2장 5척이고 윗너비는 1장 2척 5촌이다. 그 성 밖의 웅성은 지형을 살펴 그에 맞게 원형이나 방형으로 만든다. 웅성의 높이와 두께는 본성과 같고 웅성문은 오직 한쪽에만 문을 만드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각각 편리한 대로 한다.

양마성의 높이는 1장 이하 8척 이상이 좋다. 또한 한쪽에만 문을 만드는데 웅성문과 방향을 반대로 만든다. 만약 웅성문이 왼쪽에 있으면 양마성문은 오른쪽으로 한다. 여장의 높이는 5척으로 하는 게 좋다. 해자 면의 크기는 그 땅의 크기에 따라 넓거나 좁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은 넓고 바닥은 좁게 하는 것인데, 샘물이 나올 때까지 깊게 파서 화살과 포가 미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멈춘다.

해자의 다리는 양마성문과 바로 마주보는 곳에 설치하는데 만약 성의 물을 끄는 곳이 반드시 성 밖에 있어야 한다면 웅성과 양마성의 문 하나를 서로 마주보고 열게 해 물 끄는 길이 통하게 한다. 그러나 본성의 문과 같은 방향이 되게 하면 안 된다. 만약 산에 의지하고 강이 휘감고 있는 지세라 불편하다면 본성은 그 형태를 반드시 초승달 모양으로 하고 문은 세 개만 만든다. 나머지는 평지에서 축성할 때의 제도를 고치면 안 된다.

웅성 위에는 각각 전봉(戰棚)을 설치하는데 그 제도는 적루와 같고 다만 칸수는 성의 크기를 살펴서 한다. 산성이면 또 전후좌우를 골라서 거리는 본성과 가깝게 하고, 산세를 따라 별도로 성을 하나 쌓아 본성과 잇닿아 있게 하는데 반드시 모두 높은 지형에 의지해야 한다. 외부에 또한 해자를 파고 두 지역 사이에 혹은 봉대(烽臺)를 설치하여 먼 곳을 감시하게 한다. 적이 이르면 병사에게 전담해 지키게 하여 적이 먼저 성 내부의 허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점을 갖지 못하게 한다. 지금 진주성(秦州城)과 빈주성(邠州城)은 모두 이렇게 지었다. 【일설에 아랫너비 1장마다 위로 4척을 더하면 보통 성의 높이는 5장이고, 바닥의 너비 5장 위로 2장을 더하면 더욱 견고하다고 한다.】⁴²

42 옛 법에……한다 : 이상의 내용은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보인다.



성제도

平陸築城, 下闊與上倍, 其高又與下倍. 假如⁴³城高五丈, 則下闊二丈五尺, 上闊一丈二尺五寸, 其城外甕城, 或圓或方, 視地形爲之, 高厚與城等, 惟偏開一門, 左右各隨其便.

羊馬城高可⁴⁴一丈以下, 八尺以上, 亦偏開一門, 與甕城門相背. 若甕城門在左. 卽羊馬城門在右也. 女牆高可五尺. 壕面⁴⁵各隨其地爲闊狹, 大要在面闊底狹, 其深及泉, 使箭砲難及卽住.

壕橋直⁴⁶對羊馬城門, 若城門汲水須⁴⁷在城外, 則甕城羊馬城各更對開一門, 以

43 如 : 저본에는 없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44 可 : 저본에는 '下'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45 面 : 저본에는 '向'으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46 直 : 저본에는 '宜'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47 須 : 저본에는 '原'으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通汲路, 惟不得對大城門. 若依山帶河, 地勢不便, 則大城須爲偃月形, 開三門而已, 餘不改平陸之制.

甕城上各設戰棚, 其制與敵樓同, 間⁴⁸數視城之廣狹. 其山城則又擇前後左右, 以⁴⁹去大城近處, 隨山形別築⁵⁰一城, 令與大城相接, 必盡據⁵¹高地. 外亦開塹, 兩地之中, 或設⁵²烽臺以爲遠候. 賊至卽以兵專守, 免先爲賊所據下窺城中虛實. 今秦州邠州城, 皆若是也.【一說⁵³每下闊一丈上收四尺. 凡城高五丈, 底闊五丈上收二丈, 尤堅固矣.】

■ 7 노대(弩臺)

노대는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은 것이 성제와 같다. 높이는 성과 같고, 면의 너비는 1장 6척이고, 길이는 3보로 성벽과 잇닿아 있어 노대마다 적을 상대하여 막아 지키는 것이 또한 이와 같다. 그리고 위는 넓은 길과 통하고 노대 위에는 집을 짓는데 제도는 전봉⁵⁴과 같다. 3면에 젖은 모전을 늘어뜨려 수종판(垂鍾板)⁵⁵을 가리고 줄사닥다리[繩梯]도 마련해 둔다. 대 안에는 노수 12명을 두고, 전봉 위에 3면에도 가리개를 세워 화살을 막는다. 전봉 위에도 노수 12명, 대장 1명을 배치한다. 오색기 각각 1개씩, 북 1개, 궁노, 뇌목(榴木)⁵⁶과 포석(砲石),⁵⁷ 화전 등을 모두 비축해 둔다. 항상 적이 오는지를 살펴 깃발을 들어 표시하여 알리면 대와 성 위에서 그것을 보고, 모두 깃발을 들어 서로 호응한다. 동쪽에서 적이 오면 청기(靑旗)를 들고, 남쪽에서 오면 적기(赤旗)를 들고, 서쪽에서 오면 백기(白旗)를 들고, 북쪽에서 오면 흑기(黑旗)를 든다. 적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황기(黃旗)를 들고 적이 점점 가까워

48 間: 本에는 없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49 以: 本에는 '取'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50 築: 本에는 '等'으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51 據: 本에는 '處'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52 或設: 本에는 '惑'으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53 一說: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는 '一說' 뒤에 '築城之法' 4자가 더 있다.

54 前鋒(戰棚): 성벽 위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 쓰던 판자집이나 또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가퀴 위로 들어 올리는 긴 나무를 말한다.

55 水鍾板(垂鍾板): 전봉의 앞뒤에 설치하는 기구이다.

56 榴木(榴木): 성벽 위에서 밀어 떨어뜨려 공격해 오는 적을 막는 데 사용한 원기둥 모양의 나무이다.

57 砲石(砲石): 성벽 위에서 공격해 오는 적에게 던지는 돌을 말한다.

지면, 그 주장을 조망하여 쇠뇌를 꺼내 집중하여 발사한다. 포뢰(砲礮)를 사용하는 것은 성 위에서 이용하는 법과 같다.⁵⁸



노대

弩臺上狹下闊, 如城制. 高與城等, 面闊一丈六尺, 長三步, 與⁵⁹城相接, 每臺相拒亦如之. 上通闊道, 臺上架屋, 制如戰棚. 三面垂以濡氈, 以遮垂鍾板, 亦備繩梯, 內容弩手一十二人, 棚上三面立牌遮箭. 棚上亦容弓⁶⁰弩手一十二人, 隊將⁶¹一人, 置五色旗各一, 鼓一, 弓弩樞木砲石火韃等皆蓄之. 常伺寇至, 舉旗爲表號

58 노대는……같다 : 이상의 내용은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보인다.

59 與 : 저본에는 '輿'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60 弓 : 저본에는 '與'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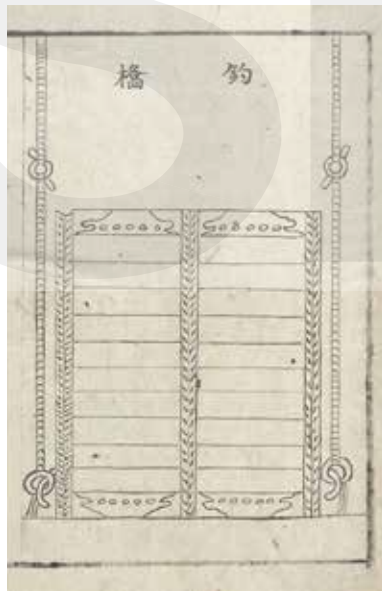
61 將 : 저본에는 '長'으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令, 臺及城上見之, 皆舉旗相應. 寇來自東, 卽舉青旗, 南舉赤旗, 西舉白旗, 北舉黑旗. 已來復還, 舉黃旗. 寇來漸近, 則望其主將, 發弩叢射之. 其砲櫓用如城上法.

■ 8 조교(釣橋)

“조교는 느릅나무나 느티나무로 만든다. 그 만드는 방법은 교(橋)와 같다. 위에 3개의 쇠고리[鐵環]에 두 가닥의 쇠줄을 걸어놓고, 거기에 삼으로 만든 밧줄을 성루의 위에 묶어서 연결한다. 조교의 후면은 성과 3보 떨어지게 하여 2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각각 길이가 2장 5척이다. 위가 산구(山口)의 형태로 열리고 단단한 쇠로 돌려 옮기는 도르래를 만들어 틀로 삼고 쇠줄과 밧줄을 함께 설치하여서 조교가 쉽게 올라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성 밖에서 위협을 알리면, 성루 위의 사람에게 끌어당겨 올리게 해서 그 길을 차단하게 하고 또한 성문도 보호한다. 성 위에는 항상 포와 궁노를 배치해 적을 막으며, 불을 질러서 타거나 공격을 당해 부서질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⁶²



조교

62 조교는……한다 : 이상의 내용은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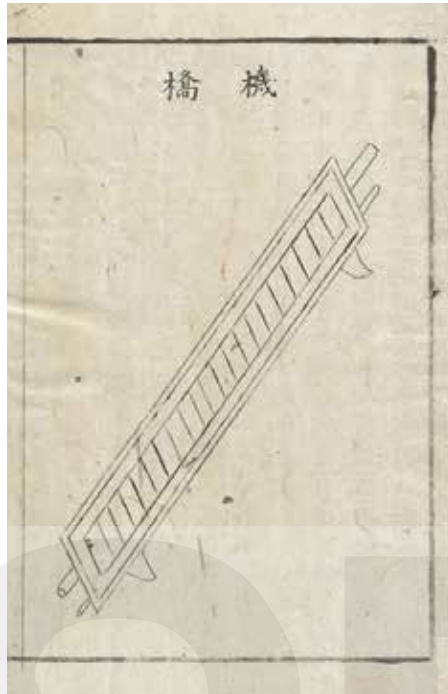
釣橋, 造以榆槐木, 其制如橋. 上施三鐵環, 貫以二鐵索, 副以麻繩, 繫屬於城樓上. 橋後去城約三步, 立二柱, 各長二丈五尺. 開上山口, 置熟鐵轉輪爲槽, 以架鐵索竝繩, 貴其易起. 若城外有警, 則樓上使人挽起, 以斷其路, 亦以護門. 城上常以砲及弓弩禦敵, 慮以火燔燒及被攻斫.

■ 9 기교(機橋)

“기교는 들보 1개를 이용해 그대로 뒤집어져 얹어지게 만든다. 양 끝을 나무로 가로질러 묶어 둔다. [기교가 덮인] 해자 위에 적이 오면 얼른 묶은 것을 풀어서 사람과 말이 밟으면 그대로 뒤집어지게 한다.”⁶³

『기효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큰 성에서 높은 타를 제거하면 성의 높이는 반드시 4장 혹은 3장 5척이다. 밑으로 내려가도 3장 정도이다. 면적의 너비는 반드시 2장 5척이고 바닥의 너비는 6척이다. 그다음 규모의 성에서 타를 제거한 성의 높이는 2장 5척이고 면적의 너비는 2장, 바닥의 너비는 5장이다. 소성에서 타를 제거한 성의 높이는 2장이고 면적의 너비는 1장 5척이고 바닥의 너비는 4장이다. 이것은 큰 것을 비교한 것이다. 만약 더 넓힐 수 있으면 더욱 좋으나 형세상 안 되면 다시 줄인다. 다만 바닥의 너비를 더하고 면적의 너비를 더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면적의 너비를 더하고 바닥의 너비를 더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바닥의 너비를 더하지 않으면서 면적의 너비를 더한다면 단연코 쓰러져서 전복된다. 만약 성벽의 안팎을 모두 벽돌로 쌓는 경우 기초 바닥을 다만 1장만 넓혀도 견고하기가 흙을 쌓은 것과 같다. 이 경우 반드시 앞에 말한 수치와 합치되어야 한다. 대체로 성벽의 몸체는 첫 번째가 벽돌이요 두 번째가 돌이요 세 번째가 흙이다. 대개 돌은 본래 내구성이 좋지만 지금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화공 때 부서지기 때문이다. 타는 반드시 높이가 6척이어야 하고, 매 타구와 패도(牌堵) 사이의 서로 떨어진 거리는 7척 5촌으로 정확히 나누어진다. 타구는 1척으로 각각 5촌으로 나누어 타공을 연결하더라도 8척이다. 8장은 10타요, 80장은 100타이다. 모두 관척으로 잴 것이다. 만약 성의 몸체에서 타를 제거하여 길이가 겨우 5장인 경우 이 성은 지킬 수 없다.”

63 기교는……한다 : 이상의 내용은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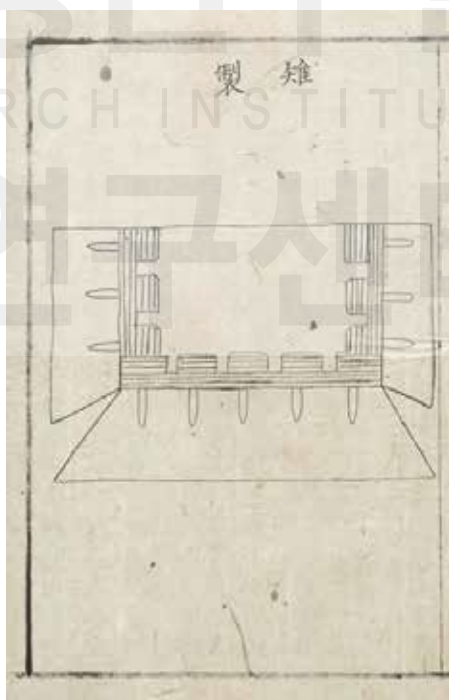
기교

機橋, 用一梁, 仍爲轉軸, 兩端施橫括, 置溝壕上, 賊至卽去括, 人馬踐之則翻. 紀效新書曰, 凡大⁶⁴城高除堞, 城身必四丈或三丈五尺, 至下亦三丈, 面闊必二丈五尺, 底闊六尺. 次城除堞, 城身高二丈五尺, 面闊二丈底闊五丈. 小城除堞, 城身二丈, 面闊一丈五尺, 底闊四丈. 此其大較, 若再加寬闊益善, 勢不可再減. 但底加面不加可, 面加底不加不可, 底不加而加面, 斷然傾覆. 若內外俱用磚石, 基底只增闊一丈, 亦堅如土, 築必合前數. 凡城身, 第一磚, 第二石, 第三土. 蓋石本耐久, 今爲第二者, 可以火粉之也. 堞必高六尺, 每堞口相去牌堵, 中分淨七尺五寸. 堞口一尺, 各分五寸. 連堞空合八尺. 八丈十堞, 八十丈百堞, 俱官尺. 若除堞, 城身只丈五者, 則不可守.

64 凡大 : 저본에는 '大凡'로 되어 있으나 『무비지(武備志)』 권110, 「군자승(軍資乘) 성제(城制)」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 10 치제(雉製)

대체로 치가 성의 몸체 밖으로 나온 것이 규모가 큰 것은 3장, 그다음 크기는 2장, 그다음은 1장 5척이다. 곧게 3장이 나온 것은 가로 길이를 5장으로, 곧게 2장이 나온 것은 가로 길이를 3장으로, 곧게 1장이 나온 것은 가로 길이를 1장 5척으로 한다. 원래의 성의 몸체에 비교하여 3장이 높은 것은 3척을 더하고, 2장이 높은 것은 높이 2척을 더한다. 50타마다 치성 1개를 두되, 성의 너비를 더하는 것은 몇 개의 치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좌우로 각루(角樓)나 문을 만날 경우 몇 장씩 늘리거나 줄여 편의에 따라 고르게 한다. 성벽 면마다 누각이 있는 곳이 고르지 않은 곳은 놓아 두며 대략 1리 되는 곳은 누각 가운데에 각각 2개의 치를 두고 2리 되는 곳은 누각의 가운데에 각각 4개의 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더해 가다가 장척이 부족한 곳은 50타 이상이어도 50타로 계산할 수 있고, 50타 이하여도 50타로 계산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그 대강의 개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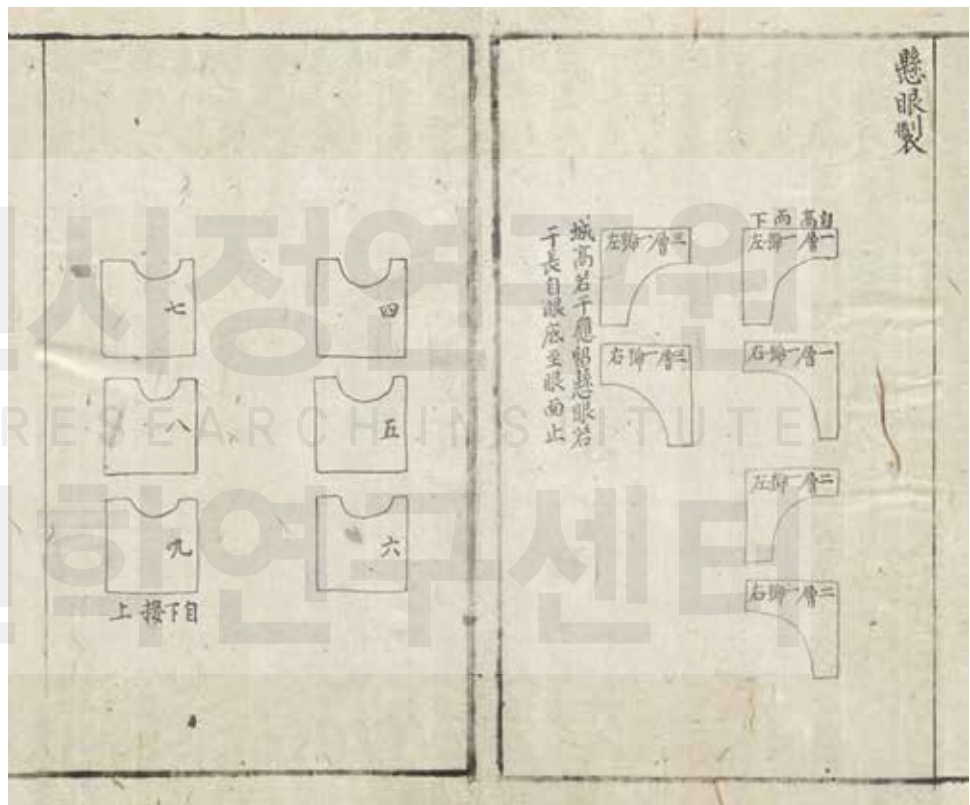
치제

凡雉出城身外, 大者三丈, 次者二丈, 次者一丈五尺, 直出三丈者, 橫長五丈, 直出二丈者, 橫長三丈, 直出一丈者, 橫長一丈五尺. 比城原身, 高三丈者加高三尺, 二丈者加高二丈. 每五十垛一雉, 城闊加之, 不拘幾雉, 左右遇角遇門, 或多少幾數丈, 從便均勻. 每面除樓角所占不等. 約一里者, 樓角之中各二雉, 二里者, 樓角之中各四雉. 以此加之, 不足丈尺者, 五十垛以外, 亦可以五十垛計, 五十垛以內, 亦可以五十垛計, 通變在人, 此大概耳.

■ 11 현안제(懸眼製)

현안제는 타(垛)마다 그 가운데에 설치하되, 성면(城面)에서 평행이 되게 하고 구멍의 높이는 9촌(寸) 정도 되게 한다. 벽돌을 3층으로 쌓되, 벽돌이 두꺼우면 2층으로 한다. 평면 이하 양쪽의 벽돌은 가운데 구멍을 중심으로 등글게 휘어져 가게 하는데, 점점 죽 내려가면서 줄어들게 한다. 벽돌 하나하나를 한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층수를 편성하는데, 자호(字號)를 벽돌 위에 태워서 새겨 넣어 쓸 때에 자호만 대조해 보고 쓴다. 타는 모두 보통의 벽돌로 쌓은 담벽과 같아 힘이 똑같이 드는데, 벽돌들의 표면을 깎지 않으면 오래가게 할 수 있고 벽돌을 등글게 쌓아 따로 구멍을 뚫지 않으면 일을 줄일 수 있다. 대략 깊이가 몇 장이나 척인지를 계산하여 몇 층을 쌓는데, 도형(圖形)을 살펴보면 단지 6층뿐이다. 벽돌 하나가 3촌이니 1척 7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 대략일 뿐이고, 더러 20층이나 30층 등으로 그 한도를 다하기도 한다. 왜(倭)는 매번 총(銃)과 화살을 모으고, 오랑캐는 매번 화살을 모아 여러 타(垛)를 보고 조준하여 우리의 성을 지키는 군사를 엿보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머리를 들어 밖을 쳐다보면 곧 한꺼번에 쏘아대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타에 전혀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눈으로 외부의 적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는 곧 몸을 가리는 무기와 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가지고 곧장 성 아래로 달려오는데, 우리 병사들은 이미 머리를 들고 손을 내밀어 아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대로 구덩이를 파서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놓아 두게 되어 곧장 오르는데도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현안이 있어야 하니, 적이 멀리 있으면 타의 구멍으로 망을 보면서 총과 화살을 쏘고, 적이 가까이 오면 우리 병사들이 머리를 내밀지 않고 타 아래 몸을 감추고 현안 내에서 성을 공

격하는 자들을 내려다보니, 저들이 총과 화살을 가지고 있더라도 쓸데가 없게 된다. 만약 적이 성 아래에 도착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 곧 화살·돌·총알·화통(火筒)을 가지고 쏘고 던지면 막지 못할 것이 없으니, 적이 어찌 사다리를 세우고 발을 댈 수 있겠는가. 만약 타를 타고 오르면 타 위에서 막을 수 있다. 현안마다 그 위에 나무로 만든 덮개를 하나씩 덮어 총과 화살을 막을 수 있게 하면 더욱 절묘할 것이다.



현안제

懸眼製, 每垛當中, 自城面平爲孔高九寸約, 磚三層, 磚厚用二層. 平面以下兩方磚, 對中爲彎, 漸漸平縮, 每磚一模, 編成層數, 字號燒於磚上, 臨用只照號. 垛俱如尋常甃砌力同, 庶磚皮不削則可久, 磚彎不鑿, 則工省約用. 幾丈尺深計, 爲若干層, 今圖內只六層, 每磚三寸, 只得一尺七寸, 示其大略耳. 或二十, 三十等層, 以盡爲度. 倭每叢銃與矢, 虜每叢

矢, 看准數垛, 伺我守城者, 一伸頭頸外視, 即叢射之, 無有不中, 使我身不敢當垛, 目不見外賊, 卽以勾杆攻城等器, 直奔城下, 我兵既不能伸頭出手下擊, 任⁶⁵其掘坎布梯, 直登莫禦, 必有此懸眼, 賊遠則瞭之, 垛口銃矢射之, 賊近, 我兵不出頭, 以身藏垛下於懸眼內, 下視攻城者, 雖有銃矢無所施. 若到城下, 一見無遺, 卽將矢石, 銃子, 火桶擲之, 無不可者, 賊安能對梯駐足哉. 若對垛而登, 則垛上可禦矣. 每懸眼上, 加木蓋一箇, 以防銃矢, 尤妙.

■ 12 전식(磚式)·첨장전(尖長磚)·첨단전(尖短磚)·타구(垛口)

타구의 벽돌 크기는 적당한 길이에 가로는 길이의 절반으로 하며, 어느 정도의 가로에 두께는 가로의 절반이다. 가로세로 6면을 모두 벽돌로 쌓아 성이 네모꼴을 이루어야 오래갈 수 있다. 첨전은 뾰족한 부분으로부터 길이가 척촌이 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성타를 보면 타의 밑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산[山]자 모양인 타가 있는데 이런 경우 너무 넓어서 적이 올라오면 막지 못하고 몸을 숨길 곳이 없으며, 화살과 돌을 감당하지 못한다. 만약 타구의 안과 밖이 평평하고 곧고 크면 사람의 몸이 들어올 수 있으며, 좁으면 좌우 양측에서 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지금의 법식을 참고하여 타구의 벽돌을 깎아서 볼록한 등을 만들되, 이 벽돌은 유사시에 뾰족하게 자르면 안 된다. 그 이유의 하나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비용과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벽돌을 만들 때에는 끝이 뾰족한 모형을 이용해 긴 것과 짧은 것 두 종류로 만들어서 쌓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그 타구 아래는 몸체는 높이를 3척으로 하고, 타구의 위는 높이를 3척으로 하여 모두 6척이 되도록 한다.

垛口磚制, 長若干橫可得長之半, 橫若干厚可得橫之半, 庶縱橫六面整砌, 皆成方乃可久. 尖磚自尖作尺寸, 常見城垛, 有自垛根躲成山字形者, 失之大闊, 賊登不可禦, 身無所庇, 矢石不能當. 若垛口內外平直, 大則人身可入, 小則不能左右射, 必照今式, 將口磚削爲脊. 此磚不可臨時砍尖, 一則易朽, 一則費工. 須於造磚時, 卽用尖模, 長短二種, 以便砌手. 其垛下身高三尺, 口上高三尺, 共六尺.

65 任 : 저본에는 '仕'로 되어 있으나 『무비지』 권110, 「군자승 성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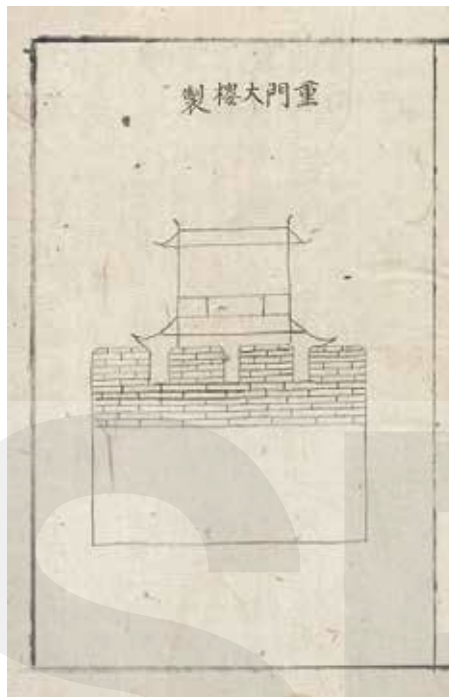
전식·침장전·침단전·타구

■ 13 중문대루제(重門大樓製)

성곽 중문 위에는 반드시 누대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위엄을 세워 외부의 적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키면서 망을 보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조도관(調度官)이 여기에 위치한다. 큰 누대는 성문[裏層門]⁶⁶의 위나 본성의 위에 둔다. 반드시 호화롭고 아름답게 하며 장엄하고 위엄있게 꾸미되, 또한 반드시 튼튼하고 두터워서 화살과 포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평시에는 올라가서 뛰어난 지세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한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처마가 드넓은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다만 2층은 판자 한 겹으로 하여 멀리 살펴보

66 성문[裏層門] : 『여지도서(輿地圖書)』 하(下)에 2차례 보인다. 실록에는 대부분 건축 용례가 많은데, 고종 대의 용례는 군사적 용법 용례이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것을 나타내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건축 용례의 경우, 단층문(單層門)과 대비되어 사용하거나 앞에 '외'나 숫자 등을 표기하여 비교하여 표현한 경우가 있다.

는 것과 화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대개 중문이 없는 것은 외루문과 같다.



중문대루제

城重門之上必有樓，一以威外侮，一以便守瞭。調度官居之。大樓者在裏層門上，大城之上，必用華麗以壯威，又必用堅厚以防矢砲。平時可爲登覽形勝之資。貴在軒豁簷。只二層板一層，庶便瞭望及用火器。凡無重門者與外樓門同。

■ 14 응성권문제(甕城券門制)

응성은 왕성(王城)의 크기에 따라 넓게 하거나 좁게 하고 문 위에 적루를 설치하지 않아서 왕성의 가로로 세워야 적을 막을 수 있다. 응성의 높이를 굳이 왕성보다 낮게 할 필요는 없다. 응성이 낮고 왕성이 높으면 적이 왕성으로 오를 수 있으니 이를 막는다 해도 누가 못 오르겠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루를 설치하는 것인데 적루는 반드시 성벽에서 똑바로 벽돌을 쌓아 올리되 높이 몇 장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드시 처마는 만들지 말 것이며 창문은 네모꼴로 넓게 만들어 두 사

람의 몸이 한꺼번에 드나들 수 있게 한다. 적루를 만드는 제도는 모나게 한다거나 길게도 하고 혹은 2층이나 3층으로도 만든다. 층마다 판자 간의 거리는 반드시 9척이 되게 하여 화살이나 돌, 화기들을 비치해 둘 수 있게 한다. 앞의 구멍과 아래 창문을 받치고 있는 대를 아주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지 않더라도 죽 펼쳐 늘어져 있게 만들지는 않는다. 단 성면(城面)의 웅성에서 적이 왕성의 입구로 들어온다면 성벽의 문호를 폐쇄하고 목대(木臺)를 전봉(戰棚)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루의 아래층에 네모난 구멍 2개를 이용해서 그 밑의 적을 끌어들일 수 있다. 적루 위의 구멍 3개를 이용해서 그 힘을 쓸 수 있다. 만약 벽돌로 등글게 한다면 더욱 좋다. 또한 그 사이에 화하창(花下窓)을 두어서 화살과 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 때 아래층에서 방어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웅성권문제

甕城約正城大小爲廣狹, 門上不用敵樓, 以有正城橫立, 可禦也. 甕城高, 必不減 於正城. 或謂甕低城高, 賊即登可於正城, 禦之孰如使不得登乎. 敵樓必自城

牆直起磚砌，不拘幾丈，必不可用簷，窓用方闊，可出兩人之身，樓製或方或長，或二層或三層，每層板相去必九尺，庶可施矢石火器。前眼下窓臺貴矮，非矮不得展布，但於城面自甕城入正城之口，加以截堵門戶，用木臺爲戰棚可矣。敵樓下層用眼二者，以其低賊可板也。上用三眼者，以其可施力也。若闐用磚券尤妙，且間花下窓，矢石自上而下，不妨礙下層防禦人。

■ 15 기성포(騎城鋪)

치 하나에 포루 하나씩을 만들어 치두가 밖으로 튀어나와 성의 면적이 더 넓어지므로 포루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혹은 두 개의 치 가운데에 25개의 타가 있으면 다시 작은 포 하나를 더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이 좁으면 성안의 흙을 가지고 담을 쌓아 다시 뒤를 붙쭉 튀어나오게 하고 길이를 약간 더 길게 하여 포의 기반을 수용할 자리를 만들되, 성 위의 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 성 위의 길의 기준은 본성의 경우에 포는 반드시 세 기둥의 깊이가 2장 6척이어야 하고 작은 성의 경우에 한 기둥의 깊이가 1장 2척이어야 한다. 만일 성이 좁아서 대를 만들기가 불편하면 기성포(騎城鋪)나 주마포(走馬鋪)를 만들기도 하는데 바깥쪽은 적루를 만드는 법과 같이 벽돌을 사용하여 똑바로 쌓아올리되 전안(前眼)⁶⁷을 만든다. 기성포 안쪽에는 기호(綺戶)를 만드는데 성을 뚫어서 벽돌로 쌓아올려서 말을 타고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혹은 그 위에 적루를 한 층 더 올리면 더욱 좋다. 대개 성포는 이 기성포와 같지 않으니 묘하다.

每對一雉，爲一鋪，因雉出頭，則城面可寬，不礙建鋪也。或於二雉之中，二十五垛，再加一小鋪，亦可。如城狹，將城內土牆再突後若干，長若干，以可容鋪基，不礙城面路。爲准大城，鋪必三楹深，一丈六尺，小城，一楹深，一丈二尺。若城狹，加臺不便，或爲騎城走馬鋪，外面照敵樓，用磚直起，開箭眼。內面開綺戶，穿城爲磚券，可以騎乘而過。或上加一樓板更妙。凡城鋪，不若此騎爲妙。

67 전안(前眼) : 활을 쏘거나 망을 보기 위한 구멍이다.



기성포

■ 16 우마장제(牛馬牆製)

우마장은 성 밖의 해자 가장자리 안쪽에 만든다. 대개 성의 몸체에서 해자 가장자리까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좁으면 1장, 혹은 8척으로 해도 모두 괜찮으나, 너비가 2장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그 밖에 담장을 쌓는데, 벽돌이나, 돌, 흙으로 쌓거나 또는 삼합토(三合土)⁶⁸도 괜찮다. 우마장의 몸체는 치 하나와 마주하게 하는데, 아래로는 대장군총 구멍 하나를 만들되 사람의 몸이 뚫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한다. 대체로 이 우마장은 높이가 3척이고 평면으로 5척마다 작은 소총 구멍 하나를 만들어 낭기(狼機)⁶⁹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 구멍마다 위에는 두 장이 맞붙는 벽돌을

68 삼합토(三合土) : 석회, 모래, 진흙을 물에 섞어 만든 건축 재료이다.

69 낭기(狼機) : 조선시대 화포(火砲)의 한 가지로, 불랑기(佛狼機)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명(明)나라 군사가 가지고 온 포르투갈의 대포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엿혀 3촌 높이에 2촌 너비로 밖을 감시하기 편하게 하면 높은 곳을 이용해 아래에 적을 대응할 만하다. 이 구멍보다 2~3척을 더 높여서 또 한 층의 구멍을 만드는데 크기는 앞서 말한 것과 같다. 다만 이 구멍에서는 수총(手銃)만을 사용할 수 있고 낭기 등의 대형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구멍이 겨우 1촌인 경우에는 구멍 위에 장안(長眼)을 두되 3촌 정도로 하여 구멍에서 밖을 감시하기 편하게 한다.

우마장의 허리부분 정도에 도끼날 모양의 벽돌을 사용하여 적이 서 있지 못하게 한다. 백만의 군대가 공격해 오더라도 와서 해자를 마주하고 있다면 우마장의 작은 구멍에서 총을 쏘아 격퇴한다. 적의 수가 많으면 큰 구멍에서 대장군 총을 이용해 격퇴한다. 적이 이 담장에 오를 때에 자루가 긴 큰 도끼, 혹은 큰 곤봉으로 일격에 떨어뜨리면 적이 다시 몰래 습격해 올 우려가 없다. 이는 왜적과 산적의 공격을 겪으면서 누차에 걸쳐서 시험하고 누차에 걸쳐서 효과를 본 것으로, 예를 들어 선유현(仙遊縣)⁷⁰ 등과 같은 경우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시채(蓍蔡)⁷¹처럼 여겨 충분히 본받을 만하다. 수비하는 방법은 뒤에 둔다.

혹은 군민을 일시에 미쳐 다 수습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두운 밤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함부로 성문을 열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피난해 온 사람이나 소와 말 등이 잠시 이 우마장 안으로 들어와서 피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우마장은 성을 의지하여 요새가 되고, 성은 이 우마장을 호위로 삼는다. 위태롭고 급박할 때 성 위의 사람이 있으면 힘을 도와 위세를 떨칠 것이니, 만약 우마장을 지키는 사람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성 위의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쳐서 죽인다. 이것이 우마장이 쓸모 있는 이유이다. 수심이 깊고 해자가 넓은 성에 우마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피난한 사람들을 굳이 성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해자가 없거나 물이 없는 해자 안에서는 이 우마장에 의지함이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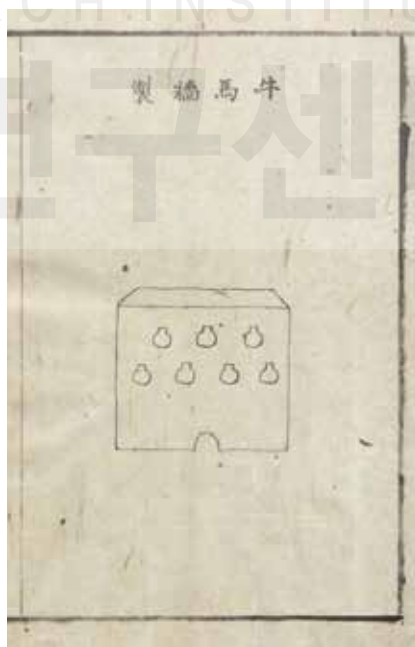
우마장이 있는 성 해자의 너비는 반드시 3장 5척이며,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수심은 반드시 1장 5척 혹은 2장이며 그보다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 물이 있으면 제일 좋고, 물이 없으면 그다음으로 치며, 물이 깊어서 진흙에 빠지게 되는 것은 더욱 좋

70 선유현(仙遊縣) : 푸젠성[福建省] 동부 무젠현의 현공서 소재지를 말한다.

71 시채(蓍蔡) : 시귀(蓍龜)라고도 하는데, 점을 칠 때 쓰이는 시초(蓍草)와 거북 껍질을 말한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점을 쳤는데, 거북의 껍질로 점치는 것은 복(卜)이고, 시초(蓍草)로 점치는 것은 서(筮)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의 자문 역할을 하던 학자나 신하들을 시채, 시귀에 비기기도 하였다.

다. 물이 얇고 진흙이 단단한 것은 그다음으로 치는데, 경비하는 물속에는 찢릴 수 있는 대나무와 철 등으로 만든 꼬챙이를 가설하니 모두 좋다.

성의 외부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되니 마땅히 베어 버려야 한다. 나무가 성 가까이 있으면 방어에 더욱 장애가 된다. 성내에 말이 다닐 길이 없으면 안 된다. 성 밖 3장 이내에 가옥이 있으면 그곳에 적의 세력이 들끓어도 이 가옥을 철거해야 한다. 미처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 이를 불태울 때 나무 벽일 경우에는 일단 완전히 태워 버리면 당일로 바로 성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벽돌로 벽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적이 멀리에 있으면 거주하는 백성이 태우라는 명령에 불복하기도 할 것이다. 적이 그 가까이 있으면 태우고 헐어내는 작업을 멈춘다. 적 수백 명이 건물 잔해에 매복해 있다가 성을 지키는 병사를 사격하거나 적의 무리가 건물 잔해를 지나 장벽을 통과하여 사다리를 가지고 성 아래에 도착하면 곧바로 올라오고, 백성들이 사는 민가에서 흙을 가져다가 성의 가장자리로 운반해 성문을 기어오르기도 할 것이니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이들 구조물들이 성곽 근처 1장 이내에 있거나 성의 몸체가 집보다 낮을 경우,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성이다.



우마장제

此牆在城外濠岸內, 凡城身下濠岸不拘寬狹, 狹卽一丈或八尺皆可, 寬不可逾二丈. 於其外爲牆, 磚亦可, 石亦可, 土築亦可, 三合土亦可. 牆身每對一雉, 下底開一大將軍銃眼, 以不能鑽入人身爲度. 凡此牆每高三尺, 平去五尺爲一小銃眼, 可容狼機. 每眼上加一直縫, 可三寸高二寸闊, 以便眼瞭, 可以高下應賊. 自此眼高之再三尺, 又眼一層, 寬狹如之. 但此眼只用手銃, 不用狼機等大火器. 眼只一寸, 眼上開長眼三寸, 以便眼瞭. 如牆之脊, 用斧刃磚石, 使不可立. 任賊百萬來攻, 對濠則以銃於小眼擊之, 賊衆則用大將軍於大眼擊之. 賊登此牆, 或用長柄大斧或大棍, 一擊而落, 再無偷襲之虞矣. 此屢經倭賊山賊攻打, 屢試屢效者, 如仙遊等縣, 可爲蓍蔡足法也. 守法在後.

或一時收斂不及, 或昏夜難辨不敢開門, 一應避難之人牛馬之類, 皆可暫於牆內收避, 兼此牆恃城爲險, 城以牆爲衛. 緩急有城上人, 可以助力張威, 若守牆人不用命, 城上衆目所視, 經可擊死也. 此所以牛馬牆爲有用之物. 施之水深河寬之城, 尙不見其力, 而避難之人可以不必入城矣. 施之於無濠及無水之濠內, 萬分倚賴.

此牆城河闊必三丈五尺, 愈闊愈好, 深必一丈五尺, 或二丈, 愈深愈好. 有水爲第一, 無水者次之, 水深泥陷者更妙. 水淺泥硬者次之. 臨警水中, 加以刺柴竹籤鐵鋒皆妙. 城忌外有大樹宜伐之. 近城尤礙防禦. 城內無馬路不可. 城外三丈內有房屋, 賊勢衆, 撤之, 撤不及, 則焚之. 係木壁者, 一焚而淨, 卽日可守. 係磚石爲壁者, 賊遠則居民不服, 賊近則燬毀不前.⁷² 若賊以百數伏屋脊外, 射擊守城人, 賊衆將屋內打通牆壁, 扛梯木到城下, 可以徑登, 或就民房中運土幫城, 起闌而登, 皆無可奈何. 有近城一丈以內者, 城身又低於屋, 此不守之城也.

■ 17 돈후제(墩堠製)

돈대 1좌에 작은 방 1칸, 상관 1부(副), 과조(鍋竈) 각 1개, 물 항아리 1개, 밥그릇 5개, 접시 5개, 쌀 1섬, 소금에 절인 소채[鹽菜], 종화분(種火糞)⁷³ 5짐, 불씨 1쟁반, 초가(草架) 3좌, 각각 초가의 높이는 1장 5척으로 하며, 사방의 너비는 모두 1장이고,

72 前 : 저본에는 '燬'로 되어 있으나 『무비지』 권110, 「군자승 성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73 종화분(種火糞) :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묻어 두는 데 쓰는 짐승의 똥이다.

땅에서 5척 높이로 띄워서, 나무를 이용해 옆으로 누각을 지어 풀과 섶이 땅에 닿지 않아 비에 젖지 않게 하고, 위에는 벧짚으로 이엉을 덮어 가옥의 형태로 만든다.

돈대의 법에 낭연(狼煙)⁷⁴을 쓴다고 하는데, 남방에는 낭분(狼糞)이 적어 연기와 불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한 줌의 풀을 태운 연기는 오래가지 못해 10리 밖을 넘어가지 못하니, 어찌 눈에 보이겠는가. 게다가 짙은 흙비나 날이 어두우면 어떻게 멀리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큰 초가집을 세워서 풀과 섶을 쌓아 불의 세기를 강하고 오래가게 만들어, 인접한 돈대에서 서로 보고 알 수 있게 한다. 그 모옥 아래에는 풀과 섶을 균등하고 알맞게 하고, 섶 한 층 풀 한 층씩 해서 가득 채운다. 이상은 모두 군사들이 준비한다.



돈후제

74 낭연(狼煙) : 이리의 똥을 불태워 나는 연기인데, 고대에 변방에서 군사에 관련한 일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하였다.

墩一座, 小房一間, 床板一副, 鍋竈各一口, 水缸一箇, 碗五箇, 碟五箇, 米一石, 鹽菜, 種火糞五擔, 種火一盤, 草架三座, 每架務高一丈五尺, 方四面俱一丈, 離地五尺高, 用木橫閣, 使草柴不著地, 不爲雨濕所浥, 上用稻草苫蓋⁷⁵如屋形.

墩法舉狼煙, 南方狼糞既少, 煙火失制. 拱把之草, 火燃不久, 十里之外, 豈能目視. 且遇陰霾晝晦, 何以瞭望. 故必用立此大茅屋. 積草柴既多, 火勢大而且久, 庶鄰墩相望可見. 其屋下草柴, 務相均停, 一層柴一層草, 填實盈滿. 以上俱軍採辦.

■ 18

대총 3구【잔구(盞口), 직구(直口), 완구(碗口), 영자(纓子) 모두 관찮다.】, 백기와 흑기 1면, 등룡(燈籠) 3잔【백지를 펼칠하고 대략 너비는 1척 5촌이고 길이는 3척이 되게 한다.】, 대목방(大木梆)⁷⁶ 1가(架)【길이는 5척이고 속을 6촌 깊이로 파는데 소리가 잘나는 단단한 나무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깃대 2근(根)을 돈대 위의 좌우에 세우고, 깃발 줄 2부, 불 피울 마른 벼짚 300속【풀은 1좌가 100속인데 3좌이니 모두 합쳐 300속이다.】, 화승 3조, 불화살촉과 부싯돌 1부.

大銃三口,【盞口, 直口, 碗口, 纓子皆可.】白旗一面, 黑旗一面, 燈籠三盞,【白紙糊, 務要粗經一尺五寸, 長三尺.】大木梆一架,【長五尺, 內空六寸深, 要性響體堅之木.】旗杆二根, 立於墩上左右, 旗繩二副, 發火乾稻草三百束,【每草架一座一百束, 三座共三百束.】火繩三條, 火鑷火石一副.

■ 19

여곤(呂坤)⁷⁷의 『실정록(實政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체로 성은 너무

75 蓋 : 저본에는 ‘승’으로 되어 있으나 『무비지』 권110, 「군자승 성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76 대목방(大木梆) : 『연행록선집』, 계산기정 제5권에서는 목방을 박자 치는 나무라고 한다. 『청장관전서』 제15권, 아정우고 7, 서1에서는 방자(梆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목부(木部)에 이 글자가 없으니 혹 중국 사람의 봉(棒) 자의 속용(俗用)인지 모르겠네. 병서를 읽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단단한 나무로 만들되 속이 텅 비게 만드는데, 낮에는 말 먹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밤에는 두들겨서 소리를 내어 경계한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네. 그 후 복건(福建)의 수병(水兵)에 대한 절목(節目)을 보았는데, 늘 목방(木梆)과 금탁(金鐸)을 대거(對擧)해 놓았으니 아마 이것이 조두(刁斗)의 유일 결세.”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1월 30일(정유)에서는 “연대에서 번고를 알릴 때에는 연화(煙火)를 쓰지 않고 목탁만 치는데”라고 하여 목방을 목탁으로 번역하였다.

77 여곤(呂坤) : 1536~1618. 명 대 문신으로, 자는 숙간(叔簡), 호는 심오(心吾) 또는 신오(新吾)다. 양원지현(襄垣知縣), 우첨도어사(右僉都御使), 형부시랑(刑部侍郎)을 역임하였다. 원기론(元氣論)을 주장했고, 양지양능설(良知良能說)을

크면 안 되니 성이 너무 크면 성을 지키기 어렵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되니 성이 낮으면 적이 쉽게 올라온다. 큰 성은 아랫너비의 두께를 5장으로 하고, 윗너비는 2장 5척으로 한다. 작은 성은 아랫너비의 두께를 3장으로 하고, 윗너비는 1장 5척 높이는 반드시 3장 5척으로 하고 아무리 낮아도 3장 이하로는 낮추지 않는다. 성 바깥은 가파르게 하고 안은 비탈지게 한다. 타두의 높이는 6척, 너비는 7척, 사방의 평평한 모퉁이에는 도끼날로 찾아내 삼이 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타라는 것은 몸을 피하는 곳이다. 대체로 비스듬한 타는 우리가 적을 망볼 수 있게 하고, 적 역시 우리를 향해 사격할 수는 있지만 몸을 숨길 수는 없다.】타에서는 구멍을 쓰지 않고【이 구멍은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질 수 없고, 적을 엿보는 것 역시 타에 의지할 수 없다.】3척 크기로 타의 입구를 만드는데, 두께는 2척 5촌이고, 높이는 가슴높이 정도로 만들며【입구가 좁고 작으면, 적이 위로 올라올 수 없지만 우리도 머리를 내밀 수 없다. 입구가 높고 두꺼우면 비록 단단하고 오래가서 믿을 만하지만 우리도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다.】타의 입구 담 밑 아래에 천정(天井) 한 개를 만드는데, 둘레는 1척이고【너무 크면 적이 힘을 얻고, 너무 작으면 우리가 불편하다.】곧바로 성 밑과 통한다. 한눈에 곧바로 성벽의 아래쪽을 살필 수 있고, 동그란 돌을 구멍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월산(月鑊)을 올려다보고 구간(鉤杆)⁷⁸을 부서뜨리고 사다리[雲梯]⁷⁹를 켤 수 있다. 삼자창(三刺鎗)을 사용할 수 있고, 쾌창으로 칠 수 있으며 화살을 쏘고 불을 당기고 오물을 뿌릴 수 있다. 천정을 만드는 방법은 아래는 둥글고 위는 네모꼴로 만든다. 네모난 입구의 가로는 2척, 길이는 2척 반이다. 적병이 성벽을 넘어 올 경우에 제일 먼저 이 천정에 발이 빠지게 된다. 적의 발이 미쳐 안정되지 못

반대하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학지(學知)를 강조했다. 동림학(東林學)과 가까웠다. 저서로는 『거위재문집(去僞齋文集)』과 『신음어(呻吟語)』, 『사례의(四禮疑)』, 『사례익(四禮翼)』, 『사례약언(四禮約言)』, 『교태운(交泰韻)』, 『음부경주(陰符經注)』 등이 있다.

78 구간(鉤杆) : 갈고리같이 약간 휘어지게 만든 난간이다.

79 사다리[雲梯] :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11, 38~39쪽. 성곽전에서 공성무기로 성을 공격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병기로 문제라는 기구가 있다. 목자에 의하면 문제를 발명한 사람은 노(魯)의 공윤반이라고 한다. 모양은 목재로 틀을 짜고, 그 좌우에 3개씩 즉 6개의 바퀴를 달아 굴리게 되어 있다. 수레의 앞쪽에는 굽직한 두 개의 높은 기둥을 세우고, 뒤쪽의 바닥에서부터 비스듬하게 계단을 만들어서 하단의 기본 사다리를 만들고, 그 상단을 접었다 펼 수 있도록 2단계의 사다리로 하였다. 평상시에는 상단의 사다리는 접어 끈으로 묶어 두나, 필요시에는 상하 사다리를 펴서 세워 높게 하여 성벽에 걸쳤다. 사다리의 높이는 대개 6m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이보다 다소 긴 것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하부에는 4인 정도 병사가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부에는 보호되게 칸막이를 하였으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를 성벽 쪽으로 옮겼다. 문제의 외부에는 적의 화공에 대비하여 소의 생가죽을 붙이기도 하였다.

했는데 손을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겠는가, 우리는 바로 그들을 죽인다. 이 구멍은 평소에는 돌로 눌러둔다. 다만 물이 흘러가도록 하려면 이것을 열어두되 돌에 구멍을 내면 더욱 좋다.

呂坤實政錄曰, 凡城不宜大, 大則難守城. 不宜卑, 卑則易登. 大者根厚五丈, 頂濶二丈五尺. 小者根厚三丈, 頂濶尤五, 高須三丈五尺, 卑亦不下三丈. 外峻中陂. 堞頭高六尺. 濶七尺. 四平方角 勿起麻查斧刃.【堞者, 躲也. 凡斜堞我能望賊, 賊亦能射我, 不能躲矣.】堞不用眼,【此眼不能發矢石, 且窺賊亦無賴此.】三尺爲堞口, 厚二尺五寸, 高與心齊,【口隘小, 雖賊上爲難而我不能出頭. 口高厚, 雖堅久加持而我不能下視.】堞口牆根之下, 留天井一箇, 圓經一尺.【太大則賊得力, 太小則我不便.】直通城下. 一眼, 直看城根, 可落升口圓石, 可容仰月鏟斷鉤杆摧雲梯, 可使三刺鎗, 可打快鎗, 發箭用噴火噴糞. 天井之製, 下圓上方, 方口橫二尺, 長二尺有半. 賊卽上城, 先投井中, 足不及定, 手安得施, 我卽殺之矣. 此眼平日以石推壓, 但可流水用則開之, 鑿石更妙.

■ 20

성을 지킬 때, 문은 좌우 2개의 문으로 닫는다. 우리가 발을 헛디디는 것을 방지하려면 타의 입구는 고강(鼓腔)과 유리로 만들되 벽돌의 두께는 1척이다. 구간(鉤杆)은 미끄럽게 해서 붙잡을 수 없게 한다. 적대는 사방 3장이며, 각 면의 타의 입구 6개는 70보에 하나씩 만들되 대 하나를 세워【멀면 화살과 돌이 무력해진다.】궁전(弓箭)과 화창(火槍)을 잘 쏘는 고수를 모두 배치한다. 적대 위는 바로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곳이니, 연환·화살·화약의 경우는 반드시 충분하게 갖추어서 2개의 적대에서 서로 교대로 쏘아 적을 공격한다. 그렇게 하면 양 적대의 사이에 비록 타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적 또한 감히 올라오지 못한다.

守城時, 以門二扇蓋之. 防我失脚, 堞口用鼓腔疏離, 磚厚一尺. 鉤杆滑不可着, 敵臺方三丈, 每面六堞口七十步, 立一臺,【遠則矢石無力】弓箭火槍高手俱置. 臺上以便矢石交及, 鉛箭火藥須備百倍, 兩敵臺交相射打, 則兩臺之間, 雖守堞無人而賊亦不敢登矣.

성 밑의 흙이 단단하다면 1장만 남겨 놓고, 아래쪽에는 해자를 판다. 해자의 깊이는 3장이고 입구의 너비는 10장이며 바닥의 너비는 3장이다. 성 밑이 좁으면 적이 발 디딜 만한 곳이 없다. 또한 해자를 깊게 파서 성을 높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해자의 바닥 10보마다 둥근 우물 하나를 파는데 입구의 너비는 1장이고 깊이는 1장이다. 이것을 중연(重淵)이라고 하는데 샘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없으면 바깥의 강물을 끌어오거나 성안에 비가 많이 와서 생긴 물을 끌어와 1장 깊이를 항상 유지하게 한다.【만약 성 밑의 토맥(土脈)이 견고하지 않으면 성 밑의 외부는 반드시 3에서 5장 정도를 유지하게 한다.】해자의 양쪽 주변에 나무와 풀을 많이 심어서 뿌리가 자리를 잡게 하여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 버티게 한다.【이들테면 마란(馬蘭, 쑥부쟁이), 모근(茅根), 갈대, 향부(香附), 맥문동 등과 같은 것들이다.】해자 밖의 흙이 높은 언덕이 되지 않게 하여 해자가 메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품교(品窖)⁸⁰를 만들어서 군마만 빠뜨린다.【최근 성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성 밑에 단장(短牆)을 두고 단장의 구멍에 창이나 대포, 화살을 배치해 두고 적을 쏘아 물리치는데, 적은 우리를 볼 수 없어 매우 좋은 법이다. 반드시 성 위의 사람은 3배가 되어야 그 반을 나누어 단장을 지킨다. 그런데 갑자기 포와 화살을 다 써버리면 적이 담장을 따라 공격하여 담장을 잃게 되니 장차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성의 구멍은 급하게 들어가야 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적 또한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올까 염려스럽다. 높은 성을 그대로 지키는 편이 낫다.】해자 밖 1리 안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하나는 적을 감시하는 구멍을 가려서 적은 잠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볼 수 없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적이 작은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 몇 그루를 뽑아 성 위에 기대어 이것을 타고 성으로 올라올 수 있어서다. 또 해자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물을 건너올 수도 있다.】

城根土堅止留一丈，下面卽挑池。池深三丈，口濶十丈，底濶三丈。城根窄則賊無處容足，又池深以助城高，池底每十步，鑿一圓井，口濶一丈，深一丈，謂之重淵，及泉更好，不則外引河水，或內引城中雨潦之水，常令丈深。【若土脈不堅，城

80 품교(品窖) : “品”자처럼 파서 만든 웅덩이나 함정을 말한다.

根之外, 須留三五丈。】池兩崖多栽盤根宿草, 以耐崩坍。【如馬蘭, 茅根, 蘆草, 香附, 麥冬之類。】池外不用高阜之土, 以防填濠, 但爲品窖以陷戎馬。【近日守城, 多用城下短牆, 留槍砲矢孔, 以射打賊, 而賊不能見我, 甚爲良法。須城上之人三倍, 則分其半以守短牆。倘砲矢已盡, 賊順牆旁攻, 短牆失守, 將置此人於何地。或云穴城以備急入, 恐賊亦從之八矣。不如徑守高城爲便。】池外一里之內, 不可栽樹。【一蔽望賊之眼, 使賊得以潛伏, 而我不見, 一小樹砍倒救株, 倒倚城上, 可以緣登。又橫驛池中, 可以涉水。】

■ 22

성문에는 반드시 조교(弔橋)⁸¹가 있어야 하니 다리의 너비는 3장이다. 【조교를 만드는 방법은 기교를 만드는 것과 다르니 적의 말을 빠뜨릴 수 있다.】성문은 편안하게 마을 가운데에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외부에 있어서 적이 몸을 숨길 곳이 없어야 한다. 만약 원래 마을 안에 문이 있는 경우라면 성문의 위에 벽돌로 오성지(五星池)를 만드는데 생긴 모양은 돼지 구유와 같다. 길이는 좌우 양쪽 문의 길이와 맞게 하고 깊이는 2척, 너비는 1척 정도이고 5개의 구멍을 내는데 그 크기는 뒷박 정도이고, 땅에서 높이 1척 정도 올라간다. 적이 성문에 불을 지르면 물을 아래로 쏟아 부을 수 있고 쾌창(快鎗)을 던질 수 있고, 화살을 쏠 수 있고, 돌을 굴러 떨어뜨릴 수 있다. 성안에 담을 의지해 성 위를 오르내리도록 등도(蹬道)⁸²를 많이 두는데 반 리를 1좌로 해서 급한 때 왕래하기 편리하게 한다. 지금 각처의 성내에는 다만 문 네 개와 길을 네 갈래만 두었으니 매우 잘못된 계획이다. 등도마다 반드시 문을 하나 두어서 적이 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 위에 오는 적을 방어할 때 사격하고 쏘는 것이 편하다. 성 위의 내란장(內欄牆)은 가슴높이 정도로 하면 성으로 진격하는 적을 막을 때 무기를 쏘아서 물리치기에 편리하다.”⁸³

城門須有弔橋, 濶三丈。【作弔橋, 不如作機橋, 可陷虜馬。】城門不可安在洞中,

81 조교(弔橋) : 달아맨 다리이다. (『중종실록』 권51, 중종 19년 8월 9일(신축)) 혹은, 조교는 “중국에서는 대개 평야에 성을 쌓았으므로, 성 밖의 들레에 깊은 못을 파고 오직 성문 있는 곳만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는 들었다 놓았다 하게 되었으므로 매단 다리[弔橋]라 한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 창원도호부(昌原都護府))

82 등도(蹬道) : 성이나 산 등을 오르기 위하여 돌을 쌓아 만든 길이다.

83 대체로……편리하다 : 이상의 내용은 여곤의 『실정록(實政錄)』 권9에 보인다.

常宜近外, 使賊無所容身. 若原在洞中安門者. 城門之上, 以磚砌五星池, 狀如猪槽. 長通兩扇門面, 深二尺, 濶一尺, 留五孔, 大如升, 高地一尺. 賊以火焚門, 可以下水, 可以放快鎗, 可以射箭, 可以擗石. 城內附牆多留蹬道, 半里一座以便急時往來. 今各處城內止有四門四路, 甚爲失計. 每蹬道須留一門以防賊入登城. 城上用內攔牆高與心齊, 以防進城之賊, 便於射打.

■ 23 오성지(五星池)

오성지는 적이 성문에 불을 붙이면 물을 아래로 쏟아부을 수 있고 겸해서 쾌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곳이다.

五星地. 此池, 遇賊用火焚門, 可以下水, 并放快鎗射箭擗石.



오성지

곽자장(郭子章)의 『성서(城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성벽의 정면은 내려다 보기에 불편하니 그것은 적병이 화살이나 탄환으로 정면을 공격할까 두려워 감

히 멀리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이 성 밑까지 가까이 공격해 와서 마음대로 한다. 지금의 성들의 경우 구태여 화살과 탄환으로 공격할 것 없이 창과 같은 무기로도 충분히 위로 찌를 수 있다. 오로지 높은 대(臺)를 이용해서 양편을 돌아보며 적을 협공하면, 적이 곧바로 성벽 아래까지 접근하지 못할뿐더러 구불어지거나 비껴서 날아가는 활과 탄환을 가지고는 우리 적대 위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힘껏 적들과 맞설 수 있다.

郭子章城書曰, 城牆正面, 不便俯視, 恐其矢彈正面對攻, 不敢眺望. 故賊得以攻逼城下, 任意施爲. 如今之城, 且不必矢彈對攻, 雖鎗箭亦上刺有餘矣. 全仗高臺, 兩邊顧視夾擊, 賊不得直至城下, 且又不能屈矢斜彈, 以傷我臺上之人. 故我得以放心肆力敵賊也.

■ 24

이를 적대(敵臺)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렇다. 만약 성에 적대가 없으면 성이 없는 것과 같고 적대가 있어도 그 제도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면 대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성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며 적대가 또한 이 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적대를 만드는 제도는 적대의 전체가 성벽 바깥쪽으로 길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옆으로 넓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대의 하부 터의 길이는 1장 5척이니 그렇다면 윗부분은 1장 1~2척 정도에 그친다. 대의 터 가로 너비는 1장 2척이니 그렇다면 윗부분은 8~9척 정도에 그친다.

謂之曰敵臺, 其義以此. 有城無臺亦如無城, 臺非其制亦如無臺. 是城所以衛人, 敵臺又所以衛此城也. 敵臺之制, 緊靠城之外身, 貴於長出, 不貴橫濶. 臺腳基長, 出一丈五尺, 則收頂止有一丈一二尺矣. 臺基橫濶, 一丈二尺, 則收頂止有八九尺矣.

■ 25

원래 성이 2장 높이이면 대는 성의 몸체에 비해 3~4척을 더 높인다. 성이 2장 높이가 아니면 대는 성의 몸체에 비해 5~6척을 더 높인다. 대 위 좌우 타의 담장은 허

리의 반쯤 되는 정도에 각각 3개의 타구를 만들고 입구의 너비는 1척 4촌으로 해서 돌을 던지고 화살과 탄환을 쏘기에 편하게 한다. 담장 아래의 중앙에 각각 둥근 구멍과 네모난 구멍 하나씩을 8촌 크기로 뚫어서 불랑기나 백자총을 쏘기 편하게 한다. 정면 한 쪽 타의 담장은 좌우의 담과 비교해 2척을 더 높이고 타구는 만들지 말아야 하니 정면에서 화살이나 총알이 날아오면 대 위의 사람이 다칠까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한 똑바로 일어설 수도 없기 때문이다.

原城有二丈高者，臺比城身再高三四尺。城無二丈高者，臺比城身再高五六尺。臺上左右垛牆，平腰之半，各開三垛口，每口要濶一尺四寸，以便拋打磚石放發矢彈。牆腳下中央，各開一孔方圓八寸，以便放打佛狼機，百子銃。正一面垛牆，比左右牆更高二尺，不宜開垛口，恐正面矢彈打入傷臺上人，則又不能站立矣。

■ 26

사람 머리가 닿을 정도의 높이에 둥글고 네모난 구멍을 6촌 너비로 4개 만든다. 담장 아래에 디딤돌을 놓아 두어서 불시의 일을 대비하고 위에는 기와를 덮은 집 처마를 각각 담장에서 2척쯤 나오게 하여 병사들이 안전하게 하고 또 화기(火器)들이 바람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대의 위치는 서로 간의 거리가 이삼백 보이거나 백여 보 혹은 칠팔십 보인데 그 성이 어떻게 굽어지고 곧바르고 돌아서 꺾어져 있는지에 따라 거리를 정해 굳이 구애될 필요는 없다.

止於人頭高處，開方圓六寸濶四孔。牆下置墊腳石，以備不時顧視，上蓋瓦屋簷各出牆二尺許，使兵夫得以安身，火器得蔽風雨也。各臺地步相去，或二三百步，或一百餘步，或七八十步，隨其城之屈直廻折以爲遠，不必拘泥也。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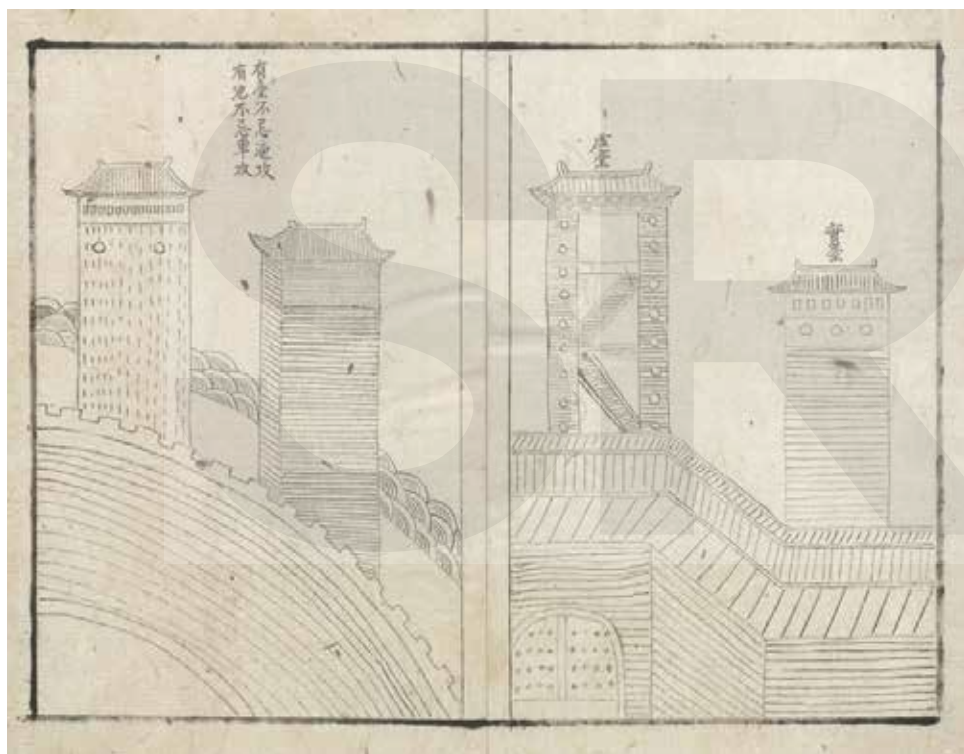
실적대를 쌓는 것은 허적대를 쌓는 것과 다르다. 쌓는 방법은 벽돌로 3면을 쌓고 그 가운데를 비운다. 내부는 2층으로 구분하여 널빤지로 누를 만들고 나무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린다. 층마다 구멍을 많이 뚫어 감시하기 편하게 하고 조총과 쇠뇌, 화살 등을 쏘기 편하게 해서 적이 적대 안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모르게 한다.

築實敵臺, 不如築虛敵臺. 其法用磚石砌三面而空其中. 中有二層以木板爲樓, 用木梯上下. 每層多置空眼以便窺覘, 以便放鳥銃弩箭之類, 賊不知箭矢出自敵臺內也.

■ 28 실대(實臺)와 허대(虛臺)

대(臺)가 있으면 성 가까이 공격해 와도 겁내지 않고, 해자가 있으면 전차의 공격에도 겁내지 않는다.

實臺虛臺 有臺不忌逼攻 有池不忌車攻



실대와 허대

■ 29 공심돈(空心墩)

공심돈 짓는 방법은 대부분 각 주변에 흙을 어떻게 채워 쌓는지에 달려 있다. 돈대 한 쪽 면에 줄사다리[吊軟梯]를 달면 돈군(墩軍)이 상하로 오르내리기가 아주 불편

하다. 항상 오랑개가 갑자기 닥치면 군사들이 상하로 오르내릴 수 없어서 봉수를 잘못 올리게 되니 오랑개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변경의 돈대 중에 도동(洶洞)이 있는 것은 드물게 보이고, 돌을 겹쳐 쌓고 벽돌로 감싼 공심돈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완성하기가 어려운데 비용과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경에서 우선하여 힘쓰고 있다. 내 생각에 돈대를 창설하는 좋은 방법은 이렇다. 먼저 공이로 터를 단단하게 다지고, 그 땅의 크기와 수용인원을 헤아리고, 어느 정도의 흙을 안팎에 더해 반듯한 형태로 만들되 아래 두께는 1장이나 8-9척으로 하고, 가운데의 두께는 5척, 주변은 위로 3척 정도 되게 하고 높이는 2장 5척, 작은 담의 높이는 5척으로 한다. 돈대 아래 작은 문을 하나 만들고 교파(菱把)를 베어 버리고 안의 높이는 1장 3척이고 주위에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 사다리 판목을 올리거나 돌과 흙을 두텁게 묻는다. 나무 계단을 만들어 2층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높이는 1장 2척이다. 4면에 각각 작은 문을 두는데 그 문의 양쪽을 얇게 깎아서 두 쪽으로 입구를 열고 바깥으로 총과 화살을 쏘는 판을 건다. 꼭대기에 작은 방 1칸은 밤낮으로 감시하는 곳이다.



공심돈

空心墩製, 各邊多係築實土, 臺一面懸吊軟梯, 墩軍上下, 最爲不便. 常虜賊促至, 不能上下, 致誤烽燧, 所被虜患, 由此故也. 僅見邊墩中淘洞者, 有磚包石砌空心者, 大都難完, 浩費工力, 乃邊境之首務. 愚思創墩良法, 先堅杵地基, 量其地大小容人, 表裏加把築土爲方形, 底厚一丈, 或八九尺, 中厚五尺, 近上三尺, 高二丈五尺, 小牆高五尺. 墩下開一小門, 剷去茭把, 內高一丈三尺, 週圍豎柱上棚板木, 或石土墊厚. 製木梯上二層, 一丈二尺. 四面各開小門, 挖薄兩旁開二方口, 外掛放銃箭板. 頂蓋小房一間, 晝夜瞭望.

■ 30

곤목과 뇌석은 많이 쌓아 둔다. 만약 적이 돈대를 공격하면 돈대 안으로 마을의 사람과 가축이 모두 들어오고 돈대 하층과 중층에서 돌과 총으로 공격하여 적이 가까이 오기 어렵게 한다. 만약 적이 주변으로 가까이 오면 봉화를 환하게 밝혀 적이 경계 내에 들어왔다고 알려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 봉수대에서 불을 피워 사방으로 연락해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상책이다.

多積滾木礮石. 如賊攻墩, 墩院人畜盡入, 此墩下層中層, 石銃并打, 賊難近前. 如賊近邊, 頂明號火, 傳入內境, 預備征戰. 煙火通達, 此迺固守上策也.

■ 31

보(堡)를 만드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제도대로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수성을 잘하는 사람은 천연의 지형을 이용해 지리의 유리한 점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적은 공격하지 못하고 구지(九地)⁸⁴ 아래로 숨는다. 옛사람이 말하길 ‘그 오전(五全)⁸⁵을 지키고 오패(五敗)⁸⁶는 멀리한다.’라고 했으며, 또 ‘아랫너비는 위보다 배가 넓어야 하며, 높이는 아랫너비보다 배가 높아야 한다.’라고

84 구지(九地) : 땅속 깊은 곳을 뜻한다. 송(宋) 문천상(文天祥)의 시 「정소촌(呈小村)」에 “구지에 우레 잠복해도 소리는 원래 있고, 천산에 달 감감해도 달빛 다시 밝으리라.[雷潛九地聲元在 月暗千山魄再明]”라고 한 구절이 보인다.

85 오전(五全) : 『백사집』에 성을 지키기 위해 갖춰야 할 5가지를 말하였는데 본문에서는 그중 2가지를 언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중(城中)을 둘러보면 무기와 군량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비록 들어가 지키려고 하여도 모두 확고한 뜻이 없다. 그러므로 병법에 이르기를, ‘성을 지키는 데에 오전(五全)이 있으니, 첫째는 성황(城隍)이 수리되는 것이요, 둘째는 기계(器械)가 구비되는 것이다.’ 하였다. 지금 본도(本道)의 재력은 이미 다 고갈되어 모두가 적이 침

했다. 지금의 민보로 어찌 이런 것을 알겠는가. 그러므로 3번째 규약이 보제⁸⁷인데 그 조목은 4개가 있다.

첫째는 땅에 담장을 두르는 것이다. 담을 설치할 땅을 구했다면 우선 담을 두르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크기는 제한하지 않으며 지형이 굽거나 곧은 것에도 구해질 것이 없다. 다만 안에 많은 군정(軍丁)을 수용할 수 있고, 밖에서 적이 안을 내려다볼 수 없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큰 것은 작은 것만 못하니 작은 편이 오히려 견고하고, 곧은 것은 굽은 것만 못하니 굽으면 지키기가 쉽다. 그러므로 송(宋) 예조(藝祖)⁸⁸는 조 한왕(趙韓王)⁸⁹의 성 도면을 붓으로 지우고 성을 곧고 반듯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금(金)의 점몰갈(粘沒喝)⁹⁰은 변성(汧城)을 한번 보고는 바로 공격하기 쉽겠다고 말했다.

또한 옛사람의 담장[垣] 짓는 법은 대부분 높이는 5장으로 하고 아랫너비는 2장 5척, 윗너비는 1장 2척 5촌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금의 민보는 대부분 높이는 1장 5

공할 수 없는 방어 태세를 먼저 갖추어 놓지 못한 형편인데, 한갓 백성들을 몰아서 성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만 한다면, 오늘날 이미 흠어진 인심으로는 사수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비록 천함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리(地利)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금(古今)에 걸쳐 모두 자상하게 논하였다. 그러니 참으로 먼저 백성의 뜻을 견고히 하여 와해되지 않게 하고, 수신(帥臣)을 잘 가려 임명하여 기계를 수리하고 군량을 저축하도록 하고서, 적이 오면 그들과 싸워서 형세가 당해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각각 그 성을 점거하여 굳게 지키고 들판을 깨끗이 치워 놓는다면, 이것이 비록 뛰어난 대계(大計)는 아닐지라도 또한 임시의 요술(要術)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항복, 『백사집』 제2권, 「전라도 산성도의 후면에 서하다[全羅道山城圖後叙]」)

86 오패(五敗) : 성이 함락되는 5가지를 말한다. “금성(金城)의 함고함은 한 도의 으뜸이니, 만일 몇 개의 군을 불러 모아 저축해 놓은 것들을 한데 모아 두고, 일이 없을 적에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땔나무를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번을 서고 휴식하면서 수어(守禦)한다면, 아무리 대적을 만나더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성은 만 겹의 산중에 위치하여 밖으로 제어하여 누르는 형세가 없기 때문에 다만 스스로 그 땅을 지켜 보전할 수만 있을 뿐, 적들이 두려워하는 정도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만인(萬人)의 군사가 아니면 지킬 수도 없으니, 현재와 같이 소수의 군사로는 힘이 되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병법에 이른바, 성은 크고 사람이 적은 경우는 바로 오패(五敗)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항복, 『백사집』 제2권, 「전라도 산성도의 후면에 서하다[全羅道山城圖後叙]」)

87 3번째 규약이 보제인데 : 모원의가 「무비지」 권114에서 윤경(尹耕)이 저술한 「향약새어(鄉約新語)」의 일부인 「보약(堡約)」을 인용한 내용이다. 「보약」은 보에 대한 규약으로 총 12장이다. 12가지 규약 중 3번째 규약이 보제라는 말이다. 12가지는 다음과 같다. “一約曰堡置, 二約曰堡勢, 三約曰堡制, 四約曰堡衛, 五約曰堡器, 六約曰堡蠹, 七約曰堡衆, 八約曰堡教, 九約曰堡習, 十約曰堡符, 十一約曰堡費, 十二約曰堡候”

88 예조(藝祖) : 문덕(文德)을 소유한 개국시조(開國始祖)라는 뜻으로,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나오는 표현인데 조광윤(趙匡胤, 927~976)을 말한다. 송을 창건했다(재위 960~976). 탁주(涿州) 사람으로 낙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처음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밑에서 벼슬하여 거란과 남당(南唐)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금군총사령(禁軍總司領)이 되었다.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과 귀덕군절도사(歸德軍節度使)를 지냈다. 세종이 죽은 뒤 북한(北漢)이 침입하는 위기를 당하자 공제(恭帝) 현덕(顯德) 7년(960) 금군에 의해 진교병변(陳橋兵變)을 거쳐 옹립되어 제위에 올랐다. 연호를 건隆(建隆)이라 했다.

89 조 한왕(趙韓王) : 조보(趙普, 922~992)를 말한다. 송 태조(宋太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이 컸고, 태종(太宗) 때에 태사(太師)가 되어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죽은 뒤 한왕(韓王)에 추봉되었다.

90 점몰갈(粘沒喝) : 완안 종한(完顏宗翰)의 본명(本名)이다. 금 태조(太祖)를 따라 요동(遼東)을 공격하여 황룡부(黃龍府) 50여 성을 함락하고, 뒤에 송(宋)의 번경(汴京)을 침범하여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을 북으로 납치해 갔다. 뒤에 진왕(秦王)에 봉해졌다. 시호는 환충(桓忠)이다.

척이고 성가퀴를 2장으로 더 만들고 아랫너비는 1장 남짓이며 윗너비는 5~6척 정도일 뿐이다. 담장이 너무 낮으면 화살과 돌이 쉽게 들어오고 성가퀴도 지키기 어렵다. 오랑캐가 근접해 성보를 공격하면 많은 돌을 날려 성가퀴가 파괴되니 수비 병력이 감히 담장에 서지도 못하게 되어 나중에는 적이 개미처럼 성벽에 붙어서 올라온다. 지금 담장 짓는 방법은 높이가 2장이고 성가퀴를 5척을 더하여 모두 2장 5척으로 한다. 옛 방식과 비교해보면 아래는 반이 되고 위는 넓혀 또한 그와 같으니 중도(中道)에 가깝다.

둘째는 적대이다. 담장을 둘러 세워 두었다면 우선 적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담장을 포기하거나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적대에 달려 있다. 담장이 비록 바르고 곧을지라도 적대가 있으면 지킬 수 있고, 담장이 아무리 구불구불해도 적대가 없으면 역시 포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대는 많아야 하니 많으면 담장을 지키기 쉽다. 또한 적대는 높아야 하니 높으면 사방을 공격하기에 불편이 없다. 옛 제도에는 적대의 높이와 담장의 높이가 같아서 담장의 높이는 5장으로 한다고 했다. 지금 담장은 겨우 그 반 정도이니 지금 대는 당연히 더 높여야 한다. 원년(元年)⁹¹에 여숙민공(余肅敏公)⁹²이 변방 담장의 적대에 대해 논하기를, ‘1리(里)마다 적대 하나를 설치해 화기의 공격 범위가 300보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화력이야 미칠 수 있겠지만 어찌 하나하나가 다 적중할 수 있겠는가. 공간이 너무 넓으면 파급력이 약해질 것이니 또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민보와 적대는 전연 제도에 맞지 않아서 그 병폐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각대는 본래 평면이고 수직이어야 되는데, 지금 동북쪽의 각대를 말해보면 북쪽 담장을 따라서 동쪽으로 대를 장척 정도 쌓아야 한다. 또한 동쪽 담장을 따라서 북쪽에도 장척 정도의 대를 쌓아야 한다. 만약 담장을 서로 이어지게 해서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동쪽 담장을 붙이면 다시 북쪽 담장에 붙일 수 없으며, 북쪽 담장을 붙이면 다시 동쪽 담장에 붙일 수 없으니 양쪽 담장을 모두 이어지게 하고 또한 반드시 대를 만들어야 한다. 3면에 담장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반이고 오로지 한 면에 하

91 원년(元年) : 여자준(余子俊, 1428~1489) 생전에 명 연호 원년은 3번이 있다. 즉 1450년(경태 원년), 1457년(천순 원년), 1465년(성화 원년)으로 언제인지 미상이다.

92 여숙민공(余肅敏公) : 여자준(余子俊, 1428~1489)이다. 청신(靑神) 사람으로 자는 사영(士英), 시호가 숙민(肅敏)이다. 병부 상서(兵部尙書)를 역임했다.

는 것이 배가 되어 경쇠⁹³모양으로 수직으로 꺾어 밖으로 향하는 것과 직각으로 허리를 꺾어 안으로 향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 담을 따라 수직으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또한 수직으로 꺾어 밖으로 향하지도 않았고 다만 두 담 사이에 흙을 쌓아서 비스듬하게 붙여서 올렸을 뿐이다. 땅의 위치가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만든 시도(矢道)⁹⁴도 모두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 적대는 담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화살이나 돌이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또한 한 면에는 한 개의 적대만 만든다. 대체로 적대의 숫자는 성보의 크기에 따라서 해야 한다. 성보가 크다면 적대는 많아야 하고, 성보가 작다면 적어도 된다. 대체로 양쪽 사이의 공간은 50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성보는 뿔처럼 밖으로 나온 곳이 있고 배가 오므라들듯이 안으로 들어간 곳도 있어야 한다. 또한 마땅히 지세를 헤아려서 적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양쪽의 대가 서로 힘이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한 면에 오직 적대 하나만을 쌓고 저쪽 적대와의 거리와 성보의 형태가 들어가고 나온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화살이나 돌이 비록 미친다 하더라도 너무 약하고 힘이 없어서 잠깐 사이에 적이 올라온다.

또한 높이는 담장과 같고 꼭대기는 1장이 안 되게 한다. 대체로 담장의 성가퀴는 항상 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담장 밑의 돌까지 닿아야 한다. 지금 대의 높이는 담장과 같으니 그렇다면 대의 성가퀴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꼭대기가 겨우 1장이니 그곳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으며 거기서 어떻게 활과 화기를 쏠겠는가. 그런데 적대의 성가퀴가 5~6척이 못 되니 적이 양쪽에서 성가퀴 하나에 집중적으로 사격을 가하면 적대에 있던 군사는 감히 머리를 들어 쳐다보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적대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모두 지금 성첩의 큰 단점이다. 지금의 제도는 적대의 높이가 3장이니 담장의 높이보다 1장이 더 높고 그 꼭대기는 사방 2장인데 모두 동쪽과 서쪽으로 담장의 성가퀴가 수직으로 나오게 하는데 최대 3척으로 한다. 여기에 2척 남짓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나무를 가로질러 엮은 다음, 다시 그 위에다 1척 남짓한 담장을 쌓고 가운데를 비우고 목패를 두루 설치한다. 그

93 경쇠 : 옥돌로 만든 아악기(雅樂器)를 말한다. 그 모양이 기역(ㄱ)자형으로 되어 있다.

94 시도(矢道) : 화살을 발사하는 곳이다.

리고 밖에는 눈썹을 붙인 듯이 총안구 위를 가리고 안에는 전발을 설치하는데 열거나 닫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한다. 적이 이곳에 화살을 겨누고 있으면 우리는 저쪽을 열어 놓는다. 성가퀴에서 적이 화살을 겨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가퀴 입구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목패는 여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겨누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오로지 불이나 화살을 발사할 때이고 만약 포석을 쏘게 되면 담장을 넘어 사방으로 날아가니 주시하며 거리를 재어볼 필요가 없다.

셋째는 비예이다. 적대가 이미 축조되었으면 비예를 생각해야 한다. 담장이 높지 않고 비예조차 취약한데 적의 공격을 당하면 찌르는 장대와 날아드는 돌이 오고 가는 것을 버티지 못하여 스스로를 오래 지킬 방법도 없어 오르내리던 현석(縣石)⁹⁵이나 현목(縣木)⁹⁶도 일시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군사들은 맨몸으로 외로운 성벽 위에서 있는 것과 같아서 적의 시위소리에도 거꾸러지고 말 것이다.

변방 사람이 말하길, 오랑캐는 돌을 날려서 성가퀴를 무너뜨린다고 하니 장대를 갓옷으로 싸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풀로 만든 모자를 씌워 높게 걸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사람들이 보고 떠들썩하게 오랑캐가 올라왔다고 소리친다. 그리고는 너도나도 투항해서 오랑캐는 서서히 개미같이 올라오니 이것이 성가퀴의 단점이다. 요즘 민간에서는 대체로 토배(土坯)⁹⁷를 사용하여 비예를 축조한다.【식토로 만드는 것을 토배라 한다.】또한 대충 세워서 쌓으면 그것이 쉽게 무너진다. 그러므로 요사이 벽돌 쓰자고 건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벽돌의 형태는 좁고 작는데 또한 반드시 세워서 쌓으니 이렇게 하면 토배와 다를 것이 없으며 비용만 많이 들 뿐이다. 지금 제도는 반드시 이배(泥坯)⁹⁸를 사용하는데【물과 흙을 합쳐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이배라 한다.】가로로 누어 쌓아 비예를 만들고 그 밖은 모니【대부

95 현석(縣石) : 큰 돌에다 구멍을 뚫고 쇠고리를 끼운 다음, 거기다 쇠줄이나 밧줄을 달아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성벽에 기어 오르는 적을 무찌르는 기구이다. (정약용, 『민보의』)

96 현목(縣木) : 일명 총목(衝木)이라고도 하는데 직경 1척 길이 7~8척 정도의 통나무에 밧줄을 매고 그 밑에다가 예리한 쇠 불이를 박아 현석과 같이 사용하는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정약용, 『민보의』)

97 토배(土坯) : 길이 한 척, 넓이 약 반자의 나무상자에 진흙을 넣고 눌러서 누룩 같이 만든 다음 이를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구워서 만든 흙벽돌을 말한다. (정약용, 『민보의』)

98 이배(泥坯) : 토국(土麴)을 말한다. 먼저 길이 한 자, 너비 반 자 정도 장방형의 나무상자를 만든 다음 거기에 진흙을 채우고 밝아 빼내면 누룩덩이처럼 된다. 이를 때로는 별에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굵기도 하여 사용하면 쓸 만해진다. 이것을 쌓을 때 누워 쌓는 것은 엄금해야 하며 모든 장방형의 벽돌을 정면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타구에 쓰는 벽돌은 앞쪽이 뾰족한 벽돌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나무 상자를 만들어 벽돌을 찍어야 한다. (정약용, 『민보의』)

분 진흙에 풀이나 보릿짚을 넣은 것을 모니라고 한다.】로써 튼튼하게 하는데 거의 단단하고 두꺼워서 믿음직하다.

넷째는 옹성이다. 성가퀴를 만들었으면 옹성을 생각해야 한다. 대체로 민보가 적에게 함락되는 것은 잘못이 반은 성가퀴에 있고 반은 성문에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을 막기 위해 성문을 쇠붙이로 싸는데 지금 쇠붙이는 아주 얇아서 뜨겁게 달궈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쇠가 달궈지면서 속의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쉽게 타버린다. 그런데 문 위에는 멀리 격파하기 위한 현루가 없고, 물을 내려보낼 누조도 없다. 사람의 힘을 따져 보았더니 풀을 던졌을 때 10보쯤 가서 그것이 떨어진다. 1,000명이 일제히 풀을 던져서 이것이 언덕을 이루면 여기에 불을 붙여서 성문을 태울 경우 성문이 파괴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성문이 파괴되면 아무리 사람이 성안에 있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옹성이 있어야 하니 높이와 두께는 보와 같게 하고 안팎에 모두 비예를 갖추고 옆에 문 하나를 만든다. 또한 쇠로 두 짝 문을 만드는데 버려진 보의 문을 가져다 사용해도 괜찮다. 대체로 옹성의 높이와 두께는 담장과 같게 하고 안팎에 모두 비예를 갖추면 비록 그 외문과 통하더라도 오랑캐가 감히 들어올 수 없다. 하물며 중문을 둔다면 어떻겠는가. 옹성문도 역시 아래로 물을 뿌릴 수 있는 누조를 갖추어야 한다.

堡制者，非無制之難也，能全其制之難也。夫善守者，因天之財，就地之利。故敵有不攻，藏于九地之下。古人曰收其五全，遠其五敗。又曰濶與上倍，高與下倍。今之民堡，豈知是哉。故三約⁹⁹堡制，其目有四。

一，圍垣地置既得，則圍垣宜講也。大小不限，曲直無拘。但取內容丁衆，外遠俯逼而已。然大不如小，小則堅，直不若曲，曲則易守。故宋藝祖筆塗趙，韓王城圖，不使端直。金粘沒喝一觀汴城，便謂易攻也。

又古人垣制，多以高五丈，下濶二丈五尺，上濶一丈二尺五寸爲式。今時民堡，則大率高一丈五尺，加陴院爲二丈，下濶丈餘，上濶五六尺而已。垣太低，則矢石易，及陴院難保。近虜攻堡，多飛石墜其陴，則人不敢垣立而後蟻附以登。今制以垣，高二丈，加陴院五尺，共二丈五尺，視古制爲半下，上收濶亦如之，庶中道也。

二，敵臺。圍垣既立，則敵臺宜講也。夫垣之棄守，全在敵臺。垣雖方直，有臺則

99 約：『무비지』 권114, 「군자승 보제(堡制)」에는 약자 뒤에 '曰' 자가 더 있다.

守, 垣雖委曲, 無臺亦棄. 然敵臺宜多, 多則護垣爲易. 宜高, 高則四擊不礙. 古制謂敵臺高與垣等者, 以垣高五丈也. 今垣僅及其半, 則臺宜加高. 元年, 余肅敏公論塞垣敵臺曰, 每一里一臺, 以爲火器所擊, 不下三百步, 夫火力縱及, 豈能一一盡中. 中空過寬, 來往鮮力矣, 則又宜加多.

今時民堡敵臺, 全不如制, 受病甚多. 如角臺本宜平直, 卽以東北角論之, 則循北垣而東, 築臺若干丈尺, 亦當循東垣而北, 築臺若干丈尺. 若欲以垣相附, 以省工費, 則附東垣矣, 不得更附北垣. 附北垣矣, 不得附東垣, 縱使兩垣俱附, 亦須爲臺. 三面附牆者半, 專面者倍, 如以磬直向外, 磬折向內然者. 今皆不循垣直出, 又不以磬直向外, 但疊土兩垣之間, 斜附而上. 地置既繆, 矢道皆斜. 臺以護垣, 而矢石不及, 何以爲守.

又一面止築一臺. 夫臺之多寡, 以堡之大小爲之. 堡大則多, 堡小則小. 大抵兩空, 不得過五十步. 又堡有垂角而出, 縮腹而入者, 亦須量勢爲臺, 必使相及. 今一面止築一臺, 不論遠近出入, 矢石縱及, 亦弱而無力, 倏忽之間爲虜乘矣.

又高與垣等, 而收頂不及一丈. 夫垣陴恒爲虜墜者, 垣低石可及也. 今臺高與垣等, 則臺陴亦不易保收. 頂止一丈, 所容寧幾人, 發矢發火器, 何以展布. 又臺陴不五六, 虜以兩兮注一陴, 則臺人不敢伸首出望, 與無臺等矣. 此皆害之大者. 今制臺高三丈, 高于垣一丈, 收頂方二丈, 皆東西直出陴牆, 至三尺而止, 順立柱木二尺餘, 上加橫木, 復爲牆尺許, 中空遍置木牌, 外爲附眉, 內加轉撥, 或開或閉, 惟吾所欲. 虜注矢于此, 吾則啓牌于彼. 夫陴畏注矢者, 陴口一定也. 牌啓無常, 斯不畏注矢矣. 此專爲發火與矢, 若夫礮石, 則踰牆斯出, 不必凝望忖度也.

三, 陴院. 敵臺既就, 則陴院宜講也. 夫垣既不高, 陴復削薄, 遇攻則不支其衝竿飛石之往來, 自守又無以久, 縣石縣木之上下, 一有隕墜. 卽將以赤身之人, 立于孤垣之上, 聲弦可顛矣.

邊人曰虜飛石墜陴, 則以竿裹裘爲人形, 加草帽高揭之以惑人. 衆見喧曰虜登矣. 爭先自投, 虜徐蟻登, 此陴之害也. 今民間率用土坯,【殖土以成曰土坯.】又率立植, 其易墜. 故宜近有議用磚者. 磚質狹小, 亦必¹⁰⁰立植, 與坯何異, 但多費耳. 今制必用泥坯,【水和土模成者曰泥坯.】橫臥爲陴, 外以茅泥【多入泥以草或¹⁰¹麥

100 必 : 저본에는 '與'로 되어 있으나 『무비지』 권114, 「군자승 보제(堡制)」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01 或 : 저본에는 '成'으로 되어 있으나 『무비지』 권114, 「군자승 보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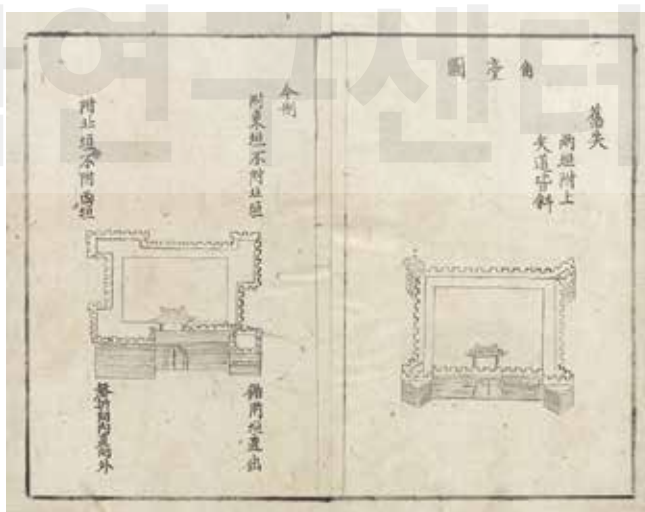
藁曰茅泥。】固之，庶堅厚可賴也。

四，甕城，陴陴既成則甕城宜講也。夫民堡之破，半咎于陴，半咎于¹⁰²門。何者，鐵裹以禦火也，今鐵葉至簿，不禁薰灼，鐵熱木焚，爲力不難。而門上無懸樓以遠擊，無漏槽以下水。嘗計人力，擲草幾至十步，千人齊擲草，且成丘發火以焚，無不鎔壞。門壞則雖有人乎垣無及矣。故必有甕城，高厚與堡同，內外俱爲陴陴，旁開一門，亦用鐵扇，已併廢堡之門，取以爲用可也。夫甕城高厚與垣等，內外皆陴，則雖洞其外門，亦無虜敢入者，而況爲重門耶。甕城門亦備漏槽下水。

■ 32 각대도(角臺圖)

옛것은 잘못되었다. 양 담장이 모두 위에 붙어 있고 시도(矢道)가 모두 비스듬하다. 지금의 제도는 동쪽의 담장을 붙이면 북쪽의 담장은 붙이지 않는다. 북쪽의 담장을 붙이면 서쪽의 담장을 붙이지 않는다. 양 담장을 따라 곧게 나와 경쇠모양 직각으로 허리를 꺾어 안으로 향하고 수직으로 꺾어 밖으로 향한다.

角臺圖，舊失，兩垣附上，矢道皆斜。今制，附東垣，不附北垣。附北垣，不附西垣。循兩垣直出，磬折向內直向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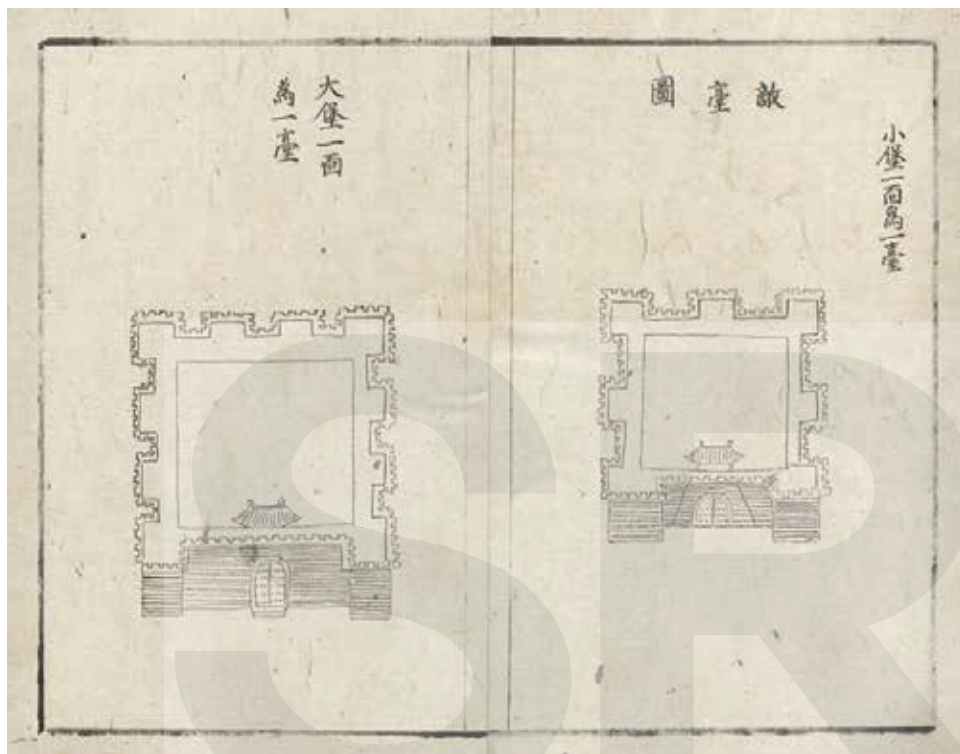
각대도

102 于：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무비지』 권114, 「군자승 보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 33 적대도(敵臺圖)

소보(小堡)의 한 면에 대(臺) 한 개를 만든다. 대보(大堡)의 한 면에 대 한 개를 만든다.

敵臺圖, 小堡一面, 爲一臺. 大堡一面, 爲一臺.



적대도

■ 34 적대현판도(敵臺懸板圖)



적대현판도

■ 35 비예도(陴隄圖)

옛것은 잘못되었다. 지금의 제도는 풀로 진흙을 굳게 한다.

陴隄圖 舊失 今制 仍以茅 泥固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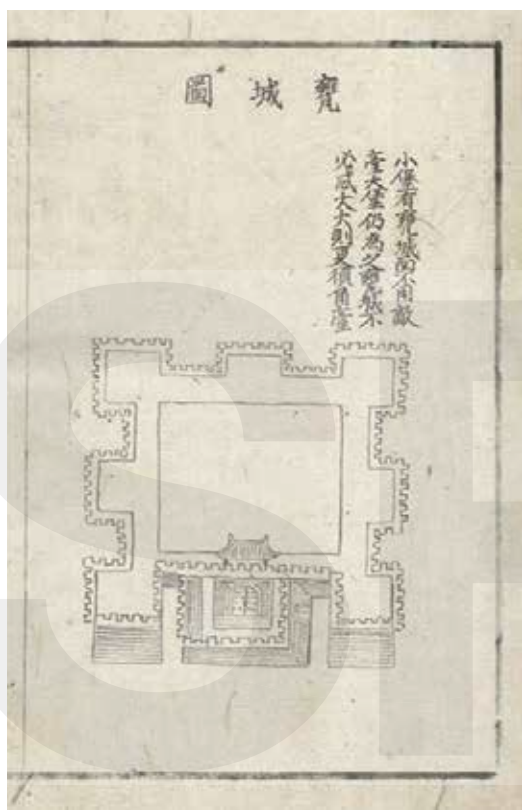


비예도

■ 36 응성도(甕城圖)

소보는 응성이 있어서 성면에 적대를 만들지 않는다. 대보도 그대로 한다. 응성은 굳이 아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크면 추가로 각루가 필요하다.

甕城圖 小堡, 有甕城, 面不用敵臺. 大堡仍爲之. 甕城不必忒大, 大則更須角樓.



응성도

■ 37

이 내용은 『무비지』 군자승편에 나온다.

右出武備志軍資乘篇.

■ 38 타장기(垛長旗)

일타장기(一垛長旗). 네모 안은 비어 있는데, 석회를 사용하고, 분백(粉白)으로 타의 호수와 화부의 성명을 쓴다. 뒤의 각 타는 이대로 한다. 지금 흰 공간을 남겨 두지 않는 것은 그것을 타안(垛眼)으로 혼동하여 잘못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타장기(二垛長旗). 5타의 화부(火夫) 성명을 기록한다.

삼타장기(三垛長旗). 5타의 화부 성명을 기록한다.

사타장기(四垛長旗). 5타의 화부 성명을 기록한다.

오타장기(五垛長旗). 5타의 화부 성명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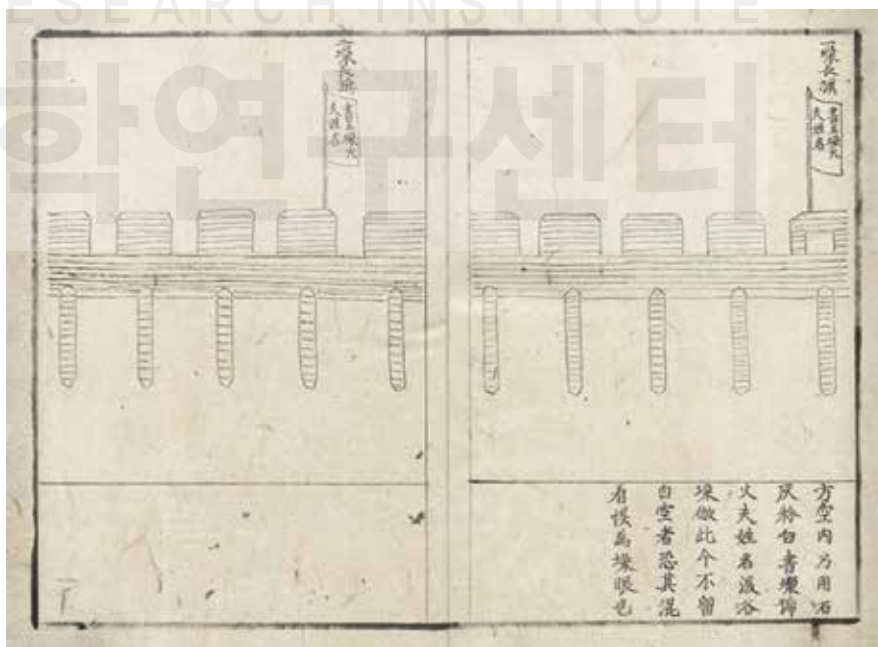
一垛長旗, 書五垛火夫姓名, 方空內乃用石灰, 粉白書垛號火夫姓名. 後谷垛倣此. 今不留白空者, 恐其混看悞爲垛眼也.

二垛長旗, 書五垛火夫姓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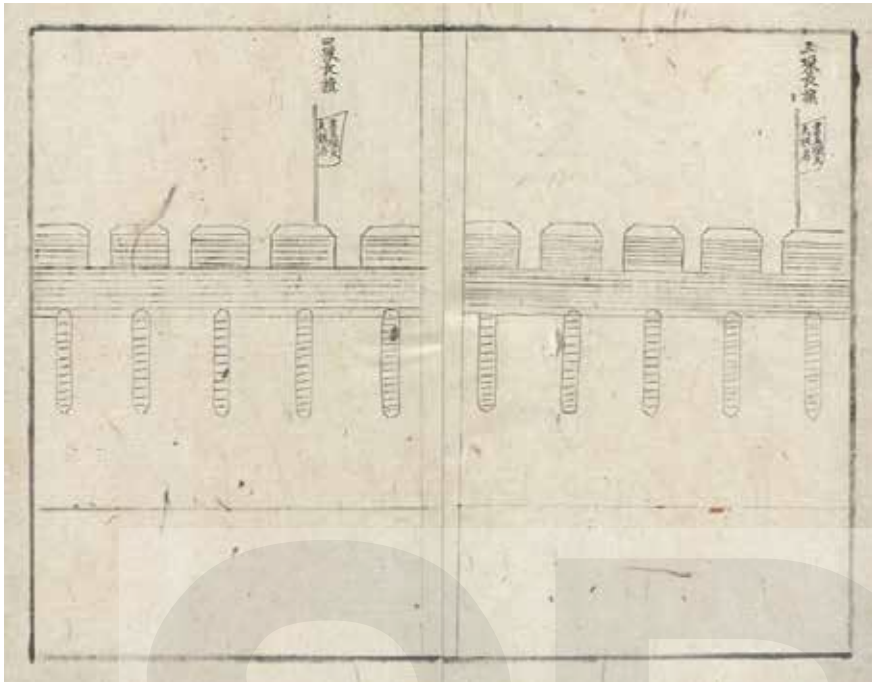
三垛長旗, 書五垛火夫姓名.

四垛長旗, 書五垛火夫姓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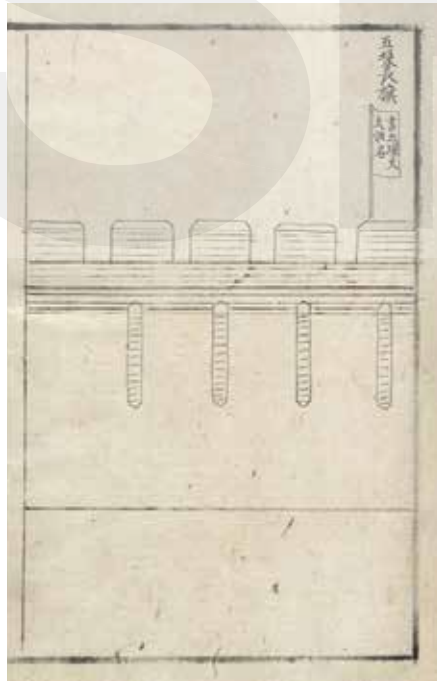
五垛長旗, 書五垛火夫姓名.



이타장기(좌), 일타장기(우)



사타장기(좌), 삼타장기(우)



오타장기

일성장기(一城長旗). 5타장(垛長)의 성명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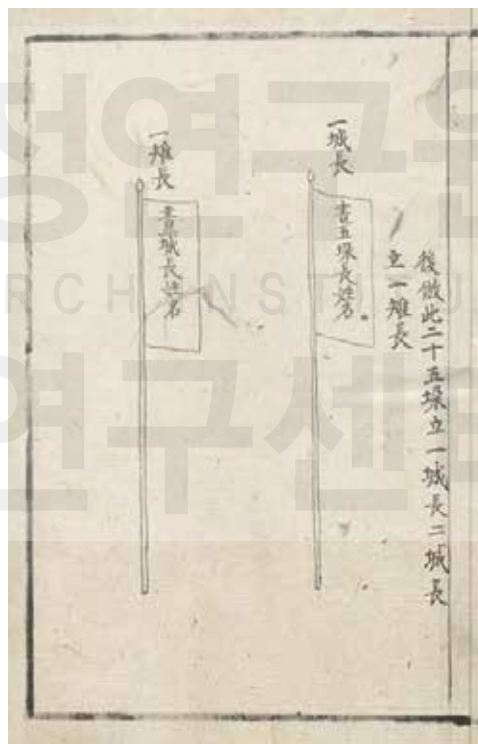
일치장기(一雉長旗). 1성장(城長)의 성명을 기록한다.

一城長, 書五城長姓名.

二城長, 書一垛長姓名.

뒤에 이를 본떠서 25타에 성장 1명을 세우고, 성장 2명에 치장 1명을 세운다.

後倣此, 二十五垛, 立一城長, 二城長, 立一雉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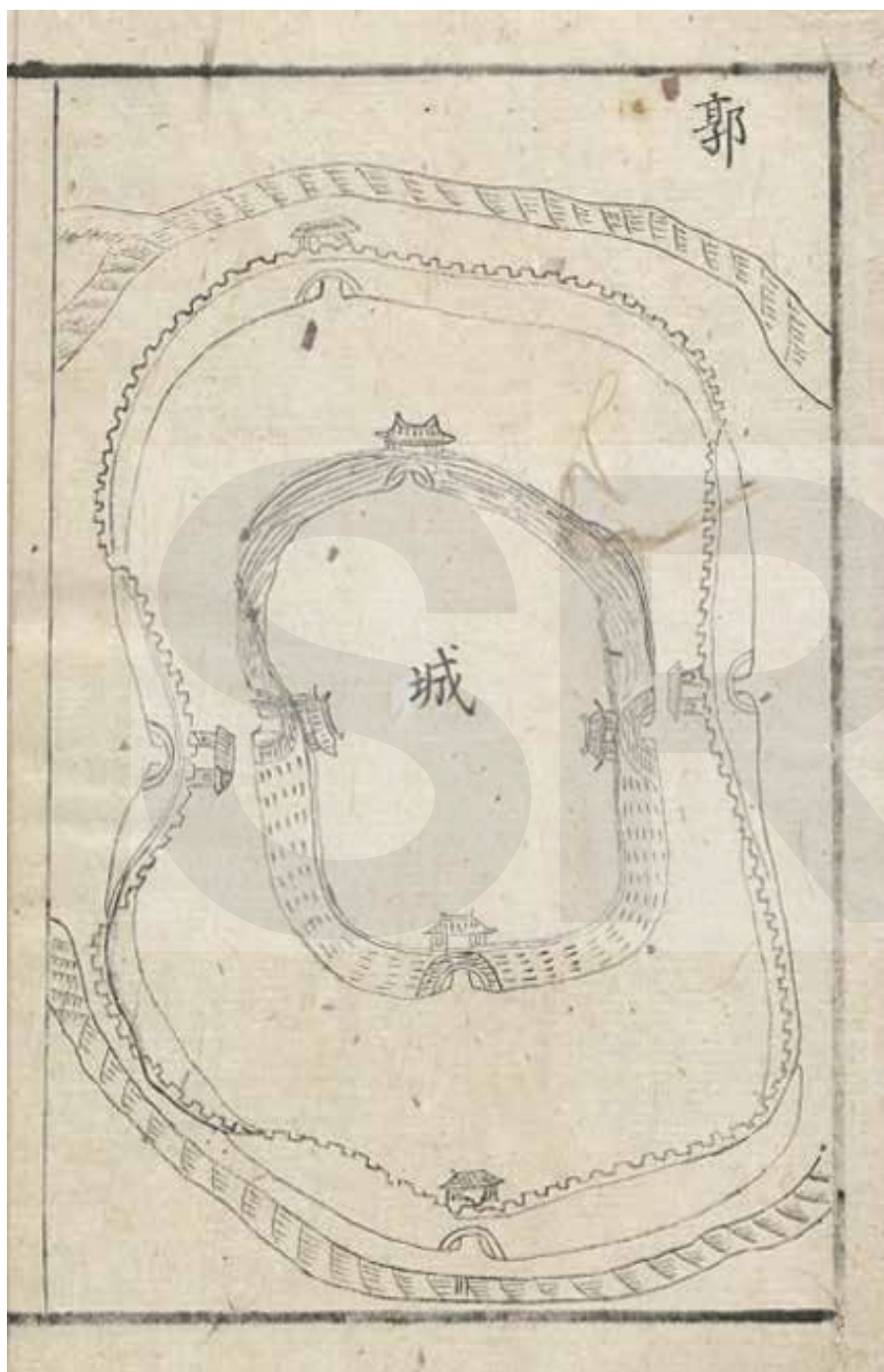
1치장기(좌), 1성장기(우)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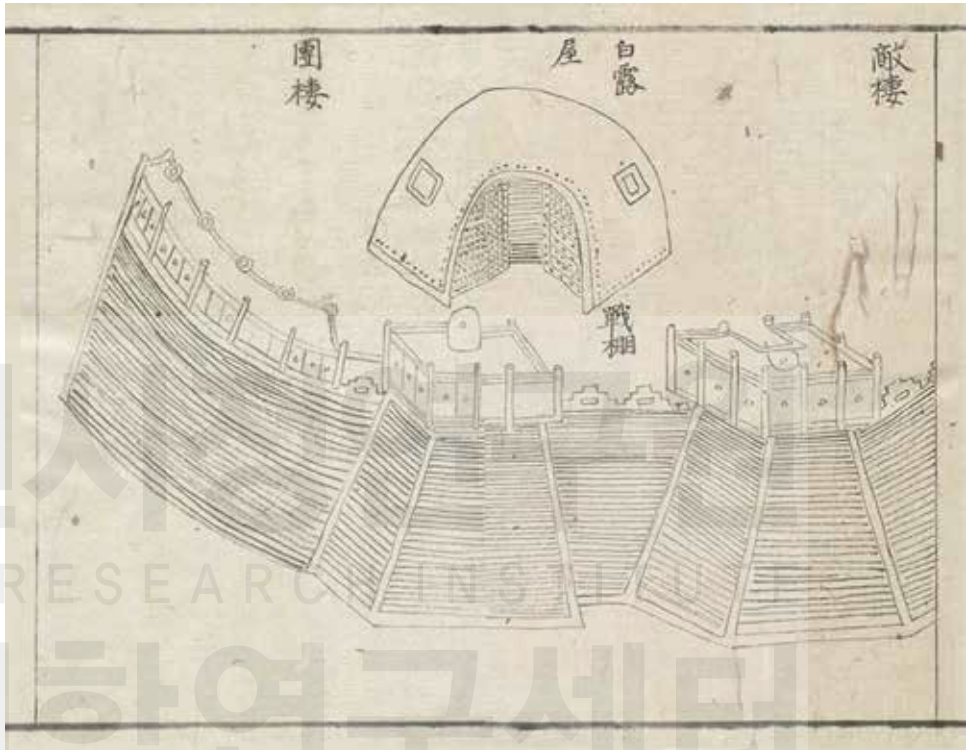
이 내용은 『기효신서』 수초편에 나온다.

右出紀效新書守哨篇.

■ 40 성(城)과 곽(郭)



■ 41 적루(敵樓)와 단루(團樓)



적루와 단루, 백로옥, 전봉

곽관자(郭管子)가 안에 쌓은 것은 성이고 밖에 쌓은 것은 곽이라고 했다. 『오월춘추(吳越春秋)』¹⁰³에 곤¹⁰⁴이 성을 쌓아 임금을 보위하고 곽을 만들어 백성을 지켰다고

103 오월춘추(吳越春秋) : 후한(後漢) 때 조옥(趙煜)이 지은 일종의 역사서이다. 오(吳)의 태백(泰伯)으로부터 부차(夫差)까지와 월(越)의 무여(無餘)로부터 구천(句踐)까지, 두 나라의 흥망을 기록하였다.

104 곤 : 우(禹) 임금의 아버지로써 요 임금 때 황하의 대홍수를 9년 동안이나 다스렸지만 치수의 업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들 우가 이어서 치수에 전념하여 성공하여 순(舜) 임금을 계승하였다. 『서경』 우서 순전 제12장에 의하면, 순 임금이 곤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벌주었다고 한다.

했는데 『초학기(初學記)』¹⁰⁵에서는 이것이 성곽의 시초라고 했다.¹⁰⁶ 백로옥(白露屋)은 강가의 대나무 혹은 느릅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허술한 집 모양으로 만들고 석회를 발랐다. 문이 있고 구멍을 뚫어서 안에 한 사람이 숨어서 망을 보게 한다. 적루나 전봉의 위에 5칸마다 한 곳을 만들어 양옆에 나무 궤, 마균[馬筥], 이과[籬笆]를 두고 그 아래에 사람을 숨기고 진흙탕물, 마탑¹⁰⁷ 등을 가지고 화공을 대비한다.

적루는 앞쪽의 높이는 7척이고 뒤쪽의 높이는 5척이다. 매 칸은 넓이가 1보이고 깊이는 1장이며 사다리로 오르내리는데 약 20인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성이 넓어지면 깊이는 더 깊어진다. 위에는 탑두목(搭頭木)을 가져다 두고 중간에는 기둥을 두 개 설치하고 아래에는 지복을 설치한다. 그대로 앞으로 3척을 나가고 1칸에 기둥을 두 개 설치하는 것을 일정한 법칙으로 한다. 이 네 개의 기둥을 사용하여 돌과 화살에 꺾이는 것에 대비한다. 그 위에 뽕뽕하게 서까래를 걸치고 다시 흙을 3척 두께로 덮고 석탄을 더해 바르고 젖은 담요[濡氈]로 덮고 연보(橡袱)의 끝을 모두 소가죽으로 싸서 화전(火箭)을 막는다. 적루의 제도는 전봉과 같다.¹⁰⁸

앞의 내용은 『삼재도회』¹⁰⁹ 인사부에 나온다.

郭管子曰內謂之城，外謂之郭。吳越春秋曰絛築城以衛君，造郭以守民，記以爲城郭之始。白露屋，以江竹或榆柳條編，如窮廬狀塗石灰。有門有竅，中容一人以爲侯望。每敵樓戰棚上五間置一所，於兩傍施木柜馬筥籬笆，隱人於下，持泥¹¹⁰漿麻搭以備火攻。

敵樓前高七尺，後五尺。每間闊一步，深一丈，其棚上下約容二十人。若城愈闊則愈深。上施搭頭木，中設雙柱，下施地袱。仍前出三尺，常法一間二柱。此用四柱，以備

105 초학기(初學記) : 당나라 현종(玄宗)이 서견(徐堅) 등에게 명하여 만든 책으로, 모두 3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사(經史)의 서책 가운데 좋은 문장과 고사를 뽑아서 만든 책이다.

106 초학기(初學記)……했다 : 이 내용은 『초학기』 권24, 「성제」 제2에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吳越春秋曰，絛築城以衛君，造郭以守民，此城郭之始也.’

107 마탑 : 고대에 나무 막대기 끝에 마 가닥을 매어 진흙을 묻혀 불을 끄던 도구를 말한다.

108 백로옥……같다 : 이상의 내용은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보인다. 『무경총요』의 편찬 시기는 1044년이고, 『삼재도회』는 1607년이다. 따라서 『무경총요』의 내용을 『삼재도회』에서 인용한 것을 저자가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09 삼재도회(三才圖會) : 명대 왕기(王圻)가 1607년 편찬한 책으로 모두 106권이다. 여러 서적의 도보(圖譜)를 모으고 그 그림에 의하여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에 걸쳐 사물을 설명하였다. 천문·지리·인물·시경(時令)·궁실(宮室)·기용(器用)·신체·의복·인사(人事)·의제(儀制)·진보(珍寶)·문사(文史)·조수(鳥獸)·초목(草木) 등의 14문(門)으로 분류하였다.

110 泥 : 저본에는 없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矢石所摧. 上密布椽, 覆土厚三尺, 加石炭泥之, 被以濡氈,¹¹¹ 及椽袱之首, 竝以牛革裹之, 以防火箭. 敵樓之制與戰棚同.

右出三才圖會人事部.

성제제론(城制諸論)

■ 42

“대체로 성을 짓는 것은 높이는 아랫너비의 배가 되고 아랫너비는 윗너비의 배가 되게 한다. 성의 높이는 5장, 아랫너비는 2장 5척, 윗너비는 1장 2척 5촌이니 높고 낮음과 넓고 좁음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윗너비에 아랫너비를 더하면 3장 7척 5촌이 된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1장 8척 7촌 5푼이고 여기에 다시 높이 5장을 곱하면 1척의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양이 93장 7척 5촌이 된다. 한 사람이 하루에 흙 2척을 쌓는다고 계산하면 약 47명의 공력이 필요하다. 1보(步)¹¹² 즉 5척의 성은 235명이 필요하고, 100보의 성은 23,500명이 필요하고 300보의 성은 70,500명의 공력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1리를 비율로 계산하면 10리의 성을 쌓는 데 필요한 흙의 양과 몇 짐을 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총공사 내역을 계산할 수 있다.

성 밖 4면의 해자의 안은 성에서 10보 떨어지고 다시 사이를 조금 띄워 두께는 6척, 높이는 5척의 성을 세우고 이어서 여장을 세운다. 성의 해자를 면의 너비는 2장, 깊이는 1장, 바닥의 너비는 1장으로 파려면 면의 너비에다 바닥의 너비를 더하여 나온 수를 반으로 나누면 1장 5척이 되는데 거기에 깊이 1장을 곱하면 해자 1장을 파려면 흙 15장을 파게 된다. 한 사람이 매일 3장씩 파낸다고 하고 공인의 수를 계산하면 5명이 필요하다. 1보 즉 5척으로 계산한다면 25명, 10보를 계산하면 250명, 100보를 계산하면 2,500명, 1리를 계산하면 70,500명이 필요하다. 이런 비율로 계산한다면 100리를 파는 데 필요한 인원도 알 수 있다.

111 氈 : 저본에는 ‘被’로 되어 있으나 『무경총요』 전집 권12, 「수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12 보(步) : 고대의 길이의 단위이다. 6세기경 하후양(夏侯陽, ?~?)이 편찬한 수학서『하후양산경(夏侯陽算經)』에서는 5척이 1보이고, 360보가 1리라고 하였다. [以五尺為一步, 三百六十步為一里.]

노대의 높낮이는 성과 같고 성에서 100보 떨어져 있고 대와 대 사이의 서로 떨어진 거리 또한 그와 같다. 아랫너비는 4장, 높이는 5장, 윗너비는 2장이고 위에는 여장을 세운다. 대 안은 암도(闇道)로 통하게 하여 무릎을 굽혀 사다리를 타기 편하고 사람이 올라가 걷어 들이기 편하다. 중간에 전막을 설치하여 노수 5인을 배치하고 말린 식량 및 물과 불을 갖춘다.”

이 내용은 두우의 『통전(通典)』¹¹³에 나온다.

凡築城，下闊與高倍，上闊與下倍。城高五丈，下闊二丈五尺，上闊一丈二尺五寸，高下闊狹，以此爲準。料功上闊加下闊，得三丈七尺五寸，半之得一丈八尺七寸五分，以高五丈乘之。一尺之城積數，得九十三丈七尺五寸。每一功，日築土二尺，計功約四十七人。一步五尺之城，計役二百三十五人，一百步，計功二萬三千五百人，三百步計功，七萬五百¹¹⁴人。率一里則十里，可知其出土負簍，竝計之大¹¹⁵功之內。城外四面壕內，去城十步，更立小隔城，厚六尺，高五尺，仍立女牆。城壕面濶二丈，深一丈，底濶一丈，以面濶加底，積數太半之得數一丈五尺，以深一丈乘之，鑿壕一丈，得數一十五丈。每一人功，日出三丈，計功五人，一步五尺計功二十五人，十步計功二百五十人，百步計功二千五百人，一里計功七萬五百人，以此爲率，則百里可知。

弩臺高下與城等，去城百步，每臺相去，亦如之。下濶四丈，高五丈，上濶二丈，上建女牆，臺內通闇道，安屈膝梯，人上便卷¹¹⁶收。中設蘊幕，置弩手五人，備乾糧水火。

右出杜氏通典。

113 통전(通典) : 당나라 재상(宰相) 두우(杜佑, 735~812)가 편찬한 역사서이다. 총 200권이며, 766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30여 년에 걸쳐 초고가 완성되었다. 당 현종(玄宗) 대에 유질(劉秩)이 편찬한 『정전(政典)』 35권을 기초로 『개원례(開元禮)』와 『악지(樂志)』를 보태어서 801년에 이 책을 완성하였다. 역대 정사(正史)의 지류(志類)·기전(紀傳)·잡사(雜史)·경자(經子), 당 대의 법령 등을 참고하였다. 식화(食貨)·선거(選舉)·직관(職官)·예(禮)·악(樂)·병(兵)·형(刑)·주군(州郡)·변방(邊防)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책은 남송(南宋)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원(元)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와 함께 '3통(三通)'이라 불린다. 인용된 내용은 『통전』 권152, 「수거법부(守拒法附)」에 보인다.

114 百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통전』 권152, 「수거법부(守拒法附)」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15 大 : 『통전』 권152, 「수거법부」에는 '夫'로 되어 있다.

116 卷 : 저본에는 '券'으로 되어 있으나 『통전』 권152, 「수거법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연주¹¹⁷에 옛 풍림현의 성은 혁련발발(赫連勃勃)¹¹⁸이 축성한 것으로 지금은 혁련 성이라고 한다. 견고하고 촘촘하기가 돌과 같아 깎으면 불꽃이 나오는 것 같다. 성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지만, 다만 마면(馬面)이 매우 길고 촘촘했다. 내가 직접 사람을 시켜서 견게 해보니, 마보가 모두 4장 길이이고 서로 떨어진 거리가 6~7장이었다. 마면을 촘촘하게 하면 성이 반드시 크고 두텁지 않아도 인력으로 공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가 전에 성을 공격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마면이 길 경우에는 성 아래의 공격병이 쏜 것이 되돌아가고, 빈틈없이 촘촘하면 화살과 돌이 서로 미치게 되어 적병이 성 밑에 오면 사면에서 화살과 돌이 쏟아졌다. 그래서 적군이 성 밑까지 오지 못하게 만드니 이것이 바로 좋은 법이다. 지금 변방의 성은 비록 두텁기는 하지만 마면이 아주 짧고 또한 사이가 떠 있다. 만약 적병이 성 밑까지 올 수 있으면 아무리 성이 두터워도 결국은 위태로워지는 길이다. 그 사이에 다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서 단적(團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욱 도움이 안 된다. 전적으로 누각에 의지해서 화살과 돌을 쏘아대 성 밑을 보호하며 적병에게 많은 곳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하면 자연히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혁련성은 매우 본받을 만한 곳이다.

변방의 성에서 방어를 위해 갖춘 것 중에 전봉이 있다. 여장의 위에 긴 나무를 들어 올려놓아 대체로 적루와 비슷하고 붙이고 뺄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어서 갑자기 성루가 무너지는 것을 대비할 수 있고, 혹 적루가 없는 곳에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 서둘러 전봉을 펼쳐서 대응할 수 있다. 양후경(梁侯景)이 대성을 공격할 때 높은 누를 만들어서 성에 다가가니 성 위에서도 누를 만들어서 방어하고, 장사들로 하여금 교전하게 하니 누 위에서 전투한 것 또한 이런 종류에 가깝다. 적병을 미리 대비해야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변방의 성에

117 연주(延州) : 중국 섬서성(陝西省)에 있었던 주(州)의 이름이다.

118 혁련발발(赫連勃勃) : 381~425. 16국의 하나인 대하(大夏)의 창시자이다. 남흉노(南匈奴) 선우(單于)의 자손으로 본성은 유(劉)씨고, 자는 굴혈(屈子)이다. 진(秦)에 벼슬하여 삭방(朔方)을 지키다가 반란을 일으켜 통만(統萬)에 정도(定都)하고 대하천황(大夏天皇)이라 일컬었다. 417년 동진(東晉)의 유유(劉裕)가 후진을 멸망시키고 군대를 돌려 동쪽으로 돌아가자, 이 기회를 타 유수군(留守軍)을 기습하여 관중(關中)을 점령했다. 다음해 장안(長安)에 들어가 칭제하고 무창(武昌)이라 연호를 정했다. 19년 동안 재위했고, 시호는 무열(武烈)이다. (『진서(晉書)』 권130, 「혁련발발제기(赫連勃勃載記)」 제30.)

대해 논의하기를 이미 적루가 있으니 전봉은 모두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들 하는데 생각이 미숙하여 염려스럽다.”

이 내용은 『몽계필담(夢溪筆談)』¹¹⁹에 나온다.

延州故豐林縣城，赫連勃勃所¹²⁰築，至今謂之赫連城。緊密如石，鬪之皆火出，其城不甚厚 但馬面極長且密。予親使人步之，馬步皆長四丈，相去六七丈。以爲馬面密，則城不須太厚，人力亦難攻¹²¹也。予曾親見攻城，若馬面長則可反射城下攻者，兼密則矢石相及，敵人至城下，則四面矢石臨之。須使敵人不能到城下，乃爲良法。今邊城，雖厚而馬面極短且疎。若敵人可到城下，則城雖厚，終爲危道。其間更多剗其角，謂之團敵，此尤無益。全藉依樓角以發矢石，以覆護城脚，但使敵人見備處多，則自不可存立。赫連之城，深爲可法也。

邊城守具中有戰棚。以長木抗於女牆之上，大體類敵樓，可以離合。設之頃刻，可就以備倉卒城樓摧壞。或無樓處受攻，則急張戰棚，以臨之。梁侯景攻臺城，爲高樓以臨城，城上亦爲樓以拒之，使壯士交槩。鬪于樓上，亦近此類。預備敵人，非倉卒可致。近歲邊城有議以謂既有敵樓，則戰棚悉可廢省，恐講之未熟也。

右出夢溪筆談。

■ 44

『정사(程史)』¹²²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968년(고려 광종 19, 송 개보¹²³ 19) 예

119 몽계필담(夢溪筆談) : 송의 문신·학자인 심괄(沈括, 1031~1095)의 저서로 모두 26권이다. 만년에 기거하던 몽계(夢溪)에서 저술했다. 고사(故事)·변증(辨證)·악률(樂律)·상수(象數)·인사(人事) 등 17부문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인용한 내용은 『몽계필담(夢溪筆談)』 권11, 「관정(官政)」에 보인다.

120 所 : 저본에는 ‘至’로 되어 있으나 『몽계필담(夢溪筆談)』 권11, 「관정(官政)」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21 攻 : 저본에는 ‘兼’으로 되어 있으나 『몽계필담』 권11, 「관정」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22 정사(程史) : 남송인 악비(岳飛)의 손자인 악가(岳珂)의 저술이다. 악가는 남송 상주(相州) 탕음(湯陰, 河南에 속함) 사람이다. 가흥(嘉興)에서 살았고, 자는 숙지(肅之)며, 호는 역재(亦齋) 또는 권옹(倦翁)이다. 악림(岳霖)의 아들이고, 영종(寧宗) 때 가흥군부(嘉興軍府)에 파견되었다가 관내관농사(管內勸農事)를 겸했다. 호부시랑(戶部侍郎)과 회동총령(淮東總領) 겸 제치사(制置使)에 이르렀다. 진회(秦檜)가 할아버지 악비를 함정에 몰아넣고 죽인 것에 대해 『금타수편(金陀粹編)』과 『우천변무집(吁天辯誣集)』, 『천정록(天定錄)』을 지어 무고를 밝혔다. 그 밖의 저서에 『당호시교(堂湖詩稿)』 1권과 『옥저집(玉楮集)』 8권 및 『간정구경삼전연혁제(刊正九經三傳沿革制)』, 『괴담록(愧鄕錄)』, 『보진재서법찬(寶眞齋書法贊)』 등이 있다.

123 개보(開寶) : 송 태조 후기 968년부터 태종이 즉위한 976년까지의 연호이다.

조(藝祖)¹²⁴가 초기에 변경(卞京)을 수축했는데 그 성은 크고 터는 굽이지고 완만하여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했다.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조종령 구공¹²⁵이 도면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성이 네모반듯하고 곧아서 사면에 모두 문이 있으며 사방에 방시(坊市)를 두어서 그사이가 바둑판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그런데 왕이 그 도면을 보고서 화를 내며 직접 붓을 들어 지우고는 넓은 종이로 큰 두루마리를 만들게 하여 세로로 비스듬하게 구불구불 구부러지게 도면을 그리고 옆에 주를 달기를 이것에 따라서 수축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성은 바로 당시의 유적이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망측하다고 하며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큰 결점으로 여겼다.

1075년(고려 문종 30, 송 희령 8) 신종¹²⁶이 재위하여 마침내 개축하려고 하였는데 정원 안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과 내작방¹²⁷의 일을 보고는 결국은 고칠 엄두를 못내고 성가퀴만 증축하고 말았다. 정화¹²⁸ 연간(1111~1117)에는 채경이 국정을 좌우해서 그 규정을 넓힐 것을 누차 상주하여 바로 궁실과 원유에 대한 일은 환관이 그 일을 감독하라고 명하였다. 대체로 주위 수십 리를 하나로 묶어서 구(矩)처럼 네모나게 했는데 담장의 성가퀴와 누로(樓櫓)¹²⁹는 비록 화려하게 꾸몄지만 지난날의 견고하고 질박한 멋은 완전히 없어졌다. 일시에 공사를 마치고 그 일에 내린 상만 분수에 넘치고, 심지어 그 두 가지의 명령을 과거의 제목으로 표기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장황했는지 대충 짐작해볼 수 있다.

124 예조(藝祖) :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趙匡胤, 927~976)을 가리킨다. 문덕(文德)을 소유한 개국시조(開國始祖)라는 뜻으로,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나오는 표현이다.

125 조종령 구공 : 조보(趙普, 922~992)를 말한다. 송 태조(宋太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이 컸고, 태종(太宗) 때에 태사(太師)가 되어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죽은 뒤 한왕(韓王)에 추봉되었다. (『송사(宋史)』 권256, 「조보열전(趙普列傳)」)

126 신종(神宗) : 1048~1085. 중국 북송 제6대 황제이다. 신종은 왕안석(王安石)을 재상으로 등용하고 신법(新法)이라고 하는 청묘(靑苗)·모역(募役)·시역(市易)·보갑(保甲)·보마법(保馬法) 등의 재정·군사 관제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부국강병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1076년 왕안석이 퇴관하자 스스로 개혁을 친정(親政)하였다. 그 결과 재정은 호전되었지만, 외정(外征)은 실패하였다. 교지(交趾: 베트남)를 정벌한 결과는 손해였고, 요와의 싸움에서도 하동(河東: 山西省)의 경계지(境界地)를 양보하였으며, 서하(西夏)의 원정에 실패하고 죽었다.

127 내작방 : 내제사(內諸司) 중의 하나인데, 내고(內庫)의 군기(軍器)를 관장한다. (『치평요람』 제92권, 당 의종 13년.)

128 정화(政和) : 송 휘종(徽宗)의 연호로, 1111~1118년을 말한다.

129 누로(樓櫓) : 고대에 적을 감시하거나 공수(攻守)하는 데 사용하는 덮개가 없는 높은 누대인데, 지면이나 수레, 배 위에 설치하였다. 『후한서(後漢書)』 89권, 남흉노전(南匈奴傳)에 “처음에 황제가 전거(戰車)를 제작하였는데, 소 몇 마리를 채울 수 있었다. 그 위에다 누로를 만들어 변경에 두고 흉노(匈奴)를 막았다.”라고 하였다.

정강¹³⁰ 연간(1126~1127)에 흉노족 기병이 남쪽을 침입하여 점한(粘罕)¹³¹ 알리불(幹離不)¹³²은 성 아래에서 채찍질하며 낮빛이 좋아져서 말하길 여기는 공격하기 쉽겠다고 했다. 네 모퉁이에 포를 설치하라 명령하고 모서리를 따라서 공격했다. 성이 곧게 늘어서 있어 한 번 포를 쏘면 바라보는 곳의 모든 벽이 버틸 수 없어 결국 이것 때문에 성이 함락되었다. 침착한 도량으로 멀리 내다보았음이 이 경우에서 비로소 증명되었다. 왕이 직접 그린 도면을 나라가 태평했을 때 비각에 보관했을 텐데 이제 더는 남아 있지 않다.”

봉황대¹³³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경성을 축성할 때 석회와 차조 죽을 써서 외벽을 견고하게 했다. 임금이 때때로 나와 살펴보니 감장자(監掌者)가 장척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임금이 임의로 한 곳을 직접 두드려 보았더니 모두 순백색인데 간혹 진흙을 조금 섞어주어서 담 속을 다져놓았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금성탕지¹³⁴라고 하겠다. 또한 성 밖에는 토성을 세워서 우리가 주둔하여 지키는 계책을 적어 헤아릴 수 없게 한다. 궁 안에는 음구(陰溝, 땅속으로 낸 도랑)를 두어 곧바로 토성의 외부와 통하게 하는데, 높이는 2장이고 너비는 8척이고 사람 한 명과 말 한 마리가 다니기 충분하게 만들어 화를 당했을 때 몰래 나가는 상황에 대비한다.”¹³⁵ 이는 깊이 생각하고 먼일까지 고려했다고 할 만하다.

이 내용은 『도서집성(圖書集成)』 고공전(考工典)에 나온다.

程史, 開寶戊辰, 藝祖初修卞京, 大其城址曲而宛, 如蚓蝘焉. 耆老相傳謂趙中令鳩工奏圖, 初取方直, 四面皆有門, 坊市經緯, 其間井井繩列. 上覽而怒, 自取筆塗之, 命以幅紙作大圈紆曲縱斜, 旁注云依此修築. 故城卽當時遺迹也. 時人

130 정강(靖康) : 송 흠종(欽宗)의 연호로 1126~1127년을 말한다.

131 점한(粘罕) : 완안종한(完顔宗翰)의 여진(女眞) 이름으로 금나라의 종실(宗室)이며, 알리불과 함께 송나라를 공격하였다.

132 알리불(幹離不) : 금나라 태조의 둘째 아들 완안종망(完顔宗望)의 여진 이름이다. 송 흠종 정강(靖康) 원년(1126) 1월에 수도 개봉(開封)을 공격하여 휘종과 흠종을 북쪽으로 데리고 갔다.

133 봉황대 : 현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 남쪽에 있던 대로, 흔히 금릉봉황대(金陵鳳凰臺)로 불린다. 금릉은 전국시대 초 위왕(楚威王)이 금을 묻어 왕기(王氣)를 높였던 데서 나온 이름인데, 뒤에 삼국의 오(吳)·동진(東晉), 남조(南朝)의 송(宋)·제(齊)·양(梁)·진(陳) 여섯 왕조가 이곳에 도읍하였기 때문에 제왕이 소재한 금릉의 상서로운 기운을 ‘금릉 왕기(金陵王氣)’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134 견고한 금성탕지 : 원문은 ‘금탕(金湯)’으로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이다. 쇠붙이로 만든 성과 끓는 물이 흐르는 못이라는 말로 험하고 견고한 성지(城池)를 뜻한다.

135 경성을……대비한다 : 『고금도서집성』 「경제휘편 고공전」 권30, 「성지부잡록」에 보인다.

咸罔測, 多病其不宜於觀美. 熙寧乙卯, 神宗在位, 遂欲改作, 見苑中牧豚, 及內作坊之事, 卒不敢更, 第增陴而已. 及政和間, 蔡京擅國, 亟奏廣其規, 以便宮室苑囿之奉, 命宦侍董其役. 凡周旋數十里, 一撤而方之如矩, 墉堞樓櫓, 雖甚藻飾, 而蕩然無曩時之堅樸矣. 一時迄功, 第賞侈¹³⁶其事, 至以表記兩命詞科之題, 槩可想見其張皇也.

靖康胡馬南侵,¹³⁷ 粘罕¹³⁸離不揚鞭城下, 有得色曰是易攻. 下令植砲四隅, 隨方而擊之, 城既引直, 一砲所望一壁, 皆不可立, 竟以此失守. 沉幾遠睹, 至是始驗. 宸筆所定圖承, 平時藏秘閣, 今不復存.

鳳凰臺記事, 築京城, 用石灰秫粥錮其外. 上時出閱視, 監掌者以丈尺分治, 上任意在一處擊視, 皆純白色, 或稍雜泥壤, 卽築築者於垣中, 斯金湯之固也. 又於城外, 起土城以爲不測屯守之計. 宮中陰溝, 直通土城之外, 高丈二, 濶八尺, 足行一人一馬, 以備臨禍潛出. 可謂深思遠慮.

右出圖書集成, 考工典.

■ 45

진규(陳規)가 이렇게 말했다. “주와 군의 성지의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여긴다. 성에 적루가 있어도 오랑캐는 화포를 써서 적루를 공격하고, 성 밖에 해자를 들렀어도 오랑캐는 구멍을 이용해 해자를 메꾼다. 성벽이 몇 장으로 높아도 오랑캐는 천교(天橋), 아거(鷺車),¹³⁹ 대루(對樓),¹⁴⁰ 만도(慢道), 사닥다리 등의 공성 기구로 성에 오른다. 그 성지의 제도에 의하면 성의 견고함은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할 만하다. 어찌하여 오랑캐들이 공성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 또한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136 侈 : 저본에는 ‘後’로 되어 있으나 『정사(程史)』 권 제1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37 侵 : 저본에는 ‘牧’으로 되어 있으나 『정사』 권 제1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38 幹 : 저본에는 ‘幹’으로 되어 있으나 『정사』 권 제1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39 아거(鷺車) : 통옥을 풍속에서 아거통(鵝車洞)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방처럼 생겼다. 군사를 그 속에다 은신시킨 다음 뒤에서 밀어 전진하여 성을 공격한다. (『치평요람』 권105, 송)

140 대루(對樓) :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갑옷으로 둘러싼 공성탑이다. 충차(衝車)나 임충(臨衝)이라고도 부른다. 그 높이를 이용하여 내부에 실은 병기를 이용하여 성안을 사격하거나 성벽에 접근하여 여장을 공격하고 성벽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 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일은 예전대로 하는 것을 좋게 여겨 사람들이 다시 바꾸려 하지 않는 데 모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익이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고 공(功)이 열 배가 되지 않으면 도구를 바꾸지 않는다.’¹⁴¹라고 했다. 오늘날의 성지의 제도를 보면 이득은 백 배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공도 역시 열 배에 미치지 못하니 그 가운데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야만 한다. 옛날부터 성인의 법은 절대 변치 않는 일정한 제도였던 적은 없으니 좋으면 그대로 하고 나쁘면 바꾸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생각한다면 적루의 경우 옛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마면 위에 높고 두터운 담장을 쌓고 아래에는 품(品)자형을 유지하여 방경(方徑) 1척 되는 구멍을 뚫어 감시하는 것을 갖추고 창을 던질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한다. 담장 안쪽 아래에는 세목을 덮고 두어 채의 기와를 얹은 전봉을 가설하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한다.

陳規曰, 州郡城池之制, 人皆以爲盡善. 城有敵樓, 而虜人用火砲擊樓, 城外有壕, 而虜人用洞子填, 壘¹⁴²城高數丈, 虜人用天橋驚車對樓慢道雲梯等攻具登城. 據其城池之制, 可以自謂堅固前所未有. 奈何虜人攻械之備,¹⁴³亦前古所未有. 故事貴乎仍舊, 而人憚於改作, 皆不可必者. 古人所謂利不百者不變法. 功不十者不易器. 以今城池之制觀之, 雖¹⁴⁴利不至於百, 而功不至於十, 其間有須更改者, 不可不更改也. 自古聖人之法, 未嘗有一定之制, 可則因, 否則革也. 爲今之計, 如敵樓者, 不可仍舊制也. 宜於馬面上築高厚牆, 下留品字方徑及尺空眼, 以備覘望及施設槍路. 牆裏近下, 以細木蓋一兩架瓦棚, 可令守禦避寒暑風雨.

■ 46

담장 안에 있는 건물이 모두 담장보다 낮아서 포를 아무리 외부에서 많이 쏘아도 전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또한 해자 위에 다리를 만들고 다리의 중간에

141 이익이……않는다 :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 2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故利不百者不變俗, 功不什者不易器. 今王破卒散兵, 以奉騎射, 臣恐其攻獲之利, 不如所失之費也.”

142 壘 : 저본에는 ‘壘’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守城錄)』 권1, 「진규정강조아첨언후서(陳規靖康朝野僉言後序)」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43 之備 : 저본에는 ‘雄傑’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아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44 雖 : 저본에는 ‘雖然’으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아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는 조교를 만들어 잠시 적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출병할 때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마땅히 조교를 만들어 병사들이 출입하기 편하게 해야 한다. 성문은 돌려 꺾어서 안쪽으로 향하게 100여 보를 옮겨 두어야 한다. 이는 다만 적의 화살이나 돌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예전에 만든 문루에서 한 발짝만 안쪽으로 향하여 들어가면 바로 이것이 적이 빠지는 함정이 된다. 무엇을 일러 함정이라 하는가. 100보 안의 양 벽의 성 위에서 아래로 적병을 내려다보며 적을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모두 더한 시설이다. 옛날 성문 앞에는 문을 보호해줄 담장을 가로로 쌓았는데 높이는 1장 남짓이고, 양 꼭대기에서 문을 2~3장 넘게 가려 성문의 개폐, 사람이나 말의 출입을 해자 밖의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누가 감히 엿보겠는가.

성 외부의 맨 아래에서 성과 2장 정도 떨어진 곳에 해자 밑 근처에는 마땅히 높고 두텁게 양마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높이는 1장에 달하고 두께는 6척에 달한다. 담장 내의 맨 밑에는 또한 작대를 만드는데 그 높이는 2~3척이고 너비는 4척이다. 작대 위 양마장 위에는 또한 품(品)자 모양 구멍을 뚫어놓아 감시하고 창을 던질 수 있는 통로를 갖춘다. 한결같이 본성의 여장과 두장(頭牆)같이 하는데 담장 안 작대 위에 차목(杈木)을 늘어세워서 적이 해자를 평평하게 메꾸는 것을 대비한다. 양마장이 무너져서 적이 성 밑까지 공격해 오면 양마장 안쪽의 양 가장자리에서 적을 맞닥뜨려 그들을 상대하게 된다. 작대 위와 본성에서 아래를 향해 화살과 돌을 퍼부으면 바로 이것이 적은 한쪽 면을 감당하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3면에서 방어하는 것이다. 양마장 안의 병사들이 양마장에 의지하면서 해자를 사이에 두고 그 외부로 화살과 돌을 발사하니 이것이 양마장과 본성이 양성을 연결해 서로 상승 작용하며 도와주어 적병이 아무리 양마장을 함락해도 감히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마장을 본성에 비교하면 비록 양마장이 매우 낮고 불품없지만 적을 막고 견고히 지키는 효과는 본성보다 못하지 않다. 또 양마장 내부에 배치된 병사는 바로 성 아래 목책에 의지해서 복병을 상대하니 적병이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미 양마장이 있다면 녹각목(鹿角木)¹⁴⁵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성 근처에는 암문을 많이 설치해서 병사를 양마장으로 보낼 때 출입할 수

145 녹각목(鹿角木) :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짧은 나무토막을 비스듬히 박거나 십자 모양으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방어물로 녹채(鹿砦)라고도 한다.

있게 대비한다. 또한 양마장은 본성 밑에서 거리가 2장 정도만 떨어지게 한다. 거리를 너무 멀게 하지 않는 것은 본성 위에서 박석을 던졌을 때 양마장 밖으로 넘어가기 어려우면 오히려 양마장 내의 사람이 다치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또한 아주 가깝게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좁아 장창을 회전시킬 수 없을까 염려해서이다. 또 본성의 아래에는 속이 깊고 넓은 해자를 만드는데 해자 위에서 안쪽을 향해 5~7장 정도 되게 땅을 재어 밖으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이성(襄城)을 쌓고 차목(杈木)을 배설한다. 다만 적이 쳐들어와 상대해야 하는 곳에 많은 대비를 한다. 이렇게 설치하여 대비하면, 아무리 오랑캐가 공격을 잘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¹⁴⁶

屋在¹⁴⁷牆裏,¹⁴⁸ 比牆¹⁴⁹ 低下, 則砲雖在外數多, 悉不能及人.¹⁵⁰ 又壕上作橋, 橋中作弔橋, 暫時¹⁵¹ 隔賊則可. 若出兵則不能無碍, 宜爲弔橋, 兵出入俱利. 城門宜迂回曲折, 移向裏百餘步置. 不獨賊矢石不及, 其舊作門樓處, 行入一步向裏, 便是賊陷穽. 何謂陷穽,¹⁵² 蓋百步內兩壁城上, 下臨賊人, 應殺賊之具皆加設施. 舊門前橫築護門牆, 高丈餘, 兩頭遮過門三二丈. 城門啓閉, 人馬出入, 壕外人皆不見, 孰敢窺伺. 城外脚下去城二丈臨壕垠上, 宜築高厚羊馬牆, 高及一丈, 厚及六尺. 牆內脚下亦築雀臺, 高二三尺, 濶四尺. 雀臺上於羊馬牆上, 亦留品字空眼, 以備覘望及通槍路. 一如大城上女牆頭牆, 牆裏¹⁵³ 雀臺上埋排杈木, 以備賊填平壕塹. 及攻¹⁵⁴ 破羊馬牆至城脚下, 則賊與¹⁵⁵ 羊馬牆內兩邊受敵, 雀臺上與大城¹⁵⁶ 向下所施矢石, 卽是賊當一面, 而守城人三面禦之. 羊馬牆內兵, 賴羊馬牆庶隔壕外矢石. 是羊馬牆與大城, 係是兩城, 相乘齊用, 使賊人雖破羊馬牆, 無敢入者.

146 주와……없다 : 이상의 내용은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보인다.

147 在 : 저본에는 '牆'으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陳規靖康朝野僉言後序)」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48 牆裏 : 저본에는 '裏牆'으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49 比牆 : 저본에는 '뻘'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50 人 : 저본에는 없는데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51 暫時 : 저본에는 '時暫'으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52 저본에는 없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53 裏 : 저본에는 '重疊'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54 攻 : 저본에는 없는데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55 與 : 저본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56 城 : 저본에는 '牆'으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故羊馬牆比大城¹⁵⁷雖甚低薄, 其捍禦堅守之効, 不在大城之下也.¹⁵⁸ 又羊馬牆內所置之兵, 正¹⁵⁹依¹⁶⁰城下寨¹⁶¹以當¹⁶²伏兵, 不知賊人以何術可解? 若此, 既有羊馬牆, 其鹿角木¹⁶³可以不用. 仍於大城上多設暗門, 以備遣兵於羊馬牆內出入. 又羊馬牆脚去大城脚止二丈. 不令¹⁶⁴太遠者, 慮大城上拋擲磚石, 難過牆外¹⁶⁵反害牆內人, 又不令太近者, 慮其太窄, 難以回轉長槍. 又於大城脚下作深濶裏壕, 壕向上裏度地五七丈, 可作來往路外, 築裏城, 排杈木, 但多備下賊寇城應敵處. 用此設備, 雖使虜人善攻, 不足畏也.

■ 47 나공진 수성론의 하나(羅拱辰¹⁶⁶—守議)

각각의 성에 아무리 험한 해자인 하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에 해자를 붙여야 하는데 주변은 진흙[淤土]으로 높게 돋우고 성 밑에서 떨어진 거리는 한 장 남짓으로 균등하지 않다. 해자 안의 독[臨隄]은 5척 정도 높이의 담을 둘러 쌓아서 적이 해자를 건넌더라도 또한 곧바로 성의 아래까지 다다르기 어렵게 한다. 하물며 느닷없이 기병(奇兵) 수십 명이 성 아래로 출격했을 경우, 이 담 안에 가려져 있으면 몰래 숨어서 감시할 수 있다. 만약 적이 해자 가까이 온다면 우리 병사가 양마장 안에서 몰래 장기(長器)를 발사하는데 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적이 우리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게 한다. 병사가 성 아래에 있으면 적은 병사가 있을지 생각하고 병사가 성 아래에 없으면 적은 또한 병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른바 있다면

157 城 : 저본에는 ‘牆’으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58 也 : 저본에는 없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59 正 : 저본에는 ‘正是’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是’를 삭제하였다.

160 依 : 저본에는 ‘披’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61 寨 : 저본에는 ‘塞’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62 當 : 저본에는 ‘留’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63 木 : 저본에는 없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64 令 : 저본에는 ‘可令’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可’를 삭제하였다.

165 外 : 저본에는 ‘內’로 되어 있으나 『수성록』 권1, 「진규정강조야첨언후서」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66 나공진(羅拱辰) : ?~?. 명대 평현(平縣)사람으로 가정 연간(1522~1566)에 거인(舉人)이 되었고, 절강성 송양현(浙江松陽縣)의 지현(知縣)으로 임명되었다. 1553년(명 가정 32)에 왜구가 대거 침입하여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했는데 나공진은 병사와 백성을 거느리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1556년(명 가정 35)에 왜구가 상해(上海)를 공격하자 가서 도왔고 해방동지(海防同知)에 임명되었다. 저서로는 『전수이의(戰守二議)』가 있는데 왜구를 방어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있고, 없다면 없는 허허실실¹⁶⁷의 전법이 이것이다. 그리고 사방의 마을에서 피난 온 남녀가 또한 이 해자 주변 독의 담장에 들어와 잠시 그 몸을 쉴 수 있다. 만약 적이 오더라도 굳이 서둘러 먼저 조교(弔橋)를 당겨 버릴 필요가 없다. 피난해 달려온 남녀가 미쳐 다 지나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말까 두려우니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양마장이 있으면 만약 적이 정말로 쳐들어왔을 경우 성문을 굳게 닫고 그들이 성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조교를 치워도 늦지 않는다. 하물며 적이 성 위의 총과 포를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감히 우리 성 밑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 만약 성에 적대가 없으면 멀리 감시하고 아래를 살필 수 없으니 어떻게 성을 지킨다고 말하겠는가. 필요한 요점은 성을 쌓을 때 적대를 내어서 붙이는 것이다. 적대 서로 간의 거리는 오륙백 보이거나 칠팔백 보, 혹은 이삼백 보인데, 각각 굽었거나 똑바른 성의 지형에 따라 멀거나 혹은 가깝게 만든다.

이 내용은 형천(荊川)¹⁶⁸의 『무편(武編)』¹⁶⁹에 나온다.

羅拱辰一守議

各城雖有濠河之險, 必須附城壕, 邊就以挑起淤土, 離城脚丈餘不等. 臨隄圍築五尺¹⁷⁰高牆, 使賊雖或渡濠, 亦難輒抵城下. 況不時出奇兵數十人於城下, 得此牆遮蔽, 可以藏伏窺視. 如賊近對濠, 我兵即於牆內, 潛發長器, 不露形體, 使彼不知我兵多寡. 有兵在城下時, 賊以爲有, 無兵在城下時, 賊亦不知其無也. 所謂有有無無虛虛實實者此也. 且四鄉逃難男婦, 又得此牆暫容其身 若賊來不必就先扯去弔橋, 恐奔來逃難男婦, 未能盡過, 不免立以待斃, 是可哀也. 既有此牆, 若果賊將來, 只須謹閉城門俟其到城方去弔橋, 亦不爲遲. 況賊畏城上銃砲, 決不敢近我城下. 其城無敵臺, 則不能眺遠顧下, 何以言守. 必要貼城築出敵臺. 每座相去, 或五六百步, 或七八百步, 或二三百步, 各隨城勢之曲直回折, 以爲遠近. 右出荊川武編.¹⁷¹

¹⁶⁷ 허허실실 :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실을 꺾하는 계책을 이르는 말이다.

¹⁶⁸ 형천(荊川) : 당순지(唐順之, 1507~1560)의 호다. 명나라 학자로, 자는 응덕(應德), 시호는 양문(襄文)이다. 무진(武進) 출신으로, 가정(嘉靖) 8년의 회시(會試)에서 1등으로 뽑혔으며, 벼슬이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에 이르렀다. 저서에 『형천집』, 『무편(武編)』 등이 있다.

¹⁶⁹ 『무편(武編)』 : 명나라 당순지가 편집한 병가서이다. 모두 10권으로, 『무경총요(武經總要)』의 체례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권99, 자부9, 병가류.)

¹⁷⁰ 尺 : 저본에는 ‘丈’으로 되어 있으나 『무편』 전집 권2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¹⁷¹ 『성제고』 천(天)권의 마지막인 48페이지, 즉 이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 내용이 앞의 2페이지 내용과 그대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번역하지 않는다.

III 중국성제

■ 1 순천부(順天府)¹ 성지

1267년(고려 원종 8, 원 지원² 4)에 세워졌는데 대도성이라고 하였다. 1409년(조선 태종 9, 명 영락 7)에 이곳으로 천도했다. 1421년(조선 세종 3, 명 영락³ 19)에 궁실을 짓고, 바로 성의 담장[牆]⁴을 확장했는데 성의 둘레는 40리이고 높이는 3장 5척 5촌이며 너비는 6장 2척이고 문은 9개이다.【남쪽은 정양·승문·선무, 동쪽은 조양·동직, 서쪽은 부성·서직, 북쪽은 안정·덕승문이라 한다.】⁵ 1544년(조선 중종 39, 가정⁶ 23)에 중성(重城)⁷을 축조해 지켰다. 지금은 외성의 삼면은 모두 28리이고 높이는 2장이며 너비는 그와 같다. 문은 7개이다.【남쪽은 영정·좌안·우안, 동쪽은 광거, 서쪽은 광녕문이라 한다.】 그것을 동서 모퉁이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북쪽을 향한다.【동쪽은 동편, 서쪽은 서편이다.】 내성의 9개 문에는 각각 월성과 문루 1좌가 있는데 월성의 외면에는 각각 적루 1좌가 있다. 3면에는 각각 포문(砲門) 4개를 열고, 4개의 모퉁이와 겹친다. 각루 및 적루는 규제가 같다. 외성도 그와 같다. 해자는 옥하

- 1 순천부(順天府) :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 일대를 말한다. 하(夏) 우공(禹貢) 때는 기주(冀州)였고, 전국시대에는 연(燕)의 수도인 계(薊)였고, 진한(秦漢)부터 오대(五代)까지는 유주(幽州)의 중심이었다. 요(遼) 대에는 연경(燕京) 석진부(析津府)·남경(南京)으로, 금(金) 대에는 중도(中都)로 불렸다. 1267년에 대도성(大都城)으로 명명되면서 원(元)의 수도로서 기능하였다. 명(明)이 건국된 이후에 북평부(北平府)로 개칭하고 연왕부(燕王府)로도 불렸다. 연왕(燕王) 주체(朱棣)가 영락제(永樂帝)로 즉위하면서 북경순천부(北京順天府)로 승격되었고, 1421년에 황성(皇城)이 완성되자 명의 수도가 되었다. 청(淸)이 이자성의 난을 진압한 후에 수도로 계속 기능했다.
- 2 지원(至元) : 몽골제국 제5대 칸이자 원 대의 초대 황제인 세조(世祖) 쿠빌라이 칸[忽必烈汗]의 두 번째 연호로 1264년부터 1294년까지 31년 동안 사용되었다. 또 다른 용례로 중국 원나라의 제11대 황제이자 북원(北元)의 제1대 황제인 혜종(惠宗) 토곤테무르[妥懽帖睦爾]가 두 번째 연호로 1335년부터 1340년까지 6년 동안 사용하기도 했다.
- 3 영락(永樂) : 명 제3대 황제인 성조(成祖) 영락제 주체의 연호로 1403년부터 1424년까지 22년 동안 사용되었다.
- 4 담장[牆] : 『주역(周易)』 「관괘(觀卦)」 상구(上九)에서 “공이 새매를 높은 담 위에서 쏘아 잡았으니 이름지 아니함이 없으리라.[公用射隼于高牆之上 獲之無不利]”라는 구절에서 용(壙)이 담장으로 쓰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 5 순천부 성지의 성문 배치는 『경사성내수선전도(京師城內首善全圖)』(요코하마시립대학도서관 청구기호 WCJ 18)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 6 가정(嘉靖) : 명 제11대 황제인 세종(世宗) 가정제(嘉靖帝) 주후충(朱厚熜)의 연호로 1522년부터 1566년까지 45년 동안 사용되었다.
- 7 중성(重城) :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에서는 중성은 겹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玉河)⁸가 나뉘어 흐르다가 치첩을 돌아 흘러서 대내에 들어갔다가 대통하(大通河)⁹로 흘러나간다. 물살이 완만하여 천연의 금대(襟帶)¹⁰ 같다. 대흥현과 완평현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順天府城池, 元至元四年建, 名大都城. 明永樂七年遷都於此. 十九年既營宮室, 爰拓城墉, 周圍四十里, 高三丈五尺五寸, 廣六丈二尺, 門九.【南曰正陽, 曰崇文, 曰宣武, 東曰朝陽, 曰東直, 西曰阜城, 曰西直, 北曰安定, 曰德勝.】嘉靖二十三年, 築重城以衛之, 卽今外城三面, 共二十八里, 高二丈, 廣如之, 門七.【南曰永定, 曰左安, 曰右安, 東曰廣渠, 西曰廣寧.】其拓出于東西隅而北向者【東曰東便, 西曰西便.】內城九門, 各有月城, 門樓一座, 月城外面各有敵樓一座, 三面各開砲門四, 重四隅, 角樓與敵樓規制同, 外城如之, 池則玉河分流, 環遶雉堞, 入徑大內, 復出注大通河, 水勢蜿蜒, 天然襟帶. 大興宛平二縣俱附郭.

■ 2 통주(通州)¹¹ 성지

구성(舊城)은 1368년(고려 공민왕 17, 홍무¹² 원년)에 창건했다. 그 외부를 벽돌로 쌓았고 통주위(通州衛)를 설치하여 지켰다. 성의 둘레는 9리 13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가 4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8장이다. 문은 4개다.【동쪽은 통운, 남쪽은 영훈, 서쪽은 조천, 북쪽은 응취문이다.】신성은 명 정통 연간(1436~1449)에 지어졌고, 대운(大運)과 서남(西南)에 창고 2개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신성을 세워 그곳을 호위하기 위해 벽돌로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남짓이고

8 옥하(玉河) : 중국 베이징시의 서문(西直門)에서 북서쪽 10km 지점에 있는 위취안산(玉泉山)을 수원으로 하는 하천이다. 베이징의 동남쪽으로 나와 대통하로 들어간다.

9 대통하(大通河) : 중국 대운하의 일부로 베이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통후이허[通惠河]를 말한다. 129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293년에 완성했고, 통혜하(通惠河)로 명명되었다. 대통하는 창평(昌平)에서 도성(都城)과 통주(通州)를 거쳐 백하(白河)와 연결된다.

10 금대(襟帶) : 산천이 병풍처럼 주위를 에워싸 마치 옷깃이나 허리띠와 같다는 뜻으로 험한 요새의 형세를 비유한 것이다.

11 통주(通州) : 현재 중국 베이징 동부에 있는 통저우구[通州區]를 말한다.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1, 「직례(直隸)」 2에 의하면 순천부(順天府)의 속주이며 순천부의 동쪽 40리에 위치해 있다. 춘추시대에 연나라의 땅이었고, 진나라 때는 어양군(漁陽郡)에 속했다. 서한(西漢) 때는 노현(路縣)이 설치되었고, 26년(후한 건무 2)에 노현(潞縣)으로 개칭되었다. 1151년에 자사주(刺史州)를 설치하고 조운통제(漕運通濟)의 의미를 취하여 통주(通州)라고 명명하였다. 1368년부터 통주는 북평부(北平府)에 속하게 되었고, 북평부가 순천부로 변경되자 그대로 예속되었다.

12 홍무(洪武) : 명 초대 황제인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 주원장(朱元璋)의 연호로 1368년부터 1398년까지 31년 동안 사용되었다.

높이는 3장 5척 남짓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8장이다. 문은 2개이다. 【남쪽 문은 망범운표(望帆雲表)이고, 서쪽 문은 척오첨천(尺五瞻天)이다.】

通州城池, 舊城係明洪武元年創建, 甃其外, 設通州衛守之, 周圍九里十三步, 高三丈五尺, 廣四丈. 池深二丈, 闊八丈, 門四.【東曰通運, 南曰迎薰, 西曰朝天, 北曰凝翠.】新城係明正統年間創築, 因置大運西南二倉, 故建新城以衛之, 甃以磚石, 周圍七里有奇, 高三丈五尺有奇, 池深二丈, 闊八丈, 門二.【南曰望帆雲表, 西曰尺五瞻天.】

■ 3 창평주(昌平州)¹³ 성지

처음 세워진 시기는 상고할 수 없다. 4개의 영을 설치해서 지켰다. 옛 성은 둘레가 6리이고 높이가 2장 1척이며 너비는 1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이고 너비는 1장 5척이다. 문은 3개이다. 【동쪽은 태안, 남쪽은 영안, 서쪽은 평안문이다.】 신성은 약 4리 남짓 접하고 있으며, 높이는 옛 성보다 4척을 줄였고 너비는 대략 같다. 해자의 깊이와 너비는 같다. 문은 1개이다. 【소남문이라 한다.】 두 개의 성 모두 내부는 흙으로, 외부는 벽돌로 되어 있다.

昌平州城池, 始建莫考, 設四營以守之. 舊城, 周圍六里, 高二丈一尺, 廣一丈, 池深一丈, 闊一丈五尺. 門三.【東曰太安, 南曰永安, 西曰平安.】新城接約四里餘, 高減舊城四尺, 廣略同. 池深闊如之, 門一.【曰小南門.】二城皆內土外磚.

■ 4 밀운현(密雲縣)¹⁴ 성지

옛 성은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창건되었다. 성의 둘레는 9리 13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는 2장 8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며, 너비는 1장 5척이다.

13 창평주(昌平州) : 현재 중국 베이징 북서부에 있는 창평구[昌平區]를 말한다. 주(周) 초기에 계(薊)에 속하였고, 나중에 연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한나라 때 창평현(昌平縣)이 설치되었다. 1506년(명 정통 원년)에 창평주(昌平州)로 승격되었다가 창평현으로 되었고, 1513년에 다시 창평주로 승격되었다.

14 밀운현(密雲縣) : 현재의 중국 베이징 북동부 차오바이강[潮白河] 상류와 허베이성[河北省]이 접하는 곳에 위치한 미원구[密雲區]를 말한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어양군에 속했다. 397년에 밀운현(密雲縣)이 설치되었다. 원나라 초기에 단주(檀州)로 개칭되었다가 명나라가 성립된 이후에 다시 밀운현이 되었다.

신성은 1576년(조선 선조 9, 명 만력¹⁵ 4)에 창건했다. 옛 성과는 동쪽으로 50보 떨어져 있고, 성의 둘레는 7리이다. 높이는 3장 5척이고 너비는 2장이다. 해자의 깊이와 너비는 옛 해자와 같다.

密雲縣城池, 舊城創于明洪武年間, 周圍九里十三步, 高三丈五尺, 廣二丈八尺, 池深二丈, 闊一丈五尺. 新城創于明萬曆四年, 距舊城東五十步, 周圍七里, 高三丈五尺, 廣二丈, 池深闊如舊池.

■ 5 탁주(涿州)¹⁶ 성지

옛날에 전옥(顓頊)¹⁷이 직접 지었다고 전해진다. 명 경태(景泰)¹⁸ 연간(1450~1457)에 지주 광형(廣衡)이 처음 벽돌로 쌓았다. 탁록위를 설치하여 지켰다. 성의 둘레는 10리이고 높이는 4장이며 너비는 8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이고 너비는 2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진덕, 남쪽은 영은, 서쪽은 적경, 북쪽은 통제문이다.】

涿州城池, 舊傳築自顓頊. 明景泰中, 知州廣衡始甃以磚石, 設涿鹿衛以守之, 周圍十里, 高四丈, 廣八丈, 池深一丈, 闊二丈, 門四【東曰進德, 南曰迎恩, 西曰積慶, 北曰通濟.】

15 만력(萬曆) : 명 제13대 황제인 신종(神宗) 만력제(萬曆帝) 주익균(朱翊鈞)의 연호로 1573년부터 1620년까지 48년 동안 사용되었다. 명조(明朝)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였다.

16 탁주(涿州) : 현재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에 있는 쥘저우시[涿州市] 일대이다. 진나라 때 탁현(涿縣)이 설치되고, 한나라 때는 탁군(涿郡)이 되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위에 의해 범양군(范陽郡)이 되었다. 624년에 범양현(范陽縣)으로 개칭했다. 769년에 탁주(涿州)로 개칭되었다. 1368년에 북평부에 속하게 되었다.

17 전옥(顓頊) : 오제(五帝) 중 한 사람으로 고양씨(高陽氏)라고도 한다. 『사기』에서는 황제(黃帝)의 손자이자 창익(昌意)의 아들이며, 아들은 곤(鯀), 손자는 우(禹)라고 전해진다.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서는 공공(共工)과 제위를 두고 다투었는데 공공의 힘이 넘쳐 불주산(不周山)에 서 있던 천주(天柱)를 부러뜨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하늘은 북서로 기울고 일월성신이 북서를 향해 운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국시대 진(秦) 혹은 초(楚)가 그를 저들의 조상으로 섬겼다.

18 경태(景泰) : 명 제7대 황제인 대종(代宗) 경태제(景泰帝) 주기옥(朱祁鈺)의 연호로 1450년부터 1457년까지 8년 동안 사용되었다.

■ 6 계주(薊州)¹⁹ 성지

옛날에는 토성이었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에 벽돌로 쌓았다. 계주위를 설치하여 지켰다.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는 3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6장이고 너비는 5장이다. 문은 3개이다.【동쪽은 망원, 남쪽은 평진, 서쪽은 공극문이다.】

薊州城池, 舊土城. 明洪武四年, 甃以磚石設, 薊州衛以守之, 周圍九里三十步, 高三丈五尺, 廣三丈, 池深六丈, 闊五丈, 門三【東曰望遠, 南曰平津, 西曰拱極.】

■ 7 준화주(遵化州) 성지

옛날에는 토성이었다. 1378년(고려 우왕 4, 명 홍무 11)에 지휘(指揮)²⁰ 주보가 더욱 넓히면서 새롭게 벽돌로 쌓았다. 1581년(조선 선조 14, 만력 9)에 총리 척계광²¹이 개축하였는데 준화위를 설치하여 지켰다. 성의 둘레는 6리 남짓이고 높이는 4장이며 너비는 3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3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진해, 남쪽은 시훈, 서쪽은 대경, 북쪽은 청막문이라 한다.】

遵化州城池, 舊土城. 明洪武十一年, 指揮周寶拓而新之, 甃以磚石. 萬曆九年, 總理戚繼光更築, 設遵化衛守之. 周圍六里有奇, 高四丈, 廣三丈, 池深二丈, 闊三丈, 門四【東曰鎮海, 南曰時薰, 西曰戴京, 北曰清漠.】

19 계주(薊州) : 직례(直隸) 순천부(順天府)에 속해 있으며 위치는 부의 동쪽 200리에 있고 동으로 300리에 영평부, 남으로 200리에 천진위, 북으로 235리에 장성이 있다. 이곳은 산해관의 서쪽에서부터 거용관(居庸關)의 동쪽에 이르기까지의 요새지이다. (『독사방여기요』 권11.)

20 지휘(指揮) : 명 대의 군사단위인 각 위(衛)의 최고 군사지휘관인 지휘사(指揮使)의 줄임말로 정3품에 해당되며 지방의 군사를 관리했다. 종3품인 지휘동지(指揮同知) 2명과 정4품인 지휘첨사(指揮僉事) 4명의 보좌를 받았다.

21 척계광(戚繼光) : 1528~1588. 명나라 중기의 명장으로, 자는 원경(元敬), 호는 남당(南塘), 시호(諡號)는 무의(武毅)이고 벼슬은 태자 태보(太子太保)에 이르렀다. 절강(浙江)의 참장(參將)이 되어 왜구 토벌에 누차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기효신서(紀效新書)』, 『연병실기(練兵實紀)』, 『위용요략(蒞戎要略)』, 『무비신서(武備新書)』 등을 포함한 병서(兵書)를 다수 저술하였다. 특히 척계광이 저술한 병서들 중 『기효신서』는 북로(北虜)·남왜(南倭)와의 실전을 토대로 하여 저술한 병서로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설치, 삼수병(三手兵)의 양성 등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의 군사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8 풍윤현(豐潤縣)²² 성지

옛날에는 토성이었다. 명 정통 연간(1436~1449), 천순(天順)²³ 연간(1457~1464), 성화(成化)²⁴ 연간(1465~1487)에 연달아 벽돌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4리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며 너비는 2장이다. 해자의 깊이와 너비는 각각 2장이다.

豐潤縣城池, 舊土城. 明正統天順成化年間, 相繼甃以磚石. 周圍四里, 高二丈五尺, 廣二丈, 池深闊各二丈.

■ 9 영평부(永平府)²⁵ 성지

진(秦) 때 세워졌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에 지휘 비우(費愚) 등이 성을 확장하면서, 벽돌로 쌓아 축조했다. 영평위를 설치하여 지켰다. 성의 둘레는 9리 13보이고 높이는 3장 남짓이며, 너비는 2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5장이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통요, 남쪽은 관해, 서쪽은 망경, 북쪽은 진평문이라 한다.】 각루 4좌, 적대 40좌. 경포 56좌이다. 노룡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永平府城池, 秦時建. 明洪武四年, 指揮費愚等拓而築之, 甃以磚石, 設永平衛守之, 周圍九里十三步, 高三丈有奇, 廣二丈, 池深二丈, 闊五丈, 門四. 【東曰通遼, 南曰觀海, 西曰望京, 北曰鎮平.】 角樓四, 敵臺四十, 警鋪五十六. 盧龍縣附郭.

22 풍윤현(豐潤縣) : 현재의 허베이성 당산(唐山)에 있는 평룬구(豐潤區)이다. 1187년(금 대정 27)에 설치된 영제현(永濟縣)을 전신으로 한다. 금 태화 연간(1198~1208) 초기에 풍윤현(豐潤縣)으로 바꿨다가 풍윤구(豐潤區)를 설치했다.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풍윤현(豐潤縣)으로 고쳤다.

23 천순(天順) : 명 제6대 황제인 영종(英宗) 정통제(正統帝) 주기진(朱祁鎮)이 복위하여 사용한 연호로 1457년부터 1464년까지 8년 동안 사용되었다.

24 성화(成化) : 명 제8대 황제인 헌종(憲宗) 성화제(成化帝) 주견심(朱見深)의 연호로 1465년부터 1487년까지 23년 동안 사용되었다.

25 영평부(永平府) : 현재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에 있는 루룽현[盧龍縣] 일대이다. 천자의 직할 행정구역인 직례(直隸) 소속으로 동쪽 180리에 산해관이 있고, 남으로 160리에 바다가 있으며, 서로 300리에 순천부·계주가 있고, 북으로 60리에 도림구(桃林口)가 있다. 북경에서 550리 떨어져 있다. (『독사방여기요』 권117.)

■ 10 산해위(山海衛)²⁶ 성지

1381년(고려 우왕 7, 명 홍무 14)에 대장군 서달(徐達)²⁷이 세웠다. 성의 둘레는 8리 137보이고 높이는 4장 1척이며 너비는 2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 5척이고 너비는 10장이다. 북익성, 남익성, 영해성은 모두 명 순무 양사창(楊嗣昌)이 창건했다. 동쪽의 나성은 명 만력 연간에 관관주사 왕방준(王邦俊)과 영평도 성손(成遜)이 세웠다.

山海衛城池, 明洪武十四年, 大將軍徐達建, 周圍八里一百三十七步, 高四丈一尺, 廣二丈, 池深二丈五尺, 闊十丈. 北翼城, 南翼城, 寧海城, 俱明巡撫楊嗣昌建. 東羅城, 明萬曆間, 管關主事王邦俊, 永平道成遜建.

■ 11 보정부(保定府)²⁸ 성지

원나라 대장군 장유(張柔)²⁹가 처음 지었다. 1402년(조선 태종 2, 명 홍무 35³⁰)에 도독 맹선이 벽돌로 웅성을 쌓았다. 4개의 문에 여장을 늘리고, 대령도지휘사사와 오위소를 설치하여 지켰다. 성의 둘레는 12리 330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는 1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3장이며 너비는 5장이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망영, 남쪽은 영훈, 서쪽은 첨악, 북쪽은 공극문이라 한다.】 남면에는 옛날에 문이 3개가 있었다. 뒤의 양쪽 모퉁이 문을 없애고, 토벽관의 대들보를 그대로 두었다. 각루 4좌, 적대 81좌, 경포 49좌가 있다. 융경³¹ 연간(1567~1572) 초기에 지부 장렬문, 가기,

26 산해위(山海衛) : 현재 중국 허베이성 천황다오[秦皇島]에 있는 산하이관구[山海關區]에 설치되었던 위소이다. 1381년(명 홍무 14)에 설치되었으며 후군도독부(後軍都督府)에 속했다. 1737년(건륭 2)에 임유현(臨榆縣)을 설치하고 영평부에 속하게 된다.

27 서달(徐達) : 1332~1385. 명 개국공신으로 자는 천덕(天德)이다. 원 말기에 주원장의 군대에 참가하였다. 1364년에 주원장이 오왕(吳王)을 칭할 때 좌상국(左相國)으로 임명되었다. 1367년에 정로대장군(征虜大將軍)으로 임명되어 마침내 1368년에 원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시켰다. 명이 건국된 이후에 북원(北元)세력을 공격했다. 벼슬은 중서성 좌승상(中書省 左丞相)에 이르렀으며 위국공(魏國公)으로 봉해졌다. 사후에 주원장에 의해 중산왕(中山王)으로 추봉(追封)되었다. (『명사(明史)』 권125.)

28 보정부(保定府) : 현재 중국 허베이성 중부에 위치한 바오딩시[保定市] 일대이다.

29 장유(張柔) : 1190~1268. 원 초기의 무장으로 자는 덕강(德剛)이다. 원래는 금의 우도감(右都監)이었지만 원에 패배하여 생포된 후 도원수(都元帥)가 되었다. 금을 멸망시키는 데에 큰 공을 세웠으며, 송과의 전쟁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또한 1266년에 판행공부사(判行工部事)로서 대도성을 영건했고 그 다음해에 채국공(蔡國公)으로 봉해진다.

30 홍무 35 : 연왕(燕王) 주체(朱棣)가 1399년에 정난의 변(靖難之變)을 일으켜 등극한 후에 조카인 건문제(建文帝) 주윤문(朱允炆)의 연호인 '건문(建文)'을 인정하지 않고, 1399년부터 1402년까지를 홍무 32년부터 35년까지로 부르게 했다. 1595년에 건문 연호는 다시 회복되었다.

31 융경(隆慶) : 명 제12대 황제인 목종(穆宗) 융경제(隆慶帝) 주재후(朱載堉)의 연호로 1567년부터 1572년까지 6년 동안 사용되었다.

장시란(章時鸞)³²이 연달아 벽돌로 겹쳐 쌓았다. 청원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保定府城池, 元大將軍張柔始築. 明洪武三十五年, 都督孟善以磚石甃甕城四門增女牆, 設大寧都指揮使司暨五衛所守之. 周圍一十二里三百三十步, 高三丈五尺, 廣一丈五尺, 池深三丈, 闊五丈, 門四.【東曰望瀛, 南曰迎薰, 西曰瞻岳, 北曰拱極.】南面舊有三面, 後兩隅門廢, 土壁關梁尙存, 角樓四敵, 臺八十一, 警鋪四十九. 隆慶初, 知府張烈文, 賈淇章時鸞, 相繼砌磚. 清苑縣附郭.

■ 12 하간부(河間府)³³ 성지

송 희령³⁴ 연간(1068~1077)에 안무사 이숙지(李肅之)가 세웠다. 1403년(조선 태종 3, 명 영락 원년)에 하간위를 설치하여 지켰다. 1578년(조선 선조 11, 명 만력 6)에 지부 주상(朱裳)이 처음 그 적대를 벽돌로 쌓았다. 1582년(조선 선조 15, 만력 10)에 지부 연호작이 처음 성을 벽돌로 쌓을 것을 주청하였다. 성의 둘레는 16리이고 높이는 3장 2척이며 너비는 1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5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부춘, 남쪽은 등영, 서쪽은 영, 서북쪽은 공극문이라 한다.】각루는 4좌이고, 적대와 경포는 각각 41좌이다. 하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河間府城池, 宋熙寧中, 安撫使李肅之建. 永樂元年, 設河間衛守之. 萬曆六年, 知府朱裳始磚其敵臺. 十年, 知府燕好爵奏請始甃以磚石, 周圍十六里, 高三丈二尺, 廣一丈五尺, 池深二丈, 闊五丈, 門四.【東曰阜春, 南曰登瀛, 西曰瀛, 西北曰拱極.】角樓四, 敵臺警鋪各四十一. 河間縣附郭.

■ 13 진정부(眞定府)³⁵ 성지

한 동원읍의 옛 성이다. 진정현에서 남쪽으로 8리에 있으며 진(晉)이 치소를 상산

32 장시란(章時鸞) : 1510~1579. 명 지주부(池州府) 청양(靑陽) 사람으로 자는 맹천(孟泉)이다. 가정 연간(1522~1566)에 거인(舉人)이 되었다. 추현지현(鄒縣知縣)이 되어 유민들을 모아 농상(農桑)을 장려하여 명성을 쌓았다. 하남안찰사부사(河南按察司副使)로 황하(黃河) 남쪽 제방을 쌓는 일을 감독했다. 저서로는 『명현언행록(名賢言行錄)』이 있다.

33 하간부(河間府) : 현재 중국 허베이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 창저우시[滄州市]에 속한 허젠시[河間市] 일대이다.

34 희령(熙寧) : 송대 제6대 황제인 신종(神宗) 조옥(趙頊)의 첫 번째 연호로 1068년부터 1077년까지 10년 동안 사용되었다.

35 진정부(眞定府) : 지금의 허베이성 정당현[正定縣]이다.

군에 옮기면서 처음 세웠다. 후위가 안락루로 옮겼다가 후주가 다시 치소를 진정현으로 정하여 모두 석성으로 건축하였다. 당 숙종 보응(寶應) 연간(762~763)에 성덕군 절도사 이보신이 호타하(渟沱河)³⁶ 물을 끌어 성에 대어 더 확장해서 증건했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원년) 진정위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켰다. 성의 둘레는 24리이고 높이는 3장 남짓이며 너비는 2장 7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 남짓이며 너비는 10여 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영옥문이었는데 지금은 환취문으로 고쳤다. 남쪽은 장락, 서쪽은 진원, 북쪽은 영안문이다.】성루 4좌, 각루 4좌, 적대 85좌, 경포 88좌를 세웠다. 진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眞定府城池, 漢東垣故城, 在眞定南八里, 晉移治常山郡, 始建. 後魏遷安樂壘, 後周復治眞定, 俱建石城. 唐肅宗寶應中, 成德軍節度使李寶臣因渚水灌城, 復拓建之. 明洪武三年, 說眞定衛守之. 周圍二十四里, 高三丈餘, 廣二丈五尺, 池深二丈餘, 闊十餘丈, 門四.【東曰迎旭, 今改環翠, 南曰長樂, 西曰鎮遠, 北曰永安.】建月城樓四, 角樓四, 敵臺八十五, 警鋪八十八. 眞定縣附郭.

■ 14 정형현(井陘縣)³⁷ 성지(城池)

당 천장진(天長鎭)의 옛터이다. 송 희령(熙寧, 1068~1077) 연간에 현의 치소를 이곳으로 옮겼다. 원이 치소를 명수현(洺水縣)으로 옮겼다. 명이 1368년(고려 공민왕 17, 명 홍무 원년)에 다시 이곳에 현을 설치했다. 성의 둘레는 3리 20보이고 높이는 3장이며 너비는 2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3척이며 너비는 9척이다. 1543년(조선 중종 38, 명 가정 22)에 도어사 정여기(丁汝夔)가 벽돌로 쌓았다.

井陘縣城池, 卽唐天長鎭舊基. 宋熙寧中, 移縣治于此. 元移治洺水. 明洪武元年, 復於此置縣. 周圍三里二十步, 高三丈, 廣二丈五尺, 池深一丈三尺, 闊九尺. 嘉靖二十二年, 都御史丁汝夔甃以磚石.

36 호타하(渟沱河) : 중국의 산서성(山西省) 번치현(繁峙縣) 태희산(泰戲山) 고산촌(孤山村) 일대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하북성(河北省)에 이르고 한 지류가 부양하(滏陽河)와 합류한 뒤 말해로 흘러 들어간다.

37 정형현(井陘縣) : 허베이성[河北省] 서쪽 태행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관문이 있어 진한(秦漢)시대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주 목왕이 동쪽으로 순수하여 사냥을 나와 이곳에 도착해서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사면은 높고 가운데는 낮으니 깊은 우물[井]모양 같기도 하고 부역의 부두막[陘] 같기도 하다”라고 말한 데서 이곳의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周穆王東巡狩獵時, 來到此地, 看到‘四方高, 中央下, 如井之深, 如灶之陘’, 故名井陘.”(『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 15 순덕부(順德府)³⁸ 성지

춘추시대 제환공이 조와 위의 2개 국을 인솔하여 지었다. 1582년(조선 선조 15, 명 만력 10)에 지부 왕수성(王守誠)이 벽돌로 쌓고, 순덕부 수어백호소³⁹를 설치하여 이곳을 지키게 했다. 성의 둘레는 13리 100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는 5장 남짓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며 너비는 5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망제, 남쪽은 솔빈, 서쪽은 귀안, 북쪽은 원수문이라 한다.】월성은 2개, 각루는 4좌, 적루는 14좌, 경포는 30좌이다. 형대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順德府城池，春秋時齊桓公率曹衛二國所築。明萬曆十年，知府王守誠甃以磚石，設順德府守禦百戶所守之，周圍十三里一百步，高三丈五尺，廣五丈有奇，池深二丈，闊五丈，門四。【東曰望齊，南曰率賓，西曰歸安，北曰駕水。】月城二，角樓四，敵樓十四，警鋪三十。邢臺縣附郭。

■ 16 광평부(廣平府)⁴⁰ 성지

두건덕(竇建德)⁴¹의 옛터이다. 명 가정 연간(1522~1566)에 지부 진조(陳俎)가 벽돌로 쌓았다. 그 해자는 이전에 물이 없었다. 성화 연간(1465~1487)에 지부 이진(李進)이 물을 끌어와서 넣었다. 가정 연간에 지부 최대덕(崔大德)이 또 곽에 튼튼한 담을 쌓아 장하(漳河)와 부양강(滏陽江)이 범람할 우려를 없애고, 광평영 수비(廣平營守備)를 설치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성의 둘레는 9리 13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38 순덕부(順德府) : 현재 중국 허베이성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 신타이시[邢臺市] 일대이다.

39 백호소(百戶所) : 명의 병제(兵制)인 위소제(衛所制)의 병력편성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다. 『명사(明史)』 「병지(兵志)」에 의하면 명(明)이 천하를 통일한 후 요해지로서 1개 군에 관계되는 곳에는 소를, 여러 군에 관계되는 곳에는 위를 설치했다. 대략 5,600명을 위(衛)로, 1,120명을 천호소(千戶所)로, 112명을 백호소(百戶所)로 하였다. [天下既定 度要害地 係一郡者設所 連都者設衛 大率五千六百人爲衛 千一百二十人爲千戶所 百十有二人爲百戶所] 백호소의 조직은 지휘관인 총기(總旗) 2명, 소기(小旗) 10명, 병사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소기는 병사 10명을 통솔했다.

40 광평부(廣平府) : 현재 중국 허베이성 남부에 있는 한단시(邯鄲市) 용년현[永年縣]에 속하는 광푸진(廣府鎮) 일대이다.

41 두건덕(竇建德) : 573~621. 수(隋) 말에 활약한 군웅(群雄)이다. 그는 수양제(隋煬帝) 대업 연간(大業年間, 605~618) 말기에 이백인장(二百人長)이 되었다. 손안조(孫安祖)의 반란을 돕다가 일가족이 몰살당하자 고사달(高士達)에게 투항했고 군사마(軍司馬)에 올랐다. 고사달이 죽자 지도자가 되어 10만여 명을 이끌었다. 617년에 낙수(樂壽)에서 장락왕(長樂王)이라 부르고 연호를 정축(丁丑)이라 정한 뒤 신도(信都)와 청하(清河)의 여러 군현(郡縣)을 함락했다. 다음 해 하왕(夏王)이라 부르고 낙수에 도읍을 정한 뒤 연호도 오봉(五鳳)이라 하면서 나라 이름을 하(夏)라 했다. 다음 해 도읍을 명주(洺州)로 옮겼다. 620년에 이세민(李世民)이 왕세충(王世充)을 토벌할 때 군사를 이끌고 왕세충을 도왔다가 이세민에게 패하고 장안에서 피살당했다. (『구당서』 권54, 「두건덕열전」)

너비는 2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 너비는 15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양화, 남쪽은 양명, 서쪽은 보화, 북쪽은 정원문이라고 한다.】각루 4좌, 적대 10좌, 경포 57좌이다. 영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廣平府城池, 竇建德舊基. 明嘉靖間, 知府陳俎瑩以磚石, 其隍先無水. 成化間, 知府李進引水注之. 嘉靖間⁴², 知府崔大德又加重垣于郭, 以防漳滏之患. 設廣平營守備守之, 周圍九里十三步, 高三丈五尺, 廣二丈五尺, 池深二丈, 闊十五丈, 門四.【東曰陽和, 南曰陽明, 西曰保和, 北曰貞元.】角樓四, 敵臺十, 警鋪五十七. 永平縣附郭.

■ 17 한단현(邯鄲縣)⁴³ 성지

과거 조(趙)나라의 옛 성터에 있다. 성 서남쪽의 신성은 겨우 2리쯤 된다. 명 성화 연간(1465~1487)에 처음 보수하고 넓혔다. 성의 둘레는 8리이고, 높이는 3장이며 너비 3장이다. 해자의 깊이 1장 5척이고 너비 7장이다.

邯鄲縣城池, 古趙國舊城址在. 城西南新城僅二里許. 明成化間始修拓之, 周圍八里, 高三丈, 廣三丈, 池深一丈五尺, 闊七丈.

■ 18 대명부(大名府)⁴⁴ 성지

당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 낙언정(樂彦禎)이 세웠다. 성의 둘레는 80리이고, 하북의 요충지이다. 송 경력(慶曆)⁴⁵ 연간(1041~1048)에 세워 북경(北京)이라 하였다. 1401년(조선 태종 원년, 명 홍무 34)에 비어수도지휘 오성이 비로소 옮겨 세웠다. 지금 성의 둘레는 9리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는 2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5척이며 너비는 깊이의 배이다. 문 4개이다.【동쪽은 체인, 남쪽은 승례, 서쪽은 낙의,

42 間 : 저본에는 '門'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교열하였다.

43 한단현(邯鄲縣) : 현재 중국의 허베이성[河北省]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 한단시[邯鄲市]이다. 춘추시대에 위(衛)의 도읍지로 건설되어, 전국시대 때는 조(趙)의 중심지였다. 진·한시대까지 그 번영이 지속되었으나, 그 후 정치적 변동으로 점차 쇠퇴하여 당 이후에는 부(府)와 주(州)에 속하는 현(縣)이 되었다.

44 대명부(大名府) : 현재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의 남서부에 있는 다망구[大名區]이다.

45 경력(慶曆) : 송 제4대 황제인 인종(仁宗) 조정(趙禎)의 여섯 번째 연호로 1041년부터 1048년까지 8년 동안 사용되었다.

북쪽은 단지문이라 한다.】각루 4좌, 적대 30좌, 경포 40좌이다. 원성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大名府城池, 唐魏博節度使樂彥禎建, 城周八十里, 爲河北雄鎮. 宋慶曆間建爲北京. 明洪武三十四年, 圯於水都指揮吳成始徙建. 今城周圍九里, 高三丈五尺, 廣二丈五尺, 池深一丈五尺, 闊倍之, 門四.【東曰體仁, 南曰崇禮, 西曰樂義, 北曰端智.】角樓四, 敵臺三十, 警鋪四十. 元城縣附郭.

■ 19 선부진(宣府鎮)⁴⁶ 성지

본래 원나라 선덕부의 성이다. 1394년(조선 태조 3, 명 홍무 27)에 곡왕명(谷王命)이 일을 맡아 살펴 쌓았다. 성의 둘레는 24리 남짓이고 높이는 2장 8척이며 너비는 높이와 같다. 문은 7개이다.【동쪽은 정안, 서쪽은 태신, 남쪽은 창평·선덕·영안, 북쪽은 광령·고원문이다.】나중에는 4개의 문만 그대로 두고, 선덕문·영안문·고원문은 모두 막았다. 선덕(宣德)⁴⁷ 연간(1426~1435) 초에 영녕백 담광(譚廣)이 진으로 와서 성루·각루 각각 4좌와 포우(鋪宇) 172칸을 증건하였다. 1440년(조선 세종 22, 명 정통 5) 사이에 도어사 나형신이 벽돌을 감싸서 수리할 것을 상소를 올려 청했다. 1634년(조선 인조 12, 명 숭정⁴⁸ 7)에 웅성루 4개를 수리했다. 선부전위는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宣府鎮城池, 本元宣德府城. 明洪武二十七年, 谷王命所司展築, 周圍二十四里有奇, 高二丈八尺, 廣如之, 門七.【東曰定安, 西曰泰新, 南曰昌平, 曰宣德, 曰永安, 北曰廣寧, 曰高遠.】後止留四門, 其宣德永安高遠竝窒之. 宣德初, 永寧伯譚廣來鎮, 增建城樓. 角樓各四座, 鋪宇百七十二間. 正統五年, 都御史羅亨信, 䟽請磚石包甃. 崇禎七年, 修四甕城樓. 宣府前衛附郭.

46 선부진(宣府鎮) : 명 초기에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 지대에 설치했던 구변진(九邊鎮) 중 하나였다. 지휘관으로 진수총병관(鎮守總兵官)이 있고 그 지휘하에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기병과 보병이 상주했다.

47 선덕(宣德) : 명 제5대 황제인 선종(宣宗) 선덕제(宣德帝) 주재후(朱載堉)의 연호로 1426년부터 1435년까지 10년 동안 사용되었다.

48 숭정(崇禎) : 명 제16대 황제인 의종(毅宗) 숭정제(崇禎帝) 주유검(朱由檢)의 연호로 1628년부터 1644년까지 17년 동안 사용되었다.

■ 20 성경(盛京)⁴⁹ 성지

1631년(조선 인조 9, 청 천총⁵⁰ 5)에 세웠다. 본래 명 심양위의 성지였다. 요·금은 심주(瀋州)라고 하였고, 원은 심양로라고 했다. 1388년(고려 우왕 14, 명 홍무 21) 지휘 민충(閔忠)이 옛터를 따라 지었다.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다. 해자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 안의 해자의 너비는 3장이고 깊이는 8척이며 주위가 11리 30보이다. 밖의 해자의 너비는 3장이고 깊이는 8척이며 주위가 11리 남짓이다. 문은 4개이다. 1631년에 옛 성에 근거하여 증축하였다. 그 내외는 벽돌과 돌로 지었다. 높이는 3장 5척이고, 너비는 1장 8척이다. 여장은 7척 5촌이며 주위가 9리 332보이다. 4면의 타구는 651개, 적대는 8좌, 각루는 4좌이다. 옛 문을 고쳐서 8개를 만들었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동문【무근】, 소동문【내치】이다. 남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남문【덕성】, 소남문【천우】이다.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서문【회원】, 소서문【외양】이다. 북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북문【복승】, 소북문【지재】이다. 해자의 너비는 14장 5척, 둘레는 10리 204보이다. 종루는 복승문 안 큰 거리에 1개가 있다. 고루는 지재문 안에 1개가 있다. 승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盛京城池, 天聰五年建, 本明瀋陽衛城池. 遼金曰瀋州, 元爲瀋陽路. 明洪武二十一年, 指揮閔忠因舊址所築, 周圍九里三十步, 高二丈五尺, 池二重. 內闊三丈, 深八尺, 周圍一十里三十步. 外闊三丈, 深八尺, 周圍一十一里有奇. 門四, 天聰五年因舊城增拓. 其制內外甃石, 高三丈五尺, 闊一丈八尺, 女牆七尺五寸, 周圍九里三百三十二步. 四面垛口六百五十一, 敵樓八座, 角樓四座, 改舊門爲八, 東之大東門【曰撫近】, 小東門【曰內治】, 南之大南門【曰德盛】, 小南門【曰天祐】, 西之大西門【曰懷遠】, 小西門【曰外攘】, 北之大北門【曰福勝】, 小北門【曰地載】. 池闊十四丈五尺, 周圍十里二百四步. 鍾樓一在福勝門內大街, 鼓樓一在地載門內. 承德縣附郭.

49 성경(盛京) : 현재 중국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瀋陽] 일대이다. 청 태조(淸太祖)가 1625년에 요양(遼陽)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태종(太宗) 때에 성을 쌓고 단과 사당을 세우고는 성경이라 명명했다. 그 후 세조(世祖) 순치제가 입관하여 북경(北京)으로 천도한 뒤 유도(留都)로서 봉천부(奉天府)를 설치했다.

50 천총(天聰) : 청 제2대 황제인 태종(太宗) 애신각라 황태극(愛新覺羅 皇太極)의 연호로 1627년부터 1636년까지 8년 동안 사용되었다.

■ 21 요양주(遼陽州)⁵¹ 성지

이 성은 바로 명 요동도사(遼東都司)의 성이다. 1372년(고려 공민왕 21, 명 홍무 5)에 도지휘 마운(馬雲)과 섭왕(葉旺)이 원(元)의 남아 있는 터에 따라 수축했다. 도지휘 반경(潘敬)이 동성을 북쪽의 토성까지 넓혔다. 1416년(조선 태종 16, 명 영락 14)에 도지휘 왕진(王眞)이 담을 둘러 쌓았는데 둘레는 11리 395장이고, 높이는 3장 3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5척이고, 둘레는 24리 285보이다. 문은 9개로 남쪽은 2개, 서쪽은 1개, 동쪽은 2개, 동북쪽은 1개가 있고, 외부의 동쪽·북쪽·서쪽에 각각 1개가 있다. 옛터를 살펴보니 둘레는 24리 85보이다.

遼陽州城池, 卽明遼東都司城也. 洪武壬子, 都指揮馬雲, 葉旺, 因元遺址修築. 都指揮潘敬, 開擴東城迤北土城. 永樂丙申都指揮王眞, 包砌, 周圍一十一里三百九十五丈, 高三丈三尺, 池深一丈五尺, 周圍二十四里二百八十五步. 門九, 南二西一東二東北一外東西北各一. 按舊址, 周圍二十四里八十五步.

■ 22 개평현(蓋平縣)⁵² 성지

바로 명 개주위의 성이다. 1372년(고려 공민왕 21, 명 홍무 5)에 지휘 오왕(吳王)이 옛 토성을 따라 수축했다. 1376년(고려 우왕 2, 명 홍무 9)에 남면을 벽돌로 둘러 쌓았다. 둘레는 5리 88보이고, 높이는 1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5척이고, 너비는 1장 8척이다. 문은 3개이다. 【동쪽은 순청, 남쪽은 광은, 서쪽은 영해문이라 한다.】 종고루는 성의 사거리 가운데 있다. 살펴보면 지금 성의 둘레는 7리 3보이다. 옛터를 따라 확장하면서 지어(池淤)를 쌓았다.

蓋平縣城池, 卽明蓋州衛城. 洪武五年, 指揮吳王, 因舊土城修築. 九年展築南面磚石包砌, 周圍五里八十八步, 高一丈五尺, 池深一丈五尺, 闊一丈八尺, 門

51 요양주(遼陽州) : 현재 중국 동베이 지방[東北] 남부에 있는 라오닝성[遼寧省] 일대이다. 전국시대에 연에 속했고, 진나라 때 요동(遼東)·요서(遼西) 2개의 군이 설치되었다. 한나라 때는 유주(幽州)에 속했다. 요와 금 때는 동경(東京)을 두었고, 원나라 때는 요양행성(遼陽行省)에 속하였다. 명나라 때인 1371년에 정로도위(定遼都衛)를 설치했다가 1375년에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로 고쳐 25주를 거느리게 했다. 청 초기에는 성경(盛京)이었다.

52 개평현(蓋平縣) : 현재 중국 라오닝성 요동반도(遼東半島) 북서부에 있는 가이저우시[蓋州市]이다. 전국시대에는 연이 요동군을 설치했고, 한 때 평곽현(平郭縣)이 설치된다. 407년에 고구려가 점령하고 건안성을 축조하게 된다. 금 때 개주(蓋州)로 개칭되고, 원 때 개주로(蓋州路)가 설치된다. 1371년에 개주위(蓋州衛)를 설치했다. 1664년에 개평현(蓋平縣)으로 되었다.

三.【東曰順清, 南曰廣恩, 西曰寧海.】鍾鼓樓在城中衢. 按今城周圍七里零三步, 因舊址拓而築之池淤.

■ 23 철령현(鐵嶺縣)⁵³ 성지

살펴보니 옛 철령성으로 지금의 치소에서 동남쪽으로 500리에 있었는데 고려와 인접해 있었다. 1393년(조선 태조 2, 명 홍무 26)에 요하 동쪽에 있는 지금의 땅으로 옮겨 설치했다. 성의 둘레는 4리 60보이고 높이는 2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5척이고, 너비는 3장이다. 지금 현의 성을 살펴보면 성의 둘레가 4리 216보이고 문은 4개이다.

鐵嶺縣城池, 按古鐵嶺城在今治東南五百里, 接高麗界. 明洪武二十六年, 移置今地在遼河東. 周圍四里六十步, 高二丈, 池深一丈五尺, 闊三丈. 今按縣城, 周圍四里二百十六步, 門四.

■ 24 금주부(錦州府)⁵⁴ 성지

바로 명 광녕(廣寧) 땅의 중·좌 2둔위의 성이다. 1391년(고려 공양왕 3, 명 홍무 24)에 지휘 조봉(曹奉)이 옛 성터를 따라 수축했다. 성의 둘레는 5리 320보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다. 1476년(조선 성종 7, 명 성화 12)에 도지휘 왕개가 남북 45장, 동서 95장으로 증축했다. 1504년(조선 연산군 10, 명 홍치⁵⁵ 17)에 참장 호충이 성의 남관을 합쳤는데 주위가 6리 23보이다. 지형이 소반과 같아 흔히 말하기를 반성지(盤城地)라고 한다. 해자의 둘레는 7리 573보이고, 너비는 3장 5척이며, 깊이는 1장 2척이다. 성문은 4개이다. 【동쪽은 영원, 남쪽은 영안, 서쪽은 광순, 북쪽은 진북문이라 한다.】종고루는 십자 거리에 있다. 지금 살펴보면 성의 둘레는 5리 120보이고 동쪽에 있는 관상(關廂)과 소성은 서로 붙었다. 옛날 기록에는 3리 160보, 높이는 1장 5척이라고 되어 있다. 문은 3개이다. 【소남문, 소서문, 소동문이다.】 지금 살펴보면 성

53 철령현(鐵嶺縣) : 현재 중국 랴오닝성 북동쪽에 있는 도시 데링현[鐵嶺縣]이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철령현은 본래 말갈(靺鞨)의 일파인 월희(越喜)의 땅으로 발해(渤海)가 부주(富州)를 설치하고 회원부(懷遠府)에 속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요 때 은주(銀州)로 불렸고, 명 때 철령위(鐵嶺衛)가 설치된다. 청 때 철령현(鐵嶺縣)이 설치되었다.

54 금주부(錦州府) : 현재 중국 랴오닝성 남서쪽에 있는 진저우시[錦州市] 일대이다.

55 홍치(弘治) : 명의 제9대 황제인 홍치제(弘治帝) 주유탕(朱祐樞)의 연호로 1488년부터 1505년까지 18년 동안 사용하였다.

의 둘레는 2리이다. 금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錦州府城池, 卽明廣寧中左二屯衛城也. 洪武二十四年, 指揮曹奉卽舊城址修築, 周圍五里三百二十步, 高二丈五尺. 成化十二年, 都指揮王鍬增展南北四十五丈, 東西九十五丈. 弘治十七年, 參將胡忠併城南關, 周圍六里二十三步, 形勢若盤, 俗謂之盤城地. 池周圍七里五百七十三步, 闊三丈五尺, 深一丈二尺, 城門四.【東曰寧遠, 南曰永安, 西曰廣順, 北曰鎮北.】鍾鼓樓在十字街, 今按城周圍五里一百二十步, 東有關廂, 小城相附. 舊載三里一百六十步, 高一丈五尺, 門三.【曰小南門, 小西門, 小東門.】今按城周圍二里. 錦縣附郭.

■ 25 영원주(寧遠州)⁵⁶ 성지

1428년(조선 세종 10, 명 선덕 3) 총병 무개(巫凱)가 영원위성을 세웠다. 성의 둘레는 5리 196보이고, 높이는 3장이다. 해자의 둘레는 7리 8보이고, 깊이는 1장 5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춘화, 남쪽은 영휘, 서쪽은 영녕, 북쪽은 성원문이라 한다.】종고루는 거리 가운데 있다. 외성의 둘레는 9리 124보이고, 높이는 내성과 같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원안, 남쪽은 영청, 서쪽은 영은, 북쪽은 대정문이라 한다.】성의 4개의 모서리에는 모두 층루를 설치하였다. 지금 살펴보면 내성의 둘레는 5리 190보이고, 외성의 둘레는 9리 124보이다.

寧遠州城池, 明宣德三年, 總兵巫凱建寧遠衛城. 周圍五里一百九十六步, 高三丈. 池周圍七里八步, 深一丈五尺, 門四.【東曰春和, 南曰迎輝, 西曰永寧, 北曰盛遠.】鍾鼓樓在中街. 外城周圍九里一百二十四步, 高如內城, 門四.【東曰遠安, 南曰永清, 西曰迎恩, 北曰大定.】四角俱設層樓. 今按內城周圍五里一百九十步, 外城周圍九里一百二十四步.

■ 26 광녕현(廣寧縣)⁵⁷ 성지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지휘 왕웅이 수축했다. 성의 둘레는 546장이다. 해자

56 영원주(寧遠州) : 현재 중국 랴오닝성 남서쪽에 있는 후루다오시[葫蘆島市]에 속한 도시인 싱청시[興城市] 일대이다.

57 광녕현(廣寧縣) : 현재 중국 랴오닝성 남서쪽에 있는 진저우시에 속한 베이전시[北鎮市] 일대이다.

의 깊이는 1장 5척, 너비는 2장, 둘레는 11리 45보이다. 뒤에는 신성을 두었는데 둘레는 17리이고, 문은 6개이다.【동쪽은 영안, 동남쪽은 태안, 남쪽은 영은, 서쪽은 공진문인데, 서쪽의 문 1개는 흙으로 막혀있고, 북쪽은 청원문이다.】각루는 4좌이다.【북쪽은 진삭, 동남쪽은 유원, 서남쪽은 망경, 서쪽은 침수이다.】종루는 큰 시(市)의 동쪽 거리에 있고, 고루(鼓樓)는 큰 시의 북쪽 거리에 있다. 지금 살펴보니 성의 둘레는 10리 280보, 높이 3장 5척, 두께는 1장 5척이며, 남쪽에 있는 관상(關廂) 삼면의 둘레는 3리 220보이다. 문은 3개이다.【동쪽은 선화, 남쪽은 영은, 서쪽은 진무문이다.】내성과 관상은 모두 14리 240보이다.

廣寧縣城池, 明洪武間指揮王雄修築, 周圍五百四十六丈, 池深一丈五尺, 闊二丈, 周圍十一里四十五步. 後展新城周圍十七里, 門六.【東曰永安, 東南曰泰安, 南曰迎恩, 西曰拱鎮, 西一門土塞, 北曰清遠.】角樓四座.【北曰鎮朔, 東南曰柔遠, 西南曰望京, 西曰瞻秀.】鍾樓在大市東街, 鼓樓在大市北街. 今按城周圍十里二百八十步, 高三丈五尺, 厚一丈五尺. 南關廂三面, 周圍三里二百二十步, 門三.【東曰宣化, 南曰迎恩, 西曰振武.】內城與關廂, 共十四里二百四十步.

■ 27 제남부(濟南府)⁵⁸ 성지

옛날에 성이 있었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 처음 안과 밖을 벽돌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12리 48장이고 높이는 3장 2척이다. 해자의 너비는 5장이며, 깊이는 3장이다. 문이 4개이다.【동쪽은 제천, 서쪽은 낙원, 남쪽은 순천문인데 지금은 역산으로 고쳤다. 북쪽은 회파문이다.】역성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濟南府城池, 舊有城, 明洪武四年, 始內外甃以磚石. 周圍十二里四十八丈, 高三丈二尺, 池闊五丈, 深三丈, 四門.【東曰齊川, 西曰濼源, 南曰舜田, 今改爲歷山, 北曰會波.】歷城縣附郭.

58 제남부(濟南府) : 현재 중국 산둥성 지남시[濟南市] 일대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제(濟)의 역하읍(歷下邑)이 있었고, 한 때는 역성현(歷城縣)이 있었다. 469년(북위 황호 3)에 제주(濟州)로 했다가 수 대에 제군(濟郡)으로 고쳤다. 618년에 제주로 고쳤다가 746년(당 천보 5)에 제남군(濟南郡)으로 불렸다. 1116년에 제주(齊州)를 설치했고, 원나라 때는 제남로(濟南路)를 설치했다. 1367년에 주원장이 제남부(濟南府)로 고쳤다.

■ 28 치천현(淄川縣)⁵⁹ 성지

옛날에는 토성이었다. 성의 둘레는 5리이고 높이는 2장 4척 남짓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서대, 남쪽은 숙성, 서쪽은 사제, 북쪽은 공극문이다.】송정 연간(1628~1644) 말에 지현(知縣) 한승선⁶⁰이 처음 성을 벽돌로 쌓았다.

淄川縣城地, 舊土城, 周圍五里, 高二丈四尺有奇, 門四.【東曰書帶, 南曰淑聖, 西曰沙隄, 北曰拱極.】崇禎末, 知縣韓承宣始甃以磚.

■ 29 연주부(兗州府)⁶¹의 성지

벽돌로 쌓은 성으로 성의 둘레는 14여 리이고 높이는 5장 6척이며 너비는 3장 6척이다. 문은 4개이다.【구선, 덕정, 사수, 청석문이다.】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2장 7척이다. 밖에는 대곽(帶郭)이 있다. 성곽의 문은 5개이다.【종로, 침역, 금제, 공극, 양태문이다.】자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兗州府城池, 甃城, 周圍一十四里餘, 高五丈六尺, 闊三丈六尺, 門四.【曰九仙, 德政, 泗水, 青石.】池深二丈, 闊二丈七尺, 外有帶郭, 郭門五.【曰宗魯, 瞻嶧, 襟濟, 拱極, 仰泰.】滋陽縣附郭.

■ 30 동창부(東昌府)⁶² 성지

침노하(枕漕河) 강의 서쪽 기슭에 있다. 993년(고려 성종 10, 송 순화 3)에 박주에서 이곳으로 옮겼는데 옛날에는 흙으로 성을 쌓았다. 1372년(고려 공민왕 21, 명 홍무 5)에 수어지휘 진용이 벽돌을 구워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남짓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터의 두께는 2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광빈, 남쪽은 남훈, 서쪽은 남일, 북쪽은 관약문이다.】누로 25개는 성을 감쌌고, 다시 여(廬) 47개를 성에 붙여서 곽이 되었다. 성곽의 밖에는(성의 외곽에는) 각각 수문과 조교를 설치했다. 해자의

59 치천현(淄川縣) : 현재 중국 산둥성 중부에 있는 쑤보시[淄博市]의 쑤촨구[淄川區] 일대이다.

60 한승선(韓承宣) : 자는 강후(康侯)이고 산서성 보주(蒲州) 사람으로 1634년에 진사(進士)가 된다. 1639년(명 송정 12)에 사망했다. 환적(宦績)을 보기가 어렵다. (『송정역성현지(崇禎歷城縣志)』)

61 연주부(兗州府) : 현재 중국 산둥성 남서부 지닝시[濟寧市]에 속한 연주우시[兗州市] 일대이다.

62 동창부(東昌府) : 현재 중국 산둥성 서부 라오청시[聊城市]에 있는 동창부[東昌府] 일대이다.

깊이는 2장이며, 너비는 그 3배이다. 성을 호위하는 제방이 20리에 걸쳐 이어져 있다. 요성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東昌府城池, 枕漕河西岸. 宋淳化三年, 自博州遷此, 舊築以土. 明⁶³洪武五年, 守禦指揮陳鏞, 陶甃甃焉. 周七里有奇, 高三丈五尺, 基厚二丈, 門四.⁶⁴【東曰廣賓, 南曰南薰, 西曰納日, 北曰鎖⁶⁵鑰.】樓櫓二十有五, 環城, 更廬四十有七. 附城爲郭, 郭外各爲水門吊橋, 池深二丈, 闊三倍. 護城堤延亘二十里. 聊城縣附廓.

■ 31 임청주(臨淸州)⁶⁶ 성지

처음에는 위하(衛河)⁶⁷ 서쪽에 있었다. 송 건염 연간(1127~1130)⁶⁸에 조인진(曹仁鎭)으로 옮겼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문하(汶河)⁶⁹와 위하의 사이에 옮겨 설치하였다. 정통 연간(1436~1449)에 평강후 진예가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9리 남짓이고 벽돌로 쌓았는데 높이는 4심(尋)⁷⁰이다. 터의 너비는 3심이고, 성 밖에 해자를 파는데 깊이와 너비는 모두 9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위무, 서쪽은 광적, 남쪽은 영청, 북쪽은 진정문이다.】1495년(조선 연산군 원년, 명 홍치 8)에 병비부사 진벽이 여장을 늘려서 설치하였고, 월성을 축성했다. 돌을 쌓아 만든 다리는 4개이다. 1521년(조선 중종 16, 명 정덕⁷¹ 16)에 부사 조계작(趙繼爵)이 나성을 쌓았다. 1542년(조선 중종 37, 명 가정 21)에 순무 증선, 부사 왕양이 넓게 확장하고, 신성이라 이름하였다. 성곽의 크기⁷²는 20리이다. 문수와 위수에 걸쳐 있고 문 6개가 있다.【동쪽은 빈양·경대, 남쪽은 흠명, 서쪽은 정서·수원, 북쪽은 회삭문이다.】또한 수문 3개

63 明 : 저본에는 '朋'으로 되어 있으나, 『흠정고금도서집성』 「경제휘편(經濟彙編) 고공전(考工典)」 제18권, 산동통지(山東通志)에 근거하여 교열하였다.

64 四 : 저본에는 '西'로 되어 있으나, 『흠정고금도서집성』 「경제휘편 고공전」 제18권, 산동통지에 근거하여 교열하였다.

65 鎖 : 저본에는 '鑰'로 되어 있으나, 『흠정고금도서집성』 「경제휘편 고공전」 제18권, 산동통지에 근거하여 교열하였다.

66 임청주(臨淸州) : 현재 중국 산둥성 서부 라오청시에 있는 린청시[臨淸市] 일대이다.

67 위하(衛河) : 하이허강 수계의 웨이허강[衛河]을 말한다.

68 건염(建炎) : 남송 제1대 황제인 고종(高宗) 조구(趙構)의 연호로 1127년부터 1130년까지 4년 동안 사용되었다.

69 문하(汶河) : 산둥성에 있는 하천인 원허[汶河]를 말한다.

70 심(尋) : 길이의 단위로, 1심은 8척이다.

71 정덕(正德) : 명 제10대 황제인 무종(武宗) 정덕제(正德帝) 주후조(朱厚照)의 연호로 1506년부터 1521년까지 16년 동안 사용되었다.

72 성곽의 크기는 : 원문은 '延袤'인데 성곽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연은 동서, 무는 남북을 가리킨다.

를 만들어서 각각 수루를 만들어서 마주보게 하였다. 그 위에 월성 4개를 만들고
 갱여 32좌를 설치했다. 1551년(조선 명종 6, 명 가정 30)에 순무 왕여, 부사 이현경이
 적대 32좌를 설치했다. 1559년(조선 명종 14, 명 가정 38)에 부사 장감이 전반(戰盤)을
 수리하고, 누로의 수문을 늘리고 익루를 쌓았다.

臨清州城池, 始在衛河西. 宋建炎間, 移曹仁鎮, 明洪武初, 徙置汶衛之間. 正
 統間, 平江侯陳豫築城, 周圍九里有奇, 甃以甃石, 高四尋. 基廣三尋, 外鑿隍深
 廣皆九尺, 門四【東曰威武, 西曰廣積, 南曰永清, 北曰鎮定.】弘治乙卯, 兵備副
 使陳璧, 增置女牆, 築月城, 疊石爲橋者四. 正德辛未, 副使趙繼爵築羅城. 嘉靖
 壬寅, 巡撫曾銑副使王揚拓而廣之, 名新城. 延袤二十里, 跨汶衛⁷³二水, 爲門
 六【東曰賓陽, 曰景岱, 南曰欽明, 西曰靖西, 曰綏遠, 北曰懷朔.】又爲水門三, 各
 爲戍樓對峙, 其上爲月城四, 爲更廬三十有二. 嘉靖辛亥, 巡撫王忬, 副使李憲卿,
 爲敵臺三十有二. 己未, 副使張鑑修戰盤, 增樓櫓水門, 各築翼樓.

■ 32 청주부(靑州府)⁷⁴ 성지

벽돌로 쌓은 성으로 광고(廣固)와 동양(東陽) 성이 무너지게 된 후 북제(北齊) 때
 처음 지었다. 지금의 성은 옛 성을 모두 흙으로 덮은 것이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에 도지휘 섭대왕이 누각을 중수하면서 벽돌로 쌓았다. 둘레는 23리 남짓
 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다. 해자의 너비는 같고, 깊이는 1장 5척이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해대, 남쪽은 운산, 서쪽은 태산, 북쪽은 능상문이다.】동쪽, 남쪽, 북쪽 3개
 의 문은 모두 월성의 중관에 있다. 1378년(고려 우왕 4, 명 홍무 11)에 도지휘 정덕이
 동양의 무너진 성을 수리하고 지금의 성과 합했는데 문은 모두 벽돌로 되어 있다.
 1457년(조선 세조 3, 명 천순 원년)에 도지휘 고원, 지부 서육과 조위가 북문의 적루 3
 좌를 세우고 동문과 남문의 적루는 4좌를 중수하였다. 각루는 4좌이고, 와포는 26
 곳이다. 1534년(조선 중종 29, 명 가정 13⁷⁵)에 첨사 강천작이 서문의 월성을 증축했다.

73 衛 : 저본에는 “衛”으로 되어 있으나, 『흙정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18권, 산동통지에 근거하여 교열하였다.

74 청주부(靑州府) : 현재 중국 산둥성 중둥부 웨이팡시(濰坊市)에 있는 청저우시[靑州市] 일대이다.

75 가정 13 : 저본에는 “13년” 앞에 연호가 적혀 있지 않다. 『흙정고금도서집성』 「방여회편 직방전」 제262권의 청주부부귀고
 4(靑州府部彙考四)에 “嘉靖八年 知府江珊相繼修葺 十三年 僉事康天爵增築西門月城”라는 문구에 근거해서 13
 년은 가정 13년으로 보았다.

익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青州府城池, 甌城, 自廣固東陽廢後, 北齊始築. 今城舊皆覆土. 明洪武三年, 都指揮葉大旺增修, 樓堞, 砌以甌石. 周圍二十三里有奇, 高三丈五尺, 壕闊如之, 深一丈五尺. 四門.【東曰海岱, 南曰雲山, 西曰泰山, 北曰凌霜.】東南北三門, 皆有月城重關. 十一年, 都指揮丁德修東陽廢城, 與今城相合, 門皆甌甃. 天順元年, 都指揮高源, 知府徐郁趙偉, 建北門敵樓三座, 重修東門南門敵樓四座, 角樓四座, 窩鋪二十六所. 十三年, 僉事康天爵, 增築西門月城. 益都縣附郭.

■ 33 임치현(臨淄縣)⁷⁶ 성지

옛 제나라 성의 서남쪽에 있다. 원 말에 달로화적(達魯花赤)⁷⁷ 이증명이 개축했다. 둘레는 4리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조양, 서쪽은 통주, 남쪽은 영은, 북쪽은 망경이다.】1515년(조선 중종 10, 명 정덕 10)에 지현 마섬이 월성을 쌓았고, 독을 높게 해서 방어하고 있다. 1643년(조선 인조 21, 명 숭정 16) 지현 추봉길이 공심적대 10좌를 지었다.

臨淄縣城池, 在古齊城之西南. 元末達魯花赤李仲名改築, 周圍四里. 門四.【東曰朝陽, 西曰通晝, 南曰迎恩, 北曰望京.】明正德十年, 知縣馬暹築月城, 護以崇隄. 崇禎十六年, 知縣鄒逢吉, 築空心敵臺十座.

■ 34 등주부(登州府)⁷⁸ 성지

성의 둘레는 9리이고, 높이는 3장 5척으로 모두 벽돌로 쌓았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춘생, 남쪽은 조천, 서쪽은 영은, 북쪽은 진해문이다.】문루는 각루와 이어

76 임치현(臨淄縣) : 현재 중국 산둥성 중부에 있는 쑤보시[淄博市]의 린쯔구[臨淄區] 일대이다.

77 달로화적(達魯花赤) : 몽골어 다루가치(darughachi)의 음역(音譯)으로 원나라 관직 명칭이다. 점령 지역 내의 민정(民政)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그 지역 백성을 직접 다스리거나 내정에 관여하였다. 원나라 때에는 한인(漢人)이 정직(正職)을 맡지 못하였고, 조정의 각부(各部) 및 각로(各路)와 부주현(府州縣)에 모두 달로화적을 설치하여, 몽골인이거나 색목인(色目人)이 맡아 실권을 장악하였다. 『원사(元史)』 권6 「세조본기(世祖本紀)」에 “몽골인을 각로의 달로화적으로 삼고, 한인을 총관(總管)으로, 회회인(回回人)을 부관(副官)으로 삼되 이를 영원한 정제(定制)로 삼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78 등주부(登州府) : 현재 중국 산둥성 북동부에 있는 옌타이시[煙台市]에 속한 도시인 팡라이시[蓬萊市] 일대이다.

져 있고 모두 7좌이고, 와포는 56좌이다. 수문은 3개이다.【남쪽은 상수문으로 흑수가 들어오고, 동쪽은 소수문으로 밀수가 들어오며, 서쪽은 하수문으로 흑수와 밀수 2개의 강이 합쳐져 바다에 다다른다.】해자의 너비는 2장이고 깊이는 1장이다. 명 만력 연간(1573~1620)에 적대 28좌를 증축했다. 순정 연간(1628~1644)에 지부 계로(桂輅)와 대헌명(戴憲明)이 잇따라 증축했는데 높이가 3척 5촌이었다. 봉래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登州府城池, 周九里, 高三丈五尺, 皆甃石, 門四.【東曰春生, 南曰朝天, 西曰迎恩, 北曰鎮海.】門樓連角樓共七座, 窩鋪五十六. 水門三.【南曰上水門, 黑水所入, 東曰小水門, 密水所入, 西曰下水門, 黑密二水合流以赴海.】池闊二丈, 深一丈, 明萬曆間, 增築敵臺二十八座. 崇禎間, 知府桂輅, 戴憲明先後增高三尺五寸. 蓬萊縣附郭.

■ 35 내주부(萊州府)⁷⁹ 성지

벽돌로 쌓은 성이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에 내주위 지휘사 모귀(茅貴)가 세웠다. 둘레는 9리 남짓이고 높이는 3장 5척이고 터의 두께는 2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징청, 남쪽은 경양, 서쪽은 무정, 북쪽은 정해문이다.】성 아래의 해자는 깊이 2장이고 너비는 그 배이다. 액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萊州府城池, 磚城, 明洪武四年, 萊州衛指揮使茅貴建, 周九里有奇, 高三丈五尺, 基厚二丈. 門四.【東曰澄清, 南曰景陽, 西曰武定, 北曰定海.】城下爲池, 深二丈, 闊倍之. 掖縣附郭.

■ 36 즉묵현(卽墨縣)⁸⁰ 성지

1351년(고려 충정왕 3, 원 지정⁸¹ 11)에 쌓았다. 둘레는 4리이고, 높이는 1장 6척 5촌이며, 너비는 한 장 남짓이다. 문은 3개이다.【동쪽은 조양, 남쪽은 환수, 서쪽은 통

79 내주부(萊州府) : 현재 중국 산둥성 북동부에 있는 옌타이시에 속한 도시인 라이저우시[萊州市]이다.

80 즉묵현(卽墨縣) : 현재 중국 산둥성 동부 칭다오시[靑島市]에 속한 도시인 지모시[卽墨市]이다.

81 지정(至正) : 원의 제11대 황제이자 북원(北元)의 제1대 황제인 혜종(惠宗) 토곤테무르[妥懽帖睦爾]가 네 번째 연호로 1341년부터 1370년까지 30년 동안 사용하기도 했다.

제문이다.】해자의 깊이는 7척, 너비는 2장이다. 1600년(조선 선조 33, 명 만력 28)에 지부 용문명, 지현 유응기가 흙을 벽돌로 바꿨다.

卽墨縣城池, 元至正十一年築, 周四里, 高一丈六尺五寸, 闊丈餘. 門三.【東曰朝陽, 南曰環秀, 西曰通濟.】池深七尺, 廣二丈. 萬曆二十八年, 知府龍文明, 知縣劉應旂易土以磚.

■ 37 태원부(太原府)⁸² 성지

982년(고려 성종 원년, 송 태평흥국 7)에 세웠다. 1376년(고려 우왕 2, 명 홍무 9)에 영평후 사성이 옛 성을 따라 동남북쪽 3면을 늘렸는데 둘레는 24리이고, 높이 3장 5척이다. 성 밖은 벽돌로 둘러쌌다. 해자의 깊이는 3장이다. 문은 8개이다.【북쪽은 진원·홍극, 남쪽은 영택·승은, 동쪽은 의춘·영휘, 서쪽은 부성·진무문이다.】성문 밖에 각각 월성을 세웠는데 위에 각각 누각을 세웠다. 각루는 4좌, 소루는 92좌이다. 적대는 순찰하는 건물을 일컫는다. 양곡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太原府城池, 宋太平興國七年建. 明洪武九年, 永平侯謝成因舊城, 展東南北三面, 周圍二十四里, 高三丈五尺, 外包以甃, 池深三丈. 門八.【北曰鎮遠, 曰洪極, 南曰迎澤, 曰承恩, 東曰宜春, 曰迎暉, 西曰阜成, 曰振武.】外各建月城, 上各建樓, 角樓四座, 小樓九十二座, 敵臺邏室稱之. 陽曲縣附郭.

■ 38 대주(代州)⁸³ 성지

후위 문제가 세웠는데 광무군 동상관(東上館)의 성이다. 586년(수 개황⁸⁴ 6)에 대주성으로 고쳤다. 1373년(고려 공민왕 22, 명 홍무 6)에 길안후 육형(陸亨), 도지휘 왕진(王臻)이 수리했다. 성의 둘레는 8리 185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 1척이다.

代州城池, 後魏文帝建, 廣武軍東上館城. 隋開皇六年, 改爲代州城. 明洪武六年,

82 태원부(太原府) : 현재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성도(省都)인 타이위안[太原] 일대이다.

83 대주(代州) : 현재 중국 산시성의 북중부에 위치한 도시인 신저우시[忻州市] 일대이다.

84 개황(開皇) : 수의 초대 황제인 문제(文帝) 양견(楊堅)의 첫 번째 연호로 581년부터 600년까지 20년 동안 사용하였다.

吉安侯陸亨,都指揮王臻修,周八里一百八十五步,高三丈五尺,池深二丈一尺.

■ 39 가남주(岢嵐州)⁸⁵ 성지

당 때 세운 평성(平城)이다. 1085년(고려 선종 2, 송 원풍 8)에 지주 하소경(賀紹慶)이 성의 동남쪽 모퉁이를 4리로 넓혔다. 대관 연간(1100~1126)⁸⁶ 초기에 지주 왕철(王喆)이 해자를 뚫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명 홍무 7)에 지휘 장전(張典)이 수리했다. 성의 둘레는 6리 278보, 높이가 3장 8척이고, 외부를 벽돌로 감쌌다. 해자의 깊이는 2장 5척이다.

岢嵐州城池,唐建平城.宋元豐八年,知州⁸⁷賀紹慶,展東南隅四里.大觀初,知州王喆鑿池.明洪武七年,指揮張典修,周六里二百七十八步,高三丈八尺,外包以磚,池深二丈五尺.

■ 40 안문수어소성(鴈門守禦所)⁸⁸ 성지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명 홍무 7)에 쌓았다. 성의 둘레는 2리 56보이다. 산의 고저가 균일하지 않아서 해자를 파지 못했다. 남쪽과 북쪽 2개의 문이 있다.

鴈門守禦所城池,明洪武七年築,周二里五十六步,山高下不一,無池塹,南北二門.

■ 41 평양부(平陽府)⁸⁹ 성지

위왕표⁹⁰가 세웠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옛 성을 따라서 증축했다. 경

85 가남주(岢嵐州): 현재 중국 산시성 북중부에 위치한 도시인 신저우에 속한 현인 커란현[岢嵐縣] 일대이다.

86 대관(大觀): 송의 제8대 황제인 휘종(徽宗) 조길(趙佶)의 세 번째 연호로 1107년부터 1110년까지 4년 동안 사용되었다.

87 州: 저본에는 없으나 『흙정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18권, 산서통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88 안문수어소(鴈門守禦所): 현재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다이현[代縣]에 위치한 연먼관[鴈門關]에 설치된 수어소(守禦所)를 말한다.

89 평양부(平陽府): 현재 중국 산시성 서남부에 있는 린펀시[臨汾市] 일대이다.

90 위왕표(魏王豹): ?~B.C. 204. 진(秦) 말기의 인물로 위표(魏豹)라고도 한다. 위(魏)의 공자였다. 그 형 위구(魏咎)는 옛 날에 영릉군(寧陵君)에 봉해졌지만 진이 위를 멸망시키자 평민이 되었다. 진승(陳勝)이 왕이 되자 위구가 그를 따랐다. 장한(章邯)에게 죽게 된다. 형이 죽은 후 초로 도망쳤고, 항우(項羽)에 의해 서위왕(西魏王)이 되었다. 한왕(漢王)에게 귀순했다가 배신했다. 이에 한왕은 한신(韓信)으로 하여금 위표를 생포하게 했고, 사로잡힌 위표에게 형양(滎陽)을 지키

태 연간(1450~1457) 초기에 성을 수리했다. 성의 둘레는 12리 112보, 높이는 4장 5척이다. 성의 외부는 벽돌로 감쌌다. 해자의 깊이는 2장 5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무정, 남쪽은 명덕, 서쪽은 화의, 북쪽은 진삭문이다.】문마다 월성을 세우고 위에 각각 누각을 세웠다. 각루는 4좌, 적대는 8좌, 와포는 97좌이다. 임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平陽府城池, 魏王豹建. 明洪武初, 因舊城重築. 景泰初修, 周十二里一百十二步, 高四丈五尺, 外包以磚, 池深二丈五尺. 四門.【東曰武定, 南曰明德, 西曰和義, 北曰鎮朔.】各建月城, 上各建樓, 角樓四座, 敵臺八座, 窩鋪九十七座. 臨汾縣附郭.

■ 42 노안부(潞安府)⁹¹ 성지

수(隋) 때 상당현에 두었다. 서북쪽의 자성(子城)과 본성 모두 수 때 처음 창건되었다. 옛날에는 토성이었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노양, 남쪽은 덕화, 서쪽은 위원, 북쪽은 보령문이다.】명 초기에 지휘 장회지가 벽돌을 사용해 쌓았다. 성의 둘레는 19리 58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3장이다. 장치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潞安府城池, 隋置上黨縣, 西北子城, 大城皆自隋創. 舊爲土城. 四門.【東曰潞陽, 南曰德化, 西曰威遠, 北曰保寧.】明初, 指揮張懷智, 用甃甃, 周十九里五十八步, 高三丈五尺, 池深三丈. 長治縣附郭.

■ 43 분주부(汾州府)⁹² 성지

옛 이름은 사양(四陽)으로 태양이 4면을 비춘다는 의미이다. 옛날 지리지에서 축

게 했다. 초가 형양을 포위하자 주가(周苛)가 위표를 살해했다. (『사기』 권90, 「위표팽월열전(魏豹彭越列傳)」.)

91 노안부(潞安府) : 현재 중국 산시성 남동부에 있는 창즈시[長治市] 일대이다.

92 분주부(汾州府) : 현재 중국 산시성 중서부에 있는 위량시[呂梁市]에 속한 편양시[汾陽市] 일대이다.

융(祝融)⁹³성이라 하니 또한 이 의미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조조(曹操)⁹⁴가 세웠다고 한다. 성의 둘레는 9리 13보이고 높이는 3장 2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경화, 서쪽은 정녕, 남쪽은 내훈, 북쪽은 영태문이다.】1352년(고려 공민왕 원년, 원 지정 12)에 지주 주빈이 중축했다. 1569년(조선 선조 2, 명 융경 3)에 높이 1장 6척으로 늘렸는데 총계가 4장 8척이다. 1573년(조선 선조 6, 명 만력 원년)에 벽돌로 쌓았다. 분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汾州府城池, 舊名四陽, 言曰四面照也. 舊志云祝融城, 亦此義世傳曹操建. 周九里十三步, 高三丈二尺. 門四.【東曰景和, 西曰靜寧, 南曰來薰, 北曰永泰.】元至正十二年, 知州朱贊重築. 明隆慶三年, 增高一丈六尺, 通計四丈八尺. 萬曆元年, 磚甃. 汾陽縣附郭.

■ 44 대동부(大同府)⁹⁵ 성지

1372년(고려 공민왕 21, 명 홍무 5)에 대장군 서달(徐達)이 옛 토성을 따라 남쪽의 반을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13리이고 높이는 4장 2척이며 벽돌로 성의 외부를 쌓았다. 해자의 길이는 1장 5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양화, 남쪽은 영태, 서쪽은 청원, 북쪽은 무정문이다.】대동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大同府城池, 明洪武五年, 大將軍徐達, 因舊土城南半增築, 周十三里, 高四丈二尺, 以甃甃外, 池深一丈五尺. 門四.【東曰陽和, 南曰永泰, 西曰清遠, 北曰武定.】大同縣附郭.

93 축융(祝融) : 불의 신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설시대 인물이다. 전욱(顓頊)의 후손으로, 이름은 중려(重黎)다. 고신씨(高辛氏)의 화정(火正)이 되었다. 공공(共工)이 난을 일으키자 황제가 그를 시켜 주륙하게 했는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자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다. 후세에 화신(火神)으로 추대되었다. 일설에는 염제(炎帝)의 후손으로, 일찍이 황명을 받들어 우교(羽郊)에서 곤(鯀)을 죽였다고 한다. (『사기』 권40, 초세가(楚世家))

94 조조(曹操) : 155~220. 패국(沛國) 초현 사람으로 자는 맹덕(孟德)이고, 다른 이름은 길리(吉利), 아이 때 이름은 아만(阿瞞)이다. 본성은 하후(夏侯)씨로 후한 환제(桓帝) 때 태위(太尉)를 지낸 조송(曹嵩)의 아들이다. 권모에 능한 사람으로 헌제(獻帝) 때 승상(丞相)이 되어 정권을 전단(專斷)하고 위왕(魏王)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조비(曹丕)가 후한을 찬탈하고 제(帝)라 칭하며 아버지를 추존하여 무제(武帝)라 하였다. (『삼국지(三國志)』 권1, 위서(魏書) 무제기(武帝記))

95 대동부(大同府) : 현재 중국 산시성 북부에 위치한 다통시[大同市] 일대이다.

■ 45 택주(澤州)⁹⁶ 성지

당 정관 연간(627~649) 초기에 세워졌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천호 오재(吳材)가 수리했다. 1381년(고려 우왕 7, 명 홍무 14)에 장규(張規)가 벽돌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고 높이는 2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3장이다. 동쪽·서쪽·남쪽에 3개의 문이 있다.

澤州城池, 唐貞觀初建. 明洪武初, 千戶吳材修. 十四年, 張規甃以磚, 周九里三十步, 高二丈, 池深三丈, 東西南三門.

■ 46 개봉부(開封府)⁹⁷ 성지

바로 성성(省城)⁹⁸이다. 781년(당 건중⁹⁹ 2)에 절도사 이면(李勉)이 창건했다. 1368년(고려 공민왕 17, 명 홍무 원년)에 처음으로 성의 내부와 외부를 벽돌로 쌓고, 선무위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켰다. 성의 둘레는 20리 190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는 2장 1척이다. 5척을 넓혔다. 문은 5개이다. 【동쪽은 여경, 남쪽은 남훈, 서쪽은 대량, 북쪽은 안원, 동북쪽은 인화문이다.】 월성을 세 겹으로 쌓았고, 각루 4좌, 적대 81좌, 경포 83좌이다. 명 말에 성이 강물에 잠겼다. 순치 연간(1644~1661) 초기에 다시 쌓았고, 또 순무 염흥방(閔興邦)과 고견(顧汧)이 잇따라 증축하여 성첩과 누로의 면모가 새롭게 되었다. 상부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開封府城池, 卽省城也. 唐建中二年, 節度使李勉創建. 明洪武元年, 始內外甃以磚石, 設宣武衛守之. 周圍二十里一百九十步, 高三丈五尺, 廣二丈一尺, 闊五尺. 門五. 【東曰麗景, 南曰南薰, 西曰大梁, 北曰安遠, 東北曰仁和.】 建月城三重, 角樓四座, 敵臺八十一, 警鋪八十三. 明末城湮於河. 順治初, 更築, 又巡撫閔興邦顧汧, 先後增修, 城堞樓櫓, 煥然一新. 祥符縣附郭.

96 택주(澤州) : 현재 중국 산시성 동남부에 있는 진청시[晉城市] 일대이다.

97 개봉부(開封府) : 현재 중국 허난성[河南省] 북동부에 있는 도시인 카이펑[開封] 일대이다. 춘추전국시대 위 혜왕(魏惠王)이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대량(大梁)이라고 칭했다.

98 성성(省城) : 성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곳으로 성의 정치, 문화의 중심이다. 성도(省都), 성치(省治), 성회(省會) 등으로 불린다.

99 건중(建中) : 당 제12대 황제인 덕종(德宗) 이괄(李适)의 연호로 780년부터 783년까지 4년 동안 사용되었다.

■ 47 귀덕부(歸德府)¹⁰⁰ 성지

이곳은 미자¹⁰¹의 고국이라고 전해진다. 한의 양효왕¹⁰²이 증축했는데 성의 너비는 70리이다. 명 초기에 주(州)로 바뀌었고, 귀덕위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켰다. 지휘장성(張晟)이 옛터를 따라 준설하고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7리 310보이고 높이는 2장이며 너비는 1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5장 2척이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빈양, 남쪽은 공양, 서쪽은 질택, 북쪽은 공신문이다.】 각루 4좌, 적대 16좌, 경포 30좌를 세웠다. 1546년(조선 명종 원년, 명 가정 25)에 주를 부로 승격시켰는데 성은 그대로 옛날처럼 불렀다. 상구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歸德府城池, 相傳微子故國, 漢梁孝王增築, 廣七十里. 明初, 改爲州, 設歸德衛守之. 指揮張晟因舊基浚築, 周圍七里三百一十步, 高二丈, 廣一丈, 池深二丈, 闊五丈二尺. 門四.【東曰賓陽, 南曰拱陽, 西曰埵澤, 北曰拱辰.】建角樓四, 敵臺一十六, 警鋪三十, 嘉靖二十五年, 陞州爲府而城仍舊云. 商丘縣附郭.

■ 48 수주(睢州)¹⁰³ 성지

1105년(고려 숙종 10, 송 송녕 4)에 세워졌다. 1368년(고려 공민왕 17, 명 홍무 원년)에 증축하고, 수양위를 설치하여 지켰다. 성의 둘레는 10리 300보 남짓이고 높이는 2장이며 너비는 1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7척이며 너비는 3장이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영안, 서쪽은 통변, 남쪽은 영훈, 북쪽은 통진이다.】

睢州城池, 宋崇寧¹⁰⁴四年建. 明洪武元年, 增築, 設睢陽衛守之. 周圍十里三百步有奇, 高二丈, 廣一丈五尺. 池深一丈七尺, 闊三丈. 門四.【東曰永安, 西曰通汴, 南曰迎薰, 北曰通鎮.】

100 귀덕부(歸德府) : 현재 중국 허난성 동부 상추시[商丘市]에 속한 쑤이양구[睢陽區]에 위치한 상추고성[商丘古城]이다.

101 미자(微子) : 이름은 계(啟)이며 은의 29대 제왕(帝乙)의 장자(長子)로서 주왕(紂王)의 이복형이다. 은이 멸망한 뒤 주 성왕(成王)에게 송 제후로 봉해졌다. 비간(比干), 기자(箕子)와 함께 은 말기의 세 명의 어진 사람으로 꼽힌다. 『논어』 18편의 제목이다.

102 양효왕(梁孝王) : ?~B.C.144. 양(梁) 효왕(孝王) 유무(劉武)는 문제(文帝)의 아들이고 경제(景帝)와 같은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두(竇) 태후이다. 오초칠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03 수주(睢州) : 현재 중국 허난성 동부 상추시에 속한 쑤이현[睢縣]이다.

104 崇寧 : 저본에는 '寧宗'으로 되어 있으나 『수주지(睢州志)』 권1, 「지리지(地理志)」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 49 창덕부(彰德府)¹⁰⁵ 성지

398년(후위 천흥 원년)에 세웠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중축하였고, 창덕위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켰다. 성의 둘레는 9리 113보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며 너비는 2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10장이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영화, 남쪽은 진원, 서쪽은 대정, 북쪽은 공신문이다.】 각루 4좌, 적대 40좌, 경포 63좌를 세웠다. 안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彰德府城池，後魏天興元年建。明洪武初重築，設彰德衛守之。周圍九里一百十三步，高二丈五尺，廣二丈，池深二丈，闊十丈。門四。【東曰永和，南曰鎮遠，西曰大定，北曰拱辰。】建角樓四，敵臺四十，警鋪六十三。安陽縣附郭。

■ 50 자주(磁州)¹⁰⁶ 성지

599년(수 개황 10)에 주(州)를 설치하였고, 부양(滏陽)이 처음 세웠다. 1387년(고려 우왕 13, 명 홍무 20)에 수리하고 천호소를 두어 그곳을 지키게 했다. 성화 연간(1465~1487)에 지주 장몽보(張夢輔)가 중축했다. 성의 둘레는 8리 26보이고 높이는 2장이며 너비는 1장이다. 남쪽과 북쪽에 2개의 문이 있었는데, 1511년(조선 중종 6, 명 정덕 6)에 처음 동쪽과 서쪽에 문 2개를 더했다. 해자를 다시 뚫었는데 깊이는 1장이고 너비는 깊이의 배이다. 1596년(선조 29, 만력 24)에 지주 유안인(劉安仁)이 벽돌을 사용하여 개축하였다.

磁州城池，隋開皇十年置州，滏陽始建。明洪武二十年修，置千戶所守之。成化間，知州張夢輔重築，周圍八里二十六步，高二丈，廣一丈。南北二門。正德六年，始益東西二門，復濬池深一丈，闊倍之。萬曆二十四年，知州劉安仁改用磚甃。

105 창덕부(彰德府) : 현재 중국 허난성[河南省] 북부에 있는 직할시인 안양시[安陽市]이다.

106 자주(磁州) : 현재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에 속한 현인 초현[磁縣]이다.

■ 51 위휘부(衛輝府)¹⁰⁷ 성지

동위(東魏) 때 처음 세웠다. 명 초기에 증축하고 천호소를 두어 그곳을 지켰다. 성의 둘레는 6리 130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며 너비는 높이와 같다. 해자의 깊이는 1장 2척이고 너비는 3장이다. 문은 3개이다.【남쪽은 내원, 서쪽은 공행, 북쪽은 조극문이다.】각루 4좌, 적대 10좌, 경포 30좌를 세웠다. 1585년(조선 선조 18, 명 만력 13)에 노(路)를 세우고 경계를 드디어 넓혀 크게 했다. 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衛輝府城池, 東魏始建. 明初增築, 置千戶所守之. 周圍六里一百三十步, 高三丈五尺, 廣如之, 池深一丈二尺, 闊三丈. 門三.【南曰來遠, 西曰拱行, 北曰朝極.】建角樓四, 敵臺十, 警鋪三十. 萬曆十三年, 建路藩遂拓大之. 汲縣附郭.

■ 52 회경부(懷慶府)¹⁰⁸ 성지

1362년(고려 공민왕 11, 원 지정 22)에 처음 세웠다. 1368년(고려 공민왕 17, 명 홍무 원년)에 증축하고, 회경위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켰다. 성의 둘레는 9리 148보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 5척이고 너비는 5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영양, 남쪽은 통원, 서쪽은 영휘, 북쪽은 공극문이다.】각루 4좌, 적대 6좌, 경포 39좌를 세웠다. 하내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懷慶府城池, 元至正二十二年始建, 明洪武元年, 重築, 設懷慶衛守之. 周圍九里一百四十八步, 高三丈五尺, 池深二丈五尺, 闊五丈, 門四.【東曰暎陽, 南曰通遠, 西曰迎暉, 北曰拱極.】建角樓四, 敵臺六, 警鋪三十九. 河內縣附郭.

■ 53 하남부(河南府)¹⁰⁹ 성지

간수(澗水)의 동쪽, 전수(澗水)의 서쪽에 있는데 이곳이 바로 주공이 경영했던 낙읍(洛邑) 지역이다. 진에 이르러서 다시 늘려서 넓혔다. 수 양제 말기에 크게 동경을 짓고 신도라 했다. 당 장경(長慶) 연간(821~824)에 증축하여 문 10개를 두었다. 송 경

107 위휘부(衛輝府) : 현재 중국 허난성 북부에 있는 도시인 신상시[新鄉市]에 속한 웨이후이시[衛輝市] 일대이다.

108 회경부(懷慶府) : 현재 중국 허난성 서북부에 있는 도시인 자오쥘시[焦作市]에 속한 친양시[沁陽市]이다.

109 하남부(河南府) : 현재 중국 허난성 서부에 있는 도시인 뤼양시[洛陽市] 일대이다.

우(景祐) 연간(1034~1038)¹¹⁰에 판부사 왕증(王曾)이 다시 [성을] 더 수리했는데 성의 둘레를 이전과 비교하면 5분의 4를 줄였다. 1368년(고려 공민왕 17, 명 홍무 원년)에 옛터를 따라 증축하고, 하남위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켰다. 성의 둘레는 8리 345보 이고 높이는 4장이며 너비는 높이와 같다. 해자의 깊이는 5장이고 너비는 3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건춘, 남쪽은 장하, 서쪽은 여경, 북쪽은 안희문이라 한다.】각루 4좌, 적루 30좌, 경포 39좌를 세웠다. 낙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河南府城池, 在澗水東, 瀘水西, 卽周公營洛地也. 至秦復增廣之. 隋煬帝末, 大營東京曰新都. 唐長慶間, 增置十門. 宋景祐間, 王曾判府事, 復加修繕, 視成周減五之四. 明洪武元年, 因舊址重築, 設河南衛守之. 周圍八里三百四十五步, 高四丈, 廣如之. 池深五丈, 闊三丈. 門四.【東曰建春, 南曰長夏, 西曰麗景, 北曰安喜.】建角樓四, 敵樓三十, 警鋪三十九. 洛陽縣附郭.

■ 54 남양부(南陽府)¹¹¹ 성지

바로 옛 완성(宛城)으로 그동안 수축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에 중건했고, 남양위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켰다. 성의 둘레는 6리 27보이고 높이는 2장 2척이며 너비는 높이와 같다. 해자의 깊이는 1장 7척이고 너비는 2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연희, 남쪽은 육양, 서쪽은 영안, 북쪽은 박망문이다.】각루 4좌, 적대 30좌, 경포 43좌를 세웠다. 남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南陽府城池, 卽古宛城, 歷代修築未詳. 明洪武三年重建, 設南陽衛守之. 周圍六里二十七步, 高二丈二尺, 廣如之. 池深一丈七尺, 闊二丈. 門四.【東曰延曦, 南曰涓陽, 西曰永安, 北曰博望.】建角樓四, 敵臺三十, 警鋪四十三. 南陽縣附郭.

■ 55 여령부(汝寧府)¹¹² 성지

바로 한 여남군(汝南郡)의 옛 성이다. 1369년(고려 공민왕 18, 명 홍무 6)에 중건했

110 경우(景祐) : 송 제4대 황제인 인종(仁宗) 조정(趙禎)의 세 번째 연호로 1034년부터 1038년까지 5년 동안 사용하였다.

111 남양부(南陽府) : 현재 중국 허난성 남서부 한수이[漢水] 지류의 바이허[白河] 상류지역에 있는 도시인 난양시[南陽市] 일대이다.

112 여령부(汝寧府) : 현재 중국 허난성 남부 주마옌시[駐馬店市]에 속한 루난현[汝南縣] 일대이다.

다. 성의 둘레는 5리 30보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며 너비는 높이와 같다. 해자의 깊이는 1장 2척이고 너비는 2장이다. 3개의 문을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설치했다. 1375년(고려 우왕 원년, 명 홍무 8)에 고쳐 세우고 여령위(汝寧衛)라고 했다. 또한 9리 30보를 늘리고, 북문을 더 만들었다. 경포 36좌를 세웠다. 수문은 2개이다. 성화 연간(1465~1487)에 중수했는데 옛 누각을 철거하면서 크게 만들고 문에 이름을 붙였다.【동쪽은 동작, 서쪽은 서성, 남쪽은 여남, 북쪽은 공북문이다.】각루 4좌, 경포 48좌를 증축했다.

汝寧府城池, 卽漢汝南郡舊城. 明洪武六年重建, 周圍五里三十步, 高二丈五尺, 廣如之. 池深一丈二尺, 闊二丈, 設東西南三門. 八年改建汝寧衛, 又拓爲九里三十步, 益以北門, 建警鋪三十六, 水門二. 成化間重修, 撤舊樓而大之, 扁門.【東曰東作, 西曰西成, 南曰汝南, 北曰拱北.】增角樓四, 警鋪四十八.

■ 56 여주(汝州)¹¹³ 성지

처음 지어진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증건했다. 성의 둘레 9리 남짓이고, 높이는 4장이며, 너비는 2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3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양경, 남쪽은 관여, 서쪽은 첨락, 북쪽은 망송문이다.】

汝州城池, 始築未詳, 明洪武初重建. 周圍九里有奇, 高四丈, 廣二丈五尺, 池深二丈, 闊三丈. 門四.【東曰仰京, 南曰觀汝, 西曰瞻洛, 北曰望嵩.】

113 여주(汝州) : 현재 중국 허난성 평당산시[平頂山市]에 있는 루저우시[汝州市]이다.

■ 57 서안부(西安府)¹¹⁴ 성지

바로 수·당시대의 수도였다. 수 문제(隋文帝)는 장안의 규모를 본떠 작게 했고 고류 등에게 신도(新都)를 창건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토대는 한 대 장안 옛 성의 동남쪽이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도독(都督)¹¹⁵ 복영(濮英)이 성을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10리이고 높이는 3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8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장락, 남쪽은 영녕, 서쪽은 안정, 북쪽은 안원문이다.】장안·함녕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西安府城池, 卽隋, 唐京城. 隋文帝因長安制小, 命高類等創建新都, 其地在漢長安故城之東南. 明洪武初, 都督濮英增修城. 周四十里, 高三丈, 池深二丈, 闊八尺, 門四.【東曰長樂, 南曰永寧, 西曰安定, 北曰安遠.】長安, 咸寧, 二縣俱附郭.

■ 58 연안부(延安府)¹¹⁶ 성지

당 천보(天寶)¹¹⁷ 연간(742~756) 초기에 세웠다. 송 범중엄(范仲淹)¹¹⁸과 방적(龐籍)이 다스릴 때 계속 보수했다. 명 홍치 연간(1488~1505) 초기에 지부 최승이 다시 수리했다. 성의 둘레는 9리 3푼이며 높이는 3장이다. 문은 3개이다.【동쪽은 동승, 남쪽은 순양, 북쪽은 안정문이다.】성의 위에 중루를 세웠다. 부시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延安府城池, 唐天寶初建. 宋范仲淹, 龐籍, 經略時繼修. 明弘治初, 知府崔陞復葺之. 周九里三分, 高三丈, 池深二丈. 門三.【東曰東勝, 南曰順陽, 北曰安定.】上建重樓. 膚施縣附郭.

114 서안부(西安府) : 현재 중국 산시성[陝西省]의 성도(省都)인 시안시[西安市] 일대이다.

115 도독(都督) : 도독주군사(都督州軍事)의 약칭으로 주(州)의 자사(刺史)가 겸임하였다.

116 연안부(延安府) : 현재 중국 산시성 북부에 있는 연안시[延安市] 일대이다.

117 천보(天寶) : 당 제9대 황제인 현종(玄宗) 이융기(李隆基)의 세 번째 연호로 742년부터 756년까지 15년 동안 사용하였다.

118 범중엄(范仲淹) : 989~1052. 북송의 명신으로 자는 희문(希文),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인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간관이 되었으나 관 황후의 폐립문제를 놓고 찬성파인 재상과 대립해 지방으로 쫓겨났다. 서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침입을 막았다. 그 후 내정개혁에 힘썼으나 하송 일파의 저항으로 지방관을 지냈다. 저작으로는 『범문정공집(范文正公集)』 24권이 있다.

■ 59 봉상부(鳳翔府)¹¹⁹ 성지

당 말 이무정(李茂貞)이 세웠다. 1450년(조선 세종 32, 명 경태 원년)에 지부 호진(扈進)이 중수했다. 1610년(조선 광해군 2, 명 만력 38)에 남문을 개축했다. 성의 둘레는 12리 3푼이고 높이는 3장이며 두께는 그에 맞게 했다. 해자의 깊이는 2장 5척이고 너비는 3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영은, 남쪽은 경명, 서쪽은 보화, 북쪽은 영원문이다.】1661년(조선 현종 2, 청 순치 18)에 다원 허지점(許之漸)이 문루를 세웠다. 봉상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鳳翔府城池, 唐末李茂貞建. 明景泰元年, 知府扈進重修. 萬曆三十八年, 改建南門. 周一十二里三分, 高三丈厚稱之, 池深二丈五尺, 闊三丈. 門四.【東曰迎恩, 南曰景明, 西曰保和, 北曰寧遠.】順治十八年, 茶院許之漸建門樓. 鳳翔縣附郭.

■ 60 한중부(漢中府)¹²⁰ 성지

옛 성터는 현재의 성에서 동쪽으로 2리에 있다. 1219년(고려 고종 6, 송 가정¹²¹ 12)에 이곳으로 옮겼다. 1510년(조선 중종 5, 명 정덕 5) 지부 주동(周東)이 처음 벽돌로 쌓았다. 1595년(조선 선조 28, 명 만력 23)에 지부 섭수(葉修)가 보충하여 지었다. 성의 둘레는 9리 3푼이고 높이는 3장이며 너비는 2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8척이고 너비는 1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조양, 남쪽은 망강, 서쪽은 진무, 북쪽은 공신문이다.】1621년(조선 광해군 13, 명 천계¹²² 원년)에 성의 동북쪽 끝을 110장 확장했다. 남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漢中府城池, 故址, 在城東二里. 宋嘉定十二年徙此. 正德五年, 知府周東, 始甃以磚. 萬曆二十三年, 知府葉修補築. 周九里三分, 高三丈, 闊二丈五尺, 池深一丈八尺, 闊一丈. 門四.【東曰朝陽, 南曰望江, 西曰振武, 北曰拱辰.】天啓元年, 拓城東北角一百一十丈. 南鄭縣附郭.

119 봉상부(鳳翔府) : 현재 중국 산시성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 바오지시[寶雞市]에 속한 평상현[鳳翔縣]이다.

120 한중부(漢中府) : 현재 중국 산시성 남부에 있는 도시인 한중시[漢中市]이다.

121 가정(嘉定) : 남송 제4대 황제인 영종(寧宗) 조확(趙擴)의 네 번째 연호로 1208년부터 1224년까지 17년 동안 사용하였다.

122 천계(天啓) : 명 제15대 황제인 희종(熹宗) 천계제(天啓帝) 주유교(朱由校)의 연호로 1621년부터 1627년까지 7년 동안 사용하였다.

■ 61 평량부(平凉府) 성지

당 덕종(德宗) 때 증축했다. 원 말에 이사제(李思齊)¹²³의 부장 원형(袁亨)이 남과 북 2개의 성으로 나누었다. 1368년(고려 공민왕 18, 명 홍무 2)에 총병관(總兵官)¹²⁴ 평량후가 비용을 모아 옛 제도와 같게 다시 수리했다.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고 높이는 4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4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화양, 남쪽은 만안, 서쪽은 내원, 북쪽은 정북문이다.】평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平凉府城池, 唐德宗時增築. 元末, 李思齊部將袁亨, 分爲南北二城. 明洪武六年, 總兵官平凉侯, 費聚復修如舊制. 周九里三十步, 高四丈, 池深四丈. 門四.【東曰和陽, 南曰萬安, 西曰來遠, 北曰定北.】平凉縣附郭.

■ 62 경양부(慶陽府)¹²⁵ 성지

명 성화 연간(1465~1487) 초기에 참정 주영(朱英)이 쌓았는데 거듭 물 때문에 무너지자 부사 조굉(曹宏)이 다시 쌓았다. 1548년(조선 명종 3, 명 가정 27)에 참정 왕상녕(汪尙寧)이 증축했는데 물에 다시 무너졌다. 1556년(조선 명종 11, 명 가정 35)에 지부 양명한(梁明翰)이 다시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13보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안원, 남쪽은 영춘, 서쪽은 평정, 북쪽은 덕승문이다.】모두 누로 덮었다. 안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慶陽府城池, 明成化初, 叅政朱英築, 尋圯於水, 副使曹宏復築之. 嘉靖二十七年, 叅政汪尙寧, 增築復圯於水. 三十五年, 知府梁明翰復築之. 周七里十三步. 門四.【東曰安遠, 南曰永春, 西曰平定, 北曰德勝.】皆覆以樓. 安化縣附郭.

123 이사제(李思齊) : 1323~1374. 원말명초(元末明初)시기의 장수로 자는 세현(世賢)이다. 처음에 원 장수 차칸테무르[察罕帖木兒]의 휘하에서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했다. 후에 코케테무르[擴廓帖木兒]의 휘하에 있었으나 그의 이동 명령을 무시하고 장량필(張良弼)과 싸웠다. 1369년에 명에 항복했다.

124 총병관(總兵官) : 원래 출정하는 장수의 관명이었는데, 군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한 지방의 진수를 맡는 장수의 관명이 되었다. 명 때는 품계가 없었고 청 때는 정 2품 관직이었다.

125 경양부(慶陽府) : 현재 중국 간쑤성 동부에 있는 칭양시[慶陽市] 일대이다.

■ 63 임조부(臨洮府)¹²⁶ 성지

1072년(고려 문종 26, 송 희령 5)에 왕소(王韶)¹²⁷가 강족(羌族)을 크게 격파하고, 마침내 무승(武勝)에 성을 쌓았다. 금과 원이 그대로 이용했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에 지휘 손덕이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9리 3푼이고 높이는 3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이고 너비는 깊이의 배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대통, 남쪽은 건안, 서쪽은 영녕, 북쪽은 진원문이다.】위에 이중의 높은 전각을 세웠는데 모두 벽돌로 쌓았다. 적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臨洮府城池, 宋熙寧五年, 王韶大破羌人遂城武勝. 金元因之. 明洪武三年, 指揮孫德增築. 周九里三分, 高三丈, 池深一丈, 闊倍之. 門四.【東曰大通, 南曰建安, 西曰永寧, 北曰鎮遠.】上建重樓, 俱甃以磚. 狄道縣附郭.

■ 64 공창부(鞏昌府)¹²⁸ 성지

1261년(고려 원종 2, 원 중통¹²⁹ 2)에 도총수 왕세현이 바로 통원군으로 확장시켰는데 그 옛터에 돌로 쌓았다. 명 정덕 연간(1506~1521) 초기에 동쪽·서쪽·북쪽의 3개의 성곽을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9리 120보이고 높이는 3장 1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3장 7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영안, 남쪽은 무안, 서쪽은 정안, 북쪽은 청안문이다.】그 위에 누를 세웠다. 농서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鞏昌府城池, 元中統二年, 都總帥汪世顯, 卽通遠軍拓, 其故址甃以石. 明正德初, 增東西北三郭. 周九里一百二十步, 高三丈一尺, 池深三丈七尺. 門四.【東曰永安, 南曰武安, 西曰靜安, 北曰清安.】建樓其上. 隴西縣附郭.

126 임조부(臨洮府) : 현재 중국 간쑤성 당시시[定西市]에 속해 있는 린타오현[臨洮縣]이다. 진(秦) 때 적도현(狄道縣) 농서군치(隴西郡治)가 설치되었으며, 진(晉) 때는 적도군(狄道郡), 북위 때는 적도현 무시군치(武始郡治)가 설치되었다. 당 때는 임주(臨州), 송 때는 희주(熙州)를 두었다. 금 때는 임조부(臨洮府), 원 때는 적도현 임조부치(臨洮府治)로 불렸다. 1738년에 적도주(狄道州)로 승격되었다.

127 왕소(王韶) : 1030~1081. 송 강주(江州) 덕안(德安) 사람으로 자는 자순(子純)이다. 벼슬은 추밀부사(樞密副使)에 이르렀다. 시호는 양민(襄敏)이고, 저서로는 『부양집(敷陽集)』이 있다. (『송사(宋史)』 권328, 「왕소전(王韶傳)」)

128 공창부(鞏昌府) : 현재 중국 간쑤성 서쪽 룡시현[隴西縣]에 있었던 부(府)이다.

129 중통(中統) : 몽골제국 제5대 칸이자 중국 원의 초대 황제인 세조 쿠빌라이 칸의 첫 번째 연호로 1260년부터 1264년까지 5년 동안 사용되었다.

■ 65 흥안주(興安州)¹³⁰ 성지

옛날에 금주성(金州城)이었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에 세웠다. 1584년(조선 선조 17, 명 만력 12)에 수재로 인하여 남산 아래로 옮겼다. 성의 둘레는 714장이고 높이는 1장 8척이다. 순치 연간(1644~1661) 초기 옛 모습을 회복하였다.

興安州城池, 舊爲金州城. 明洪武四年建. 萬曆十二年, 因水患徙南山下. 周七百一十四丈, 高一丈八尺. 順治初, 復舊.

■ 66 유림위(榆林衛)¹³¹ 성지

당 대 옛 승주(勝州)의 땅이다. 명 정통 연간(1436~1449)에 도독 왕정이 세웠다. 1472년(조선 성종 3, 명 성화 8)에 순무 여자준(余子俊)이 복성을 증축했다. 둘레는 13리 310보이고, 높이는 3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5척이다. 문은 7개이다. 【동쪽에 2개, 서쪽에 4개, 남쪽에 1개이다.】 타성(駝城)이라고 불렀다.

榆林衛城池, 唐古勝州地. 明正統中, 都督王禎建. 成化八年, 巡撫余子俊增築北城. 周一十三里三百十步, 高三丈, 池深一丈五尺. 門七. 【東二, 西四, 南一.】號駝城.

■ 67 영하위(寧夏衛)¹³² 성지

본래 조덕명(趙德明)¹³³의 옛터이다. 명 정통 연간(1436~1449)에 다시 쌓고 그 성을 신성이라고 하였다. 성의 둘레는 18리이고 높이는 3장 6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2장이다. 문은 6개이다. 【동쪽은 청화, 서쪽은 진원, 남쪽은 남훈·광화, 북쪽은 덕승·진무문이다.】 각각 그 위에 누를 세웠다.

130 흥안주(興安州) : 현재 중국 산시성[陝西省]의 동남쪽에 있는 안강시[安康市] 일대이다.

131 유림위(榆林衛) : 현재 중국 산시성의 북단에 있는 위린시[榆林市] 일대이다.

132 영하위(寧夏衛) : 현재의 닝샤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인촨[銀川]에 설치했던 명의 위소 중 하나이다. 1393년(명 홍무 26)에 설치되었고, 섬서도지휘사사[陝西都指揮使司]가 관할하게 되었다. 1724년(청 옹정 2)에 영하부(寧夏府)로 개칭되었다.

133 조덕명(趙德明) : 982~1032. 서하(西夏)의 2대 황제인 광성황제(光聖皇帝) 이덕명(李德明)이다. 그는 송 당항(黨項) 사람으로 서하 태조 이계천(李繼遷)의 아들이다. 1004년에 송에 의해 서평왕(西平王)에 봉해졌다. 1009년에 요에 의해 하국왕(夏國王)이 되었다. 흥주성(興州城)을 쌓아 도읍을 삼고, 점차 하서주랑(河西走廊)을 겸병하여 서하(西夏)의 기초를 다졌다. 27년 동안 재위했다.

寧夏衛城池, 本趙德明舊址. 明正統中復築之, 謂之新城. 周一十八里, 高三丈六尺. 池深二丈. 門六.【東曰清和, 西曰鎮遠, 南曰南薰, 曰光化, 北曰德勝, 曰振武.】各建樓其上.

■ 68 영하후위(寧夏後衛)¹³⁴ 성지

옛날에는 화마지(花馬池)¹³⁵의 북쪽에 있었다. 1443년(조선 세종 25, 명 정통 8)에 쌓았고, 천순 연간(1457~1464)에 개축했다. 지금 성의 둘레는 7리 2푼이고, 높이는 3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5척이다. 동·서·남쪽에 3개의 문이 있다.

寧夏後衛城池, 舊在花馬池北. 明正統八年築, 天順中改築. 今城, 周七里二分, 高三丈, 池深一丈五尺, 東西南三門.

■ 69 영하중위(寧夏中衛)¹³⁶ 성지

본래 원의 이응주성(理應州城)¹³⁷이다.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세워 위(衛)로 삼았다. 정통 연간(1436~1449) 초기에 지휘 구렴(仇廉)이, 천순 연간(1457~1464)에 참장 주영(朱榮)이 이어서 넓혀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3푼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이다. 1575년(조선 선조 8, 명 만력 3)에 순무 나봉상(羅鳳翔)이 성의 동쪽에 곽을 쌓았다.

寧夏中衛城池, 本元理應州城. 明洪武中建爲衛. 正統初, 指揮仇廉, 天順中, 參將朱榮, 相繼拓築. 周七理三分, 高三丈五尺, 池深一丈. 萬曆三年, 巡撫羅鳳翔城東郭.

134 영하후위(寧夏後衛) : 영하위의 후방에서 활동하는 위소이다. 한나라 때 하남에 속한 땅이었고, 1444년에 화마지(花馬池)에 영(營)을 설치했다. 1502년에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를 설치했고, 1506년에 영하후위(寧夏後衛)로 고쳐서 두었다. (『흙정고금도서집성』 『방여휘편 직방전』 권576, 영하위부회고(寧夏衛部彙考))

135 화마지(花馬池) : 중국 섬서성(陝西省) 경내에 있는 염지(鹽池)이다.

136 영하중위(寧夏中衛) : 영하위의 후방에서 활동하는 위소이다. 당 때 영주(靈州) 땅이었고, 원나라 때 응리주(應理州)를 설치하고 영하로에 속하게 했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주를 폐했다가 1399년에 옮겨서 영하중위(寧夏中衛)를 세웠다. (『흙정고금도서집성』 『방여휘편 직방전』 권576, 영하위부회고.)

137 이응주성(理應州城) : 『흙정고금도서집성』 『방여휘편』 『직방전』 권576의 영하위부회고에 나온 영하중위(寧夏中衛) 부분을 살펴보면 “원이 응리주(應理州)를 설치하고 영하로에 속하게 했다[元置應理州 屬寧夏路].”라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이응주(理應州)가 아니라 응리주(應理州)로 표기해야 한다.

■ 70 영주소(靈州所)¹³⁸ 성지

옛날에 황하 남쪽에 있었다. 1384년(고려 우왕 10, 명 홍무 17)에 북쪽으로 7리를 옮겨서 쌓았다. 1428년(조선 세종 10, 명 선덕 3)에 또 동북쪽으로 5리를 옮겨서 쌓았다. 1452년(조선 문종 2, 명 경태 3)에 모든 남쪽의 성곽을 넓혀서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8푼이고 높이는 3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이다. 남쪽과 북쪽의 문은 2개이다. 1577년(조선 선조 10, 명 만력 5)에 순무 나봉상이 벽돌로 쌓았다.

靈州所城池, 舊在黃河南. 明洪武十七年, 移築於北七里. 宣德三年, 又移築於東北五里, 景泰三年, 拓築竝南郭, 周七里八分, 高三丈, 池深一丈, 南北二門. 萬曆五年, 巡撫羅鳳翔甃以磚石.

■ 71 감주위(甘州衛)¹³⁹ 성지

처음 세워진 시기는 미상이다. 1392년(조선 태조 원년, 명 홍무 25)에 도독 송성이 동쪽에 새로운 성을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12리 257보이고 높이는 3장 2척이며 너비는 3장 7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7척이고 너비는 3장 7척이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함희, 남쪽은 연은, 서쪽은 광덕, 북쪽은 영녕문이다.】 동쪽과 북쪽에 성루가 각각 1좌씩 있다.

甘州衛城池, 始建未詳. 明洪武二十五年, 都督宋晟於東增築新城. 周一十二里二百五十七步, 高三丈二尺, 闊三丈七尺, 池深一丈七尺, 闊三丈七尺. 門四. 【東曰咸熙, 南曰延恩, 西曰廣德, 北曰永寧.】 東北城樓各一.

138 영주소(靈州所) : 현재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중부에 있는 링우시[靈武市] 일대이다. 한때는 영무현(靈武縣)이 설치되었고, 북주(北周) 때는 회락(回樂)이라 불렀다. 수 때 영무군(靈武郡)이 설치되었으며, 당 때는 영주(靈州)라고 불렀다. 서하가 지배할 때 서평부(西平府)로 개칭했다가 원·명 때 다시 영주로 불렀다.

139 감주위(甘州衛) : 현재 중국 간쑤성 중부에 있는 장예시[張掖市]에 속한 간저우구[甘州區] 일대에 설치되었던 명의 위소이다.

■ 72 양주위(凉州衛)¹⁴⁰ 성지

당 이범(李軌)이 세웠다. 1377년(고려 우왕 3, 명 홍무 10)에 지휘 복영이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11리 180보이고 높이는 5장 1척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2척이다. 동·남·북쪽에 3개의 문이 있다. 훗날 송성(宋晟)이 관(關) 서쪽 문을 증축했다.

凉州衛城池, 唐李軌建. 明洪武十年, 指揮濮英增築. 周一十一里一百八十步, 高五丈一尺, 池深一丈二尺. 有東南北三門. 後宋晟增關西門.

■ 73 강령부(江寧府)¹⁴¹ 성지

살펴보니 육조(六朝)¹⁴²의 옛 성이다. 북쪽에 가까워 진회(秦淮)¹⁴³에서 5리를 더 가면 양주에 이른다. 오(吳) 때 개축했다. 진회를 넘어서 남북으로 둘레가 20리로, 남쪽의 취보산(聚寶山)¹⁴⁴에 가깝다. 명이 금릉(金陵)으로 수도를 정하고 도성을 크게 세웠다. 오직 남문, 대서, 수서 3개의 문은 옛것을 본떠 다시 이름을 지었는데 취보, 석성, 삼산문이다. 옛 동문의 해자를 잘라 성으로 만들고 8리를 개척하여 남문 2개를 증건했다. 【통제·정양문이다.】 정양문의 북쪽에 동문 1개【조양문이다.】를 세웠다. 종산의 산기슭 주위를 둘러서 서쪽에서 북주산에 이르는 곳에 북문 1개【태평문이다.】를 세웠다. 또한 서쪽으로는 북주산, 계명산에 의지했고 호수를 따라 이북으로는 바로 독산인데 서쪽 8리에 북문 2개【신책·금천문이다.】를 세웠다. 서북쪽은 사자산으로 막혀 있으며 그 안쪽으로 문 2개【종부·의봉문이다.】를 세웠다. 지금은 종부문을 폐했다. 의봉문에서 구불구불 이어지는 남쪽에 정회문과 청량문을 세워서 옛 서문과 접하는데 지금은 모두 폐했다. 1658년(조선 효종 10, 청 순치 16)에 신책문을 득승문으로 바꿨다. 성의 둘레는 96리이다. 그 외성의 서북쪽은 산을 의지하고 강을 끼고 있고 동남쪽은 산이 막아주고 들이 펼쳐져 있어서 문 16개를 만들었다.

140 양주위(凉州衛) : 현재 중국 간쑤성 중부에 있는 우웨이시[武威市]에 속한 량저우구[凉州區] 일대에 설치되었던 명의 위소이다.

141 강령부(江寧府) : 현재 중국 장쑤성[江蘇省]의 성도(城都)인 난징[南京] 일대이다.

142 육조(六朝) : 중국에서 후한이 멸망한 뒤 수가 통일할 때까지 건업(建業, 지금의 남경)에 도읍한 오(吳), 동진(東晉), 송(宋), 제(齊), 양(梁), 진(陳) 6개 왕조의 총칭이다.

143 진회(秦淮) : 남경(南京)을 지나 양자강(揚子江)으로 흐르는 운하(運河)이다.

144 취보산(聚寶山) : 중국 남경에 위치한 명승지로 양(梁) 때 원광[雲光]이라는 고승이 이곳에서 설법하였는데 하늘이 감동하여 꽃이 비처럼 떨어졌다고 해서 위화타이[雨花臺]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동남북쪽 6개【요방·선학·기린·창파·고교·상방문이다.】, 서남쪽 6개【협강·쌍교·봉대·순상·대안덕·소안덕문이다.】, 서쪽 1개【강동문이다.】, 북쪽 3개【불녕·상원·관음문이다.】이다. 둘레는 180리이다. 상원현과 강령현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江寧府城池, 按六朝舊城. 近北去秦淮五里至楊, 吳時改築. 跨秦淮南北周廻二十里, 近南聚寶山. 明定都金陵, 大建城闕. 惟南門大西水西三門, 因舊更名, 聚寶, 石城, 三山. 自舊東門處, 截濠爲城, 開拓八里, 增建南門二.【曰通濟, 曰正陽.】自正陽而北, 建東門一.【曰朝陽.】自鍾山之麓圍繞而西, 抵覆舟山建北門一.【曰太平.】又西據覆舟鷄鳴山, 緣湖水以北至, 直瀆山而西八里, 建北門二, 【曰神策, 金川.】西北括獅子山而內建門二.【曰鐘阜, 儀鳳.】今鐘阜閉. 自儀鳳迤邐而南建定淮清涼二門, 以接舊西門, 今俱閉. 順治十六年, 改神策爲得勝. 周九十六里, 其外城西北, 則據山帶江, 東南則阻山控野闕, 有十六門. 東南北六, 【曰姚坊, 仙鶴, 猗猗, 滄波, 高橋, 上方.】西南六, 【曰夾岡, 雙橋, 鳳臺, 馴象, 大安德, 小安德.】西一, 【曰江東.】北三, 【曰佛寧, 上元, 觀音.】周一百八十里. 上元江寧二縣俱附郭.

■ 74 소주부(蘇州府)¹⁴⁵ 성지

오원(伍員)¹⁴⁶이 창건하였다. 본성의 둘레는 42리 30보이고, 소성의 둘레는 10리이다. 문은 8개로 만들었다.【동쪽은 누·장, 서쪽은 창·서, 남쪽은 반·사, 북쪽은 제·평문이다.】송 초기에 2개의 문을 막고 오직 창, 서, 반, 봉, 누, 제의 6개 문만 남았다. 명이 흥하자 다시 성을 아자형(亞字形)으로 수축했다. 총계는 4,482장 6척 5촌이고 높이는 2장 3척이다. 여장의 높이는 6척이고 10보마다 포(鋪)를 만들었다. 성 안팎의 긴 해자의 너비는 여러 장에 이른다. 문은 조교를 통해 출입하게 했다. 1662년(조선 현종 3, 청 강희 원년)에 순무 한세기(韓世琦)가 수축하였다. 현재 성루는 6좌

145 소주부(蘇州府) : 현재 중국 장쑤성 남쪽에 있는 쑤저우시[蘇州市] 일대이다.

146 오원(伍員) : 춘추시대 오(吳)의 대부이자 군사가인 오자서(伍子胥)의 이름이다. 초의 평왕(平王)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자, 오로 도망가서 오왕 합려(閭廬)를 도와 초를 쳐 영(郢)에 들어가 평왕의 시체를 파내어 매 300대를 쳐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다. 그 뒤 합려의 뒤를 이어 부차(夫差)가 즉위하자 월(越)을 정벌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월왕 구천(句踐)이 강화를 요청하자 오자서가 이에 반대하였으나 부차가 허락하였다. 월왕 구천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오를 정벌하고자 했다. 오의 태재(太宰) 백비(伯嚭)가 오자서를 참소하자, 부차가 오자서에게 검을 하사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이에 오자서는 결국 자결하였다. 9년 후에 월이 오를 멸망시켰다.([『사기』 권66,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

이고 관청은 6곳이다. 봉, 누, 제, 창, 서, 반에 한문(旱門)이 6개이고, 봉, 누, 제, 창, 반에 수문(水門)이 5개이다. 기대(旗臺) 3좌, 군기고방 6곳, 와포 170칸, 적대 57좌, 타두 3,051개이다. 수문관공관(守門官公館)은 6곳이고 영방(營房)은 문마다 6칸이다. 오현과 장주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蘇州府城池, 自伍員創築, 大城周四十二里三十步, 小城周十里. 爲門八.【東曰婁, 曰匠, 西曰閫, 曰胥, 南曰盤, 曰蛇, 北曰齊, 曰平.】宋初, 塞二門, 惟閫胥盤葑婁齊六門. 明興, 更加修築, 城爲亞字形, 總計四千四百八十二丈六尺五寸, 高二丈三尺, 女牆高六尺, 每十步爲鋪, 內外長濠廣至數丈, 門有釣橋以通出入. 康熙元年, 巡撫韓世琦修築. 現在城樓六座, 官廳六所, 葑婁齊閫胥盤旱門六, 葑婁齊閫盤, 水門五. 旗臺三座, 軍器庫房六所, 窩鋪一百七十間, 敵臺五十七座, 垛頭三千五十一箇, 守門官公館六所, 營房每門六間. 吳縣長洲縣俱附郭.

■ 75 상숙현(常熟縣)¹⁴⁷ 성지

원 때 지어진 토성이다. 장사성(張士誠)¹⁴⁸이 다시 벽돌로 쌓았다. 성의 높이는 2장 2척이고 두께는 1장 2척이며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다. 가정 연간(1522~1566)에 지현 왕철이 수리했는데 높이는 2장 4척이다. 문을 7개 세웠는데 오직 서쪽과 북쪽의 2개 문만이 산 밑에 있고 나머지 5개 문 안팎에는 각각 깊은 해자가 있다. 문 7개는 남문【익경이다.】·북수문【망양이다.】·북한문【진해이다.】·서문【부성이다.】·대동문【빈양이다.】·소동문【영춘이다.】·서북문【우산이다.】이다. 1594년(조선 선조 27, 명 만력 22)에 지현 장집의(張集義)가 증축했는데 높이 3척이고 내부에 마로(馬路)를 만들었다. 1606년(조선 선조 39, 명 만력 34)에 지현 경굴(耿橘)이 망양문【진해이다.】·우산문【진산이다.】·진해문【금강이다.】을 개명하였다.

常熟縣城池, 元築土城, 張士誠更甃以磚, 高二丈二尺, 厚一丈二尺, 周九里三十步. 嘉靖間, 知縣王鉄修之, 高二丈四尺, 建門七, 惟西北二門枕山, 餘五門

¹⁴⁷ 상숙현(常熟縣) : 현재 중국 장쑤성 남부 양쯔강[揚子江] 지역에 있는 창서우시[常熟市]이다.

¹⁴⁸ 장사성(張士誠) : 1321~1367. 원 말기 태주(泰州) 사람으로, 회동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대주(大周)를 건국했다. 1367년에 명 장수 서달(徐達), 상우춘(常遇春) 등에게 패해 포로로 잡혀 금릉(金陵)으로 압송되었다가 자살하였다. (『명사(明史)』권1, 「태조본기」)

內外各有深濠, 南門【曰翼京】, 北水門【曰望洋】, 北旱門【曰鎮海】, 西門【曰阜城】, 大東門【曰賓陽】, 小東門【曰迎春】, 西北門【曰虞山】. 萬曆甲午, 知縣張集義增高三尺, 內甃馬路. 丙午, 知縣耿橘改望洋門【曰鎮海】, 虞山門【曰鎮山】, 鎮海門【曰鎮江】.

■ 76 태창주(太倉州)¹⁴⁹ 성지

1338년(고려 충숙왕 복위 6, 원 지원 7)에 장사성이 쌓았다. 성의 높이는 2장이고 너비는 3장이며 성의 둘레는 14리 50보이다. 해자의 둘레는 15리 170보이고 깊이는 1장 5척이며 너비는 1장 6척이다. 문은 7개이다. 【대동·조대·대남·소서·대서·소북·대북문이다.】 수문은 4개이다. 【대동·소서·대서·조양문이다.】 명 성화 연간(1465~1487)에 도지휘동지(都指揮同知)¹⁵⁰ 곽횡(郭鉉)이 대남문에 누를 다시 세웠다.

太倉州城池, 元至元七年, 張士誠築. 高二丈, 廣三丈, 周一十四里五十步, 濠周十五里一百七十步, 深一丈五尺, 廣一丈六尺. 門七. 【曰大東, 朝大, 大南, 小西, 大西, 小北, 大北.】 水門四. 【曰大東, 小西, 大西, 朝陽.】 明成化間, 都指揮同知郭鉉, 復建大南門樓.

■ 77 송강부(松江府)¹⁵¹ 성지

원 말에 장사성이 쌓았다. 성의 둘레는 9리 173보이고 높이는 1장 8척이며 너비는 높이와 같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피운, 서쪽은 곡양, 남쪽은 집선, 북쪽은 통파문이다.】 해자의 깊이는 7척이고 너비는 10장이다. 명 말에 수령들이 계속해서 중수했다. 또한 부성의 서문 밖에 서창(西倉)이 있었다. 성의 둘레는 2리이고 높이는 1장 8척이다. 육문(陸門)은 4개이다. 해자의 깊이는 3장이고 너비는 6장 남짓이다. 명 가정 연간(1522~1566)에 쌓았다. 화정현과 누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松江府城池, 元末張士誠築, 周圍九里一百七十三步, 高一丈八尺, 廣如之. 門

149 태창주(太倉州) : 현재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蘇州市]에 속한 도시인 타이창시[太倉市]이다.

150 도지휘동지(都指揮同知) : 명 도지휘사사의 고위관직으로 종2품이다. 도지휘사를 보좌한다.

151 송강부(松江府) : 현재 중국 양쯔강 하구에 있는 상하이시[上海市]에 속한 송장구[松江區] 일대이다.

四【東曰披雲, 西曰谷陽, 南曰集仙, 北曰通波.】濠深七尺, 闊十丈. 明季, 守令相繼增修. 又府城西門外有西倉, 城周圍二里, 高一丈八尺, 陸門四, 濠深三丈, 廣六丈餘. 明嘉靖間築. 華亭縣婁縣俱附郭.

■ 78 상주부(常州府)¹⁵² 성지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중산후 탕화(湯和)¹⁵³가 축성했다. 성의 둘레는 10리 284보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며 너비는 2장이다. 벽돌로 쌓았다. 문은 7개이다. 【동쪽은 통오, 남쪽은 덕안, 서쪽은 조경, 북쪽은 청산, 다음 동쪽은 회덕, 다음 남쪽은 광화, 다음 북쪽은 화정문이다.】해자의 깊이는 2장이며 너비는 16장이다. 성화 연간(1465~1487)에 순무 왕서격, 지부 손인중이 벽돌로 쌓은 것을 큰 돌로 바꿨는데 높이를 3척을 높였다. 무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常州府城池, 明洪武間, 中山侯湯和築. 周圍十里二百八十四步, 高二丈五尺, 廣二丈, 甃以磚石. 門七【東曰通吳, 南曰德安, 西曰朝京, 北曰青山, 次東曰懷德, 次南曰廣化, 次北曰和政.】濠深二丈, 闊十六丈. 成化間, 巡撫王恕檄, 知府孫仁重, 甃易以巨石, 增高三尺. 武進縣附郭.

■ 79 진강부(鎮江府)¹⁵⁴ 성지

옛 토성이다. 성의 둘레는 26리 17보이고 높이는 9척 6촌이다. 1368년(고려 공민왕 17, 명 홍무 원년)에 지휘 송례(宋禮)가 다시 벽돌로 쌓았는데 성 둘레가 9리 13보이고 높이가 2장 6척이다. 1584년(조선 선조 17, 명 만력 12)에 지부 오휘겸이 부(府)의 뒤에 성을 덧붙이고 담을 쌓아 부치(府治)를 지켰다. 1593년(조선 선조 26, 명 만력 21)에 성에 담을 두르고 다시 높이 3척을 더하여 북쪽까지 이어서 담장을 붙였다. 허대(虛臺)를 증축하여 모두 북고산(北固山)과 서로 마주보게 했다. 문은 4개이다. 【동

152 상주부(常州府) : 현재의 중국 장쑤성 남부에 있는 창저우시[常州市] 일대이다.

153 탕화(湯和) : 1326~1395. 자는 청신(鼎臣)으로 호주(濠州) 종리(鍾離) 사람이다. 명의 개국공신으로 객자흥의 휘하에 있다가 주원장을 따라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전공을 세웠다. 1378년에 신국공(信國公)에 봉해졌고, 1389년에 관직에서 물러났고 1395년에 사망했다. (『명사』 권126, 「탕화열전」)

154 진강부(鎮江府) : 현재의 중국 장쑤성 남부에 있는 전장시[鎮江市] 일대이다.

쪽은 조양, 서쪽은 금은, 남쪽은 호거문인데 성을 끼고 북쪽 방향에 1개의 소문을 증설했고, 북쪽은 정파문이다.】수관이 2개이다. 단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鎮江府城池, 舊土城, 周二十六里十七步, 高九尺六寸. 明洪武元年, 指揮宋禮更築甃以磚石, 周九里十三步, 高二丈六尺. 萬曆十二年, 知府吳撫謙于府後附城築垣, 以衛府治. 二十一年, 周廻城垣, 復加高三尺, 迤北附垣. 增建虛臺, 一與北固山相對. 門四.【東曰朝陽, 西曰金銀, 南曰虎踞, 夾城向北增設一小門, 北曰定波.】水關二. 丹徒縣附郭.

■ 80 단양현(丹陽縣)¹⁵⁵의 성지

구성은 둘레가 560보이고 높이는 1장 5척이었다. 명 가정 연간(1522~1566)에 지현 진규가 처음 내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979장이고 직경은 333장 남짓이며 높이는 2장 2척이다. 아래의 너비는 3장이고 위의 너비는 그것의 반이다. 순무 장경현(張景賢)이 성 밖에 다시 토성을 쌓으라고 명하여 지현 사영수(史永壽)가 증축했다. 문은 6개가 있다.【동문, 소동문, 남문, 소남문, 북문, 서문이다.】적대 2좌, 관 2개가 있다. 해자의 너비는 8장이다. 처음으로 내성과 외성을 통합해 하나로 했다.

丹陽縣城池, 舊城周圍五百六十步, 高一丈五尺. 明嘉靖年間, 知縣陳奎, 始築內城, 周圍九百七十九丈, 徑三百三十三丈有奇, 高二丈二尺. 下闊三丈上半之. 巡撫張景賢, 令於城外更壘土城. 知縣史永壽增築. 門有六.【曰東門, 曰小東門, 曰南門, 曰小南門, 曰北門, 曰西門.】敵臺二, 水關二, 濠闊八丈. 始合內外城爲一.

■ 81 회안부(淮安府)¹⁵⁶ 성지

진(晉) 때 쌓았다. 송 때 남쪽으로 회수를 의지하여 병풍처럼 둘러서 막았다. 수신(守臣) 진민중(陳敏重)이 쌓고서 이르기를 은주성(銀鑄城)이라고 하였다. 명 초기에 벽돌로 수축하고 누로(樓櫓)를 두었다. 성의 둘레는 11리이고 높이는 3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관풍, 남쪽은 영원, 서쪽은 망운, 북쪽은 조종문이다.】신성은 남

155 단양현(丹陽縣) : 현재의 장쑤성[江蘇省] 남부에 있는 단양시[丹陽市]이다.

156 회안부(淮安府) : 현재의 장쑤성 중서부에 있는 회이안시[淮安市]이다.

쪽으로 옛 성을 병합하였는데 바로 산양 북쪽의 진지(鎭地)이다. 장사성이 일찍이 이곳에 성을 쌓았다. 명 초기에 시우(時禹)가 증축했는데 성의 둘레는 7리 20장이고 높이는 2장 8척이다. 옛 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의(輔依)¹⁵⁷의 형세가 있고 아래로는 회하에 임하여서 해자를 만들었다. 산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淮安府城池，晉時所築。宋南邊倚淮爲屏蔽，守臣陳敏重築之，號銀鑄城。明初修築，包以磚甃，置樓櫓。周圍一十一里，高三丈。門四。【東曰觀風，南曰迎遠，西曰望雲，北曰朝宗。】新城南竝故城，卽山陽北展鎭，張士誠嘗築城于此。明初指揮時禹增築，周圍七里二十丈，高二丈八尺。憑藉舊城，有輔依之勢，下臨淮河爲池。山陽縣附郭。

■ 82 양주부(楊州府)¹⁵⁸ 성지

양주에 있는 성으로 춘추시대에 오왕 부차(夫差)¹⁵⁹가 한구(邢溝)에 쌓은 성과 초왕 웅괴(熊槐)¹⁶⁰가 광릉에 쌓은 성이 이것이다. 명 초기에 첨원 장덕이 송 때의 대성을 본떠서 서남쪽 모퉁이를 개축했는데 둘레가 거의 9리 1,757장 5척이고 두께는 1장 5척이며 높이는 두께의 배이다. 문 5개를 설치했다. 【남쪽은 안강, 북쪽은 진회, 서쪽은 통

157 보의(輔依) : 보거상의(輔車相依)의 줄임말이다. 수레의 덧방나무(輔)와 바퀴(車)가 서로 의지한다는 뜻으로 서로 도와서 의지하는 깊은 관계를 말한다. 『춘추좌전』 「희공(僖公)」 5년 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사가 있다. 춘추시대 진(晉)이 우(虞)에게 껍(虢)을 칠 테니 길을 좀 빌려 달라고 요청하자, 우의 현신인 궁지기(宮之奇)가 우와 껍은 수레의 덧방나무와 바퀴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와 같고 입술이 없어지면 치아가 시린 관계[순망치한(脣亡齒寒)]와 같으니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임금에게 간했으나 이를 듣지 않다가, 끝내는 껍을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진의 군대에 의해 우까지 멸망을 당하게 된다.

158 양주부(楊州府) : 현재 중국 장쑤성 중부의 도시인 양저우[揚州]이다. 춘추시대에 오(吳)와 월(越)의 영역이었다. 전국시대에는 초(楚)의 광릉읍(廣陵邑), 진 때는 광릉현(廣陵縣), 한 때는 강도현(江都縣)이었다. 수 때 대운하가 개통되면서 주 이름을 양주(揚州), 치소(治所)를 강도현(江都縣)으로 하였고, 당 때는 양주도독부(揚州都督府)가 설치되었다. 오대 십국시대에는 오국의 도읍인 강도부, 남당(南唐)에서는 서도(西都) 금릉(金陵, 남경)에 대해서 동도(東都)라 불렀다. 원 때는 양주였고 명·청시대에는 양주부(揚州府)로 불렸다.

159 부차(夫差) : 춘추시대 말기의 오(吳)의 왕(재위 B.C. 496~B.C. 473)이다. 아버지 합려(闔閭)가 월왕(越王) 구천(句踐)에게 패해 죽자 B.C. 494년에 월에 복수했다. 책사 오자서가 구천을 죽여야 한다고 진언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월의 공격으로 오는 망했다.

160 웅괴(熊槐) : B.C. 374~299. 전국시대 초의 제37대 왕으로 성은 웅씨(熊氏), 이름은 괴(槐), 시호는 회(懷)이다. 초위왕(楚威王)의 아들로 B.C. 328년에 즉위했다. B.C. 323년에 주국(柱國) 소양(昭陽)으로 하여금 위를 공격하게 했고, 양릉(襄陵)에서 위를 격파하여 8개 읍을 얻었다. B.C. 318년(초 희왕 11)에 산둥(山東)의 6개 국이 진(秦)을 공격할 때 종장(縱長)으로 추대되었지만 함곡관(函谷關)까지 갔다가 패하고 돌아왔다. B.C. 313년에 장의(張儀)가 진에 와서 영토 600리를 할애하겠다고 하자 진과 우호를 맺고 제(齊)와는 관계를 끊었다. 다음해 진이 땅을 주지 않자 공격했지만 대패하고 한중(漢中)의 땅까지 잃었다. B.C. 299년에 굴원(屈原)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뒤 그곳에서 죽었다. (『사기』 권40, 「초세가(楚世家)」)

사, 동쪽은 영해, 동남쪽은 소동문이다.】각문에는 웅성, 누로, 치첩, 경포, 적대가 있는데 서로 이어져 있다. 남북으로 수문이 2개 있는데 관하(官河)를 끌어들여서 문 가운데를 관통하는데 시하(市河)라고 한다. 1556년(조선 명종 11, 명 가정 35)에 새로 성을 쌓았는데 옛 성의 동남쪽 각루에서 시작하여 동북쪽 각루까지이다. 성의 둘레는 10리인데 계산하면 1,541장 9척이고 높이 및 두께는 옛 성과 같다. 성루 5좌를 설치했다. 문은 7개이다.【남쪽은 읍강으로 초관(鈔關)이 있다. 또 남쪽은 편문이다. 동남쪽은 통제, 동쪽은 이진이다. 동북쪽은 편문이다. 북쪽은 진회문이고 더 북쪽은 공신관이다. 북쪽도 편문이 된다.】남북은 바로 옛 성의 해자 입구로 수문 2개로 삼았다. 동남쪽은 바로 운하 해자로 삼았고, 북쪽 해자는 물을 끌어서 댄다. 1592년(조선 선조 25, 명 만력 20)에 지부 오수가 뒤의 서북쪽의 하천을 파고 독을 벽돌로 쌓았다. 성첩을 3척으로 늘렸다. 1597년(조선 선조 30, 명 만력 25)에 지부 곽광이 돌로 해자를 쌓았는데 완성하지 못한 것이 400여 장이었다. 적대 16좌를 증축했다. 강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楊州府城池, 楊州有城, 自春秋吳王夫差城邗溝, 楚王熊槐城廣陵是也. 明初, 僉院張德林, 因宋大城西南隅改築, 僅周九里, 一千七百五十七丈五尺, 厚一丈五尺, 高倍之. 設門五.【南曰安江, 北曰鎮淮, 西曰通泗, 東曰寧海, 東南曰小東.】各門有甕城, 樓櫓, 雉堞, 警鋪, 敵臺相望. 南北水門二, 引官河貫其中, 曰市河. 嘉靖丙辰, 築新城, 起舊城東南角樓至東北角樓, 周十里, 計一千五百四十一丈九尺, 高厚與舊城等. 城樓五, 設門七.【南曰挹江, 鈔關在焉. 又南¹⁶¹爲便門, 東南曰通濟, 東曰利津, 東北爲便門, 北曰鎮淮, 又北曰拱辰關, 北亦爲便門.】南北卽舊城濠口, 爲二水門. 東南卽運河爲濠, 北壕引水注之. 萬曆二十年, 知府吳秀, 浚西北河, 甃以石堤, 增城堞三尺. 二十五年, 知府郭光瑩石壕, 未竟者四百餘丈, 增敵臺一十有六. 江都縣附郭.

161 南 : 저본에는 '東'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방여취편 직방전」 양주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 83 안경부(安慶府)¹⁶² 성지

1217년(고려 고종 4, 송 가정 10) 지안경(知安慶) 황간(黃幹)¹⁶³이 성당만(盛唐灣)의 성(宜城)의 나루 북쪽에 성을 세웠다. 성의 북쪽은 대룡을 등지고 있고, 동쪽은 호수로 막혀 있고, 서쪽은 강을 경계로 하며, 남쪽은 큰 강을 굽어본다. 성의 둘레는 9리 13보이다. 문 5개를 설치했다.【동쪽은 종양, 동남쪽은 강제, 남쪽은 진해, 서쪽은 정관, 북쪽은 집현문이다.】1356년(고려 공민왕 5, 원 지정 16) 수수 여궐(余闕)¹⁶⁴이 중수하여 높이를 2장 6척까지 높였다. 중호(重濠)¹⁶⁵ 3개는 강물을 끌어다 성을 둘러싸게 했다. 1541년(조선 중종 36, 명 가정 20) 지부 오린(吳麟)¹⁶⁶이 벽돌로 벽을 쌓았다. 1635년(조선 인조 13, 명 숭정 8) 지현 황배원(黃配元)이 섬돌을 이어 성 둘레에 걸쳐 쌓았다. 마도 북관 일대에 높은 치첩을 증축했다. 청 순치 연간(1644~1661) 초기 지부 송개제가 5개의 누를 중건했다. 1660년(조선 현종 원년, 청 순치 17) 조무 의영귀(宜永貴)¹⁶⁷가 벽돌로 여장을 쌓았고 옛 성은 3,000여 개의 타를 4분의 1로 줄였다. 와포를 설립해서 적을 막는 방비로 했다. 회령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安慶府城池, 宋嘉定十年, 黃幹知安慶, 建城于盛唐灣宜城渡之陰, 其北城負大龍, 東阻湖, 西限河, 南瞰大江, 周九里一十三步, 設門五.【東曰縱陽, 東南曰康濟, 南曰鎮海, 西曰正觀, 北曰集賢.】元至正丙申, 守帥余闕重修, 增高至二丈六尺, 濬重濠三引江水環城. 明嘉靖辛丑, 知府吳麟, 加甃以甃. 崇禎乙亥, 知縣黃配元續砌周城, 馬道北關一帶增高雉堞. 順治初, 知府桑開第重建五樓. 十七年, 操撫

162 안경부(安慶府)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 남서부에 있는 안칭시[安慶市]이다.

163 황간(黃幹) : 1152~1221. 자는 직경(直卿), 호는 면재(勉齋)이다. 민현(閩縣 복건성(福建省) 복주(福州) 사람이다. 남송 때 경학가로, 장사랑(將仕郎)을 거쳐 지한양군(知漢陽軍)·지안경부(知安慶府) 등을 지냈다. 주자를 사사하였으며,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서 강학하였다. 처음에는 주자의 학설을 고수하였으나 후에는 육학(陸學)과 조화시키려 하였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저서로는 『서설(書說)』·『육경강의(六經講義)』·『예기집주(禮記集注)』·『논어통석(論語通釋)』·『논어의원(論語意原)』·『중용총론(中庸總論)』·『중용총설(中庸總說)』·『경해(經解)』·『성현도통전수총서설(聖賢道統傳授總說)』 등이 있다.

164 여궐(余闕) : 원(元) 노주인(盧州人)이다. 자는 정심(廷心)이며 충선(忠宣)으로 추시(追諡)되었다. 안경(安慶)을 지키다가 진우량(陳友諒)의 난에 죽었는데, 평시에 경술(經術)에 뜻을 두어 오경(五經)에 모두 전주(傳注)가 있고 특히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에는 『청양집(靑陽集)』이 있다. (『원사(元史)』 권143)

165 중호(重濠) : 해자를 이중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참호 안에 따로 하나의 참호를 만들어 능철판(菱鐵板)을 깔고 또 회정(灰甃)을 만들어 적이 성에 접근하는 것을 방어한다.

166 오린(吳麟) : 자는 윤상(允祥), 호는 순계(苕溪)이다. 1485년에 태어나 1553년에 이르렀으며 명 가정 연간 '오씨 부자 사진사(吳氏父子四進士)' 중 하나로 불렸다.

167 의영귀(宜永貴) : ?~1667. 복건순무(福建巡撫)·안휘순무(安徽巡撫)를 지냈다.

宜永貴, 甃女牆, 將舊城三千餘垛合四爲一, 設立窩鋪以備守禦. 懷寧縣附郭.

■ 84 회주부(徽州府)¹⁶⁸ 성지

오료산 산기슭에 있다. 수 의령 연간(617~618)에 왕화(汪華)¹⁶⁹가 쌓았다. 명 총병 등유(鄧愈)¹⁷⁰가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9리 70보이고 높이는 3장 2척이며, 너비는 1장 5척이다. 동·서·북쪽 3면에는 해자가 있는데 너비는 1장 4척이고 깊이는 1장 2척이다. 남쪽과 동남쪽은 산이 험준하여 해자가 없다. 문은 5개이다. 【동쪽은 덕승, 서쪽은 호수, 남쪽은 남산, 북쪽은 진안, 동북쪽은 임계문이다.】 북쪽과 동쪽에서 남까지 문에 적루 7개가 있고 문 안에는 각기 사병마방(司兵馬房)이 설치되어 있다. 와포는 33개이다. 명 가정 연간(1522~1566)에 지부 하동서가 증축했는데 높이는 3척을 더했다. 서문 바깥에는 적대를 증축했다. 흙현치는 부(府)에 있고 성 밖에는 예전부터 성이 없다. 1554년(조선 명종 9, 명 가정 33)에 지현 사계방이 논의하여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남짓이고, 높이는 3장, 너비는 2장이다. 서남쪽은 부성으로써 둘러서 지켰다. 나머지 3개 방면은 모두 산으로 해자가 없으나 험준하다. 문 가까이 각각 노대가 있다. 수비사(守陴舍) 24개가 있다. 요망루(瞭望樓)가 2곳에 있는데 하나는 문정공서(問政公署)에 있고, 또 하나는 신안문(新安門) 안에 있다. 흙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徽州府城池, 在烏聊山麓. 隋義寧中汪華築, 明總兵鄧愈加築. 周圍九里七十七步, 高三丈二尺, 廣一丈五尺. 東西北三面有濠, 闊一丈四尺, 深一丈二尺. 南及東南以山險無濠, 門五. 【東曰德勝, 西曰湖水, 南曰南山, 北曰鎮安, 東北曰臨溪.】 自北而東, 至南門爲敵樓七, 門內各設司兵馬房. 窩鋪三十三. 嘉靖間, 知府何東序增修, 加高三尺. 西門外, 增築敵臺. 歙縣治在府, 城外舊無城, 嘉靖

168 회주부(徽州府)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에 속해 있다. 옛 명칭은 신안(新安)이며 1121년(고려 예종 16, 송 선화 3)에 회주(徽州)로 개칭하였다.

169 왕화(汪華) : 당(唐) 대 사람이다. 수(隋) 말경 국경에 웅거하여 오주(五州)를 겸병하여 점령하고서 호를 세우고 오왕(吳王)이 되었으나, 당 무덕(武德) 연간에 왕웅탄(王雄誕)에 항복하여 6주(州)의 군사총관(軍事總管)이 되고 흡주자사(歙州刺史)가 되었으며 월국공(越國公)에 봉해졌다.

170 등유(鄧愈) : 1337~1377. 본래의 성명은 등우덕(鄧友德)이고, 자는 백안(伯顔)이다. 명 개국명장(開國名將), 정서장군(征西將軍)이다. 16세에 병사를 이끌고 원(元)에 대항했다. 1355년 1만여 명을 이끌고 주원장(朱元璋)에게 투항하여 관군총관(管軍總管)이 되었다. 이때 주원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등유(鄧愈)라고 개칭했다.

三十三年, 知縣史繼芳議築, 周圍七里有奇, 高三丈, 廣二丈. 西南以府城爲屏庇, 餘三面皆山不池而險. 門傍各有弩臺, 守陴舍二十四, 瞭望樓二所一在問政公署, 一在新安門內. 歙縣附郭.

■ 85 영국부(寧國府)¹⁷¹ 성지

진(晉) 내사(內史) 환이(桓彝)¹⁷²가 쌓았다. 1129년(고려 인종 7, 송 건염 3) 군수 여호문(呂好問)¹⁷³이 성지를 넓혔다. 원 지정 연간(1341~1370)에 벽돌로 증축했는데 망루, 누각, 성가퀴를 모두 갖추었다. 높이는 2장 5척이고 두께는 3장, 주변 둘레는 9리 13보이다. 문은 5개이다. 【동쪽은 양덕, 동편은 태화, 남쪽은 훈화, 서쪽은 보성, 북쪽은 공극문이다.】 모두 겹문인 중관(重關)이고, 깊은 해자가 있다. 선성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寧國府城池, 晉內史桓彝築. 宋建炎三年, 郡守呂好問擴之. 元至正間, 重加甃甃. 闔閣樓堞皆具, 高二丈五尺, 厚三丈, 周延九里一十三步, 門五. 【東直曰陽德, 東偏曰泰和, 南曰薰化, 西曰寶城, 北曰拱極】. 竝重關深池. 宣城縣附郭.

■ 86 지주부(池州府)¹⁷⁴ 성지

해자 남쪽에는 한(漢) 대에 돌로 쌓은 성이 있었다. 지금 군치(郡治)와는 서쪽으로 80리 거리인데 오(吳) 대에 호림성을 쌓았다. 지금 군치의 동쪽에 있었으니 이것은 지금의 군치가 아니다. 당 영태 연간(765~766)에 처음 주치(州治)를 이곳에 두었다. 이는 송(宋)까지 이어졌다. 원래 성지는 모두 자취가 묻혀 다 없어졌다. 명 정덕 연간(1506~1521)에 군수 하소정(何紹正)¹⁷⁵이 비로소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2장 3척이고, 두께는 그것의 배이다. 그 서북쪽은 옛터를 그대로 본뒀고 동남쪽은 넓게 넓혔다. 둘레는 1,428장이다. 문은 7개를 만들었다. 귀지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171 영국부(寧國府)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의 쉬안청시[宣城市]이다.

172 환이(桓彝) : 진 성제(晉成帝) 함화(咸和) 3년(328)에 소준(蘇峻)이 반란을 일으키자, 선성내사(宣城內史)의 신분으로 의병을 규합하여 경현(涇縣)을 사수(死守)하다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성이 함락되며 죽음을 맞았다. (『진서(晉書)』 권 74, 「환이열전」)

173 여호문(呂好問) : 1064~1131. 송(宋) 대 관리로, 자는 순도(舜徒)이다.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지냈다.

174 지주부(池州府)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의 초저우시[池州市] 및 통령시[銅陵市]이다.

175 하소정(何紹正) : 1475~1527. 명(明) 대 관리로, 자는 계종(繼宗), 호는 유재(裕齋)이다.

池州府城池, 池陽在漢居石城, 距今郡治西八十里. 吳築虎林城, 在今郡治東, 此非今之郡治. 唐永泰間, 始置州治于此, 延及宋, 元城池盡皆湮廢. 明正德間, 郡守何紹正始築城, 高二丈三尺, 厚倍之. 其西北仍舊址, 東南則恢拓之, 周一千四百二十八丈, 爲門者七. 貴池縣附郭.

■ 87 태평부(太平府)¹⁷⁶ 성지

오 황무(黃武) 연간(222~229)에 쌓았다. 당 보대(保大) 연간(943~957)에 더 높이고 넓혔다. 그 높이는 3장이고 성 둘레는 15리이다. 송 건염 연간(1127~1130)에 지주 괵위(郭偉)가 고쳐 쌓았다. 신성은 구성 크기의 3분의 1로 줄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제도가 되었다. 성 둘레는 6리이고 높이는 3장이고 넓이는 그에 맞게 했다. 문은 6개이다. 【동쪽은 행춘, 정남쪽은 남진, 남좌(南左)는 용진, 남우(南右)는 고숙, 서쪽은 징강, 북쪽은 청원문이다.】 송정 연간(1628~1644)에 순안어사 정곤정(鄭崑貞)이 돌로 쌓았고, 네 모퉁이에 첩루를 설치했다. 와포는 51곳을 증축했다. 연성(沿城)으로 해자를 삼았다. 동남쪽에 물을 끌어 도랑을 트고 새로운 제방을 지었다. 동북쪽은 장마에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수문을 만들었다. 당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太平府城池, 吳黃武間築. 唐保大中, 復高廣之, 高三丈, 周十五里. 宋建炎中, 知州郭偉改築, 新城減舊三分之一, 爲今制. 周圍六里, 高三丈, 廣稱是. 門六. 【東曰行春, 正南曰南津, 南左曰龍津, 南右曰姑孰, 西曰澄江, 北曰清源.】 崇禎間, 巡按御史鄭崑貞甃以石, 四隅設堞樓, 增窩鋪五十一所. 沿城爲濠, 東南開渠, 引水作新壩, 東北出水爲梅莊閘. 當塗縣附郭.

■ 88 여주부(廬州府)¹⁷⁷ 성지

역대로 성을 모두 흙으로 쌓았다. 당 정원 연간(785~805)에 노응구(路應求)가 자사가 되어서 벽돌로 쌓았다. 이보다 앞서 성들은 모두 금두하(金斗河)에 의지하여 해자를 만들었다. 송 건도 연간(1165~1173)에 회서수(淮西帥) 괵진(郭振)이 넓게 확장하

176 태평부(太平府)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의 마안산시[馬鞍山市] 및 우후시[蕪湖市]이다.

177 여주부(廬州府)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의 허페이시[合肥市]이다.

였는데 성이 강을 걸쳐 있다.¹⁷⁸ 문은 모두 7개이고, 수관(水關)은 2개이다. 명 정덕 연간(1506~1521) 초기에 군수 서옥(徐鈺)이 수관을 닫고 물을 끌어서 외호(外濠)를 만들었다. 군(郡)의 위치는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매번 봄과 여름에 물이 넘친다. 서쪽에서 성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동관이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 후에 군수 장한(張瀚)이 물길을 열어서 물살을 줄였다. 호진형(胡震亨)이 다시 수문을 세워서 물이 마르는 것을 방지했다. 합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廬州府城池, 歷代城皆土築. 唐貞元中, 路應求爲刺史, 加陂. 先是, 城皆據金斗河爲濠. 宋乾道間, 淮西帥郭振展拓之, 跨于河, 門凡七, 水關二. 正德初, 郡守徐鈺閉水關, 而導水爲外濠. 郡址西高東下, 每春夏水溢, 西入城中, 則東關受害爲甚. 後郡守張瀚開濬以殺其勢, 胡震亨復建閘以防其涸. 合肥縣附郭.

■ 89 봉양부(鳳陽府)¹⁷⁹ 성지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명 홍무 7)에 세웠다. 성의 둘레는 50리 443보이고, 높이는 1장쯤 되는데 흙으로 쌓았다. 오직 동북쪽만 벽돌로 쌓았는데 4리 정도이다. 해자에는 물을 대지 않았다. 조양문 바깥에 준황(濬隍)은 1단에 그쳤다. 문은 12개이다. 【홍무, 조양, 독산, 도산, 부도, 자순, 장춘, 장추, 남좌갑제, 북좌갑제, 전우갑제, 후우갑제이다. 장추, 부도, 자순문은 나중에 지어졌다.】 3개의 문은 옛 황성 만수산 남쪽에 있다. 1372년(고려 공민왕 21, 명 홍무 5) 외성 1좌를 세웠고 벽돌로 보루를 고쳤다. 주위가 9리 30보이고 높이는 2장쯤 된다. 해자는 없고 문은 4개이다. 이성(裡城)은 1좌는 벽돌로 보루를 수축하였다. 성의 둘레는 6리쯤 되고, 높이는 2장 5척이다. 해자는 5개인데 남쪽 성에 강 2개, 동쪽 성에 강 1개, 서쪽 성에 강 1개, 북쪽 성에는 강이 없고 작은 도랑 하나만 있다. 물이 적게 흐른다. 마봉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鳳陽府城池, 明洪武七年建, 周圍五十里四百四十三步, 高丈許, 土築, 惟東北磚壘, 止四里餘, 池不注水, 止朝陽門外濬隍一段, 門十二. 【曰洪武, 朝陽, 獨山, 塗山, 父道, 子順, 長春, 長秋, 南左甲第, 北左甲第. 前右甲第, 後右甲第, 後裁長

178 걸쳐 있다 : 장강(長江)과 회하(淮河)의 중간지대인 화동(華東) 구릉지역 중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179 봉양부(鳳陽府)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의 병부시[蚌埠市]이다.

秋, 父道, 子順。】三門舊皇城在萬壽山南. 明洪武五年, 建外城一座, 磚石修壘. 周圍九里三十步, 高二丈許, 無池門四, 裡城一座, 磚石修壘, 周圍六里許, 高二丈五尺. 池五, 南城河二, 東城河一, 西城河一, 北城無河, 惟小溝一道, 少注水. 馬鳳陽縣附郭.

■ 90 서주(徐州)¹⁸⁰ 성지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성은 3면이 물로 막혀 있다. 오직 남쪽 길이 평평하고 넓어서 거마가 지나다닐 수 있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옛 성과 보루는 돌과 벽돌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9리 남짓이다. 문은 4개를 세웠다.

徐州城池, 建築未詳. 今城三面阻水, 獨南路平衍, 可通車馬. 明洪武初, 舊城壘石甃甃, 周九里有奇, 立門四.

■ 91 저주(滁州)¹⁸¹ 성지

620년(당 무덕 3)에 쌓았다.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성곽을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9리 18보이고 높이는 1장 7척이다. 문은 6개이다. 【동쪽은 화일, 소동(小東)은 환의, 서쪽은 영풍, 소서(小西)는 관덕, 남쪽은 강회보장, 북쪽은 공극문이다.】사하(沙河)를 타고 해자를 만들었다.

滁州城池, 唐武德三年築, 明洪武年增廓. 周圍九里十八步, 高一丈七尺, 門六. 【東曰化日,¹⁸² 小東曰環漪, 西曰永豐, 小西曰¹⁸³觀德, 南曰江淮保障, 北曰拱極.】跨沙河爲池.

■ 92 화주(和州) 성지

옛날에 아보(亞父)의 성으로 범증(范增)¹⁸⁴이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 고제가 또

180 서주(徐州) : 현재 장쑤성[江蘇省]의 지급시(地級市)인 쉬저우[徐州]이다.

181 저주(滁州)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의 추저우[滁州]이다.

182 日 : 저본에는 '月'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782책, 「경제회편 고공전」 제20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83 日 : 저본에는 '四'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교감하였다.

184 범증(范增) : B.C.277~B.C.204. 중국 진(秦) 말기 항우의 모사(謀士)이다. 유방(劉邦)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홍문(鴻

한 관영(灌嬰)¹⁸⁵에게 명하여 성을 쌓게 했다. 성의 둘레는 11리이고 높이는 2장 2척이다. 또한 여장은 2척이다. 문은 6개이다.【동쪽은 광옥, 서쪽은 질성, 약간 서쪽은 망서, 남쪽은 평강, 약간 남쪽은 훈부, 북쪽은 공신문이다.】해자의 길이는 600여 장이고 너비는 16장이다. 명의 지주 공공재(孔公才)가 월성을 증축했다. 만력 연간(1573~1620) 초기에 지주 강고(康誥)가 각각 중성을 쌓았다. 안과 밖에 모두 벽돌을 올려 여장을 만들었다.

和州城池, 舊爲亞父城, 疑范增所築, 漢高帝又令灌嬰築之, 周圍十一里, 高二丈二尺, 又女牆二尺, 門六.【東曰廣旭, 西曰秩成, 偏西曰望舒, 南曰平康, 偏南曰薰阜, 北曰拱辰.】池延六百餘丈, 廣一十六丈. 明知州孔公才增月城. 萬曆初, 知州康誥各築重城. 內外皆磚, 上爲女牆.

■ 93 광덕주(廣德州)¹⁸⁶ 성지

명 태조가 명하여 원수 조계조(趙繼祖)와 소영(邵榮)을 시켜 이곳을 지키게 하면서 처음 세웠다.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고 높이는 1장 5척이고 너비는 8척이다. 해자의 길이는 8척이고 너비는 1장 6척이다. 문은 6개이다.【동쪽은 희춘, 남쪽은 여정, 서쪽은 안정, 북쪽은 공신, 동남쪽은 중수, 동북쪽은 상주문이다.】지금은 수관(水關)이다. 가정(嘉靖) 연간(1522~1566)에 지주 장사원(張士元)이 벽돌로 타를 설치했다.

廣德州城池, 明太祖令元帥趙繼祖邵榮鎮此, 始建. 周圍九里三十步, 高一丈五尺, 廣八尺, 池深八尺. 闊一丈六尺, 門六.【東曰熙春, 南曰麗正, 西曰安貞, 北曰拱辰, 東南曰鍾秀, 東北曰常州.】即今水關. 嘉靖間, 知州張士元整磚設堞.

門)의 회동(會同)이 실패로 끝난 이후 유방의 내통자로 의심받고 실권을 잃었다. 항우는 범증을 우대하여 아보(亞父)라고 불렀다.

185 관영(灌嬰) : ?~B.C.176. 중국 진말한초(秦末漢初) 때의 무신이다. 한(漢) 대 개국공신으로 고조(高祖)를 도와 한중(漢中)의 공략과 초한(楚漢)의 팽성(彭城) 전투 때에 공을 세웠으며, 여후(呂后)가 죽은 뒤에 주발(周勃) 등과 문제(文帝)를 옹립하였다.

186 광덕주(廣德州) : 현재 안후이성[安徽省]의 쉬안청시[宣城市]이다.

■ 94 항주부(杭州府) 성지

수의 양소(楊素)¹⁸⁷가 쌓았다. 성의 둘레는 36리 90보이다. 당나라가 그대로 썼다. 893년(당 경복 2) 소주와 항주 등의 관찰사 개국후 전류(錢鏐)¹⁸⁸가 새로 쌓았다. 나성은 태망산으로부터 협성¹⁸⁹ 동쪽을 따라 강천(江千) 및 전당호와 괘산, 범포에까지 이른다. 둘레는 70리이다. 성문은 10개이다. 【조천, 용산, 죽차, 신문, 남토, 북토, 염교, 서관, 북관, 보덕문이다.】 1158년(고려 의종 12, 송 소흥 28)에 내성과 더불어 동남쪽에 외성을 증축했는데 옛 성에 붙어 있다. 문은 13개이다. 【동쪽은 편문·후조·보안·신문·송신·동청·간산, 서쪽은 전호·청파·풍예·전당, 남쪽은 가회, 북쪽은 여항문이다. 수문 5개는 보안·남·북·천종·여항문이다.】 1356년(고려 공민왕 5, 원 지정 16) 장사성(張士誠)¹⁹⁰이 절강 서쪽을 근거로 하여 5개 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수축했다. 성의 둘레는 6,400장 남짓이고 높이는 3장이다. 두께와 높이는 1장을 더했다. 그리고 그 위를 깎아서 두께 4분의 3을 얻었다. 동쪽은 간산문에서부터 후조문에 이르는데, 옛 성에 비해 3리를 개척해서 시하(市河)의 안쪽까지 이어진다. 남쪽은 후조문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니, 2리를 단축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봉산 외부의 동서를 잘라내었으니 옛것과 비교하여 조금 넓혔다. 문은 그대로 13개가 있다. 1393년(조선 태조 2, 명 홍무 26) 명 태조가 항주를 취하자 마침내 그것이 그대로 성(省)이 되었다. 성문은 줄여서 10개로 만들고, 동쪽 성은 문이 5개이다. 【후조, 영창, 청태, 경춘, 간산문이다.】 서쪽 성은 문이 3개이다. 【청파, 용금, 전당문이다.】 남쪽 성은 문이 1개이다. 【봉산문이다.】 북쪽 성은 문이 1개이다. 【무림문이다.】 수문은 4개를 만들었는데, 봉산·후조·간산·무림문의 곁에 있다. 문마다 누가 있는데 모두 19개가 있다. 용금문에는 월성이 없다. 수문루는 2개에 그치는데, 무림과 간산이다. 치첩은 9,833도(堵)이다. 장대는 50좌, 경포는 171소인데 대부분 옛 성 그대로 만들었다. 성

187 양소(楊素) : 544~606. 자는 처도(處道)이고, 양현감(楊玄感)의 아버지이다. 홍농군(弘農郡) 화음현(華陰縣) 사람이다. 수(隋)의 개국공신으로, 『개황률(開皇律)』을 편찬했다. 벼슬은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을 거쳐 월국공(越國公)에 봉해졌다. (『수서(隋書)』 권48, 「양소열전(楊素列傳)」)

188 전류(錢鏐) : 852~932. 오대(五代)에 오월(吳越)을 건국한 인물로 항주에 도읍을 하였다.

189 협성(夾城) : 협채(夾寨)라고도 한다. 적의 성을 포위할 목적으로 그 주변에 쌓는 보루(堡壘) 따위를 말한다.

190 장사성(張士誠) : 1321~1367. 흥화(興化) 백구장(白駒場) 출신으로 본명은 장구사(張九四)이다. 원(元) 말의 농민봉기 지도자로 원 말에 폭정에 견디다 못해 아우 사의(士義), 사덕(士德), 사신(士信) 및 이백승(李伯升) 등 18명과 염정(鹽丁)들을 거느리고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군을 이끌고 고우(高郵)를 점거하고, 스스로 성왕(誠王)이라 칭하고, 대주(大周)라는 지방 정권을 세웠다. 뒤에 주원장(朱元璋)에게 패배하여 처형되었다. 고려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원과 명에 저항했다.

의 둘레는 5,500장이고 높이는 3장 6척이다. 아래 너비는 4장 혹은 3장 7척이고 위 높이는 3장 2척으로 차이가 있다. 1465년(조선 세조 11, 성화 11) 좌포정사 영량(寧良)이 전당문의 좌측과 용금문의 우측에 9개의 도랑을 파서 하나의 하천을 만들어 호숫가에 그 물을 끌어 댈 것을 논의하여 그 일을 상주하여 그대로 하였다. 모두 수문을 만들었는데 너비는 7척이고, 높이는 9척, 깊이는 4장 9척이다. 1555년(조선 명종 10, 명 가정 34) 제학부사 완악(阮鶚)¹⁹¹이 전당문의 월성과 치첩의 높이를 2장 증축했다. 독무도어사 호종헌(胡宗憲)¹⁹²이 북쪽 관문 바깥에 등운교에 동서로 적루 2좌를 쌓게 했다. 모두 높이는 6장이고 너비는 4장이며 둘레는 22장이다. 위에는 치첩을 두었고 밑에는 문 2개를 만들었다. 또한 청파문 남쪽 성 위에는 대호루를 짓고 동남성의 위는 정남루를 지었다. 봉산문 서쪽 성 위에 금강루 각 1좌를 쌓았다. 높이는 2장 8척이고, 둘레는 12장이다. 1556년(조선 명종 11, 명 가정 35) 순무도어사 완악이 백담령 병마사에게 은행수와 월당사에 각각 적루 1좌씩을 쌓도록 하였다. 높이는 모두 5장이고, 너비는 3장이며 성의 둘레는 16장이다. 무림과 전당 2개의 문 외부에는 각각 해자를 파서 벽돌로 수문을 만들어 조교로 가로지르면서 성을 돌렸으니 모두 깊은 해자가 있다. 1658년(조선 효종 9, 청 순치 15) 총독 이솔태(李率泰)¹⁹³가 부에 격문을 내려 여장을 더 높이 하고,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게 했다. 겸하여 각 부와 주현에 격문을 내렸다. 인화와 전당 2개의 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杭州府城池, 隋楊素築, 周三十六里九十步. 唐因之. 景福二年, 蘇杭等州觀察使開國侯錢鏐新築. 羅城, 自泰望山由夾城東, 亘江千, 泊錢塘湖, 霍山, 范浦, 周七十里, 城門十.【曰朝天, 曰龍山, 曰竹車, 曰新門, 曰南土, 曰北土, 曰鹽橋, 曰西關, 曰北關, 曰寶德.】宋紹興二十八年, 增築內城及東南之外城, 附於舊城. 爲門十三.【東曰便門, 曰候潮, 曰保安, 曰新門, 曰崇新, 曰東青, 曰艮山, 西曰錢湖,

¹⁹¹ 완악(阮鶚) : 1509~1567. 자는 응천(應薦)이고, 호는 함봉(函峰)이다. 남경형부주사(南京刑部主事)에 올랐다가 절강 제학부사(浙江提學副使)를 역임하고,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와 절강순무(浙江巡撫)를 지냈다.

¹⁹² 호종헌(胡宗憲) : ?~1565. 자는 여정(汝貞)이고, 호는 매림(梅林)이다. 익도(益都)와 여요(餘姚) 두 현(縣)의 지현(知縣)을 지내고, 어사(御史)에 발탁되었다. 1554년 절강(浙江)을 순안(巡按)했다. 1556년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로 절강의 군무(軍務)를 총괄했다.

¹⁹³ 이솔태(李率泰) : 1608~1666. 자는 수주(壽疇)이고, 본명은 연령(延齡)이다. 청(淸)나라 때의 무장(武將)으로 후금의 장수 이영방(李永芳)의 아들이다. 순치(順治) 원년(1644)에 형부참정(刑部參政)이 되었고, 군대를 이끌고 금주(錦州)를 방어했다. 예친왕(睿親王) 다이곤(多爾袞)을 따라 산해관으로 입성하여 이자성(李自成)을 격파했다.

曰清波, 曰豐豫, 曰錢塘, 南曰嘉會, 北曰餘杭, 水門五, 曰保安, 曰南, 曰北, 曰天宗, 曰餘杭.】元至正十六年, 張士誠據浙西, 更發, 五郡民夫修築, 周六千四百丈有奇, 高三丈, 厚高加一丈, 而殺其上得厚四之三. 東自艮山門至候潮門, 視舊拓開三里, 而絡市河於內. 南自候潮門迤西, 則縮入二里, 而截鳳山於外東西, 比舊稍廣, 門仍一十有三. 二十六年, 明太祖取杭州, 遂因之爲省. 城門省爲十, 東城五門【曰候潮, 曰永昌, 曰清泰, 曰慶春, 曰艮山.】, 西城三門【曰清波, 曰湧金, 曰錢塘.】, 南城一門【曰鳳山.】, 北城一門【曰武林.】. 爲水門四, 在鳳山, 候潮, 艮山, 武林, 各門之傍. 門各有樓, 湧金門無月城, 共十有九. 水門樓止二, 武林,¹⁹⁴ 艮山. 雉堞九千八百三十三堵, 將臺五十座, 警鋪一百七十一所, 制多仍舊城. 周圍五千五百丈, 高三丈六尺, 下廣四丈, 或三丈七尺, 上廣三丈二尺有差. 成化十一年, 左布政使寧良, 議於錢塘門左, 湧金門右, 開九, 渠之一爲河以導湖水, 上其事, 從之. 於是皆爲水門, 闊七尺, 高九尺, 入深四丈九尺. 嘉靖三十四年, 提學副使阮鶚增築, 錢塘月城雉堞高二丈, 督撫都御史胡宗憲, 令於北關外登雲橋, 築東西敵樓二座, 俱高六丈, 闊四丈, 周二十二丈. 上有雉堞下爲門二, 又於清波門, 南城上築帶湖樓, 東南城上築定南樓. 鳳山門西城上築襟江樓, 各一座. 高二丈八尺, 周一十二丈. 三十五年, 巡撫都御史阮鶚, 令于白塔嶺, 兵馬司, 銀杏樹, 月塘寺, 各築敵樓一座, 俱高五丈, 闊三丈, 周一十六丈. 武林, 錢塘, 二門外, 各浚池, 池間上構弔橋環城, 皆有深池. 順治十五年, 總督李率泰, 檄府增高女牆, 併二爲一, 兼檄各府州縣. 仁和錢塘二縣附郭.

■ 95 임안현(臨安縣)¹⁹⁵ 성지

예전에 성이 태묘산에 의지해 있었다. 성 둘레는 5,560보이다. 전류(錢鏐) 때 의금성이라 지칭했다. 문은 4개이다. 【동쪽은 영은, 서쪽은 혜정, 남쪽은 망금, 북쪽은 공신문이다.】 후에 폐하였다. 1555년(조선 명종 10, 명 가정 34) 지현 위희고(魏希古)가 토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5리이고 높이는 1장이다. 해자의 둘러친 것이 성과 같다.

194 武林 : 저본에는 '林武'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교감하였다.

195 임안현(臨安縣) : 현재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 서부에 있다.

臨安縣城池, 舊有城依太廟山, 周五千五百六十步. 錢鏐時名衣錦城. 爲門四, 【東迎恩, 西惠政, 南望錦, 北拱辰.】後廢. 明嘉靖三十四年, 知縣魏希古, 築土城周五里, 高一丈, 池環如城.

■ 96 가흥부(嘉興府)¹⁹⁶성지

당 건녕(乾寧) 연간(894~898)에 수신 조신(曹信)이 쌓았다. 오대 오월왕 전원관(錢元瓘)¹⁹⁷이 확장하여 주(州)의 성으로 만들었다. 송 대에는 군성(軍城)이라 했으며 원 대에는 노성(路城)이라 했다. 나성의 둘레는 22리이고 높이는 2장 2척이고 두께는 1장 5척이다. 수문(水門)과 한문(旱門)이 4개씩 있는데 그 문마다 누(樓)가 있다. 문밖에는 각각 조교(弔橋)를 설치하였다. 【동쪽은 춘파문, 서쪽은 통월문, 남쪽은 징해문, 북쪽은 망오문이다.】 오직 징해수문만 명 초에 다시 쌓았다. 옛것과 비교해 3리가 줄었다. 높이는 옛날 3척이었던 것에 비해 배로 쌓았고, 성 면의 너비는 1장, 적루는 25개, 여장은 3,415개이다. 월문루와 조교를 갖추고 있다. 해자는 요성을 감싸고 있는데 너비는 21장, 깊이는 1장 2척이다. 1560년(조선 명종 15, 명 가정 39) 지부(知府) 후동래(侯東萊)가 증축하여 춘파문을 고쳐서 징제라 했고, 통월문을 부성, 징해문을 영훈, 망오문을 공신이라 했다. 적루 28좌를 더 건설했다. 1616년(조선 광해군 8, 명 만력 44) 지부 장조희(莊祖誨)가 와포와 전루 및 마파(馬坡)를 건축하였다. 1622년(조선 광해군 14, 명 천계 2) 지현 양제수(楊齊修)가 성의 제방과 담장을 수축했다. 1658년(조선 효종 9, 청 순치 15) 성타의 높이를 증축했는데 우물 2개를 하나로 했다. 1665년(조선 현종 6, 청 강희 4) 가흥지현 임규(林逵)가 증축했다. 자성의 둘레는 2리 10보이고 높이와 두께 모두 1장 2척이다. 적루는 1554년(조선 명종 9, 명 가정 33) 논의하여 해염당(海鹽塘)에 1좌를 쌓았는데 진해라 하고 한당(漢塘)과 위당(魏塘)에 2좌를 쌓았는데 진한과 진위라 한다. 수목삼청갑에 적루 3좌를 쌓았는데 상청, 중청, 하청이라 한다. 가흥과 수수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¹⁹⁶ 가흥부(嘉興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에 위치해 있다.

¹⁹⁷ 전원관(錢元瓘) : 887~941. 오대(五代) 오월국(吳越國)의 왕이다. 자는 명보(明寶), 초명은 전관(傳瓘)이며 항주(杭州) 임안(臨安) 사람이다. 무숙왕(武肅王) 전류(錢鏐)의 제5자로,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구오대사(舊五代史)』 권133, 「전원관열전(錢元瓘列傳)」)

嘉興府城池, 唐乾寧中, 守臣曹信築. 五代吳越王, 錢元瓘拓爲州城, 宋謂之軍城, 元謂之路城. 羅城周圍二十二里, 高二丈二尺, 厚一丈五尺. 水旱門各四, 門各有樓, 門外各置弔橋.【東曰春波門, 西曰通越門, 南曰澄海門, 北曰望吳¹⁹⁸門.】惟澄海水門, 明初更築. 較舊縮三里, 高倍于舊三尺, 面闊一丈, 敵樓二十五, 女牆三千四百一十五. 月門樓, 弔橋, 悉具. 池周圍繞城, 闊二十一丈, 深一丈二尺. 嘉靖三十九年, 知府侯東萊增築, 改春波曰澄霽, 通越曰阜城, 澄海曰迎薰, 望吳曰拱辰. 重建敵樓二十八座. 萬曆四十四年, 知府莊祖誨蓋造窩鋪箭樓馬坡. 天啓二年, 知縣楊齊, 修築城堤及塔, 順治十五年, 增高城垛, 井二爲一. 康熙四年, 嘉興知縣林達重築, 子城周圍二里十步, 高厚俱一丈二尺. 敵樓, 明嘉靖三十三年, 議建於海鹽塘, 築一座, 名鎮海. 於漢魏, 二塘築二座, 名鎮漢鎮魏, 於秀木杉青閘, 築三座, 名上青中青下青. 嘉興秀水二縣俱附郭.

■ 97 호주부(湖州府) 성지

자성은 지금의 부치(府治)이다. 성의 둘레는 1리 367보이고 동서는 237보, 남북은 136보이다. 오정현치는 예전 오흥군 성이다. 진(秦) 대 항왕[항우]의 옛 성이었다. 진(晉)의 곽박(郭璞)¹⁹⁹이 군(郡)을 동쪽으로 옮기고자 했다. 박여(璞女)가 또한 지리를 잘 알아서 곽박에게 옮기지 말고 옛 성터를 본떠 조절한다면 파괴되어 황폐해지는 우려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 곽박이 그것을 따랐다. 621년(당 무덕 4) 이효공(李孝恭)²⁰⁰이 바깥에 나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24리이고 동서는 10리, 남북은 14리이다. 1297년(고려 충렬왕 23, 원 대덕 원년), 위평장 반원명(潘元明)이 그것을 작게 쌓았다. 둘레는 13리 138보이다. 문은 6개이다.【육문(陸門) 동쪽은 영춘, 서쪽은 청원, 남쪽은 정안, 북쪽은 태승, 수문 동북쪽은 임호, 서북쪽은 연희이다.】해자는 주성의

198 吳 : 저본에는 ‘兵’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782책, 「경제회편 고공전」 제20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199 곽박(郭璞) : 276~324. 남북조시대 진(晉)의 시인·학자. 오행(五行)·천문(天文)·복서(卜筮)에 능하며, 주석서(註釋書)에는 『이아(爾雅)』·『산해경(山海經)』·『방언(方言)』·『초사(楚辭)』 등이 있다. 유곤(劉琨)·좌사(左思)와 함께 동진(東晉)의 3대 시걸(詩傑)로 꼽힌다.

200 이효공(李孝恭) : 591~640. 당의 종실(宗室)로 고조(高祖) 종부형(從父兄)의 아들이고, 양무왕(襄武王) 이침(李琛)의 동생이다. 신주총관(信州總管)이 되었다가 작위가 올라 왕이 되었다. 소선(蕭銑)을 격파하고 보공석(輔公祏)을 잡아 형주대총관(荊州大總管)과 양주대도독(揚州大都督)이 되었다. 하간군왕(河間郡王)에 봉해지고 예부상서(禮部尚書)를 역임했다.

밖에 있다. 귀안과 오정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湖州府城池, 子城即今府治, 周一里三百六十七步, 東西二百三十七步, 南北一百三十六步. 烏程縣治, 古吳興郡城也. 秦時爲項王故城. 晉郭璞欲移郡於東, 璞女亦善地理, 啓璞無徙因舊址, 損益之, 可永無殘破之虞, 璞從之. 武德四年, 李孝恭外築羅城, 周二十四里, 東西一十里, 南北一十四里. 元丁酉年, 僞平章潘元明, 築小之. 周一十三里一百三十八步, 門六.【陸門, 東曰迎春, 西曰清源, 南曰定安, 北曰泰勝, 水門, 東北曰臨湖, 西北曰延禧.】池周城外. 歸安烏程二縣俱附郭.

■ 98 영파부(寧波府)²⁰¹ 성지

당 말 자사 황성(黃晟)이 쌓았다. 송 보우(寶祐) 연간(1253~1258)에 제치사 호잠(胡潛)이 넓혔는데 옛 성에 치첩을 설치했다. 1260년(고려 원종 원년, 송 개경 2), 망경·정언·하어 3개의 문루를 세웠다. 용수·영교·동도문을 차례대로 수축하였다. 1373년(고려 공민왕 22, 명 홍무 6)에 지휘 풍림(馮林)이 성을 다시 높였다. 성의 높이는 2장 5척이고 터의 너비는 2장 2척, 성의 너비는 1장 5척, 둘레는 2,216장이고 성곽의 크기는 18리이다. 문은 6개이다.【동쪽은 영교, 동도, 남쪽은 장춘, 서쪽은 망경, 북쪽은 영풍, 동북쪽은 화의문이다.】또 장춘, 망경의 측문에 2개의 수문을 개통했다. 각각 누가 있다. 월성이 있어서 있다. 성 위에 적루가 있다. 경포 바깥에 조교(弔橋)를 설치했다. 영풍문에서 영교문까지 큰 해자가 두르고 있는데 길이가 2,144장 남짓이고 큰 강물과 가깝다. 1556년(조선 명종 11, 명 가정 35) 수(守) 장정화(張正和)가 옹문 적대를 중건했다. 1658년(조선 효종 9, 청 순치 15) 성의 높이와 담장을 증축했다. 은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寧波府城池, 唐末刺史黃晟築. 寶祐間, 制置使胡潛拓, 舊城設雉堞. 開慶二年, 建望京鄭堰下御三門樓, 其甬水, 靈橋, 東渡, 俱以次繕治. 明洪武六年, 指揮馮林更崇之城, 高二丈五尺, 址廣二丈二尺, 面一丈五尺, 周二千二百一十六丈, 延袤一十八里, 爲門六.【東曰靈橋, 曰東渡, 南曰長春, 西曰望京, 北曰永豐, 東北曰和義.】又穿二水門於長春望京之側門, 各有樓, 羅以月城, 城上有敵樓, 警鋪外

201 영파부(寧波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에 위치해 있다.

設吊橋, 自永豐至靈橋有大壕環繞, 二千一百四十四丈餘, 濱大江. 嘉靖三十五年, 守張正和, 重建甕門敵臺. 順治十五年, 增高并塔. 鄞縣附郭.

■ 99 소흥부(紹興府)²⁰² 성지

범려(范蠡)가 육문 3개 수문 3개를 쌓았다. 성의 둘레는 20리 72보이다. 북면은 쌓지 않았다. 수 개황 연간(581~600)에 월국공 양소(楊素)가 성을 크게 확대하여 둘레는 45리이고 높이는 1장 7척 5촌이 되었다. 위 너비는 1장 5척, 아래 너비는 2장 7척, 여장은 7,650이고, 높이는 모두 5척이 되었다. 1223년(고려 고종 10, 송 가정 16) 수(守) 왕강(汪綱)이 여러 문을 중수했다. 【오운, 도사·동곽 2개 문은 모두 수문이다. 계산, 식리, 편문은 식리와 함께 모두 수문이다. 상희, 영은은 수·륙 2문이다. 삼강도 역시 수·륙 2문이다.】 1643년(조선 인조 21, 명 숭정 16) 추관 진자룡(陳子龍)²⁰³과 향신 여황(余煌)²⁰⁴이 증설했다. 이성(耳城)이 5곳이다. 산음과 회계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紹興府城池, 范蠡築陸門三水門三, 周二十里七十二步, 不築北面. 隋開皇中, 越國公楊素大城之, 周四十五里, 高一丈七尺五寸, 上廣一丈五尺, 下廣二丈七尺, 女牆七千六百五十, 皆高五尺. 宋嘉定十六年, 守汪綱重修諸門. 【曰五雲, 曰都賜, 曰東郭, 二門皆水門, 曰稽山, 曰殖利, 曰偏門, 與殖利皆水門, 曰常禧, 曰迎恩, 有水陸二門, 曰三江, 亦水陸二門.】 明崇禎十六年, 推官陳子龍鄉紳余煌增設, 耳城五處. 山陰會稽二縣俱附郭.

²⁰² 소흥부(紹興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 동부에 위치해 있다.

²⁰³ 진자룡(陳子龍) : 1608~1647. 명 말의 관료로, 자는 인중(人中)이었다가 와자(臥子)로 고쳤고, 해사(海士)도 썼으며, 호는 대준(大樽)이다. 숭정(崇禎) 10년(1637)에 진사(進士) 출신으로 벼슬은 소흥추관(紹興推官), 병과급사중(兵科給事中)을 지냈다. 명이 망하고 청병(淸兵)이 남경(南京)을 함락시키자 그는 태호(太湖) 민중과 더불어 무장봉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²⁰⁴ 여황(余煌) : ?~1646. 절강(浙江) 회계(會稽) 사람으로 자는 무정(武貞)이다. 명 말의 관리이다. 천계(天啟) 5년(1625)의 진사(進士) 출신으로 벼슬은 한림원수찬(翰林院修撰), 좌중윤(左中允), 우서자(右庶子)를 지냈다. 일찍이 동림당(東林黨) 사람들의 『삼조요전(三朝要典)』 편찬에 참여했다.

■ 100 태주부(台州府)²⁰⁵ 성지

둘레는 18리이다. 당의 두복위(杜伏威)²⁰⁶가 세웠는데 송 경력 연간(1041~1048)에 다시 쌓았다. 수(守) 원강(元絳)²⁰⁷이 문 9개를 만들어서 밖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막고 안에서 물이 꺾여 돌아 3개의 지류로 이어지게 하였는데 그 후로 여러 번에 걸쳐 개축하였다. 문은 7개이다. 【남쪽은 진영, 북쪽은 흥선, 동쪽은 승화, 서쪽은 팔창, 동남쪽은 정월, 서남쪽은 풍태, 서북쪽은 조천문이다.】 현재는 5개가 남았는데 서남쪽과 서북쪽은 모두 막혔다. 1658년(조선 효종 9, 청 순치 15) 담장과 아울러 높이를 더했다. 임안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台州府城池, 周一十八里, 唐杜伏威建, 宋再築慶曆中. 守元絳增作九門, 捍外水疏內水之壅折爲三支, 嗣後屢經修築, 門凡七. 【南曰鎮寧, 北曰興善, 東曰崇和, 西曰括蒼, 東南曰靖越, 西南曰豐泰, 西北曰朝天.】 今存五. 西南西²⁰⁸北俱塞. 順治十五年, 增高并堵. 臨安縣附郭.

■ 101 금화부(金華府)²⁰⁹ 성지

옛 성은 둘레가 9리 100보이고 높이는 1장 5척이고 두께가 2장 8척이었다. 1122년(고려 예종 17, 송 선화 4) 지주 범지재(范之才)가 중축했다. 성의 둘레가 10리, 터가 3장, 성 면 너비가 1장, 높이가 2장이다. 원 초에 파괴되었다가 1352년(고려 공민왕 원년, 원 지정 12)에 염방부사 백가납(伯嘉納) 등이 옛터를 토대로 중축했다. 두께는 2장이고 높이는 1장 7척이며 성의 둘레는 1,779장이다. 문은 8개이다. 【동쪽은 적송, 서쪽은 영은, 남쪽은 청파·장선·통원·팔영이고, 북쪽은 선효 그리고 천황문이다.】 치첩은 모두 2,454개, 적대는 15개이다. 남쪽은 큰 시내가 둘러싸고 있어 험준하고, 북·동·서쪽 3면에는 물을 파서 해자를 만들었다. 각각 조교로 건너야 했다. 청 강희

205 태주부(台州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

206 두복위(杜伏威) : ?~624. 수 말 농민봉기군 지도자로 당에 투항했다.

207 원강(元絳) : 1008~1083. 송 대 인물로, 원래 위씨(危氏)였는데, 당 말에 항주(杭州)로 옮겨가 살면서 원씨(元氏)로 바꾸었다.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여 여러 곳의 전운사(轉運使)와 지사(知事)를 거친 뒤 조정에 들어와 태자 소보(太子少保)를 역임했다. (『송사(宋史)』 권343, 원강열전(元絳列傳))

208 西 : 저본에는 '白'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782책, 「경제회편 고공전」 제20권 성지부에 의거하여 교감하였다.

209 금화부(金華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에 위치해 있다.

연간(1662~1722) 초기에 큰비로 성이 무너졌는데, 지부 장공신(張公蠡)이 그것을 증수했다. 금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金華府城池, 舊周九里一百步, 高一丈五尺, 厚二丈八尺. 宋宣和²¹⁰四年, 知州范之才重築, 周十里址三丈, 面廣一丈, 高二丈. 元初隳, 至正十二年, 廉訪副使伯嘉納等, 仍故址重築. 厚二丈, 高一丈七尺, 周一千七百七十九丈. 門八.【東曰赤松, 西曰迎恩, 南曰清波, 長仙, 通遠, 八詠, 北曰旋孝, 又天皇.】雉堞凡二千四百五十有四, 敵臺十五. 南周大溪爲險, 北東西三面鑿河爲池. 各跨弔橋. 康熙初年, 大雨城壞, 知府張公蠡, 增修之. 金華縣附郭.

■ 102 구주부(衢州府)²¹¹ 성지

옛 성은 모두 3개인데 전부 무너졌다. 1121년(고려 예종 16, 송 선화 3) 수(守) 고지임(高至臨)이 귀봉(龜峰)에 성을 쌓았다. 그 높이는 1장 6척 5촌이고 너비는 1장 1척이고 둘레는 4,050보이다. 문은 6개이다.【동쪽은 영화, 북쪽은 공신, 대서문은 조경, 소서문은 통광, 대남문은 광원, 소남문은 통선문이다.】문마다 누를 세웠다. 성 밖 3면에 해자가 깊게 나있고, 서쪽은 계곡으로 막혀 있다. 1218년(고려 고종 5, 송 가정 11)에 수(守) 위표문(魏豹文)이 6개 문의 성루를 신축했다. 원 지정 연간(1341~1367) 감군 백안홀도(伯顔忽都)가 자성의 옛터를 본떠 신성을 쌓고 말하기를, 문 밖에 월성을 감싸고 있으니 다시 각 문의 위에 층루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명 만력 연간(1573~1620)에 수 홍섬약(洪纖若)이 대서문의 성루를 다시 세웠다. 명 천계 연간(1621~1627) 초기에 수 임응상(林應翔)²¹²이 북문의 성루를 다시 세웠다. 1640년(조선 인조 18, 명 숭정 13)에 수 장문달(張文達)이 성타를 증수했는데 높이 4척을 더 쌓았고 와포는 36좌이다. 서안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衢州府城池, 故城凡三, 俱廢. 宋宣和三年, 守高至臨城龜峰, 高一丈六尺五寸, 廣一丈一尺, 周四千五十步, 爲門六.【東曰迎和, 北曰拱辰, 大西門曰朝京, 小西

²¹⁰ 和 : 저본에는 ‘化’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782책, 「경제회편 고공전」 제20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²¹¹ 구주부(衢州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 취저우시[衢州市]에 있다.

²¹² 임응상(林應翔) : 명 대 관리로 자는 원민(源澣)이고, 호는 부창(負蒼) 또는 지암(止岩)이다. 광주(廣州)-구주의 수(守)를 지냈다.

門曰通廣, 大南門曰光遠, 小南門曰通仙。】門各建樓. 城外三面浚壕, 西阻谿, 嘉定十一年, 守魏豹文, 新六門城樓. 元至正間,²¹³ 監郡伯顏忽都, 因子城舊址築新城, 又曰門外包以月城, 復建層樓於各門之上. 明萬曆中, 守洪纖若, 重建大西門城樓. 天啓初, 守林應翔重建北門城樓. 崇禎十三年, 守張文達增修城垛, 高四尺, 添造, 窩鋪三十六. 西安縣附郭.

■ 103 엄주부(嚴州府)²¹⁴ 성지

당 화주(和州) 자사 진성(陳晟)이 쌓았다. 1121년(고려 예종 16, 송 선화 3) 지주 주각(周恪)이 8개의 문을 중축했고, 명의 이문충(李文忠)²¹⁵이 고쳐 쌓았다. 지금 성의 둘레는 8리 23보이고 높이는 2장 4척, 두께는 2장 5척이다. 문은 5개이다.【동쪽은 홍인, 서쪽은 화인, 남쪽은 징청, 북쪽은 공신, 서북쪽은 무정문이다.】문마다 누가 있고 월성으로 보호하고 있다. 오직 북문만 월성이 없고 포는 48좌가 있다. 동쪽·서쪽·북쪽에는 1,105보의 해자를 만들었다. 1558년(조선 명종 13, 명 가정 37)에 지부 한숙양(韓叔陽)이 적대를 치우치게 쌓았다. 1643년(조선 인조 21, 명 숭정 16) 지부 호승덕(胡崇德)이 벽돌로 5척을 더했다. 건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嚴州府城池, 唐和州刺史陳晟築. 宋宣和三年, 知州周恪重築有八門, 明李文忠改築. 今城周八里二十三步, 高二丈四尺, 厚二丈五尺, 門五.【東曰興仁, 西曰和仁, 南曰澄清, 北曰拱辰, 西北曰武定.】門各有樓, 護以月城. 惟北門無月城, 爲鋪四十八. 東西北, 爲池一千一百有五步. 嘉靖三十七年, 知府韓叔陽偏築敵臺. 崇禎十六年, 知府胡崇德加磚五尺. 建德縣附郭.

■ 104 온주부(溫州府)²¹⁶ 성지

323년(진 태녕 원년)에 쌓았다. 송 건염 연간(1127~1130)에 누로를 더 설치했다. 송

213 間 : 저본에는 '門'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0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14 엄주부(嚴州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 서남부에 있다.

215 이문충(李文忠) : 1339~1384. 자는 사본(思本), 시호는 무정(武靖), 우이(盱眙) 사람이다.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조카이다. 명을 건국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고 영국자감사(領國子監事)를 지냈다. (『명사(明史)』 권126, 이문충열전(李文忠列傳))

216 온주부(溫州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溫州市]에 있다.

가정 연간(1208~1224)에 유수 원강(元剛)이 10개의 문을 세웠다. 명나라 홍무 연간(1368~1398)에 지휘 왕명(王明)이 증수했다. 1559년(조선 명종 14, 명 가정 38)에 성첩을 보수했고 누로 4면에 적대 8좌를 쌓았다. 1597년(조선 선조 30, 명 만력 25)에 수유방예(劉芳譽)가 적대 15좌를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18리이고 합계 2,777장 8척이며 높이는 3장 5척, 성 면의 너비는 1장 2척, 너비는 976장이다. 성곽의 크기는 996장 4척, 동쪽 해자는 776장, 서쪽 해자는 670장 5척, 남쪽은 대하에 임해서 호를 만들었으니 500장이다. 북쪽은 대강에 임해서 호를 만들었으니 571장이다. 문은 7개이다.【동쪽은 진해, 남쪽은 서안과 영녕인데 이 두 문은 각각 수문 옆에 있다. 서남쪽은 내북, 서북쪽은 영은과 영청, 북쪽은 공신, 옛 서북쪽에는 육문이 2개 있는데 안정과 강산문이다. 동북쪽에는 수문 1개가 있는데 봉은문이다.】 지금은 모두 막혔다. 영가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溫州府城池, 晉太寧元年築. 宋建炎間, 增置樓櫓. 嘉定間, 留守元剛, 修建十門. 明洪武中, 指揮王明增修. 嘉靖三十八年, 繕城堞, 樓櫓四面, 築敵臺八座. 萬曆二十五年, 守劉芳譽, 增築敵臺一十五座. 城周一十八里, 計二千七百七十七丈八尺, 高三丈五尺, 面闊一丈二尺, 廣九百七十六丈, 袤九百九十六丈四尺. 東壕七百七十六丈, 西壕, 六百七十丈五尺, 南臨大河爲壕, 五百丈, 北臨大江爲壕, 五百七十一丈, 門七.【東曰鎮海, 南曰瑞安, 永寧, 兩門旁各水門. 西南曰來福, 西北曰迎恩, 永清, 北曰拱辰, 舊西北有陸門二, 曰安定, 曰江山, 東北有水門一, 曰奉恩.】今并塞. 永嘉縣附郭.

■ 105 처주부(處州府)²¹⁷ 성지

처음에는 현재 성 동쪽 7리에 있었다. 당 중화(中和) 연간(881~885)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산에 의지해서 성을 만들었고, 시냇물을 이용하여 해자를 만들었다. 성의 높이는 3장 5척이고 둘레는 792장이다. 문은 6개이다.【북쪽은 망경, 동쪽은 암천, 동남쪽은 행춘, 남쪽은 남명, 서남쪽은 괘창, 서북쪽은 통제문이다.】 성루는 6좌이다. 치첩은 3,006개, 수사가 69개, 월성이 4개, 망루 2개, 적대 4개이다. 여수현이

217 처주부(處州府) : 현재 저장성[浙江省] 남부에 있다.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處州府城池, 初在今城東七里. 唐中和間, 徙今地據山爲城, 因溪爲池. 城高三丈五尺, 周七百九十二丈, 門六.【北曰望京, 東曰巖泉, 東南曰行春, 南曰南明, 西南曰括蒼, 西北曰通惠.】城樓六, 雉堞三千有六, 守舍六十有九, 月城四, 望樓二, 敵臺四. 麗水縣附郭.

■ 106 남창부(南昌府)²¹⁸ 성지

즉 성성(省城)이다. 한의 영음후 관영(灌嬰)이 쌓았다. 809년(당 원화 4) 자사 위단(韋丹)²¹⁹이 동북쪽 모퉁이에 다시 성을 쌓았는데 성의 둘레는 21리이다. 1134년(고려 인종 12, 송 소흥 6) 승상 이강(李綱)은 장수로 왔는데 북성이 매년 강의 모래로 막힌다고 하여 동북쪽 모퉁이를 가로질러 3리 정도로 조정해 들였다. 명나라 초기 대도독 주문정(朱文正)²²⁰이 성의 서남편이 강과 가깝기 때문에 옮겨 들어가게 해서 고쳐 쌓으니 강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졌다. 성에서 동남쪽 2리쯤이며 성의 둘레를 계산하면 2,070장 남짓이고 높이는 2장 9척, 두께는 2장 1척이다. 7개의 문을 세웠다.【동쪽은 영화, 동남쪽은 순화, 남쪽은 진현, 또 남쪽은 혜민, 서남쪽은 광윤, 서쪽은 장강, 북쪽은 덕승문이다.】1665년(조선 현종 6, 청 강희 4) 총독 장조린(張朝璘)²²¹ 순무 동위국(董衛國)²²² 등이 증수하여 문루 7좌와 각루 4좌, 포 70좌를 거둬 새롭게 하였다. 또한 비첩 2,608장을 보수했다. 후에 해자를 고쳤는데, 길이 3,400장 남짓, 너비 11장, 깊이 1장 남짓이다. 남창과 신창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南昌府城池, 即省城也. 漢潁陰侯灌嬰築. 唐元和四年, 刺史韋丹更築城東北隅, 城周二十里. 宋紹興六年, 丞相李綱來帥, 以北城歲壅江沙, 遂橫截東北隅, 移入三里許. 明初, 大都督朱文正, 以城西南隅臨江, 又移入改築, 去江秒遠. 展

218 남창부(南昌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 슈수이현(修水縣)에 있다.

219 위단(韋丹) : 당 덕종(德宗)~헌종(憲宗) 대의 문신이다. 안진경(顔眞卿)의 외손으로, 신라 원성왕(元聖王)의 국상(國喪) 때 조위사(弔慰使)로 왔다가 도중에 소성왕(昭聖王)의 흉서(薨逝)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220 주문정(朱文正) : 1336~1365. 명 태조 주원장의 조카이며, 최고아문인 대도독부의 대독을 지냈다.

221 장조린(張朝璘) : 청대 관리로 호부시랑, 강서총독, 병부상서, 복건총독 등을 지냈다.

222 동위국(董衛國) : ?~1682. 청대 관리로 1661년(조선 현종 2, 순치 18)에 산서(山西) 순무(巡撫)로 선발되었다.

城東南隅二里許, 計城周二千七十丈有奇, 崇二丈九尺, 厚二丈一尺, 建七門。【東曰永和, 東南曰順化, 南曰進賢, 又南曰惠民, 西南曰廣潤, 西曰章江, 北曰德勝。】康熙四年, 總督張朝璘, 巡撫董²²³衛國等增修, 重新門樓七, 角樓四, 鋪七十座, 又葺陴堞二千六百八丈, 更後池濠, 長三千四百丈有奇, 闊一十一丈, 深一丈餘。南昌新建二縣俱附郭。

■ 107 요주부(饒州府)²²⁴ 성지

옛 성은 진번군(秦番君)이 쌓았다. 오의 주방(朱魴), 양의 육양(陸襄) 및 송의 연남부, 사정지와 손병염 그리고 명의 송병도(宋炳陶)와 안상 등이 잇달아 보수했다.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다. 북쪽은 산을 등지고 동·서·남쪽 3면은 물로 막혔다. 높이는 1장 8척이고, 두께는 4척 5촌, 치첩은 3,426개이다. 성 밖에 있는 해자는 깊이와 너비가 1장 남짓이다. 문은 6개이다. 【북쪽은 조천과 영지, 남쪽은 파강과 월파, 동쪽은 영평, 서쪽은 빈주문이다.】 누는 12개, 수청은 6개, 와포는 76좌이다. 1658년(조선 효종 9, 청 순치 15) 수도 장사명(張思明)이 영지문(靈芝門)을 막고 월파루를 세웠다. 파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饒州府城池, 舊城秦番君所築. 吳朱魴, 梁陸襄, 宋連南夫史定之孫炳炎, 明宋炳陶, 安相, 繼修葺. 城周九里三十步, 北面負山, 東西南三面阻水, 崇一丈八尺, 厚四尺五寸, 雉堞三千四百二十有六, 外有濠, 深廣丈餘, 門六。【北曰朝天, 曰靈芝, 南曰鄱江, 曰月波, 東曰永平, 西曰蠙洲。】樓十二, 守廳六, 窩鋪七十六. 順治十五年, 守道張思明塞靈芝門, 建月波樓. 鄱陽縣附郭。

■ 108 광신부(廣信府)²²⁵ 성지

1050년(고려 문종 4, 송 황우 2) 군수 장실(張實)이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50보이다. 4개의 문을 세웠다. 【남쪽은 광신, 북쪽은 영산, 서쪽은 환계, 동쪽은 옥계문이다.】 남쪽 해자는 시냇물을 이용하였고, 북쪽·서쪽·동쪽은 해자를 깊이 1장 남

223 董 : 저본에는 '董'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782책, 「경제회편 고공전」 제21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24 요주부(饒州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에 있다.

225 광신부(廣信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 상라오시[上饒市]에 있다.

짓으로 봤는데 너비는 3장 남짓이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나성(羅城)을 수축했다. 둘레는 9리 20보이고 높이는 2장 2척, 너비는 1장 5척이다. 문마다 누가 있고, 밖에는 월성이 있다. 상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廣信府城池, 宋皇祐二年, 郡守張實築城, 周七里五十步, 建四門。【南曰廣信, 北曰靈山, 西曰闌闔, 東曰玉溪。】南濠因溪水, 北西東濬濠深丈許, 廣三丈餘。明洪武初, 修築羅城, 圍九里二十步, 崇二丈二尺, 廣一丈五尺, 門各有樓, 外有月城。上饒縣附郭。

■ 109 남강부(南康府)²²⁶ 성지

송 순우(淳祐) 연간(1241~1252)에 지남강군(知南康軍) 방악이 토성을 쌓았다. 1512년(조선 중종 7, 명 정덕 7) 지부 진림(陳琳)이 처음으로 돌을 쪼아 성을 만들었다. 성의 둘레를 계산하니 1,000장이고 높이는 2장, 너비는 3장이다. 5개의 문을 세웠다. 【동쪽은 심양, 남쪽은 팽려, 서쪽은 건창, 북쪽은 광려, 소서문은 성자이다.】1633년(조선 인조 11, 청 숭정 6) 순무 해학룡(解學龍)이 담을 높이고, 물을 해자에 끌어들여 성을 둘러쌌다. 1652년(조선 효종 3, 청 순치 9) 지부 이장춘(李長春)이 자양문(紫陽門)을 열었다. 1665년(조선 현종 6, 청 강희 3) 총독 장조린이 부(府)에 격문을 내려서 모든 성을 개축 병합하였다. 성과 통하는 타구는 636개이다. 5개의 초루를 만들었다. 해자를 판 것은 동북으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둘러져 있다. 깊이는 1장 5척이고, 너비는 2장이다. 남쪽은 호수와 가깝다. 성자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南康府城池, 宋淳祐間, 知南²²⁷康軍方岳築土城。明正德七年, 知府陳琳始鑿石城之, 計周千丈, 高二丈, 廣三丈, 建門五。【東曰潯陽, 南曰彭蠡, 西曰建昌, 北曰匡廬, 小西門曰星子。】崇禎六年, 巡撫解學龍崇其垣, 引水于濠以環之。順治九年, 知府李長春, 開紫陽門。康熙三年, 總督張朝璘, 檄府改併, 通城垛口六百三十六, 爲譙樓五, 濬池自東北抵西環遶, 深一丈五尺, 闊二丈, 南濱湖。星子縣附郭。

226 남강부(南康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 루산시(廬山市)에 있다.

227 南 : 저본에는 '府'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1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 110 구강부(九江府)²²⁸ 성지

옛날에 관영에 쌓았다. 1389년(고려 공양왕 원년, 명 홍무 22)에 직례(直隸) 구강위를 설치했다. 나무를 늘어세워 울타리를 만들었고 물을 끌어들여 해자를 만들었다. 1412년(조선 태종 12, 명 영락 10) 지부 공복(孔復), 지휘 종신(鍾信)이 그것을 벽돌로 쌓아 돌렸다. 1490년(조선 성종 21, 명 홍치 3) 지부 동조(童潮)가 다시 신축했다. 각각 문이 있다.【고동, 영은, 문명, 복성, 망경문이다.】 1511년(조선 중종 6, 명 정덕 6) 병마인 풍현(馮顯), 지부인 이종정(李從正)이 3척을 증축했다. 동서 길이는 5리, 남북 길이는 4리이다. 성의 둘레는 12리 240보이고 높이는 1장 7척 남짓이다. 위에 포루 4개가 있다. 후군 경포 28좌, 중포 32좌가 있다. 덕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九江府城池，舊築於灌嬰。明洪武二十二年，設直隸九江衛，列木爲柵引水爲濠。永樂十年，知府孔復，指揮鍾信，環壁甃之。弘治三年，知府童潮更新，各門。【曰古東，曰迎恩，曰文明，²²⁹曰福星，曰望京。】正德六年，兵馬馮顯知府李從正增築三尺，東西縱五里，南北縱四里，周十二里二百四十步，崇一丈七尺有奇，上有砲樓四，有候軍警鋪二十八，中鋪三十二。德化縣附郭。

■ 111 무주부(撫州府)²³⁰ 성지

885년(당 중화 5) 자사 위전풍(危全諷)²³¹이 지었다. 남당시대 태수 주홍조(周弘祚)가 그곳을 보수하고 넓혔으며 해자를 준설하였는데 너비는 1,000여 장이다. 명나라 초기 평장 오굉이 서남성 약 6리를 깎아서 겨우 9리 30보 정도만 보존되었다. 4개의 문을 열었다.【동쪽은 문창, 서쪽은 무안, 남쪽은 순화, 북쪽은 진현문이다.】문마다 누가 있고 월성이 있다. 성 위에는 와포 40칸이 있다. 임천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228 구강부(九江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 주창시[九江市]에 있다.

229 文明 : 저본에는 '文明'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782책, 「경제회편 고공전」 제21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30 무주부(撫州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에 있다.

231 위전풍(危全諷) : ?~909. 당 희종(僖宗) 건부(乾符) 말에 살던 곳에서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여 바로 무주자사(撫州刺史)가 되었다. 909년 강서(江西)에서 병사를 일으켜 종씨(鍾氏)의 옛 땅을 수복하려다 패했다. (『치평요람(治平要覽)』 권95-96)

撫州府城池, 唐中和五年, 刺史危全諷所築. 南唐, 太守周弘祚, 修而闢之. 復浚池, 廣千餘丈. 明初, 平章吳宏, 削西南城約六里, 僅存九里三十步, 闢四門.【東曰文昌, 西曰武安, 南曰順和, 北曰進賢.】門各有樓, 有月城, 城上窩鋪四十所. 臨川縣附郭.

■ 112 건창부(建昌府) 성지

당 건부(乾符) 연간(874~879)에 여남공이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10리이다. 남당시대 이승첨(李崇瞻)이 증축하였는데, 성에 담장 160장을 만들었다. 송 원풍 연간(1078~1085)에 개척한 성 4개 모퉁이에 새로 성을 세웠으니, 바로 지금의 치소이다. 성의 둘레는 9리 13보이다. 명 초기에 고쳐 쌓았다. 문은 4개를 열었다.【동쪽은 무승, 서쪽은 의봉, 남쪽은 통회, 북쪽은 조경문이다.】높이는 2장 5척이고 두께는 1장 9척이다. 동쪽 해자는 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른다. 남쪽과 북쪽에는 해자를 뚫었는데 깊이는 1장 남짓이다. 너비는 1장 4척이다. 1513년(조선 중종 8, 명 정덕 8)에 동문의 웅성을 고쳐 쌓고 4개의 누를 다시 세웠다. 또한 강물이 흘러 언덕까지 넘쳐 성까지 덮칠까 염려되어 제방을 돌로 쌓았다. 남성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建昌府城池, 唐乾符中, 汝南公築城, 周廻十里. 南唐李崇瞻, 增築制院城, 一百六十丈. 宋元豐中, 闢城四隅作新城, 卽今治, 周廻九里十三步, 明初改築, 闢門四.【東曰武勝, 西曰儀鳳, 南曰通會, 北曰朝京.】高二丈五尺, 厚一丈九尺, 東濠因江流西, 南北濬濠, 深丈許, 廣一丈四尺. 正德八年, 補築東門甕城, 更作四樓, 又以江流嚙岸, 恐及城, 疊石隄之. 南城縣附郭.

■ 113 임강부(臨江府)²³² 성지

송 순화(淳化) 연간(990~994) 초기에 토성을 처음 쌓았다. 원 지정(至正) 연간(1341~1370)에 수신 보동(保童)이 성에 깊은 해자를 처음 쌓았다. 명 홍치(弘治) 연간(1488~1505)에 지부 오서(吳紱)가 증축했다. 1511년(조선 중종 6, 명 정덕 6) 지부 옹희고(熊希古)가 벽돌로 성을 개축했다. 성의 둘레는 1,567장이고 높이는 1장 4척, 해자

²³² 임강부(臨江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에 있다.

의 길이는 800장, 너비는 1장 5척, 깊이는 1장이다. 1560년(조선 명종 15, 명 가정 39) 순무 하천(何遷)이 군(郡)을 순찰하여 높이 3척을 더했고 숙루(宿樓)와 적대를 세웠다. 1663년(조선 현종 4, 청 강희 2) 총독 장조린이 군을 순찰하여 높이 3척을 더했다. 문은 8개이다.【동쪽은 광제, 남쪽은 남훈, 서쪽은 서성, 북쪽은 조천·문명·청파·만승·육현문이다.】청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臨江府城池, 宋淳化初, 始築土城. 元至正間, 守臣保童, 始築城浚濠. 明弘治間, 知府吳敘增築. 正德辛未, 知府熊希古改築磚城, 周一千五百六十七丈, 高一丈四尺, 濠長八百丈, 闊一丈五尺, 深一丈. 嘉靖庚申, 巡撫何遷按郡增高三尺, 建宿樓敵臺. 康熙二年, 總督張朝璘按郡增高三尺, 門有八.【東曰廣濟, 南曰南薰, 西曰西城, 北曰朝天, 曰文明, 曰清波, 曰萬勝, 曰育賢.】清江縣附郭.

■ 114 길안부(吉安府)²³³ 성지

당 천우(天祐) 연간(904~907)에 자사 팽간(彭玕)이 처음으로 쌓았다. 성 둘레는 9리 91보이다. 동쪽은 큰 강이 기대어 있고, 서쪽 남쪽 북쪽은 해자를 뚫았는데 깊이는 1장 5척이고 길이는 1,471장이다. 문은 5개이다.【동쪽은 광풍·영은, 남쪽은 흥현, 서쪽은 영풍, 북쪽은 가화문이다.】문에는 누가 있고 성에는 병사(兵舍)가 있다. 명의 도독 주문정(朱文正)이 새 성을 다시 쌓았다. 명 만력 연간(1573~1620)에 지부 장진지(張振之)가 성 위에 적대를 다시 쌓았다. 여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吉安府城池, 唐天祐中, 刺史彭玕始築, 城周九里九十一步, 東憑大河, 西南北濬濠深一丈五尺, 長一千四百七十一丈, 門五.【東廣豐, 迎恩, 南興賢, 西永豐, 北嘉禾.】門有樓, 城有戍舍. 明都督朱文正更築新城. 萬曆間, 知府張振之更築敵臺于上. 廬陵縣附郭.

■ 115 서주부(瑞州府)²³⁴ 성지

당 무덕(武德) 연간(618~626)에 이대량(李大亮)이 토성을 처음 쌓았다. 명 정덕 연

233 길안부(吉安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에 있다.

234 서주부(瑞州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 서북부에 있다.

간(1506~1521) 초기에 지부 광번(鄺璠)²³⁵이 해자를 파고 성을 쌓았는데 성곽의 크기는 2,700여 장이다. 그러나 성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금강이 그 가운데를 관통한다. 북성은 둘레가 1,124장 8척이고, 해자의 길이는 800장이다. 성문은 5개이다.【동쪽은 영은, 서쪽은 종수, 남쪽은 서양, 북남쪽은 부성, 동북쪽은 공신문이다.】남쪽 성의 둘레는 1,613장, 해자의 길이는 867장이다. 성문은 5개가 있다.【동쪽은 조양, 남쪽은 고명, 서쪽은 청안과 금강, 북쪽은 통제문이다.】고안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瑞州府城池，唐武德間，李大亮始築土城。明正德初，知府鄺璠浚壕築城，延袤二千七百餘丈，然城分南北，錦江中貫。北城周一千一百二十四丈八尺，壕長八百丈，城門有五。【東迎恩，西鍾秀，南瑞陽，北南阜城，東北拱辰。】南城周一千六百一十三丈，壕長八百六十七丈，城門有五。【東朝陽，南高明，西靖安，錦江，北通濟。】高安縣附郭。

■ 116 원주부(袁州府) 성지

621년(당 무덕 4) 안무사 이대량이 건축했고, 720년(당 개원 8) 자사 방관(房琯)²³⁶이 옛 성을 곧장 남쪽으로 200여 보인 곳에까지 넓혔다. 895년(당 건녕 2) 자사 계진(揭鎮)이 1,500여 장의 나성을 쌓았다. 그 후에 사공 팽언장(彭彦章)이 동·남면에서 북쪽 침수강까지 성을 세웠다. 동쪽·서쪽·남쪽 세 방면의 뒤에 해자를 뚫었는데 깊이가 4장이다. 송 건염 연간(1127~1130) 초기에 지주사인 왕희조(王希朝)와 치중인 여구림(閻丘霖)이 옛 성을 혁파해 새롭게 했다. 성의 둘레는 3,315보, 높이는 2장이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 지부 유백기(劉伯起)가 성의 해자를 증수했다. 또 지부 유번(劉樊)과 지휘 석민(石旻) 등이 거듭 보수하였다. 1664년(조선 현종 5, 청 강희 3) 총독 장조린과 순무 동위국 등이 각각 의논하여 성을 고쳤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의양, 서쪽은 평실, 남쪽은 대양, 북쪽은 원산문이다.】의춘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235 광번(鄺璠) : 1493년에 진사에 합격해 이듬해 소주부(蘇州府) 오현(吳縣)의 지현이 되었고, 서주(瑞州) 태수를 역임하였다.

236 방관(房琯) : 697~736. 자는 차율(次律)이고, 방융(房融)의 아들이다. 처음에 음보로 홍문생(弘文生)이 되었다. 숙종(肅宗)이 즉위하자 등용되어 서경(西京)을 초토(招討)하고 포동(蒲潼) 양관(兩關)을 방어하는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했다. 여러 군대를 모아 장안을 수복했다. 중군(中軍)을 이끌고 춘추시대 때의 거전(車戰) 전법을 이용했으나 함양에서 대패했다. 형부상서(刑部尚書)를 역임했다.

袁州府城池, 唐武德四年, 安撫使李大亮建築. 開元八年, 刺史房琯展故城, 直南二百餘步. 乾寧二年, 刺史揭鎮築羅城一千五百餘丈. 其後司空彭彥章展東南面, 城北枕秀江, 東西南三面後, 濠深四丈. 宋建炎初, 知州事旺希朝治中閭丘霖, 革舊城一新之, 周三千三百一十五步, 高二丈. 明洪武四年, 知府劉伯起增修城濠, 又知府劉懋指揮石旻等, 遞加修葺. 康熙三年, 總督張朝璘, 巡撫董衛國等, 各議修繕城, 四門.【東曰宜陽, 西曰萍實, 南曰大仰, 北曰袁山.】宜春縣附郭.

■ 117 감주부(贛州府)²³⁷ 성지

349년(진 영화 5) 군수 고염(高琰)이 장수(章水)와 공수(貢水)의 합류 지점에 세웠다. 당의 자사 노광조(盧光稠)가 그 남쪽을 넓혔다. 또한 동쪽·서쪽·남쪽 세 모퉁이에 해자를 팠다. 송의 주수 공종한(孔宗翰)²³⁸이 동북쪽 모퉁이를 벽돌과 야철로 바 꾸 단단하게 했다. 1353년(고려 공민왕 2, 원 지정 13) 감군 전보암살리(全普菴撒里)가 증축했다. 1511년(조선 중종 6, 명 정덕 6) 도어사 주남(周南)이 수리하여 새롭게 했다. 성 둘레는 2,512장이고 높이가 3장, 두께가 1장 남짓이다. 삼면에 물을 끌어서 해자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940여 장이고, 깊이는 7척, 너비는 10여 장이다. 성문은 6개이다.【동쪽은 백승, 남쪽은 진남과 흥현, 서쪽은 서진, 동북은 건춘과 용금문이 다.】명말에 다시 더 수리했다. 감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贛州府城池, 晉永和五年, 郡守高琰建于章貢二水間. 唐刺史盧光稠拓其南, 又東西南三隅鑿濠. 宋州守孔宗翰, 以東北隅易塾甃石冶鐵固之. 元至正癸巳, 監郡全普菴撒里增築. 明正德辛未, 都御史周南, 繕治一新, 周二千五百一十二丈, 崇三丈, 厚一丈餘, 三面引水爲濠, 長九百四十餘丈, 深七尺, 闊十餘丈, 城門六.【東曰百勝, 南曰鎮南, 曰興賢, 西曰西津, 東北曰建春, 曰湧金.】明季復加修葺. 贛縣附郭.

²³⁷ 감주부(贛州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 간저우시[贛州市]에 있다.

²³⁸ 공종한(孔宗翰) : 1029~1088. 송 철종(哲宗) 때의 문신이다.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지낸 공도보(孔道輔)의 아들이다. 형부 시랑(刑部侍郎)을 지냈으며, 공자의 46대손으로 『공씨종보(孔氏宗譜)』를 편찬하였다.

■ 118 남안부(南安府)²³⁹ 성지

송 초기에 처음 쌓았다. 1352년(고려 공민왕 원년, 원 지정 12)에 고쳐 쌓았다. 지금의 성은 돌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850장이고, 높이는 1장 2척, 두께는 1장, 해자의 깊이는 5척, 너비는 1장이다. 4개의 성문에는 모두 누가 있다.【동쪽은 경도, 남쪽은 수장, 서쪽은 보봉, 북쪽은 연옥문이다.】대유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南安府城池, 宋初築, 元至正壬辰改築, 今城甃以石, 周八百五十丈, 高一丈二尺, 厚一丈, 濠深五尺, 廣一丈, 門四皆有樓.【東曰敬道, 南曰帥章, 西曰寶峰, 北曰聯玉.】大庾縣附郭.

■ 119 무창부(武昌府)²⁴⁰ 성지

즉 성성(省城)이다. 옛날에는 황곡산(黃鵠山)에 있었다. 오대 손권 말기인, 적오(赤烏) 연간(238~251)에 쌓았다. 당 우승유(牛僧孺)가 비로소 벽돌을 구워서 쌓았다. 옛날에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성이 황곡산 정상에 있었는데 좋은 땅을 차지해 요새를 세웠다. 원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 강하후(江夏侯) 주덕흥(周德興)²⁴¹이 확장하여 수축했다. 성의 둘레는 17리 남짓이고, 계산하면 3,098장인데 동남쪽 높이는 2장 1척, 서북쪽 높이는 2장 9척이다. 해자의 둘레는 3,343장이고 깊이는 1장 9척이며, 너비는 2장 6척이다. 문이 9개이다.【동쪽은 대동과 소동, 서쪽은 죽패와 한양·평호이고, 남쪽은 신남·보안·망택이며, 북쪽은 초부문이다.】1535년(조선 중종 30, 명 가정 14)에 도어사 고린(顧璘)²⁴²이 중수했다. 문은 9개를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었다.【대동문은 빈양문으로, 소동문은 충효문으로, 죽패문은 문창문으로, 신남문은 중화문으로, 망택문은 망산문으로, 초부문은 무승문으로 바뀌었다.】강하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239 남안부(南安府) : 현재 장시성[江西省] 간저우시[贛州市] 서남단에 있다.

240 무창부(武昌府) : 현재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에 있다.

241 주덕흥(周德興) : 명 초기의 무장(武將)이다. 주원장을 도와 명을 세운 개국공신이다. 벼슬은 좌익대원수(左翼大元帥), 지휘사(指揮使), 호광행성좌승(湖廣行省左丞) 등을 지냈고, 강하후(江夏侯)로 봉해졌다.

242 고린(顧璘) : 1476~1545. 자는 화옥(華玉), 호는 동교거사(東橋居士)이다. 홍치(弘治) 연간 진사(進士) 출신으로 벼슬은 광평지현(廣平知縣), 남경형부상서(南京刑部尚書)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부상집(浮湘集)』, 『산중집(山中集)』, 『식원시문고(息園詩文稿)』 등이 있다.

武昌府城池, 即省城也. 舊在黃鵠山, 孫吳赤烏中築. 至唐牛僧孺始陶甃甃之, 又有古萬人敵城在黃鵠山頂, 據勝設險, 元因之. 明洪武四年, 江夏侯周德興, 增拓修築, 周十七里有奇, 計三千九十八丈, 東南高二丈一尺, 西北高二丈九尺, 池周三千三百四十三丈, 深一丈九尺, 闊二丈六尺, 爲門九.【東曰大東, 曰小東, 西曰竹簾,²⁴³ 曰漢陽, 曰平湖, 南曰新南, 曰保安, 曰望澤, 北曰草埠.】嘉靖十四年, 都御史顧璘重修, 門仍九易.【大東曰賓陽, 小東曰忠孝, 竹簾曰文昌, 新南曰中和, 望澤曰望山, 草埠曰武勝.】江夏縣附郭.

■ 120 한양부(漢陽府)²⁴⁴ 성지

『수경(水經)』에 “익제산 위에 있다. 오대 강하태수 육환(陸渙)이 다스렸던 성이다.”라는 내용이 있다.²⁴⁵ 당 원화 연간(806~820)에 군지(郡志)에 “한양군의 옛 성은 유송(劉宋) 때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있다. 명 초기 봉서산에 걸쳐서 쌓았다. 동남쪽은 큰 강에 임해 있다. 성의 둘레는 756장이다. 문은 3개이다.【동쪽은 조종, 서쪽은 봉산, 남쪽은 남기문이다.】1524년(조선 중종 19, 명 가정 3) 지부 공봉(孔鳳)이 이 성(裏城)을 수축했다. 1621년(조선 광해군 13, 명 천계 원년) 지부 주삼석(周三錫)이 비장(裨牆)을 둘러 쌓았다. 1661년(조선 현종 2, 청 순치 18) 이성의 높이를 여러 척 증축했고, 봉산과 남기 2개의 문루를 중건했다. 한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漢陽府城池, 水經云翼際山上, 有吳時江夏太守陸渙, 所治城. 唐元和郡志云, 卽漢陽軍故城宋圯, 明初跨鳳棲山築之, 東南臨大江, 周七百五十六丈, 爲門三.【東曰朝宗, 西曰鳳山, 南曰南紀.】嘉靖三年, 知府孔鳳修築裏城. 天啓元年, 知府周三錫周砌裨牆. 順治十八年, 增築裏城高數尺, 重建鳳山南紀二門樓. 漢陽縣附郭.

243 簾 :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1권에는 ‘簾’로 되어 있다. 이 ‘패(簾)’자는 『강희자전』에 등재되어 있고, 현재는 ‘簾’나 ‘簾’로 쓴다.

244 한양부(漢陽府) : 현재 후베이성에 있다.

245 익제산……성이다 : 『수경주』 권35에 나온다.

■ 121 황주부(黃州府)²⁴⁶ 성지

송대 원래 지금 성의 남쪽으로 1리쯤에 위치해 있었다. 서쪽은 큰 강에 임해 있고, 동쪽은 호수가 옆에 있다. 명 초기에 지휘 황영(黃榮)이 지금의 위치에 쌓았다. 성의 둘레는 9리 남짓이다. 1,802장 8척 남짓이고, 높이는 2장 1척이다. 참호를 파서 해자로 돌렸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유청, 남쪽은 일자, 서쪽은 청원, 북쪽은 한천문이다.】황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黃州府城池, 宋元在今城南一里許, 西臨大江, 東傍湖泊. 明初, 指揮黃榮展築今處, 周九里許, 一千八百二丈八尺有奇, 高二丈一尺. 繚以輜塹池繞之, 爲四門.【東曰維清, 南曰一字, 西曰清源, 北曰漢川.】黃岡縣附郭.

■ 122 안육부(安陸府)²⁴⁷ 성지

옛 석성수(石城戍)로, 위쪽으로는 높은 언덕을 의지하고 옆으로는 석성(石城)이 버티고 있다. 아래로는 한수가 가까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 해자를 만들었는데, 성을 끼고 남쪽에서 한수로 흘러 들어간다. 옛날에 백설루가 그 위에 있었다. 송 건도 연간(1165~1173)과 순희 연간(1174~1189)에 도통 조준(趙樽)과 곽과(郭果)가 잇달아 증축했다. 자성의 문은 4개이다.【행춘, 부수, 의풍, 초웅문이다.】명 초기에 지휘 오복(吳濩)이 석성을 바탕으로 옛터를 확장했다. 명 홍치 연간(1488~1505)에 이곳에서 부(府)를 시작하고 번(藩)을 세웠다. 다시 북쪽으로 수십 장을 쌓았고 둘레는 7리 남짓이다. 계산하니 1,600장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다. 문은 5개로 고쳤다.【남일은 예전에 양춘이라고 했다. 명나라 가정 연간(1522~1566) ‘현친달효(顯親達孝)’라고 편액하였기에 ‘양춘(陽春)’이라 편액했다. 그 자성의 동쪽은 위무, 남쪽은 열무, 서쪽은 석성, 북쪽은 공신문이다.】명 승정 연간(1628~1644)에 순안 임명구(林銘球)가 성의 높이를 5척 더하고 성안에 여장을 더할 것을 청하여 증축했다. 형서도 오상묵(吳尙默), 지부 고원훈(賈元勳), 지현 소한(蕭漢)이 다시 외성을 수축했고, 해자는 주위가 1,020장, 너비는 10장에서 15장에 이르고, 깊이는 2장에서 5장에 이른다. 종상현

246 황주부(黃州府) : 현재 후베이성에 있다.

247 안육부(安陸府) : 현재 후베이성 중상시[鍾祥市]에 있다.

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安陸府城池, 古石城戍, 上據崇丘, 旁控石城, 下臨漢水, 池因之, 夾城而南入於漢. 舊有白雪樓, 冠其上. 宋乾道, 淳熙間, 都統趙樽, 郭果, 相繼增築. 子城門四.【曰行春, 曰富水, 曰宜風, 曰楚雄.】明初, 指揮吳復, 因石城故址拓之. 弘治中, 興府建藩於此. 復北展數十丈, 周圍七里有奇, 計一千六百丈, 高二丈五尺, 易爲門五.【南一舊曰陽春, 嘉靖間, 榜曰顯親達孝, 以陽春榜, 其子城, 東曰威武, 南曰關武, 西曰石城, 北曰拱辰.】崇禎間, 巡按林銘球, 題請加城五尺, 內添女牆. 荊西道吳尙默, 知府賈元勳, 知縣蕭漢復建外城, 池周一千二十丈, 廣十丈至十五丈, 深二丈至五丈. 鍾祥縣附郭.

123 덕안부(德安府)²⁴⁸ 성지

1368년(고려 공민왕 18, 명 홍무 2)에 수어천호 왕흥(王興)이 수축하였다. 1379년(고려 우왕 5, 명 홍무 12)에 천호 탕충(湯聰)이 그것을 더 넓혔다. 운산(鄆山)·동래(東來) 두 갈래의 물길이 마주하고 흘러오다가 운수(潁水)에서 다하게 되니 성은 그 사이에 위치하였다. 3면을 물이 에워싸니 그 모양이 마치 결(缺)²⁴⁹과 같았다. 오직 북성의 높은 언덕에만 해자가 없다. 성의 둘레는 1,186장 5척 계산하면 6리 213보, 동남은 높이가 2장 4척이며, 서북은 3척을 감했다.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만들고 위에는 중루를 세웠다. 명 성화 연간(1465~1487)에 천호 조위(趙威)가 또다시 성을 두르는 해자를 만들었는데, 깊이가 1장 3척이고 동남쪽의 너비는 10장 1척이고, 서북은 그것의 절반이다. 성의 서남쪽에 참호를 가설하였고, 거리에 예전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이었다. 천호 조위가 옛터를 개척해서 큰 돌로 성벽을 겹쳐 쌓았는데 길이가 7척이고, 너비는 3장 남짓이다. 명 성화 연간(1465~1487)에 천호 조능(趙能)이 돌을 더하여 수축하였다. 1519년(조선 중종 14, 명 정덕 14)에 지부 마약(馬爰)이 다시 다리를 세웠는데 옛날처럼 물이 에워쌌기 때문이다. 1545년(조선 인종 원년, 명 가정 24)에 지부 진감우(陳甘雨)²⁵⁰가 북문에 월성을 창건했는데 주위가 26장이고,

248 덕안부(德安府) : 현재 후베이성[湖北省] 안루시[安陸市]에 있다.

249 결(缺) : 한쪽이 터진 패옥이다.

250 진감우(陳甘雨) : 자는 응시(應時), 호는 소거(少渠)이다. 1544년 진사에 합격해 내무현(萊蕪縣) 지현 등을 역임했다.

높이는 1장 6척이다. 좌우에는 문 4개를 만들었다. 안육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德安府城池, 明洪武二年, 守禦千戶王興修築. 十二年, 千戶湯聰關廣之, 鄖山東來二澗夾流, 而盡於潁水. 城據其間²⁵¹, 三面水遶如玦, 惟北城高阜無濠池, 城周一千一百八十六丈五尺, 計六里二百十三步, 東南高二丈四尺, 西北減三尺, 爲東西南北四門上建重樓. 成化中, 千戶趙威, 又繞城爲壕, 深一丈三尺, 東南闊十丈一尺 西北半之. 城西南隅架壕, 而衢舊有橋, 潁水爲患, 千戶趙威開拓舊基, 用巨石鑿砌斜坡, 長七尺, 闊三丈有奇. 成化中, 千戶趙能, 加石修砌. 正德十四年, 知府馬龠, 復建橋, 水遶如故. 嘉靖二十四年, 知府陳甘雨, 創築北門月城, 周二十六丈, 高一丈六尺, 左右爲門四. 安陸縣附郭.

■ 124 형주부(荊州府)²⁵² 성지

『일통지』에 촉 관우(關羽)가 쌓았고, 진의 환온(桓溫)²⁵³이 그것을 증수했다고 한다. 명 홍무 갑진²⁵⁴에 평장 양경(楊璟)이 옛터를 토대로 수축했다. 성의 둘레는 18리 381보이고, 계산하면 3,399장이고, 높이는 2장 6척 남짓이다. 1530년(조선 중종 25, 명 가정 9)에 증수했다. 문은 6개이고 문마다 누가 있다. 【동문은 진류, 누는 빈양이고, 공안문의 옛 이름은 초망이다. 남기문의 누는 곡강이고, 서문의 옛 이름은 용산, 누는 구양이다. 소북문은 고조이며 옛 이름은 유성이다. 대북문은 공신인데 옛 이름은 유문이다.】 성 바깥에 흙을 파내어 해자를 만들었다. 너비는 1장 6척, 깊이는 1장쯤이다. 동쪽은 사교와 통하고, 서쪽은 비수와 통하고, 북쪽은 용파의 여러 물줄기와 통한다. 강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荊州府城池, 一統志云, 蜀關羽所築, 晉桓溫增修之. 明洪武甲辰, 平章楊璟, 依舊基修築. 周一十八里三百八十一步, 計三千三百九十九丈, 高二丈六尺有奇.

251 間 : 저본에는 '門'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교감하였다.

252 형주부(荊州府) : 현재 후베이성[湖北省] 중남부에 있다.

253 환온(桓溫) : 312~373. 동진(東晉) 대의 장군이다. 명제(明帝)의 딸인 남강공주(南康公主)와 혼인하여 부마도위(駙馬都尉)를 제수받았다.

254 홍무 갑진 : 홍무는 명나라 태조(太祖)의 연호로, 1368년에서 1398년 사이인데 그 기간에 갑진년은 없다. 홍무 7년(1374)이 갑인년(甲寅年)이다.

嘉靖九年, 重修, 爲門六各有樓。【東門曰鎮流, 樓曰賓陽, 公安門, 舊名楚望, 南紀門, 樓曰曲江, 西門舊名龍山, 樓曰九陽, 小北門曰古漕, 舊名維城, 大北門曰拱辰, 舊名柳門。】城外掘土爲池, 闊一丈六尺, 深一丈許。東通沙橋, 西通秘帥, 北通龍陂諸水。江陵縣附郭。

■ 125 양양부(襄陽府)²⁵⁵ 성지

옛날에 성은 한수를 등지고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이어진 곳에 있었다. 그 북쪽은 절벽으로 둘러져 있어서 해자를 만들지 않았다. 동쪽·서쪽·남쪽은 산을 파서 해자를 만들었는데 번성시(樊城市)와 마주하고 있다. 진 양우(羊祐)²⁵⁶와 두예(杜預)²⁵⁷와 주서(朱序) 그리고 송 여문환(呂文煥)²⁵⁸이 지킨 곳이 모두 이 성이다. 명 초기에 위 국공 등유가 옛터를 토대로 새로운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12리가 좀 넘고, 계산하면 2,221장 7척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다. 문은 6개인데 모두 자성을 갖추고 있다. 【동, 남, 서, 대북, 소북, 동장문이다.】 문마다 각루가 모두 1개이다. 남쪽은 문루가 1개이다. 명 성화 연간(1465~1487)에 도독 왕신(王信)²⁵⁹이 중건하였는데 그 동남쪽과 서남쪽에 각각 누 1개, 동북쪽에는 각루 1좌를, 그리고 화루는 10개, 동문·서문·대북문·동장문에 누가 4개이다. 해자는 북쪽 면은 강에 임하고 400장이고 그 동·서·남 3면은 합쳐서 계산하면 2,112장, 너비는 29장, 깊이는 2장 5척이다. 모두 명 나라 홍치 연간(1488~1505)에 부사 모헌(毛憲)이 중건했다. 1516년(조선 중종 11, 명 정덕 11) 여름에 한수가 크게 넘쳐서 부사 섭현(聶賢)이 독으로 막도록 직접 지휘했다. 대북문을 시작으로 동장문에 이르기까지 언덕을 둘로 고쳐서 겹쳐 쌓았다. 길이는

255 양양부(襄陽府) : 현재 후베이성에 있다.

256 양우(羊祐) : 221~278. 자는 숙자(叔子)이다. 진(晉) 대 사마씨(司馬氏)의 대장으로 조서(詔書)를 받았다. 정남대장군에 임명되어 남성후(南城侯)에 봉해졌다. 원문에 '양우(羊祐)'라 되어 있으나 '양호(羊祐)'의 오키로 보인다.

257 두예(杜預) : 222~284. 진(晉)의 무신으로 진남대장군(鎮南大將軍)이 되어 오(吳)를 평정하여 당양현후(當陽縣侯)에 봉해졌다. 춘추의례설(春秋義例說)을 확립하고, 춘추학으로서의 좌씨학을 집대성했다.

258 여문환(呂文煥) : 송말원초(宋末元初) 인물이다. 송 대에 양양지부경경서안무부사(襄陽知府兼京西按撫副使)로 있을 때 원 세조의 권유로 투항했다. (『신원사(新元史)』 열전(列傳) 74.)

259 왕신(王信) : ?~1486. 자는 군실(君實)이다. 정통(正統) 연간에 관하위천호(寬河衛千戶)를 이어받았다. 야선(也先)이 경사(京師)를 공격하자 서직문(西直門) 밖에서 맞서 싸워 그 공으로 관리로 발탁되었다. 성화(成化) 초에 공이 쌓여 도지 휘첨사(都指揮僉事)에 올랐고, 형양(荊襄)을 지키면서 유천근(劉千斤)의 반란을 진압했다. 도독동지(都督同知)와 총독 조운(總督漕運)을 역임했다.

280장, 높이는 2장이다. 처음으로 강가에 제방을 쌓아서 옛날 언덕을 보호했다. 터의 너비는 8척, 높이는 5척, 길이는 280장이다. 양인(襄人)들이 섭공제(聶公堤)라고 부른다. 명 승정 연간(1628-1644)에 도어사 왕영조(王永祚)가 육성루(六城樓) 및 서남성의 사자루(獅子樓)를 중건했는데 웅장하고 매우 높아서 양자강과 한수 사이에서 으뜸이었다. 1645년(조선 인조 23, 청 순치 2) 도어사 서계원(徐啓元)이 동지 가약우(賈若愚)에게 격문을 보내어 소북문성 위로부터 서쪽으로 남성에 이르기까지 각각 험준한 요해처에는 벽돌을 사용해서 적을 방어할 포대 29좌를 쌓으라고 했다. 1648년(조선 인조 26, 순치 5) 도어사 조조린(趙兆麟)이 부사 소종귀(蘇宗貴)에게 격문을 보내 서쪽 성에 큰 누를 중수하라고 했다. 지부 기여석(冀如錫)에게도 격문을 보내 남쪽 성에 큰 누를 중건하라고 했다. 또 동지 도등무(涂騰茂), 장중(張仲)에게 격문을 보내 대북문의 성루를 중수하고, 소북문과 성대루를 세우라 했다. 지현 동상치(董上治)에게 격문을 보내 동쪽 성에 큰 누를 세우고, 성 밖의 삼교(三橋)에 이르기까지 나란히 적루를 세우고, 해자의 언덕은 모두 매우 튼튼하게 수리하라고 했으니 대개 옛날보다 뛰어나다고들 한다. 양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襄陽府城池, 舊有城, 負漢屏峴, 其北周以斷岸, 故不池, 東西南鑿山爲池, 與樊城市對. 晉羊祐, 杜預, 朱序, 宋呂文煥, 所守, 皆此城也. 明初, 衛國公鄧愈, 因舊址, 修築新城, 周一十二里而贏, 計二千二百二十一丈七尺, 高二丈五尺. 爲門六俱有子城.【曰東南, 西大, 北小, 北東, 長城.】各爲角樓者一, 南門樓一. 成化中, 都督王信, 重建, 其東南西南, 各樓一, 東北角樓一, 花樓十, 東, 西, 大北, 東長門, 樓四. 池北面臨江, 四百丈, 其東西南三面, 通計二千一百一十二丈, 闊二十九丈, 深二丈五尺. 俱弘治中, 副使毛憲重建. 正德丙子夏, 漢水大溢, 副使聶賢躬督堙塞. 起大北門至東長門, 修砌泊岸, 長二百八十丈, 高二丈. 創築子堤於江下, 以護舊岸, 趾闊八尺, 高五尺, 長二百八十丈, 襄人呼爲聶公堤. 崇禎間, 都御史王永祚重建, 六城樓, 暨西南城獅子樓, 雄壯高深, 甲於江漢. 順治二年, 都御史徐啓元, 檄同知賈若愚, 自小北門城上西至南城各險要處, 用顴石修砌禦敵砲臺二十九座. 五年, 都御史趙兆麟, 檄副使蘇宗貴, 重修西城大樓, 檄知府冀如錫重建南城大樓, 檄同知涂騰茂, 張仲, 重修大北門城樓, 建小北門, 城大樓, 檄知縣董上治重建東城大樓, 以至城外三橋, 竝敵樓, 濠岸俱加完葺, 其精堅蓋逾舊云. 襄陽縣附郭.

■ 126 운양부(鄖陽府)²⁶⁰ 성지

옛날에 성이 없었다. 1464년(조선 세조 10, 명 천순 8) 지부 대염(戴琰)이 토성을 쌓았다. 1476년(조선 성종 7, 명 성화 12)에 행도사를 설치하고 부위를 두어 다스렸다. 도어사 원걸(原傑)이 벽돌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6리 800여 장이고 높이는 1장 5척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선화, 남쪽은 영훈인데 옛 이름은 부혜이다. 서쪽은 평리, 북쪽은 공신문인데 옛 이름은 수문이다.】그 해자 서쪽은 강에 임하고 있고, 동북쪽은 산록이 둘러싸고 시냇물이 흐른다. 명 정덕 연간(1506~1521)에 지부 왕진(王鎭)이 준설했다. 1547년(조선 명종 2, 명 가정 26) 도어사 장환(章煥)이 다시 동북쪽 일대 200여 장쯤을 개축했는데 계산하면 6리 남짓이다. 정동쪽에 문 하나를 증축하고 시우라고 했는데 대개 부학의 앞문의 이름이다. 1566년(조선 명종 21, 명 가정 45)에 도어사 유병인(劉秉仁)이 그것을 수축했다. 높이는 2장 1척, 두께는 1장 8척이다. 성 위에는 경포 20좌, 문루 7개, 추성루 2개, 각루 2개를 만들어 비로소 규제를 갖췄다. 운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鄖陽府城池, 舊無城. 明天順八年, 知府戴琰爲土城. 成化十二年, 建行都司置府衛撫治. 都御史原傑, 展築甃以甃石, 周六里八百餘丈, 高一丈五尺, 爲門四.【東曰宣和, 南曰迎薰, 舊名敷惠, 西曰平里, 北曰拱辰, 舊名水門.】其池西臨江, 東北繞山麓諸溪. 正德中, 知府王鎭濬之. 嘉靖二十六年, 都御史章煥, 又以東北一帶, 開築二百餘丈, 計²⁶¹六里有奇, 正東增一門曰時雨, 蓋府學面門也. 四十五年, 都御史劉秉仁修築之, 高二丈一尺, 厚一丈八尺. 城上爲警鋪二十, 爲門樓七, 爲甃城樓二, 爲角樓一, 規制始備. 鄖縣附郭.

■ 127 장사부(長沙府)²⁶² 성지

성은 한대에서 원대까지 모두 옛터 그대로 했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수어지휘 광지(廓地)에게 명하여 확장해 개축하게 하였다. 성의 둘레를 계산하면 14리 280보이고, 높이는 2장 4척, 넓이도 그와 같다. 해자의 깊이는 1장 9척, 너비도 또한 그

260 운양부(鄖陽府) : 현재 후베이성 어저우[鄂州]에 있다.

261 計 : 저본에는 '許'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1권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62 장사부(長沙府) : 현재 후난성[湖南省] 창사시[長沙市]에 있다.

와 같다. 동쪽은 문이 3개이다.【신개, 소오, 유양문이다.】남쪽은 문이 1개이다.【황도문이다.】서쪽은 문이 4개이다.【덕운, 역보, 조종, 통화문이다.】북쪽은 문이 1개이다.【상춘문이다.】문마다 누가 있다. 장사현과 선화현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長沙府城池, 城自漢至元, 俱仍舊址. 明洪武初, 命守禦指揮廓地更築, 周圍計十四里二百八十步, 高二丈四尺, 廣如之, 池深一丈九尺, 廣亦如之, 東三門,【曰新開, 小吳, 瀏陽.】南一門,【曰黃道.】西四門,【曰德潤, 驛步, 朝宗, 通貨.】北一門【曰湘春.】各有樓. 長沙善化二縣俱附郭.

■ 128 형주부(衡州府)²⁶³ 성지

주 현덕 연간(954~960)에 처음 만들었다. 송대부터 명대까지 누차 증축에 힘썼다. 성의 둘레는 1,270장 8척이고 합 7리 30보, 높이는 2장 5척이다. 돌로 쌓았고, 관옥(串屋)을 세워서 덮었다. 문은 모두 7개이다.【동쪽은 빈일, 벽강, 남쪽은 회안, 서쪽은 안서, 망호, 북쪽은 침악, 동북쪽은 소상문이다.】문마다 층층 누각을 세웠다. 1638년(조선 인조 16, 명 숭정 11) 계번(桂藩)이 그것을 증축했다. 높이는 5척, 두께는 5척이다. 해자는 남쪽과 서쪽에서 북쪽까지 3면에 이른다. 길이는 826장, 깊이는 8척, 너비는 13장이다. 서남에서 감돌아 나와 동북으로 돌아나간다. 그 동쪽을 향하는 일대는 바로 상수가 둘러 흘러서 참호가 되었다. 형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衡州府城池, 始於周顯德間. 自宋迄明, 累費增築, 圍一千二百七十丈八尺, 合七里三十步, 高二丈五尺. 甃以石, 蔭以串屋, 凡七門.【東賓日, 關江, 南廻雁, 西安西, 望湖, 北瞻岳, 東北瀟湘.】門各建層樓於上. 明崇禎戊寅, 桂藩增築之, 高五尺, 厚五尺, 池濠自南而西至北三面, 袤八百二十六丈, 深八尺, 闊十三丈. 週迴於西南, 匯流於東北, 其迤東一帶, 則以湘水環繞爲塹. 衡陽縣附郭.

■ 129 영주부(永州府)²⁶⁴ 성지

즉 옛 영릉군성(零陵郡城)이다. 111년(한 무제 원정 6)에 창건했다. 한대에서 오대에

263 형주부(衡州府) : 현재 후난성 형양시[衡陽市], 용저우시[永州市], 천저우시[郴州市]에 있다.

264 영주부(永州府) : 현재 후난성[湖南省]에 있다.

이르기까지 모두 옛 성 그대로였다. 송 함순 연간(1265~1274)에 처음으로 곽을 만들었고 증축했다. 원이 그대로 이용했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다시 신축하였다. 주위를 계산하면 9리 27보이고, 높이는 3장, 너비는 1장 4척 5촌이다. 동쪽과 북쪽 두 곳의 해자의 깊이는 2장이고, 너비도 역시 같다. 서쪽으로는 소수가 막아서 해자가 없고, 서남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물을 막아 해자를 만들었다.【동쪽은 문이 1개로 정동이다. 남쪽은 문이 2개로 정남, 태평문이다. 서쪽은 문이 3개로 정서, 영안, 소상문이다. 북쪽은 문이 1개로 정북문이다.】각각 누가 있다. 영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永州府城池, 卽古零陵郡城, 創於漢武帝元鼎六年. 自漢至五代, 皆仍其舊. 宋咸淳始廓而增焉. 元因之. 明洪武初, 更新之. 周圍計九里二十七步, 高三丈, 廣一丈四尺五寸, 東北二面池, 深二丈, 闊如之. 西阻瀟水無池, 西南至東堤水爲池.【東一門, 曰正東, 南二門, 曰正南, 太平, 西三門, 曰正西, 永安, 瀟湘, 北一門, 曰正北.】各有樓. 零陵縣附郭.

■ 130 보경부(寶慶府)²⁶⁵ 성지

진(晉) 대 소릉군의 성 북쪽 2리에 있었으니 바로 초 백공승(白公勝)²⁶⁶이 쌓은 것이고, 후에 다스리는 곳을 조금 남쪽으로 옮겼다.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총제 호해양(胡海洋)이 성을 축조했는데 높이는 2장 5척, 둘레는 1,529장이고 계산하면 9리 13보이다. 서남쪽에 월성이 2개이다. 1655년(조선 효종 6, 청 순치 12) 편원순무 원곽우(袁廓宇)가 증수하고, 문 4개를 세웠다.【동쪽은 조천, 서쪽은 정원, 남쪽은 대안, 북쪽은 경풍문이다.】소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寶慶府城池, 晉邵陵郡在城北二里, 卽楚白公勝所築, 後移治稍南. 明洪武間, 總制胡海洋造城, 高二丈五尺, 圍一千五百二十九丈, 計九里十三步, 西南月城二. 順治十二年, 偏沅巡撫袁廓宇增修, 建門四.【東曰朝天, 西曰定遠, 南曰大安, 北曰慶豐.】邵陽縣附郭.

²⁶⁵ 보경부(寶慶府) : 현재 후난성 사오양시[邵陽市]에 있다.

²⁶⁶ 백공승(白公勝) : ?~B.C.479. 호는 백공(白公), 초평왕의 손자, 태자건의 아들이다.

■ 131 악주부(岳州府)²⁶⁷ 성지

춘추시대에 초 소왕(昭王)이 왕손 유우(由于)를 보내 군(麇)에 성을 쌓게 한²⁶⁸ 데서 유래했고, 삼국시대 제후국인 오의 노숙(魯肅)²⁶⁹이 파구(巴丘)에 성을 쌓았다. 진(晉)의 도간(陶侃)²⁷⁰도 파구에 성을 쌓았는데 부 동쪽 8리에 있다. 439년(송 원가 16) 노숙이 예전에 증축했고, 성 안쪽은 강령에 걸쳐 있고 성 바깥쪽을 삼강(三江)에 가깝다. 대대로 옛터를 그대로 본떴다. 문이 있다.【초택, 벽상, 회천문이다.】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에 비로소 확장해서 축성했다. 1392년(조선 태조 원년, 명 홍무 25) 지휘 음양(音亮)이 벽돌로 증축했다. 둘레는 1,498장, 계산하면 7리이고, 높이는 2장 6척 남짓이며, 치첩은 1,366개이고, 높이는 4척이다. 문은 6개이다. 명 영락 연간(1403~1424)에 창강문을 폐했고, 명 만력 연간(1573~1620) 말기에 다시 수서문을 폐했다. 지금은 문이 4개이다.【동쪽은 조양, 서쪽은 악양, 남쪽과 북쪽은 각각 방위명으로 했다.】모두 월성이 있다. 동남문 바깥에는 각각 다리가 하나씩 있다. 하나는 북쪽으로 하천을 뚫었는데 둘레가 1,000여 장, 깊이는 2장, 너비는 20여 장이니 바로 고황(古滄)이다. 서쪽으로는 큰 강과 접한다. 명 융경 연간(1567~1572) 초기에 부사 시독신(施篤臣)이 흙을 쌓아 제방을 만들어 물을 막았다. 1572년(조선 선조 5, 명 융경 6)에 동지 종숭문(鍾崇文)이 언덕 위에 여성(女城)을 더해 쌓았는데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르는데 둘레는 수백 장, 높이는 6척이다. 파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岳州府城池, 自春秋時, 楚子使王孫由于城麇, 三國吳魯肅城巴丘, 晉陶侃, 亦城巴丘, 在府東八里. 宋元嘉十六年, 因魯肅舊圍增築, 內跨岡嶺外濱三江, 歷代俱仍其舊, 有門.【曰楚澤, 曰碧湘, 曰會泉.】明洪武四年, 始拓而築之. 二十五年, 指揮音亮重加整砌, 周一千四百九十八丈, 計七里, 高二丈六尺有奇, 雉堞一千三百六十有六, 高四尺, 爲門者六. 永樂間, 廢昌江門. 萬曆末, 又廢水西門,

267 악주부(岳州府) : 현재 후난성에 있다.

268 춘추시대에……한 : 『춘추좌씨전』 노정공 상, 5년 병신(丙申) 기사에 자세하다.

269 노숙(魯肅) : 172~217. 자는 자경(子敬)이다. 208년 조조(曹操) 대군이 남하하자 오의 주유와 촉의 유비가 연합하여 적벽대전(赤壁大戰)으로 조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탐상책(楊上策)』이 있다.

270 도간(陶侃) : 259~334. 자는 사행(士行), 사형(士衡)이다. 영가(永嘉) 5년(311)에 무창태수(武昌太守)를 시작으로 형주자사(荊州刺史), 시중(侍中), 태위(太尉), 형강이주자사(荊江二州刺史), 도독팔주제군사(都督八州諸軍事) 등을 역임했다. 후에 장사군공(長沙郡公)으로 봉해졌다.

今門四。【東曰朝陽，西曰岳陽，南北各以方名。】咸有月城。東南門外，各有橋者一，北鑿河，周千餘丈，深二丈，闊二十餘丈，卽古湟也。西濱大江。隆慶初，副使施篤臣築土堤禦水。六年，同知鍾崇文於岡上加砌女城，自南徂北，周數百丈，高六尺。巴陵縣附郭。

■ 132 상덕부(常德府)²⁷¹ 성지

성은 처음 기원전 278년(주 난왕 37) 초나라 사람 장약(張若)이 쌓았다. 후당(後唐)의 부장 심여상(沈如常)이 위아래로 두 개의 석櫃(石櫃)를 쌓아서 물살을 늘렸다. 1319년(고려 충숙왕 6, 원 연우 6) 상덕로의 군감 합책이 부학(府學) 앞에 석櫃 1좌를 쌓았다. 명 홍무 갑진년에 총제 호여(胡汝)가 바로 옛 성을 수리했다. 1373년(고려 공민왕 22, 명 홍무 6)에 상덕위 지휘 손덕(孫德)이 벽돌로 다시 쌓았고, 관루로 덮였으며 문을 6개 만들고 성에 해자를 준설했다. 높이는 2장 5척, 둘레는 1,733장이니, 계산하면 9리 13보이다. 문이 6개이다. 【동쪽은 영안, 상남쪽은 신정, 하남쪽은 임원, 서북쪽은 상무, 정서쪽은 청평, 북쪽은 공신문이다.】 남쪽은 큰 강이 가깝고, 동·서·북쪽에는 해자를 파서 둘러쌌다. 1637년(조선 인조 15, 명 숭정 10)에 양사창(楊嗣昌)이 상소하여 신성을 쌓았으니 높이는 3장이다. 무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常德府城池，城自周赧王三十七年，楚人張若築。後唐副將沈如常，上下砌二石櫃，以殺水勢。元延祐六年，常德路郡監哈嘯於府學前，砌石櫃一座。明洪武甲辰，總制胡汝，卽舊城修之。六年，常德衛指揮孫德，壘以甃石，覆以串樓，作六門，浚深池城，高二丈五尺，周圍一千七百三十三丈，計九里十三步，六門。【東曰永安，上南曰神鼎，下南曰臨沅，西北曰常武，正西曰清平，北曰拱辰。】南臨大江，東西北濠池環之。崇禎十年，楊嗣昌疎築新城，高三丈。武陵縣附郭。

■ 133 진주부(辰州府) 성지

한 초기부터 세웠다.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참군 첨중(詹中)이 돌을 캐서 쌓았다. 홍치 연간(1488~1505) 초기에 지부 왕정(汪正)이 성문과 관루를 다시 세웠다.

271 상덕부(常德府) : 현재 후난성에 있다.

【동쪽은 조양, 상남쪽은 환벽, 중남쪽은 수성, 하남쪽은 목파, 서쪽은 통하, 북쪽은 공신이다.】1681년(조선 숙종 7, 청 강희 20)에 지부 유응중(劉應中)이 성을 증수했다. 높이는 1장 9척이고, 주위를 계산하면 966장이다. 또 동서쪽 방향으로로는 347척이고, 해자의 깊이는 1장, 너비는 5척이다. 원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辰州府城池，開自漢初。明洪武，參軍詹中採石鑿之。弘治初，知府汪正更建，城門串樓。【東曰朝陽，上南曰環碧，中南曰水星，下南曰沐波，西曰通河，北曰拱辰。】康熙二十年，知府劉應中增修城，高一丈九尺，周圍計九百六十六丈，又於東西展三百四十七尺，壕深一丈，闊五尺。沅陵縣附郭。

■ 134 복주부(福州府)²⁷² 성지

한나라 때 무제(無諸)를 민월왕(閩越王)으로 봉했는데 도읍으로 삼았다. 283년(진 태강 4) 군수 엄고(嚴高)가 고쳐 쌓았다. 월왕산 남쪽에 자성을 만들었다. 당 천복 연간(901~904)에 민왕 심지(審知)²⁷³가 나성을 쌓았다. 오대 양(梁) 개평 연간(907~911) 초기에 심지가 남북쪽에 협성을 다시 쌓았다. 974년(고려 광종 25, 송 개보 7)에 자사 전옥(錢昱)²⁷⁴이 동남쪽에 외성을 더 쌓았다. 원 초기에 폐해졌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 부마도위인 왕공(王恭)에게 명하여 옛터를 본떠 다시 고쳐 쌓게 했다. 성곽의 크기는 사방 10리이고, 높이는 2장 1척 남짓이며 두께는 1장 7척이고, 둘레는 3,349장, 성 위에 적루 62좌, 경포 98좌, 첩루가 2,684좌, 여장은 4,805개이다. 성 안팎에 좁은 도로를 개통했는데 각각 2장 남짓이다. 1559년(조선 명종 14, 명 가정 38), 성 밖에 적대 36개를 설치했다. 성의 3면을 두른 해자의 깊이는 7척 5촌, 너비 10장, 크기는 3,346장 남짓이다. 1661년(조선 현종 2, 청 순치 18) 총독 이술태가 증축했다. 높이는 2장 4척, 두께는 1장 9척 남짓이다. 와포는 264좌, 포대는 93좌, 타

272 복주부(福州府) : 현재 푸젠성[福建省]에 있다.

273 심지(審知) : 862~925. 왕심지(王審知). 하남(河南) 광주(光州) 고시(固始) 사람으로 자는 신통(信通), 상경(祥卿)이고, 호는 백마삼랑(白馬三郎)이다. 당말오대(唐末五代) 관리이다. 벼슬은 복주관찰부사(福州觀察副使), 위무군유후(威武軍留後), 검교형부상서(檢校刑部尚書), 위무군절도사(威武軍節度使),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낭야왕(琅瑯王), 중서령(中書令), 복건대도독장사(福建大都督長史), 민왕(閩王) 등을 역임했다.

274 전옥(錢昱) : 943~999. 오월국 출신으로, 자는 취지(就之)이다. 송으로 귀순하여 백주자사(白州刺史)에 임명되었다. 비서감(秘書監)과 공부시랑(工部侍郎)을 거쳐 수주(壽州), 사주(泗州), 숙주(宿州)를 다스렸다. 영주단련사(郢州團練使)까지 올랐다.

구는 3,009개, 타 밖의 마도는 5,530장, 성문은 7개이다.【남문은 옛 남협성 영월문, 북문은 옛 북협성 엄승문, 동문은 옛 외성 행춘문, 서문은 옛 서협성 영선문, 수부문은 옛 남협성 수부문, 탕문은 옛 외성 탕정문, 정루문은 옛 외성 선장문이다.】수관은 4개이다.【하나는 수부문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문의 남쪽에 있고, 두 개의 관(關)은 북문과 탕문에 있다고 한다.】민현과 후관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福州府城池, 漢封無諸爲閩越王都治. 晉太康四年, 郡守嚴高改築. 越王山之南, 爲子城. 唐天復間, 閩王審知築羅城. 五代梁開平初, 審知又築南北夾城. 宋開寶七年, 刺史錢昱, 又築東南外城. 元初廢. 明洪武四年, 命駙馬都尉王恭, 因故址更築, 廣袤方十里, 高二丈一尺有奇, 厚一丈七尺, 周三千三百四十九丈, 城上敵樓六十二, 警鋪九十八, 堞樓二千六百八十四, 女牆四千八百零五, 城表裡關夾道, 各二丈許²⁷⁵. 嘉靖三十八年, 增置外敵臺三十六. 環城三面塹濠, 深七尺五寸, 廣十丈, 延袤三千三百四十六丈有奇. 順治十八年, 總督李率泰增築, 高二丈四尺, 厚一丈九尺許²⁷⁶, 窩鋪二百六十四座, 炮臺九十三座, 垛口三千零九, 垛外馬道五千五百三十丈, 城門七.【曰南門, 舊南夾城寧越門, 曰北門, 舊北夾城嚴勝門, 曰東門, 舊外城行春門, 曰西門, 舊西夾城迎仙門, 曰水部門, 舊南夾城水部門, 曰湯門, 舊外城湯井門, 曰井樓門, 舊外城船場門.】水關四.【一在水部門東, 一在西門之南, 其二關在北門湯門云.】閩縣候官縣俱附郭.

135 천주부(泉州府)²⁷⁷ 성지

군(郡)의 내부에는 아성(衙城)을 만들고 외부에는 자성을 만들었다. 다시 외부에 나성을 만들면서 아성과 자성은 모두 폐했다. 지금 견고하다고 믿는 것은 나성이다. 1133년(고려 인종 11, 송 소흥 3) 수 유구공(游九功)이 처음으로 웅성의 문을 성의 남쪽에 쌓았고 성 밖에 익성을 쌓았다. 원의 감군 설옥립(楔玉立)이 처음으로 남쪽의 나성을 개척하여 익성까지 넓혔다. 둘레는 20리이고 높이는 2장 1척이다. 성의 동쪽·서쪽·북쪽 성 바닥 넓이를 각각 2장 4척씩 넓혔고 외부는 둘로 쌓았다. 남

275 許 : 저본에는 '計'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2권, 성지부고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76 許 : 저본에는 '計'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2권, 성지부고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77 천주부(泉州府) : 현재 푸젠성에 있다.

쪽의 성 바닥을 2장 넓혀 안과 밖을 모두 돌로 쌓았다. 문이 7개이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에 다시 높이 5척을 높여서 성 바닥을 2장 4척 넓혔다. 월성이 6개인 데, 오직 남薰(南薰)에만 월성이 없다. 문에는 각각 누가 있다. 또한 동쪽에 누가 있는데 망해라고 하고, 북쪽에 누가 있는데 망산이라 한다. 와포 140개이다. 이후에 물결이 성 아래를 파고들어 수(守) 장염(張濂)이 제방 2개를 세워서 막았다. 첨사 만민영이 또한 북성 외부 해자의 반석 때문에 물이 통할 수 없다고 하여 소성루를 세워서 해자에 임하게 했고, 그 주변은 목책으로 둘렀으며 마양장(馬羊牆)을 쌓아서 지키는 곳으로 삼았다. 1658년(조선 효종 9, 청 순치 15) 다시 쌓았는데 관동 방식에 근거하여 타자 2,310개와 월성타자 205개, 도합 타자 2,515개를 만들었다. 한 개의 길이가 7척이며 두께가 3척이고 관(寬)은 1장 5척이고 타구 관(寬)은 1척 8촌이다. 1665년(조선 현종 6, 청 강희 4) 성 위를 다시 수축하여 와포 94좌를 만들었다. 진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泉州府城池, 郡內爲衙城外爲子城. 又外爲羅城衙城子城皆廢. 今²⁷⁸所恃爲固者, 羅城也. 宋紹興三年, 守游九功始築甕門于城南, 外築翼城. 元監郡僉玉立, 始拓南羅城以就翼城, 周圍二十里, 高二丈一尺, 城東西北基廣各二丈四尺, 外甃以石, 南基廣二丈, 內外皆石, 爲門七. 明洪武初, 復增高五尺, 基廣二丈四尺. 月城六, 惟南薰無月城, 門各有樓, 又東有樓, 曰望海, 北有樓, 曰望山. 窩鋪百四十. 後水齧城下, 守張濂築二壩攔之. 僉事萬民英, 又因北城外濠盤石, 不能通水, 建小城樓臨濠, 圍以木柵築, 馬羊牆以爲防守. 順治十五年, 改築依關東式爲垛子二千三百一十箇, 月城垛子二百零五箇, 通共垛子二千五百十五箇, 每箇長七尺, 厚三尺, 寬一丈五尺, 垛口寬一尺八寸. 康熙四年, 改修城上, 窩鋪爲九十四座. 晉江縣附郭.

■ 136 건영부(建寧府)²⁷⁹ 성지

부성(府城)은 260년(촉한 경요 3)부터 오의 왕번(王蕃)이 건안군 태수가 되어 처음

278 今 : 저본에는 '分'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2권, 성지부고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79 건영부(建寧府) : 현재 푸젠성에 있다.

으로 계남(溪南) 복선산 아래에 쌓았다. 송 원가 연간(424~453) 초기에 황화산 기슭으로 옮겼다. 진(陳) 자사 낙문광(駱文廣)이 다시 복선산 아래로 옮겼다. 745년(당 천보 원년 745) 자사 육장원(陸長源)이 다시 황화산 기슭에 성을 쌓았다. 당 천우 연간(904~907)에 자사 맹위첨(孟威添)이 남쪽에 나성을 쌓았다. 진 천복 연간(936~944)에 위민 왕연정(王延政)²⁸⁰이 또 그것을 증축했다. 원 지정 연간(1341~1370)에 군수 조절(趙節)이 옛터를 본떠 중수했다. 1369년(고려 공민왕 18, 명 홍무 2)에 지휘 목영(沐英)이 그 서남쪽을 넓혔다. 1386년(고려 우왕 12, 명 홍무 19)에 지휘 시우(時禹)가 그것을 다시 넓혔다. 성의 둘레는 2,793척 남짓이고, 높이는 1장 9척, 성루는 24개, 와포는 76좌, 여장은 3,138개이다. 성의 두 면을 두르는 참호는 길이가 531장 1척이고, 깊이는 1장 5척, 너비는 5장 5척이다. 정북은 산을 의지하고, 서남은 큰 시내가 가까이 있다. 1666년(조선 현종 7, 청 강희 5)에 성을 중수했다. 성의 높이 2장 8척, 타는 3,800개, 여장의 높이는 6척, 성루는 8좌이다. 문은 8개이다. 【남쪽은 광덕, 북쪽은 조천, 동쪽은 영원, 서쪽은 위무, 동남쪽은 통선, 동남쪽 모퉁이는 정화, 서남쪽은 통제, 서진(西津)의 남쪽은 임강이다.】 또 작은 수문 1개가 있다. 이보다 앞서 시우가 2개의 문【조양과 공북문이다.】을 다시 개척했는데 명 영락 연간(1403~1424) 초기에 이 문을 막았다. 건안현과 구령현 2개의 현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建寧府城池, 府城自漢景耀三年, 吳以王番爲建安郡太守, 始築于溪南覆船山下. 宋元嘉初, 遷于黃華山麓. 陳刺史駱文廣復徙覆船山下. 唐天寶²⁸¹元年, 刺史陸長源復築城于黃華山麓. 天祐中, 刺史孟威添築南羅城. 晉天福中, 僞閩王延政, 又增築之. 元至正間, 郡守趙節因舊址重修. 明洪武二年, 指揮沐英拓其西南. 十九年, 指揮時禹, 復拓之, 周二千七十九丈三尺有奇, 高一丈九尺, 城樓二十四, 窩鋪七十六, 女牆三千一百三十八. 環城二面塹濠長五百三十一丈一尺, 深一丈五尺, 闊五丈五尺. 正北依山, 西南濱大溪. 康熙五年, 重修, 城高二丈八尺, 垛三千八百箇, 女牆高六尺, 城樓八座, 門八. 【南曰廣德, 北曰朝天, 東曰寧遠, 西曰

²⁸⁰ 왕연정(王延政) : ?~951. 오대십국 시기 민(閩)의 7대 황제로, 재위 중 남당(南唐)에게 멸망되어 묘호와 시호가 없다. 남당이 복왕(福王)으로 추봉하고, '공의(恭懿)'라는 시호를 주었다. 재위기간에 '천덕(天德)'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천덕제(天德帝)'라고 불린다.

²⁸¹ 寶 : 저본에는 '建'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2권, 성지부고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威武, 東南曰通仙, 東南隅曰政和, 西南曰通濟, 西津之南曰臨江。】又有小水門一。先是時禹復關二門,【曰朝陽, 曰拱北。】永樂初塞。建安甌寧二縣俱附郭。

■ 137 연평부(延平府)²⁸² 성지

송대부터 축성하였다. 둘레는 9리 180보이다. 문은 11개가 있다.【담진, 개평, 연안, 숭화, 연평, 연청, 파운, 건안, 장순, 통복, 연태문이다.】명 때 9개로 고쳤다.【건영, 노강, 건영소수문, 복주소수문, 연복, 서수, 사학, 대북, 소북문이다.】건영문에서 연복문까지는 건계가 가깝고 연복문부터 서수문까지 초천이 가깝다. 서수문에서는 대북문까지 산간이 임한다. 대북문에서 건영문까지 성벽의 크기를 늘려 높은 언덕의 꼭대기를 돌렸다. 세상에서는 장순문을 남문이라 부른다. 성루에는 와포는 61좌가 있다. 남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延平府城池, 築自宋, 周圍九里一百八十步, 爲門十有一。【曰鐔津, 曰開平, 曰延安, 曰崇化, 曰延平, 曰延清, 曰坡雲, 曰建安, 曰將順, 曰通福, 曰延泰。】明更爲九門。【曰建寧, 曰壚坑, 曰建寧小水門, 曰福州小水門, 曰延福, 曰西水, 曰四鶴, 曰大北, 曰小北。】自建寧門抵延福門, 臨建溪。自延福門抵西水門, 臨樵川。自西水門抵大北門, 臨山澗。自大北門抵建寧門。城壁延袤, 環高岡之巔。將順門俗名南門, 有城樓窩鋪六十一座。南平縣附郭。

■ 138 정주부(汀洲府)²⁸³ 성지

769년(당 대력 4) 자사 진검(陳劍)이 와룡산 남쪽의 서북방면 산을 깎아 옮겨 지었다. 동쪽은 강과 가깝고, 남쪽은 산록에 의지한다. 당 대종 연간(847~860) 초기에 적루를 만들었다. 1066년(고려 문종 20, 송 치평 3) 넓게 증축했다. 성의 둘레는 5리 254보, 해자 3개를 파고 문 6개를 수축했다.【정동쪽은 제천, 정서쪽은 추성, 남쪽은 반조와 은강, 동남쪽은 통원, 동북쪽은 흥현문이다.】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 반조문을 막았다. 제천문을 고쳐서 여춘문으로 하고 추성문을 통제문로, 통원문을

282 연평부(延平府) : 현재 푸젠성 북서부에 있다.

283 정주부(汀洲府) : 현재 푸젠성에 있다.

진남문으로, 은강문을 광저문이라 하고, 흥현문은 조천문이라 했다. 성 주변을 벽돌로 감쌌다. 총포 1개, 와포 81좌, 여장 1,195개, 전안 814개를 만들었다. 명 홍치 연간(1488~1505)에 지부 오문도(吳文度)가 성을 넓혔다. 성의 둘레는 통제문부터 제천문에 이르기까지 수백 장이다. 또 흙을 쌓아서 현성(縣城)으로 만들었다. 문은 7개로 만들었다. 【동쪽은 회천, 남쪽은 오통, 혜길, 부유, 상풍, 서서, 통금문이다.】 길이는 619장, 첩은 2,180개 남짓이다. 1631년(조선 인조 9, 명 숭정 4) 군현의 성을 합해서 하나로 했다. 1635년(조선 인조 13, 명 숭정 8) 보주문과 월성을 지었고 혜길성문을 넓혔다. 장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汀洲府城池, 唐大曆四年, 刺史陳劍, 移築卧龍山陽西北塹山, 東濱河, 南據山麓. 大中初創敵樓. 宋治平三年增廣. 周五里二百五十四步, 濬三濠, 修六門. 【正東曰濟川, 正西曰秋城, 南曰頒條, 曰鄞江, 東南曰通遠, 東北曰興賢.】 明洪武四年, 塞頒條門, 改濟川爲麗春, 秋成爲通濟, 通遠爲鎮南, 鄞江爲廣儲, 興賢爲朝天, 周城包以磚石. 創總鋪一, 窩鋪八十一, 女牆一千一百九十五, 箭眼八百一十四. 弘治間, 知府吳文度拓城, 圍自通濟門至濟川門數百丈. 又築土爲縣城, 列七門. 【東曰會川, 南曰五通, 曰惠吉, 曰富有, 曰常豐, 曰西瑞, 曰通金.】 長六百一十九丈, 堞二千一百八十有奇. 崇禎四年, 合郡縣城爲一. 八年築寶珠門月城, 增擴惠吉城門. 長汀縣附郭.

139 흥화부(興化府)²⁸⁴ 성지

983년(고려 성종 2, 송 태평흥국 8)부터 유양(自游)에서 포전(莆田)으로 군치를 옮기고, 처음으로 자성을 쌓았다. 1121년(고려 예종 16, 송 선화 3)에야 다시 성을 쌓았는데 벽돌과 기와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7리 남짓이다. 북쪽의 간수를 끌어 해자를 만들어 성을 둘렀는데 동남쪽에 이르러 참호와 합해진다. 문은 5개이다. 【동쪽은 망해, 남쪽은 망선, 서쪽은 숙청, 북쪽은 망경, 동북쪽은 영진문이다.】 1379년(고려 우왕 5, 명 홍무 12) 본위지휘(本衛指揮) 정승(程昇)이 군사를 증설함으로써 성을 개척할 것을 주청하였고 그것을 허락받았다. 이에 옛날 해자를 건너서 오석산 아래를 지나

284 흥화부(興化府) : 현재 푸젠성에 있다.

전태와 후태를 통과해 옛 성과 결합하니 성곽의 크기는 11리, 둘레는 2,830장, 터의 너비는 1장 6척, 담장의 높이는 1장 8척, 타는 6척이다. 담장과 타를 합한 높이는 2장 4척이다. 안팎을 돌로 겹쳐 쌓았고, 타는 2,962개, 와포 49좌, 적루 27좌이다. 문은 4개이다. 동서쪽 문은 옛 이름을 그대로 따랐고, 남쪽 문은 영선문으로 고쳤고, 북쪽 문은 공신문으로 고쳤다. 영진문은 폐했고 수관문 2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성 밖의 해자는 좌측은 동북쪽으로 모퉁이가 꺾여서 남쪽의 수계수(壽溪水)를 끌어다 물을 낸다. 우측은 서남쪽으로 모퉁이가 꺾여서 동쪽의 모란계수(木蘭溪水)를 끌어다가 물을 낸다. 두 물길을 합한 길이는 1,770장, 너비는 2장 6척이며, 깊이는 1장이다. 서북쪽은 산을 등지고 있어서 한호(捍壕)를 파서 만들었는데, 해자의 길이는 593장, 너비는 2장 6척, 깊이는 2장이다. 1564년(조선 명종 19, 명 가정 43) 총병 척계광(戚繼光)이 성 바깥 서북쪽에 담을 쌓게 하였는데 높이는 7척이다. 적루 6좌를 더 설치했다. 1567년(조선 명종 22, 명 융경 원년) 지현 서집책(徐執策)이 타구를 부계(副堦)에 설치하라고 처음으로 명했다. 1571년(조선 선조 4, 명 융경 5) 분수 음무경(陰武卿)이 동북쪽에 2개의 문을 중수했다.【동쪽은 진해, 서쪽은 영청, 남쪽은 영화로 고쳤고, 북쪽은 그대로 공신문이라 했다.】 1581년(조선 선조 14, 명 만력 9)에 지부 육통소(陸通宵)가 거둬 넓혔다. 서북성의 담을 높게 해서 언덕을 둘러 성 안으로 들였다. 길이는 85장 5척이고, 높이는 2장, 너비는 1장이다. 적루 1좌와 와포 2좌, 방문(方門) 2좌를 세웠고, 타자는 182개이다. 신성(新城)을 외성으로 삼고 구성을 내성으로 삼았다. 보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興化府城池, 自宋太平興國八年, 自游洋移軍治于莆田, 初築子城. 宣和三年乃更築城, 甃以磚瓦, 周圍七里有奇. 引北澗水, 爲濠繞城而達於東南與溝塹合, 爲門五.【東曰望海, 南曰望仙, 西曰肅清, 北曰望京, 東北曰迎眞.】明洪武十二年, 本衛指揮程昇, 以增設軍士, 奏請闢城, 許之. 乃越舊濠, 跨烏石山下, 歷前埭後埭, 與舊城合, 延袤一十一里, 周二千八百三十丈, 基廣一丈六尺, 牆高一丈八尺, 堞六尺. 共高二丈四尺. 表裏砌石, 堞二千九百六十二, 窩鋪四十九, 敵樓二十七. 爲門四, 東西仍舊名. 南改迎仙, 北改拱辰, 廢迎眞門, 不用水關門二. 城外濠池, 左起東北隅折, 而南引壽溪水注之, 右起西南隅折, 而東引木蘭溪水注之, 二水共長一千七百七十丈, 廣二丈六尺, 深一丈. 西北負山, 鑿爲捍壕, 長

五百九十三丈, 廣二丈六尺, 深二丈. 嘉靖四十三年, 總兵戚繼光令城外西北築牆, 高七尺. 添設敵樓六座. 隆慶元年, 知縣徐執策, 始命垛口設副堦. 五年, 分守陰武卿重修東北二門.【改²⁸⁵東曰鎮海, 西曰永清, 南迎和, 北仍拱辰云.】萬曆九年, 知府陸通霄重拓. 西北城垣將高, 岡圍入城內. 長八十五丈五尺, 高二丈. 闊一丈. 建敵樓一座, 窩鋪二座, 方門二座, 垛子一百八十二, 以新城爲外險以舊城爲內關. 莆田縣附郭.

■ 140 소무부(邵武府)²⁸⁶ 성지

예전 오판성은 지금 있는 성의 동쪽으로 3리 쯤에 있었는데 월왕이 축성하였다. 979년(고려 경종 4, 송 태평흥국 4) 소무에 군치(軍治)를 두었고 지금 자리에 토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10리 남짓이다. 1358년(고려 공민왕 7, 원 지정 18) 옛터에 비해 1리쯤을 안으로 들어 다시 수축했다. 해자의 동쪽, 서쪽, 남쪽의 깊이는 1장 5척 남짓이다. 북쪽은 큰 시내에 임해있다. 너비는 42장, 깊이는 2장쯤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행춘, 서쪽은 진안, 남쪽은 무령, 후에 통태로 고쳤다. 북쪽은 초계문이다.】터는 돌을 사용했고 그 위는 벽돌로 쌓았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고쳐 지었다. 둘레는 1,338장 8척이고 높이는 2장 8척이다. 4개의 문에 문루 4개를 세웠다. 적루는 46좌이다. 1648년(조선 인조 26, 청 순치 5)에 성 둘레의 타구를 더욱 높여 2척이 되었다. 1667년(조선 현종 8, 청 강희 6) 다시 높이 3척을 증축했다. 성 주위의 포대 42좌를 조성했다. 소무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邵武府城池, 古有烏坂城, 在今城東三里許, 越王所築也. 宋太平興國四年, 置邵武軍治, 今所築土城, 周圍十里有奇. 元至正戊戌, 復行修築視舊址收入一里許, 濠東西南, 深一丈五尺有奇, 北臨大溪, 廣四十二丈, 深二丈許, 爲門四.【東曰行春, 西曰鎮安, 南曰武寧, 後改通泰, 北曰樵溪.】基用石, 上用陶甃. 明洪武初, 重修, 周圍一千三百三十八丈八尺, 崇二丈八尺, 四門建門樓四, 敵樓四十六. 順治五年, 增高環城, 垛口二尺. 康熙六年, 又增高三尺, 造周城炮臺四十二座. 邵

285 改 : 저본에는 없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2권, 성지부고 〈복건통지〉에 근거하여 추가하였다.

286 소무부(邵武府) : 현재 푸젠성에 있다.

■ 141 장주부(漳州府)²⁸⁷ 성지

송 대부터 흙으로 쌓아서 자성을 만들었다. 성의 둘레는 4리이고, 문이 6개 있다. 【동쪽은 명제, 청장이고 서쪽은 등선, 조진이며 남쪽은 운소, 북쪽은 경풍이다.】 999년(고려 목종 2, 송 함평 2)에 처음으로 해자를 만들었다. 1016년(고려 현종 7, 송 상부 6)에 서쪽 강을 깊이 파서 수문을 냈다. 외성에 목책을 세워 15리를 둘렀다. 소흥 연간(1127~1162)에 자성이 무너져서 외성의 동서북 3면의 목책을 철거하고 흙으로 쌓았다. 남쪽 한 면만 시내로 막혀 있었다. 1211년(고려 희종 7, 송 가정 4)에는 동문을 돌로 겹쳐 쌓았다. 1230년(고려 고종 17, 소정 3)에 서남북 3면을 돌로 쌓으니 길이는 2,500여 장이고 높이는 1장 7척이 누로(樓櫓)를 세우고 해자를 준설했다. 문 7개를 열었다. 【동쪽은 조진, 서쪽은 안풍, 남쪽은 통진, 북쪽은 공주, 서북은 소관문, 서남은 용계문, 동남은 조종문이다.】 성 위에 후정(垠亭)²⁸⁸ 2개를 세우고 아래에는 물을 막는 수문 3개를 세웠다. 1366년(고려 공민왕 15, 원 지정 26) 진우정(陳友定)이 개축했는데 동서북 3개면은 축소해 만들었고 남쪽 1개면만 옛 것 그대로이다. 둘레는 2,173장이고 높이는 3장 5척이다. 월성은 각각 둘레가 50장이다. 동서쪽의 해자의 길이는 359장이고, 남쪽으로는 큰 하천과 접한다. 북쪽으로는 산을 의지하여 마른 해자인데, 동서로 2개의 물길을 만들어서 연결시켰다. 명 초에 4개의 문을 중수하였다. 월성의 내외에는 각각 누를 세워 두었다. 전루는 25개, 성포는 23개, 수관루(水關樓)는 2개다. 1473년(조선 성종 4, 명 성화 9)에 순무 장선이 돌 제방을 만들어 성터가 비로소 단단해졌다. 1482년(성화 18)에 성 밖에 제방을 쌓고 그 위에 정자를 만들고 편액에 쓰기를 보안(保安)이라 했다. 1501년(조선 연산군 7, 명 홍치 14) 지휘동지 후변(侯汴)이 서북에 위진정(威鎮亭)을 세웠다. 1571년(조선 선조 4, 명 융경 5)에 손방(巽方)²⁸⁹의 옛 누각을 훼손하고 다시 팔각루를 세우고 위진각이라 편액하여 북쪽의 위진정과 격을 맞췄다. 1609년(조선 광해군 원년, 명 만력 37)에 문을 다시 세웠다.

287 장주부(漳州府) : 현재 중국 푸젠성 남부에 위치한 장저우시[漳州市]이다.

288 후정(垠亭) : 이정(里程)을 표시한 대(臺)를 말한다. 후(垠)는 이수(里數)를 기록한 토대(土臺)로, 1후는 5리를 말한다. (『제호집(霽湖集)』 권10.)

289 손방(巽方) : 팔방(八方)의 하나로 남동쪽을 의미한다.

【남쪽은 삼태, 동쪽은 문창, 북쪽은 태초, 서쪽은 태평문이다.】1656년(조선 효종 7, 명 순치 13)에 신성(新城)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1,993장, 타자(垛子)는 1,124개, 와포는 87좌이다. 용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漳州府城池, 自宋築土爲子城, 周圍四里, 爲門六.【東曰名第, 曰清漳, 西曰登仙, 曰朝眞, 南曰雲霄, 北曰慶豐.】咸平二年, 始浚濠. 祥符六年, 加浚西河, 鑿水門, 外城豎木柵圍十五里. 紹興間, 毀子城, 撤外城東西北三面木柵, 築以土, 獨南一面阻溪. 嘉定四年, 砌東門以石. 紹定三年, 復砌西南北三面, 長二千五百餘丈, 高一丈七尺, 建樓櫓, 浚河湟, 開七門.【東曰朝天, 西曰安豐, 南曰通津, 北曰貢珠, 西北爲小關門, 西南爲龍溪門, 東南爲朝宗門.】城上建堠亭二, 下爲閘河三. 元至正二十六年, 陳友定, 改築, 東西北三面, 即縮入之, 獨南一面仍舊, 圍二千一百七十三丈, 高三丈五尺, 月城各圍五十丈, 東西浚濠三百五十九丈, 南臨大溪, 北依山爲乾濠, 及作東西二水關. 明初重修四門置. 月城內外, 各建樓, 戰樓二十五, 城鋪二十三, 水關樓二. 成化九年, 巡撫張瑄作石堤, 城址始固. 十八年, 築外堤, 作亭其上扁曰保安. 弘治十四年, 指揮同知侯汴於西北建威鎮亭. 隆慶五年, 撤巽方舊樓, 改建八角樓, 扁威鎮閣, 配北威鎮亭. 萬曆三十七年改門.【南曰三台, 東曰文昌, 北曰太初, 西曰太平.】順治十三年築新城. 周圍一千九百九十三丈, 垛子一千一百二十四, 窩鋪八十七. 龍溪縣附郭.

142 성도부(成都府)²⁹⁰ 성지

즉 회성이다. 큰 성은 장의(張儀)²⁹¹가 창건했고, 작은 성은 양수(楊秀)가 축성했다. 나성은 고병(高駢)²⁹²이 증축했다. 후에 정감(程戡), 노법원(蘆法原)과 왕강중(王剛中),²⁹³ 범성대(范成大)가 잇달아 수축했다. 명의 조청(趙淸)이 벽돌로 쌓았다. 진회

290 성도부(成都府) : 현재 중국 쓰촨성[四川省]의 성도(城都)인 청두시[成都市]이다.

291 장의(張儀) : ?~B.C. 309. 위(魏)의 모사이다. 해문왕 연간 재상을 역임하였다. 연횡책(連衡策)을 주창하여 진(秦)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맺게 하였다.

292 고병(高駢) : ?~887. 당나라 유주 출신이며 자는 천리(千里)이고 고숭문(高崇文)의 손자이다. 태평(太平)과 진해(鎮海), 회남(淮南)의 절도사를 지냈고, 제도행영도통(諸道行營都統)과 엄철전운사(鹽鐵轉運使) 등을 역임했다. 황소(黃巢)의 반란을 진압할 때 중국에 있던 최치원(崔致遠)이 그를 위해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었다.

293 왕강중(王剛中) : 1103~1165. 송 요주(饒州) 낙평(樂平) 출신이다. 자는 시형(時亨),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역설(易說)』, 『춘추통의(春秋通義)』, 『경사변의(經史辨疑)』, 『한당사평(漢唐史評)』, 『당사요람(唐史要覽)』, 『동계집(東溪

(陳懷)는 다시 해자를 준설했다. 성도와 화양 2개의 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成都府城池, 卽會城, 大城創於張儀, 小城築於楊秀, 羅城增高駢. 後程戡, 盧法原, 王剛中, 范成大, 先後修築. 明趙清瑩以磚石, 陳懷復浚池. 成都華陽二縣附郭.

■ 143 중경부(重慶府)²⁹⁴ 성지

석성이다. 명 홍무(1368~1389) 초에 지휘 대정(戴鼎)이 중수했다. 문은 17개이다. 【조천, 취미, 통원, 금탕, 정원, 남기, 봉황, 금자, 인화, 태평, 출기, 대안, 임강, 홍애, 천사, 복흥, 동수문이다.】 파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重慶府城池, 石城. 明洪武初, 指揮戴鼎重修, 門十七. 【朝天, 翠微, 通遠, 金湯, 定遠, 南紀, 鳳凰, 金字, 仁和, 太平, 出奇, 大安, 臨江, 洪崖, 千斯, 福興, 東水.】 巴縣附郭.

■ 144 순경부(順慶府)²⁹⁵ 성지

명 홍무(1368~1389) 연간 초기에 북진에서 건너와 이곳으로 성을 옮겼다. 성의 둘레는 1,300장이고 높이는 1장 2척이며 너비는 1장이다. 해자의 깊이는 9척이며 너비는 6척이며 문은 4개다. 【경화, 내훈, 부성, 양복문이다.】 각 문에 누를 덮었다. 남충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順慶府城池, 明洪武初, 自北津渡遷城於此, 周一千三百丈, 高一丈二尺, 闊一丈, 池深九尺, 闊六尺, 爲門四. 【曰景和, 曰來薰, 曰阜成, 曰陽復.】 各覆以樓, 南充縣附郭.

集), 『응재필록(應齋筆錄)』 등을 편찬하였다.

294 중경부(重慶府) : 현재 중국 쓰촨성의 남서부에 있는 직할시인 충칭시[重慶市]이다.

295 순경부(順慶府) : 현재 중국 쓰촨성의 동부에 위치한 난충시[南充市]이다.

■ 145 보령부(保寧府)²⁹⁶ 성지

석성이다. 한 대의 유장(劉璋)이 토성으로 쌓았고 촉한(蜀漢)의 장비(張飛)가 증수하였다. 명 홍무(1368~1389) 초기에 천호 등귀(滕貴)가 확장하면서 돌로 감쌌다. 문 4개를 열었다.【부춘, 금병, 징청, 위덕문이다.】 성화 연간(1465~1487) 지휘 전의(田儀)가 4개의 누를 추가하여 세웠다. 낭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保寧府城池, 石城. 漢劉璋築土城, 蜀漢張飛增修. 明洪武初, 千戶滕貴拓之, 包以石, 啓門四.【富春, 錦屏, 澄清, 威德.】成化間, 指揮田儀增建四樓. 閬中縣附郭.

■ 146 검주(劍州)²⁹⁷ 성지

석성이다. 명 성화(1465~1487) 연간에 지주 당맹장(唐孟璋)이 쌓았으며 둘레는 2리이다. 1518년(조선 중종 13, 명 정덕 13) 지주 이벽(李璧)이 성을 확장하였다. 문은 5개다.【검각, 건무, 명학, 한양, 입마이고, 옛날 남문은 그대로 두어 이렇게 문이 6개가 되었다.】

劍州城池, 石城. 明成化中, 知州唐孟璋築, 周二里. 正德十三年, 知州李璧擴之, 門五.【劍閣, 建武, 鳴鶴, 漢陽, 立馬, 舊南門仍存, 是爲六門.】

■ 147 서주부(叙州府)²⁹⁸ 성지

석성이다. 당 대의 위고(韋臯)²⁹⁹가 도독부를 삼강 입구에 설치하여 토성을 건축하였다. 당 회창 연간(841~846)에 옮겨 강가에 쌓았다. 북송(北宋) 말에 안무인 곽한걸(郭漢傑)이 치소를 등고산으로 옮겼다. 원 지원(1264~1294) 연간에 산성(山城)을 폐하고 다시 삼강 입구의 성을 회복하니 바로 지금의 치소이다. 명 홍무(1368~1389) 초에 조국공이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를 설치하였다. 외성을 증축해서 옛 성을 안으로 포함시키고 벽돌로 겹쳐 쌓았다. 높이는 2장 7척 두께는 1장 8척 둘레는 1,087장

296 보령부(保寧府) : 현재 중국 쓰촨성의 동북부에 있었던 부(府)이다.

297 검주(劍州) : 현재 중국 쓰촨성의 북부에 있는 광위안시[廣元市]에 속한 젠거현[劍閣縣]이다.

298 서주부(叙州府) : 현재 중국 쓰촨성의 중남부에 있는 이빈시[宜賓市]이다.

299 위고(韋臯) : ?~? 자는 성무(城武)이다. 당나라 경조(京兆) 출신으로 전중시어사, 검남서천절도사, 검교태위를 역임했다.

이고 문은 6개이다.【여양, 합강, 건남, 칠성, 문성, 무안문이다.】동남쪽의 마호강은 천연의 참호이고 서북으로 해자를 팠는데 너비는 5장이고 깊이는 1장 5척이다. 의빈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絳州府城池, 石城. 唐韋臯開都督府於三江口, 創建土城. 會昌中, 徙築江. 北宋末, 安撫郭漢傑, 移治登高山. 元至元中, 廢山城, 復城於三江口, 即今治. 明洪武初, 曹國公設守禦千戶所, 仍增外城, 包舊城於內, 砌以磚, 高二丈七尺, 厚一丈八尺, 周一千八十七丈, 門六.【麗陽, 合江, 建南, 七星, 文星, 武安.】東南以馬湖江爲天塹, 西北鑿濠, 廣五丈深一丈五尺. 宜賓縣附郭.

■ 148 기주부(夔州府)³⁰⁰ 성지

석성이다. 둘레는 975장이다. 명 정덕(1506~1521) 때 지부 오잠(吳潛)이 적루 3곳을 창건했다. 관루는 180칸이다. 문은 5개다.【훈덕, 시부, 빈양, 내위, 숙성문이다.】봉절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夔州府城池, 石城, 周九百七十五丈. 明正德, 知府吳潛創敵樓三, 串樓百八十間, 門五.【薰德, 時阜, 賓陽, 來威, 肅成.】奉節縣附郭.

■ 149 용안부(龍安府)³⁰¹ 성지

한·당·송·원 대에 주(州)를 설치하면서 토성이 있었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명 홍무 7)에 토지주 설문등(薛文滕)이 청천에 치소(治所)를 처음 세웠다. 1389년(고려 창왕 원년, 명 홍무 22) 지주 설계현(薛繼賢)이 상주해서 지금 다스리는 곳으로 옮겼는데 주위를 목책으로 둘렀다. 1430년(조선 세종 12, 명 선덕 5) 지주 설충의(薛忠義)가 상주해서 벽돌로 성을 쌓았는데, 성의 둘레는 5리이다. 문은 4개이다.【영휘, 청평, 통원, 공신문이다.】성의 바깥쪽에는 해자가 둘러져 있다. 동관에는 영은루를 설치했고, 서관에는 진강루를 설치했다. 평성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300 기주부(夔州府) : 현재 중국 충칭시의 북부에 있었던 부(府)로 평제현[奉節縣]에 치소(治所)를 두었다.

301 용안부(龍安府) : 현재 중국 쓰촨성의 서북부에 있는 멘양시[綿陽市]에 속한 평우현[平武縣]이다.

龍安府城池, 漢唐宋元, 設州有土城. 明洪武七年, 土知州薛文滕始建治於青川. 二十二年, 知州薛繼賢, 奏移今治, 周以木柵. 宣德五年, 知州薛忠義, 奏築甃城, 周匝五里, 門四.【曰迎暉, 曰清平, 曰通遠, 曰拱宸.】外環以濠, 東關設迎恩樓. 西關設鎮羌樓. 平城縣附郭.

■ 150 준의부(遵義府)³⁰² 성지

「구지(舊志)」에 주변은 산으로 둘러져 있고 물을 끼고 있는 험준한 곳이라 하였다. 천성(926-929) 연간에 관을 설치하여 지키는 곳으로 삼으면서 바로 성곽을 만들었다. 1600년(조선 선조 33, 명 만력 28) 비로소 돌로 성을 쌓았다. 서남쪽은 높은 산을 의지하여 해자가 없고, 동북은 시냇물을 접하고 있어 해자를 만들었다. 높이는 2장이고 너비는 950장 4척이고 문은 4개이다.【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준의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遵義府城池, 舊志, 周圍羅山帶水險峻. 天成, 設關爲守, 便爲城郭. 明萬曆庚子, 始建石城, 西南依山巔, 無濠, 東北臨溪爲濠, 高二丈, 廣九百五十丈四尺, 門四.【東, 西, 南, 北.】遵義縣附郭.

■ 151 동천주(潼川州)³⁰³ 성지

석성이다. 성의 둘레는 9리 남짓인데 마치 뱀이 두르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서천의 귀성과 마주보고 있다. 명 순천(1457-1461)과 성화(1465-1487) 연간에 지주 담도생(譚道生)과 장용(蔣容)이 이어서 수축했다. 높이는 1장 6척이고 해자의 너비는 4장이다. 서쪽의 시냇물을 끌어서 물을 댔다. 또 성의 동쪽에 둑 3,000여 장을 쌓아서 수해를 막았다. 가정 연간(1208-1224) 지주 조덕굉(趙德宏)이 돌로 쌓았다. 문은 4개이다.【동류, 통축, 남훈, 천북문이다.】

潼川州城池, 石城, 周九里有奇, 狀若蛇盤, 與西川龜城對峙. 明天順成化間, 知州譚道生, 蔣容, 相繼修築, 高一丈六尺, 池闊四丈, 引西溪水注之, 又於城東

302 준의부(遵義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의 북부에 있는 쑤이시[遵義市]이다.

303 동천주(潼川州) : 현재 중국 쓰촨성의 서북부에 있는 멌양시[綿陽市]에 속한 싰타이현[三臺縣]이다.

築堤三千餘丈, 以禦水患. 嘉靖中, 知州趙德宏砌以石, 門四.【曰東流, 曰通蜀, 曰南薰, 曰川北.】

■ 152 가정주(嘉定州)³⁰⁴ 성지

성은 서북은 산에 의지하고, 동남은 하천과 가깝다. 명 지주 단감(段鑑), 위한(魏翰)이 돌독으로 막았다. 정덕 연간(1506~1521)에 호준(胡準)이 다시 땅을 팠는데 깊이가 8척으로 돌로 쌓았으며 두께는 그와 같다. 잣나무를 엮어 목책을 만들어서 돌에 붙였다. 동쪽 성의 높이는 1장 4척이고 남쪽 성의 높이는 1장 6척이며 성의 둘레는 2,000여 장이다.

嘉定州城池, 城西北依山, 東南臨河, 明知州段鑑魏翰, 捍以石堤. 正德中, 胡準復掘地, 深八尺砌石, 厚如之, 編栢爲柵, 以附石, 東城高一丈四尺, 南城高一丈六尺, 周二千餘丈.

■ 153 노주(瀘州)³⁰⁵ 성지

송 정화 연간(1111~1117) 손의수(孫義叟)가 수(帥)가 되어 처음으로 토성을 쌓았다. 명 홍무(1368~1389) 초에 도지휘 마엽망(馬葉望)이 아뢰어서 위치(衛治)를 세우고 지휘 황보림(皇甫霖)에게 명령하여 옛 성지를 이용해 석성을 쌓도록 하였다. 성의 둘레는 1,242장이고 높이는 1장 5척이다. 홍치(1488~1505) 초에 병비 나안(羅安),³⁰⁶ 지주 하륜(何綸)이 터를 넓혀 층층 누각을 더 세웠다. 융경 연간(1567~1571)에 병비 전용필(田應弼)이 증축하였다. 문은 4개이다.【인빈, 진원, 공극, 보성문이다.】

瀘州城池, 宋政和中, 孫義叟爲帥, 始築土城. 明洪武初, 都指揮馬葉望奏開衛治, 令指揮皇甫霖, 仍舊址築石城. 周一千二百四十二丈, 高一丈五尺. 弘治初, 兵備羅安, 知州何綸拓基, 增建層樓. 隆慶中, 兵備田應弼增築, 門四.【曰寅賓, 曰鎮遠, 曰拱極, 曰寶成.】

304 가정주(嘉定州) : 현재 중국 쓰촨성의 서남부에 있는 러산시[樂山市]이다.

305 노주(瀘州) : 현재 중국 쓰촨성의 남부에 있는 루저우시[瀘州市]이다.

306 나안(羅安) : 1439~1508. 명 대 호광(湖廣) 익양(益陽) 출신이다. 자는 시태(時泰)고, 호는 남주(南洲)이다. 호부주사(戶部主事), 산동첨사(山東僉事), 사천부사(四川副使), 강서안찰사(江西按察使), 귀주참정(貴州參政)을 역임하였다.

■ 154 아주(雅州)³⁰⁷ 성지

석성이다. 명 홍무(1368~1389) 초에 천호 여자정(余子禎)이 수축했다. 둘레는 5리이고 문은 4개이다. 성의 외부는 해자로 둘러싸였다.

雅州城池, 石城. 明洪武初, 千戶余子禎修築, 周五里, 門四, 外環以濠.

■ 155 미주(眉州)³⁰⁸ 성지

석성이다. 성의 둘레는 1,865장이다. 산음의 장섭(章攝)이 미주를 지킬 때 쌓은 것이다. 둘레는 8리 남짓이다. 명 성화 연간(1465~1487) 지주 허인(許仁)이 돌로 담을 쌓고 해자를 둘러싸였다. 아울러 4개의 문을 신설했다.

眉州城池, 石城. 周圍一千八百六十五丈. 山陰章攝, 守眉州所築. 周八里有奇. 明成化中, 知州許仁砌垣, 疏濠, 并新四門.

■ 156 공주(邛州)³⁰⁹ 성지

명 성화(1465~1487) 연간에 지현 조예(姚澧)가 흙으로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1,410장이고, 높이는 1장 5척이며 너비는 8척이다. 해자의 너비는 1장 5척이며 문이 4개이고 누가 있다. 1511년(조선 중종 6, 명 정덕 6) 첨사 노익(盧翊)과 지주 이정조(李廷照)가 돌로 성을 감싸서 더욱 견고하게 했다.

邛州城池, 明成化中, 知縣姚澧築土城, 周一千四百一十丈, 高一丈五尺, 闊八尺, 濠闊一丈五尺, 門四有樓. 正德六年, 僉事盧翊, 知州李廷照包石城以益固.

■ 157 광주부(廣州府)³¹⁰ 성지

주(周) 대 난왕 초에 월인 공사우(公師隅)³¹¹가 월의 재상이 되어 남해를 헤아려

307 아주(雅州) : 현재 중국 쓰촨성의 중부에 있는 야안시[雅安市]이다.

308 미주(眉州) : 현재 중국 쓰촨성의 중부에 있는 메이산시[眉山市]이다.

309 공주(邛州) : 현재 중국 쓰촨성의 성도인 성도시[成都市]에 속한 총라이시[邛崃市]이다.

310 광주부(廣州府) : 현재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성도(省都)인 광저우시[廣州市]에 있었던 부(府)로 주강 삼각주(珠江三角洲) 대부분이 관할구역이었다.

311 공사우(公師隅) : B.C.?-?. 월 출신 인물로 B.C. 312년(주 은왕 3) 4월에 주 난왕에게 월왕의 명령으로 배 300, 화살

서 축성하고, 남무라고 불렀다. 임효(任囂)와 조타(趙佗)가 잇달아 증축했는데 이것이 월성이다. 성의 둘레는 10리이다. 한 대에 번우성(番禺城)을 군에서 남쪽 50리에 쌓았는데, 서쪽으로 장가강(牂牁江)을 접하며 자사가 다스렸다. 210년(후한 건안 15)에 자사 보졸(步騭)이 번산의 북쪽을 개척하여 넓혔다. 옛 월성을 확장하여 쌓으면서 견고하게 했고, 다시 치소를 이곳으로 옮겼다. 당 천우 연간(904~907) 말기에 정해군절도사 유은(劉隱)이 남성이 너무 좁다고 여겨 평운산을 깎아서 넓혔다. 1044년(고려 정종 10, 북송 경력 4)에 경략사 위관(魏瓘)이 자성을 증축하였는데 성의 둘레는 5리이다. 동서남쪽에 웅성문을 두었다. 【남쪽은 진안, 서쪽은 조천, 동남쪽은 보운, 동쪽은 행춘문, 서남쪽은 소파문이었는데 다시 조천문을 유년으로 보운문을 충소라고 고쳤다.】 희령 연간(1068~1077) 초기에 경략사 여거간(呂居簡)이 옛날 월성 터 위에 축성할 것을 다시 의논하였는데, 그 일을 영양에 문서를 전해서 알렸다. 전운사 왕정이 낙성하였다. 길이는 4리이고 문은 3개다. 【남쪽은 영훈, 북쪽은 공신, 동쪽은 진동문이다.】 자성과 행춘문이 서로 접했는데 이것을 동성으로 삼았다. 1071년(고려 문종 25, 북송 희령 4) 경략사 정사맹(程師孟)이 서성을 쌓았다. 둘레는 13리이고, 성의 너비는 180보이고 높이는 2장 4척이다. 문 7개를 만들었다. 【동쪽은 항해, 남쪽은 조종·선리·부남재, 서쪽은 금숙·화풍, 북쪽은 취일문이다.】 나중에 취일문을 조천문으로 바꿨다. 1210년(고려 희종 6, 북송 가정 3)에 경략사 진현(陳峴)이 주성의 남쪽에 안시성을 쌓았는데 남동서의 길이가 140장이다. 위에 높은 누각을 세우고 【동쪽은 번우도회, 서쪽은 남해승관이다.】 적대를 이었다. 경략사 사자강(謝子疆)이 크게 성벽을 수리하고, 성 밖에 양마장을 쌓았는데 높이는 6척 정도이다. 안시성 아래 틈 사이의 흙에 나무를 심어서 목책을 만들었는데 바다에까지 뻗었다. 1380년(고려 우왕 6, 명 홍무 13)에 영가후 주량조(朱亮祖)가 상소로 청하여 3개의 성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들었다. 동북쪽의 산기슭을 개척하여 넓혔다. 성의 둘레가 3,796장으로 계산하면 150,192보이고 높이는 2장 8척이다. 위의 너비는 2장이고, 아래의 너비는 3장 5척이다. 문 7개를 만들었다. 【정북, 약간 북쪽은 소북, 정동, 정서, 정남, 약간 동쪽은 정해, 약간 서쪽은 귀덕문이다.】 성루 7개, 적루 7좌, 경포 97좌, 치첩 10,700개이다. 북성 근처에 월수산이 있다. 산의 좌측에 5층 망루가 있

500만, 코볼소 불, 상아를 바쳤다. (『죽서기년』, 『주기(周紀)』, 은왕.)

는데 이름은 진해이다. 북성 밖에 월왕대를 만들었다. 1466년(조선 세조 12, 명 성화 2)에 도어사 한옹(韓雍)이 남성과 귀덕 2개 문에 월성을 쌓았다. 각각 길이가 38장이다. 위에는 층루를 세우고, 아래는 문 3개를 설치했다. 1534년(조선 중종 29, 명 가정 13)에 정해문에 월성을 증축했다. 1599년(조선 선조 32, 명 만력 27) 정남문에서 동쪽까지 문은 하나인데 ‘문명(文明)’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성의 해자는 대중상부³¹² 연간(1008~1016)에 소엽(邵曄)이 광주(廣州)를 다스리면서 처음 도랑을 파서 해자를 만들었다. 경력 연간(1041~1048)에 위관(魏瓘)이 다시 광주를 다스리면서 해자를 파서 성을 둘러쌌다. 희령 연간(1068~1077) 초기에 왕정(王靖)이 동성을 축성하고 성 밖에 다시 해자를 팠다. 1210년(고려 희종 6, 송 가정 3)에 경략사 진현(陳峴)이 거듭 준설했는데, 길이가 1,600장이다. 동서에 갑문을 설치했다. 남쪽 해자는 성루의 아래 끝에 있어 갑문으로써 조수의 오르내림과 같이하니 옛 서오(西隴)이다. 경덕 연간(1004~1007)에 경략사 고신(高紳)이 이곳을 열어 성안으로 모든 도랑물을 들여 해월루까지 가는데 갑문까지 이르는 길이는 100장이고 너비는 10장이다. 갑문에서 바다까지의 길이가 75장이다. 청영(淸永)의 해자는 행춘문의 혈성에 있으며 모두 바다에 도달하니 옛 동오(東澳)이다. 길이는 204장이고 너비는 10장이다. 동쪽 해자는 군의 동쪽에 있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에 영가후 주량조가 상소로 청하여 3개의 성을 연결하여 1개로 하고, 옛 것을 이용해 해자를 준설했는데 둘레는 1,356장 5척이다. 다만 북쪽 한 면이 산에 등져서 해자를 파지 않았다. 서쪽 해자는 군성의 서쪽에 있다. 송 대 경략사 진현이 해자를 파서 강과 통하게 했고, 동서에 2개의 갑문을 함께 세웠다. 원 지원 연간(1264~1294)이 되어서야 선위사 세걸반(世傑班)이 처음 나무다리를 세웠다. 서쪽 제방을 넘어 통하여 왕래하게 되었다. 이 다리의 명칭은 태평교이다. 1472년(조선 성종 3, 명 성화 8)에 도어사 한옹(韓雍)이 돌로 다시 쌓았다. 생각해보면 성이 옛 도랑과 만나는데 6가지 갈래가 있다. 도랑은 해자와 통하고, 해자는 바다와 통한다. 갑문은 옛 성 동서쪽 안시성에 해자 입구에 있다. 1210년(고려 희종 6, 송 가정 3)에 경략사 진현이 이곳에 만들었다. 1230년(고려 고종 17, 송 소정 3)에 경략사 방대중(方大琮)이 증축했는데 양쪽 해안에 벽돌로 쌓았다. 각각의 길이는 20여 장이고 가운데에 만든 중갑(重閘)의 너비는 한 장 남짓이

312 대중상부(大中祥符) : 북송 진종이 세번째 사용한 연호이다.

다. 1380년(고려 우왕 6, 명 홍무 13)에 벽돌로 해자 남쪽의 옛 수관을 고쳤는데 넓이가 6척이었다. 수관 아래에는 돌과 철로 된 기둥의 갑문을 양면에서 사용하여 엄히 방어했다. 1647년(조선 인조 25, 청 순치 4)에 총독 동양갑(修養甲)이 동쪽과 서쪽에 2개의 익성을 쌓았다. 각각의 길이가 20여 장인데 곧바로 바다 근방까지 이르렀다. 두께는 1장 5척이고 각각 문 1개를 만들었다. 1650년(조선 효종 원년, 청 순치 7)에 문 명문을 막아서 통행하지 못했는데 1669년(숙종 25, 청 강희 8)에서야 다시 열었다. 남해와 번우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廣州府城池, 周赧王初, 粵人公師隅爲越相, 度南海築城, 號曰南武. 任囂, 趙佗, 相繼增築之. 是爲越城. 周迴十里. 漢築番禺城於郡南五十里, 西接牂牁江, 爲刺史治. 建安十五年, 刺史步騭關番山之北, 廣故越城築而固之, 復徙治焉. 唐天祐末, 靖海軍節度使劉隱, 以南城尙隘, 鑿平禺山以益之. 宋慶曆四年, 經略使魏瓘加築子城, 周五里, 東西南有甕城門.【南曰鎮安, 西曰朝天, 東南曰步雲, 東曰行春, 西南曰素波. 又改朝天爲有年, 步雲爲冲霄】. 熙寧初, 經略使呂居簡, 復謀築古越城遺址上, 其事會移滎陽詔, 轉運使王靖, 成之袤四里, 爲三門.【南曰迎薰, 北曰拱辰, 東曰震東.】與子城, 行春門相接, 是爲東城. 熙寧四年, 經略使程師孟築西城, 周十三里, 城廣一百八十步, 高二丈四尺, 爲門七.【東曰航海, 南曰朝宗, 曰善利, 曰阜南財, 西曰金肅, 曰和豐, 北曰就日.】後改就日爲朝天. 嘉定三年, 經略使陳峴築雁翅城於州城南, 東西長一百四十丈, 上建高樓.【東曰番禺都會, 西曰南海勝觀.】聯以敵臺. 經略使謝子疆, 大修城壁, 城外築羊馬牆, 高六尺許. 雁翅城下, 隙壤植木爲柵, 翼而至海. 明洪武十三年, 永嘉侯朱亮祖疏請連三城爲一, 關東北山麓以廣之, 城周三千七百九十六丈, 計一十五萬一百九十二步, 高二丈八尺, 上廣二丈, 下廣三丈五尺, 爲門七.【曰正北, 稍東曰小北, 曰正東, 曰正西, 曰正南, 稍東曰定海, 稍西曰歸德.】城樓七, 敵樓七, 警鋪九十七, 雉堞一萬七百. 北城上有粵秀山. 山左有樓五層名鎮海, 北城外爲粵王臺. 成化二年, 都御史韓雍築南城, 歸德二門月城, 各延三十八丈. 上建層樓, 下關三門. 嘉靖十三年, 增築定海門月城. 萬曆二十七年, 于正南門迤東關門一, 顏曰文明. 其池大中祥符中, 邵曄知廣州, 始鑿濠爲池. 慶曆中, 魏瓘再知廣州, 環城浚池. 熙寧初, 王靖, 成東城復濠其外. 嘉定三年, 經略使陳峴重濬之, 長一千六百

丈. 東西置閘, 南濠在城樓下限, 以閘門與潮上下, 古西隩也. 景德年間, 經略使高紳, 所闢納城中諸渠水, 以達于海粵樓至閘門, 長一百丈, 闊十丈. 自閘至海, 長七十五丈. 清永濠在行春門穴城, 而達諸海, 古東澳也. 長二百有四丈廣十丈, 東濠在郡東. 洪武三年, 永嘉侯朱亮祖, 上疏請, 連三城爲一, 因舊濬濠, 周一千三百五十六丈五尺, 惟北一面, 枕山未浚, 西濠在郡城西. 宋經略使陳峴浚濠, 通江建東西二閘. 及元至元中, 宣慰使世傑班, 始建木橋, 跨西壩以通往來名曰太平橋. 成化八年, 都御史韓雍, 改砌以石. 按會城古渠有六脈, 渠通濠, 濠通海水, 閘在舊城東西, 雁翅城濠口, 嘉定三年, 經略使陳峴所創, 紹定三年, 經略使方大琮增築, 兩岸石陂, 各長二十餘丈, 中爲重閘闊丈餘, 洪武十三年, 改陂濠南舊水關, 廣六尺, 關下, 鐵石柱閘, 凡用兩重以嚴防禦. 順治四年, 總督佟養甲築東西二翼城, 各長二十餘丈, 直至海旁, 厚一丈五尺, 各爲門一. 順治七年, 塞文明門不行. 至康熙八年復開. 南海番禺二縣俱附郭.

■ 158 소주부(韶州府)³¹³ 성지

성의 둘레는 9리 30보이고, 높이는 2장 5척이고 터의 너비는 2장인데 위의 너비는 1장이다. 오(吳) 말에 비로소 정수(漬水)의 동편 연화령 아래에 쌓았다. 당 자사 등문진(鄧文進)이 무수(武水) 서남쪽까지 옮겼다. 후량(後梁) 건화(911~914) 초 군녹사 이광책(李光冊)이 무수 동쪽까지 옮겼다. 926년(고려 태조 9, 남한 백룡 2)에 자사 양배(梁裒)가 처음 주성(州城)을 쌓았다. 송 황우(1049~1053)에서 소희(1190~1194) 연간 사이에 적루 98좌를 증수하였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 지부 서진(徐眞)이 성 뒤에 문 5개를 세웠다. 【웅강, 건, 동, 남, 서문이다.】 서문은 바로 옛날의 망경루(望京樓)이다. 1463년(조선 세조 9, 명 천순 7) 참정 유위(劉煒)와 도지휘 배충중(裴忠重)이 5개 문의 성루를 다시 만들었다. 1468년(조선 세조 14, 명 성화 4) 도어사 한웅(韓雍)³¹⁴이 관루(串樓) 1,153개와 적루 26좌를 창건했다. 1541년(조선 중종 36, 가정 20) 지부 부석(符錫)이 관루 350좌 및 문 5개에 큰 누를 증수하였다. 【동쪽은 문

313 소주부(韶州府) : 현재 중국 광둥성의 북부에 있는 사오관시[韶關市]이다.

314 한웅(韓雍) : 1422~1478. 자는 영희(永熙)이고 장주(長洲, 지금의 장쑤성 우저우시) 출신이다. 영종(英宗) 정통(正統) 7년(1442)에 진사 급제하여 어사, 광동부사(廣東副使)를 역임했다. 대종(代宗) 경태(景泰) 3년(1452)에 우첨도어사에 임명되어 강서(江西) 순무(巡撫)를 대리하고 등왕각을 중건했다.

소, 서쪽은 진원, 신개는 망경, 상강문은 영은, 남쪽은 구민이다.】해자는 동남쪽으로 601장이고, 서쪽은 무수(武水)를 접하고 있어서 해자는 없고, 북쪽은 216장, 동북쪽은 404장이다. 1624년(조선 인조 2, 명 천계 4) 지부 오조원이 별도로 새로운 동문을 열었다. 1636년(조선 인조 14, 명 숭정 9)에 수십 걸음씩 점점 옮겨가 손방(巽方, 동남쪽)의 물이 드러나지 않게 반지(泮池)와 통하게 했다. 곡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韶州府城池, 周迴九里三十步, 高二丈五尺, 基廣二丈, 上廣一丈. 吳末, 始築于湏水東蓮花嶺下. 唐刺史鄧文進移于武水西南. 梁乾化初, 郡錄事李光冊移於武水東. 南漢白龍二年, 刺史梁襲始築州城. 宋皇祐紹熙間, 增修敵樓九十有八. 明洪武三年, 知府徐眞後建五門.【曰湘江, 曰乾, 曰東, 曰南, 曰西.】西門, 即古望京樓也. 天順七年, 參政劉煒, 都指揮裴忠重, 作五門城樓. 成化四年, 都御史韓雍創串樓一千一百五十三, 敵樓二十六. 嘉靖二十年, 知府符錫重修串樓三百五十, 及五門大樓.【東曰聞韶, 西曰鎮遠, 新開曰望京, 湘江門曰迎恩, 南曰阜民.】其池東南六百一丈, 西臨武水無濠, 北二百十六丈, 東北四百四丈. 天啓四年, 知府吳兆元, 另開新東門. 崇禎九年, 稍徙去數十武, 令巽水隱通泮池. 曲江縣附郭.

■ 159 남웅부(南雄府)³¹⁵ 성지

옛 주성(州城)은 겨우 부치(府治)를 둘러쌀 정도였다. 1052년(고려 문종 6, 송 황우 4)에 지주 소발(蕭渤)이 개척하였다. 문은 3개이다. 【동쪽은 춘희, 서쪽은 능강, 남쪽은 정평문이다.】명 초 진수지휘 왕흥(王興)이 다시 문 3개를 수리하여 고쳤는데 동·서·남쪽의 것을 두성(斗城)이라 불렀다. 외곽 340장을 증축했다. 높이는 1장 남짓인데 두께도 거의 같다. 동·남·북쪽에 각각 작은 문을 만들었다. 1466년(조선 세조 12, 명 헌종 2) 순무도어사 한옹(韓雍)이 지부 나준(羅俊)에게 격문을 보내 벽돌로 쌓게 했다. 1469년(조선 예종 원년, 명 헌종 5)에 첨사 진귀(陳貴)는 소북문에서 우역담(牛輓潭)까지 토성 300여 장을 쌓았다. 하천변에는 목책을 만들어 견고하게 했

315 남웅부(南雄府) : 현재 중국 광둥성의 북부에 있는 사오관시에 속한 난웅시[南雄市]이다.

다. 1508년(조선 중종 3, 명 무종 3)에 지부 강박(江璞)이 도어사 임연선(林延選)에게 청하여 목책을 벽돌로 바꾸자고 상주했다. 1514년(조선 중종 9, 명 무종 9) 지부 이길(李吉)이 여장 6척을 증축했다. 그 동쪽문은 빈양문인데 신성(新城)이라고 한다. 그 해자는 넓이가 1장이고, 깊이도 같다. 보창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南雄府城池, 舊州³¹⁶城僅環府治, 宋皇祐壬辰, 知州蕭渤闢之, 爲門三。【東曰春熙, 西曰凌江, 南曰政平。】明初, 鎮守指揮王興修改三門, 爲東西南謂之斗城, 增築外郭三百四十丈, 崇一丈有奇, 厚稱之。東南北各開小門。成化丙戌, 巡撫都御史韓雍, 檄知府羅俊石整之。己丑, 僉事陳貴, 自小北門至牛軛潭, 築土城三百餘丈, 沿河固以木柵。正德戊辰, 知府江璞請於都御史林廷選, 奏以瓴甌易之。甲戌, 知府李吉增女牆六尺, 門其東曰賓陽, 謂之新城, 其池廣一丈, 深亦如之。保昌縣附郭。

160 해주부(惠州府)³¹⁷ 성지

송·원대의 옛터는 매우 좁았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 지부 만적(萬迪)이 천호 주영(朱永)을 인솔하여 확장했다. 높이는 1장 8척이고, 성의 둘레는 1,255장이다. 문은 7개다.【혜양, 합강, 동승, 서호, 조경, 횡강, 회원문이다.】문에 적루가 있다. 1556년(조선 명종 11, 명 가정 35) 지부 요양필(姚良弼)과 통판 오진(吳晉)이 증축했다. 군성은 수문에서 시작하여 소서문 도독방(都督坊)에 이르러 그친다. 길이는 308장이다. 민성은 본방에서 시작하여 무안의 제방에 이르러 그치는데 길이가 357장이다. 각각 높이 3척을 증축했다.

惠州府城池, 宋元舊基甚隘. 明洪武三年, 知府萬迪率千戶朱永拓之, 高一丈八尺, 周圍一千二百五十五丈, 門七。【曰惠陽, 曰合江, 曰東昇, 曰西湖, 曰朝京, 曰橫岡, 曰會源。】上爲敵樓. 嘉靖三十五年, 知府姚良弼, 通判吳晉, 增築之. 軍城自水門起, 至小西門都督坊止, 長三百八丈, 民城自本坊起, 至武安坊止, 長百五十七丈, 各增高三尺.

316 舊州 : 저본에는 없는데 『흙정고금도서집성』 「방여휘편 직방전」 제1321권, 남양부부회고1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17 해주부(惠州府) : 현재 중국 광둥성의 동남부에 있는 후이저우시[惠州市]이다.

■ 161 조주부(潮州府)³¹⁸ 성지

옛날 자성이 있었다. 1144년(고려 인종 22, 남송 소흥 14) 지주 이광문(李廣文)이 옛터를 따라 벽돌로 쌓았는데 문 11개를 만들었다. 원 대덕 연간(1297~1307)에 총관 대중합리(大中恰里)가 동성의 빈계(濱溪)를 보수하고는 제성이라 했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 지위 유양보(俞良輔)가 그 서남쪽에 돌로 축성하고는 11개였던 문을 7개로 바꾸고 봉성(鳳城)이라 했다. 성의 높이는 2장 5척이고 터의 너비는 2장 5척이다. 성면은 1장 5척, 둘레는 1,763장이다. 동쪽으로 시내가 있으니 광제와 상수라고 한다. 문 좌측에 함동이 있는데 죽목(竹木), 혹은 하수(下水)라고 한다. 남쪽은 남문이고 앞에 함구(涵溝)가 있다. 서쪽은 안정문(安定門)이며 왼쪽에 수관 1좌가 있다. 북쪽은 북문인데 문마다 누가 있고 그 안에 병마사를 두었다.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을 두었다. 지금 의창을 증축하고 외부를 월성으로 둘렀다. 성에 적대 44좌, 와포 67칸, 치첩 2,932개가 있다. 1596년(조선 선조 29, 명 만력 24) 병비 왕일건(王一乾)이 외성의 마로를 벽돌로 수축했다. 그 해자의 너비는 7장 남짓이며 크기는 1,200여장이다. 서남북을 둘러서 3개 면을 합했다. 서호를 삼리계(三利溪)에 연결해서 수관을 두었다. 석교 2곳은 동쪽으로 한강(韓江)과 가깝다. 풍순진성(豐順鎭城)은 명 융경(1567~1572) 초에 축성하고 동관 1원을 두어 진에 주둔시켰다. 뒤에 동관을 그대로 군성에 거쳐하게 하고 파총 1원을 다시 두어 병사를 모집해서 지키게 했다. 해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潮州府城池, 舊有子城. 宋紹興十四年, 知州李廣文, 循舊址整砌爲門十一. 元大德間³¹⁹總管大中恰里, 修東城之濱溪者謂之堤城. 明洪武三年, 指揮俞良輔關, 其西南築砌以石, 改門爲七, 謂之鳳城. 城高二丈五尺, 基闊二丈五尺, 城面一丈五尺, 周圍一千七百六十三丈. 東距溪, 曰廣濟, 曰上水, 門左有涵洞, 曰竹木, 曰下水. 南曰南門, 前有涵溝. 西曰安定門, 左有水關一座. 北曰北門, 門各有樓, 內有兵馬司. 東西南北四門. 今增爲義倉, 外羅以月城. 城有敵臺四十四座, 窩鋪六十七間, 雉堞二千九百三十二. 萬曆二十四年, 兵備王一乾修砌外城馬路, 其

318 조주부(潮州府) : 현재 중국 광둥성의 동부에 있는 차오저우시[潮州市]이다.

319 間 : 저본에는 '門'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교감하였다.

池廣七丈有奇, 延袤一千二百餘丈, 環西南北三面合, 西湖通三利溪有水關, 石橋二所, 惟東枕韓江, 豐順鎮城, 隆慶初築, 設通判一員駐鎮, 後通判仍居郡城, 改設把總一員, 募兵汛守. 海陽縣附郭.

■ 162 조경부(肇慶府)³²⁰ 성지

송 황우 연간(1049~1053)에 처음 자성으로 지어졌다. 1113년(고려 예종 8, 송 휘종 3) 군수 정돈(鄭敦)이 아뢰어 석성으로 쌓았다. 둘레는 871장 높이는 2장 너비는 1장이다. 남쪽은 큰 강이 가깝다. 서남쪽 모서리에서 동남쪽 모서리까지 이르는 3개 면은 해자로 둘러져 있다. 해자의 깊이와 너비는 각각 1장이며 둘레는 458장이다. 문은 4개이다.【동쪽은 송승, 서쪽은 진서, 남쪽은 단계, 북쪽은 조천문이다.】명 홍무(1368~1389) 초기에 천호 곽순(郭純)³²¹이 성 남쪽의 빈강(濱江)에 벽돌로 애(涯)를 쌓고, 돌로 평성의 터를 높였다. 천순 연간(1457~1464)에 지부 황유(黃瑜)가 해자를 파고 목책을 세웠다. 외부에는 대나무 목책[刺竹]을 심었고, 해자 안쪽으로는 적루를 돌렸다. 1465년(조선 세조 11, 명 성화 원년) 성의 위쪽에 관루 810칸을 더하였다. 1467년(성화 3)에는 피운루를 성의 서북쪽 옛터에 세웠다. 1468년에 남문의 누각을 세웠다. 1469년(성화 5)에 동서 두 개의 문루와 네 모퉁이에 각루를 세웠다. 참장 양광(楊廣)이 북문에 누각을 세웠다. 1474년(성화 10) 지부 이수(李璲)가 피운루가 해자에 가깝기 때문에 성을 70여 장 증축하였는데, 두께가 1장이며 높이는 옛 성과 같다. 문 4개를 바꿨다.【동쪽은 경운, 서쪽은 경성, 남쪽은 남훈, 북쪽은 조천문이다.】1528년(조선 중종 23, 명 가정 7) 병비첨사 이향(李香)과 지부 정장(鄭璋)이 관루를 철거하고 치첩을 보수하였다. 그 해자는 서문에서 성 외부를 둘러서 북쪽에 이른다. 각각 깊이는 1장이고 너비는 10장이다. 둘레는 480장이다. 북문교를 지나 동문에 이르는 것을 외호라 한다. 서문의 성내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시작되어 도랑[竇]을 통과해 남문가를 지나 청군관 뒤에 이르는 것을 상호라고 한다. 다시 도랑을 통과하여 당기두가를 지나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을 하호라고 한다. 하호는 도랑을

³²⁰ 조경부(肇慶府) : 현재 중국 광둥성의 중앙부에 있는 자오칭시[肇慶市]이다.

³²¹ 곽순(郭純) : 1370~1444. 명 절강(浙江) 영가(永嘉) 출신이다. 호는 박재(朴齋)로 산수화에 능했다. 영선소승(營繕所丞), 함문사(閤門使), 내공봉(內供奉)을 역임했다.

통과하여 성 밖으로 흘러나가 외호와 접해서 강에 이른다. 서문의 석취(石嘴)로 강물을 끌어 들인 것을 서호라고 한다. 배를 저어 조수를 피하던 고오(古澳)가 동문 밖에 있다. 동문에서 강 부두가 시작되어 천령사 앞에 이르러 내호와 만나고 강물에 도달하는데 그곳이 바로 옛터이며 또한 외호라고 한다. 성 북쪽의 외호는 옛날에 서문을 따라 바깥쪽으로 피운루의 뒤를 감싸고 동쪽으로 돌았다. 1609년(조선 광해군 원년, 명 만력 37) 지부 진렴(陳濂)이 부치(府治)가 서쪽에서부터 용맥(龍脉)이 온다고 하여 쌓아 막는 공사를 하게하여 북호를 두 개로 나누었다. 성 북쪽 내호에 원래 감군의 길이 있었다. 왼쪽 수도[左渠]는 오래되어 진흙으로 막혔다. 1610년(조선 광해군 2, 명 만력 38) 지부 강중남(江中楠)이 이를 수축하고 준설했다. 1629년(조선 인조 7, 명 숭정 2) 지현 장명희(張明熙)가 다시 이것을 준설했다. 고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肇慶府城池, 宋皇祐中始築子城. 政和癸巳, 郡守鄭敦義築石城. 周八百七十一丈, 高二丈, 闊一丈. 南臨大江. 西南隅至東南隅, 三面遶以壕, 壕深闊各一丈, 周四百五十八丈, 四門.【東宋崇, 西鎮西, 南端溪, 北朝天.】明洪武初, 千戶郭純, 以城南濱江盤涯, 以石高平城址. 天順間, 知府黃瑜浚壕立柵, 外樹刺竹, 內環敵樓. 成化元年, 增城上串樓八百一十間.³²² 三年, 建披雲樓於城上西北舊址. 四年, 建南門樓. 五年, 建東西二門樓及四隅角樓. 參將楊廣建北門樓. 十年, 知府李遂以披雲樓近壕, 增城七十餘丈, 厚一丈, 高并舊城, 改四門.【東慶雲, 西景星, 南南薰, 北朝天.】嘉靖七年, 兵備僉事李香知府鄭璋, 撤串樓修雉堞, 其池自西門城外遶而北, 各深一丈, 闊十丈, 周四百八十丈. 過北門橋, 至東門, 謂之外壕. 自西門城內起小水, 通竇過南門街, 至清軍館後, 謂之上壕. 復通竇, 過塘基頭街 下注, 謂之下壕. 下壕通竇, 出城接外壕達江. 自西門石嘴引江而入, 謂之西壕. 舟楫避濤古澳, 在東門外. 自東門水埠頭起, 至天寧寺前, 接內壕達江, 乃其故址, 亦謂之外壕. 城北外壕, 舊從西門外遶披雲樓後轉東. 萬曆三十七年, 知府陳濂, 以府治龍脈自西來, 命工築塞, 分北壕爲兩截. 城北內壕原有監軍道, 左渠日久淤塞. 三十八年, 知府江中楠修濬. 崇禎二年, 知縣張明熙復濬之. 高要縣附郭.

322 間 : 저본에는 '門'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교감하였다.

■ 163 고주부(高州府)³²³ 성지

당 대에 처음 토성으로 쌓았다. 송, 원 대까지 이 성을 그대로 썼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천호 진부(陳富)·장진(張眞)이 전부 벽돌로 확장하였다. 성의 둘레는 614장, 높이는 1장 4척이다. 위에 누가 있는 문이 5개이다. 【동쪽은 근양, 남쪽은 광제, 서쪽은 통천, 북쪽은 북문과 소서문이다.】 성화 연간(1465~1487)에 지휘 이신(李信)이 4척을 늘렸다. 천호 반영(潘英)이 관루 600개를 창설하였다. 가정 연간(1522~1566) 초기에 지부 장과(莊科)가 처음으로 동쪽에 성곽을 쌓아 읍을 감싸서 학교가 성 안에 들어왔다. 둘레는 자성으로 쌓았다. 1534년(조선 중종 29, 명 가정 13) 참사 황징(黃澄)이 자성을 폐하고 적루 27좌를 만들었다. 만력 연간(1573~1620) 지부 웅정상(熊廷相)이 소서문 바깥에 누 1좌를 세우고 중문(重門)을 더했다. 해자의 깊이는 1장 2척이고 너비는 8척이다. 동남북의 문과 소서문은 모두 같다. 대서문만 장강을 해자로 삼았다. 1467년(조선 세조 13, 명 성화 3) 지부 공용(孔鏞), 수비지휘 구반(歐磐)이 다시 깊게 파내었다. 너비는 3장 깊이는 1장 6척이다. 무명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高州府城池, 唐始築土城, 宋元因之. 明洪武初, 千戶陳富張眞, 俱拓以磚. 周六百十四丈, 高丈四尺, 門五上有樓. 【東近陽, 南廣濟, 西通川, 北北門, 小西門.】 成化間, 指揮李信增四尺. 千戶潘英創串樓六百. 嘉靖初, 知府莊科始廓東城, 包邑庠, 入城中. 周圍築子城. 十三年, 僉事黃澄, 廢子城爲敵樓二十七所. 萬曆間, 知府熊廷相, 於小西門外建樓一座, 加重門. 池深一丈二尺, 闊八尺, 東南北及小西門俱如之, 獨大西門以長江爲壕塹. 成化三年, 知府孔鏞, 守備指揮歐磐復濬之. 廣三丈, 深一丈六尺. 茂名縣附郭.

■ 164 염주부(廉州府)³²⁴ 성지

염강 동쪽에 있다. 송 소성 연간(1094~1098)에 수축했다. 1370년(고려 공민왕 19, 명 홍무 3) 백호 유춘(劉春)이 증축했다. 서쪽 성은 609장 5척이며 이것이 바로 구성

³²³ 고주부(高州府) : 현재 중국 광둥성의 서남부에 있는 마오밍시[茂名市]에 속한 가오저우시[高州市]이다.

³²⁴ 염주부(廉州府) : 현재 중국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의 남부에 있는 베이하이시[北海市]에 속한 허무현[合浦縣]이다.

이다. 1395년(조선 태조 4, 홍무 28)에 지휘 손전(孫全)이 성을 다시 동쪽으로 옮겼는데 150장이고 토성 418장을 증축하여 넓혔다. 선덕 연간에 지휘 왕빈(王斌)이 벽돌로 쌓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성이다. 문이 3개이다.【동은 조천, 서는 금숙, 남은 정해문이다.】 병마사청을 따라 그 외부에 해자를 팠는데 1,051장이다. 1466년(조선 세조 12, 명 성화 2) 지부 임금(林錦)이 옛 성을 146장 증축했다. 적루와 관루 896, 남북의 누각과 초루 각각 5개이다. 서문에 월성을 쌓았다. 1523년(조선 중종 18, 가정 2) 지부 한난(韓鸞)이 다시 높이 3척을 증축하였다. 1542년(조선 중종 37, 가정 21)에 지부 첨문광(詹文光)이 관루를 철거하고 치첩을 쌓아서 양성(陽城)으로 삼았다. 1555년(조선 명종 10, 가정 34) 지부 하어(何御)가 동쪽과 남쪽 2개의 문에 월성을 증설하였다. 1568년(조선 선조 원년, 용경 2) 동지 창응회(昌應會)가 적대 9개를 세웠다. 1579년(조선 선조 12, 만력 7)에 지부 주종무(周宗武)가 낡은 성을 보수하고 높이 와포 106개를 설치했다. 강희 연간(1661~1722) 초년에야 지부 서화(徐化)가 백성들의 힘을 빌려 부(府)를 수리한 후에, 성루와 문루 4좌, 동서남쪽에 월성을 짓고, 소루 3좌, 관루 24칸, 와포 63칸, 돈대 4칸, 부 뒤에 루 1칸, 망돈 100개, 필가타 1,669개를 만들었다. 옛 제도를 고찰해보니 성 담의 둘레는 802장이며, 높이는 3장 2척이고, 두께는 1장 5척이다. 해자의 둘레는 1도이고, 길이가 1,051장이며, 넓이가 2장 5척이고, 깊이는 6,7척으로 고르지는 않다. 합포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廉州府城池, 在廉江東. 宋紹聖間修. 明洪武三年, 百戶劉春增築, 西城六百九丈五尺, 是爲舊城. 二十八年, 指揮孫全, 復移東, 城百五十丈, 增廣土城四百十八丈. 宣德間, 指揮王斌, 磚甃之, 是爲新城, 門三.【東曰朝天, 西曰金肅, 南曰定海.】列兵馬司廳, 其外浚壕, 一千五十一丈. 成化二年, 知府林錦, 增拓舊城百四十六丈. 敵樓串樓八百九十有六, 南北樓, 譙樓各五, 築西門月城. 嘉靖二年, 知府韓鸞, 復增, 高三尺. 二十一年, 知府詹文光, 去串樓, 築雉堞, 爲陽城. 三十四年, 知府何御, 增設東南二門月城. 隆慶二年, 同知昌應會, 建敵臺九. 萬曆己卯, 知府周宗武, 補敵增高, 置窩鋪一百零六. 至康熙初年, 知府徐化, 民捐修府後, 城樓及門樓四座, 東西南月城, 小樓三座, 串樓二十四間, 窩鋪六十三間, 墩臺四間, 府後樓一間, 望墩一百箇, 筆架垛一千六百六十九箇, 考舊制城垣周圍八百零二丈, 高三丈二尺, 厚一丈五尺, 池周圍一道長一千零五十一丈, 闊二丈五尺, 深六七尺不等. 合浦縣附郭.

■ 165 뇌주부(雷州府)³²⁵ 성지

남한 건형 연간(917~925) 초기에 축성되었다. 한 건무 연간(25~56) 복파장군 마원(馬援)³²⁶이 처음 서문현에 두었다. 양 대에 와서 남합주(南合州)로 고쳤고, 당 대에는 또 뇌주로 고쳤으나 옮길지는 정하지 않았다. 남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이곳에 성을 세웠다. 996년(고려 성종 15, 송 지도 2) 군수 양유가 새롭게 처음으로 자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1리이다. 1134년(고려 인종 12, 남송 소흥 4) 군수 왕적(王勣)이 다시 외성을 쌓고 여장을 지었다. 4개의 문을 열었다. 이후 황훈(黃勳)이 벽돌로 고쳐 쌓았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명 홍무 7) 지휘 장병이(張秉彝), 주영(朱永), 주연(周淵), 통판 이희조(李希祖)가 협의해서 수축하였는데 문은 그대로 4개를 열었다. 【동쪽은 진양, 서쪽은 중화, 남쪽은 광운, 북쪽은 조천문이다.】 각각 이중의 높은 전각과 경포를 만들었다. 해자의 너비는 6장 5척이고 깊이는 1장이다. 이 해자는 밖으로 성 동쪽에서 서남쪽 모퉁이까지 두르고 있는데 다만 성 남쪽은 옛날에 해자를 만들지 않았다. 해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雷州府城池，築於南漢乾亨間初。漢建武中，伏波將軍馬援始置徐聞縣。梁改南合州，唐又改雷州，遷徙未定。至南漢始建於此。宋至道二年，郡守楊維新始築子城。周圍一里。紹興四年，郡守王勣復築外城作女牆，闢四門。後黃勳改爲磚壁。明洪武七年，指揮張秉彝，朱永，周淵，通判李希祖，協謀修築仍開四門。【東曰鎮洋，西曰中和，南曰廣運，北曰朝天。】各建重樓警鋪，池廣六丈五尺，深一丈。外自城東環於西南隅，惟城南舊無開浚。海康縣附郭。

■ 166 경주부(瓊州府)³²⁷ 성지

한 대에 주애군이다. 성은 담도의 동쪽에 있다. 당 대에 경주성은 백석도(白石都)에 있었다. 972년(고려 광종 23, 송 개보 5)에 지금 다스리는 곳으로 옮겨 토성을 겨우

325 뇌주부(雷州府) : 현재 중국 광둥성의 서남부에 있는 잔장시[湛江市]에 속한 레이저우시[雷州市]이다.

326 마원(馬援) : B.C. 14~A.D.49. 자는 문연(文淵)이고 산시성 심평현(興平縣) 마오링[茂陵] 출신이다. 전한(前漢) 대 명문가로 왕망(王莽)의 부름을 받고 한중랑태수(漢中郎太守)가 되었다. 태중대부(太中大夫), 농서태수(隴西太守), 복파장군(伏波將軍) 등을 역임하였다. 강(羌)과 저(氐) 등의 이민족을 정벌하고 흉노와 오환의 토벌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딸은 명제(明帝)의 황후인 명덕마황후(明德馬皇后)이다. (『후한서』 「마원열전」)

327 경주부(瓊州府) : 현재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성도인 하이커우시[海口市]에 속한 충산구[瓊山區]이다.

3리 쌓았다. 소흥 연간(1131~1162)에 외성을 쌓았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지휘 손안과 장영이 서북쪽 모퉁이를 넓혀 동남쪽 모퉁이까지 넓혔다. 너비는 600장, 높이는 2장 5척이다. 문은 3개이다. 【동쪽은 조양, 남쪽은 정남, 북쪽은 순화문이다.】 문마다 적루를 두었다. 북성의 누각은 망해라 불린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명 홍무 7) 북성을 확장했는데 동쪽에서 남쪽까지 합해서 모두 344장이다. 높이와 너비는 같다. 조양문을 고쳐 영태라 하였고 위에는 각각 층층 누각을 만들었다. 네 모퉁이에 각루를 세웠다. 1378년(고려 우왕 4, 명 홍무 11)에 다시 서남쪽의 모퉁이를 넓혀 서북쪽의 모퉁이까지 이르게 했다. 너비는 400여 장이다. 통계하면 성의 둘레는 1,253장, 높이는 2장 7척, 너비는 1장 8척이고 치첩은 1,843개, 와포는 57좌이다. 해자의 둘레는 1,287장이다. 깊이는 3장 2척이다. 너비는 4장 8척이다. 1384년(고려 우왕 10, 명 홍무 17)에 지휘 상소가 성의 서쪽을 토성으로 308장 증축하였다. 서·남·북쪽에 3개의 문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적루를 세웠으며 자성이라고 했다. 1473년(조선 성종 4, 명 성화 9) 부사 도배(涂裴)가 3개 문을 돌로 된 편액으로 바꾸었다. 【동쪽은 체인, 서쪽은 귀의, 남쪽은 정해이다.】 1477년 첨사 진소가 마장을 증축하였다. 가정 연간(1522~1566) 지부 이신, 참의 조천우, 지현 증사룡, 참정 정정곡이 자성을 돌로 바꾸었다. 둘레는 312장이고 높이는 1장 4척이다. 너비는 1장 2척이다. 위의 3분의 1을 줄였다. 치첩은 642개이다. 문은 옛날과 같다. 1641년(조선 인조 19, 명 숭정 14) 지부 장일홍이 동문과 남문을 창건하였다. 월성 주위의 너비는 8장이다. 성가귀의 모든 높이는 1장 4척이고 너비는 8척이다. 치는 42개이다. 경산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瓊州府城池, 漢珠崖郡. 城在東潭都. 唐瓊州城在白石都. 宋開寶五年, 徙今治築土城, 僅三里, 紹興間築外城. 明洪武間, 指揮孫安張榮拓西北隅至東南隅, 廣六百丈, 高二丈五尺, 門三. 【東曰朝陽, 南曰靖南, 北曰順化.】 各置敵樓. 北城樓名望海. 甲寅, 拓北城, 由東而南共, 三百四十四丈, 高廣如前, 改朝陽門爲永泰, 上各建層樓. 四隅建角樓. 戊午, 復拓西南隅至西北隅, 廣四百餘丈, 通計周城一千二百五十三丈, 高二丈七尺, 廣一丈八尺, 雉堞一千八百四十三, 窩鋪五十七. 壕塹周迴一千二百八十七丈, 深三丈二尺, 廣四丈八尺. 甲子, 指揮桑昭於城西增築土城三百八丈, 設西南北三門, 上建敵樓, 謂之子城. 成化癸巳, 副

使涂裴³²⁸易三門石扁。【東曰體仁，西曰歸義，南曰定海。】丁酉，僉事陳昭增築馬牆。嘉靖間，知府李愼參議曹天祐，知縣曾仕隆，參政鄭廷鵠，易子城以石，周圍三百十二丈，高一丈四尺，廣一丈二尺，上殺三之一，雉堞六百四十二，門如舊。崇禎辛巳，知府蔣一鴻創建東門南門，月城周圍寬八丈，高竝堞一丈四尺，闊八尺，雉四十二個。瓊山縣附郭。

■ 167 나정주(羅定州)³²⁹ 성지

옛 용수이다. 초기에는 성지가 없었다. 1438년(조선 세종 20, 명 정통 3) 토성을 세웠다. 1453년(조선 단종 원년, 경태 4) 도어사 마양(馬昂)이 처음 벽돌로 성을 쌓았다. 둘레는 66장 남짓이다. 높이는 2장 6척이고 두께는 1장 3척이다. 치첩은 303개, 관루는 570개, 적루는 25개, 월성은 3개이고 문은 3개이다. 【동쪽은 순덕, 남쪽은 영안, 북쪽은 무성문이다.】 위에 층층 누각을 만들었다. 1569년(조선 선조 2, 명 융경 3) 지현 담문달이 적루를 증설했다. 해자의 너비는 2장 남짓이고 깊이는 1장 5척이다. 1600년(조선 선조 33, 명 만력 28) 병비 서방(徐榜)과 지주 조사제가 음성을 개축하여 양성을 만들었다. 같은 해 소남문에서 서문까지 새롭게 성을 넓힌 것이 75장 2척이다. 치첩 1,100개를 다시 지었다. 또 서문【안경문이다.】과 소남문【영희문이다.】을 열고 또 서루를 창건했다. 1644년(조선 인조 22, 명 숭정 17) 지주 포이경(包爾庚)이 성을 수축하여 서문에 월성 1개를 더했다. 1653년(조선 효종 4, 청 순치 10) 병헌 오상정(鄔象鼎)과 지주 신숙인(愼叔引)이 성의 담장을 3척 더 높였고 소남문에 월성을 증축했다.

羅定州城池，舊爲瀧水，初無城池。明正統十三年，立土城。景泰四年，都御史馬昂始築磚城，周六百六十丈有奇，高二丈六尺，厚一丈三尺，雉堞三百有三，串樓五百七十，敵樓二十五，月城三，門三。【東曰順德，南曰永安，北曰武成。】各建層樓于上。隆慶三年，知縣譚文達增設敵樓，池闊二丈有奇，深一丈五尺。萬曆二十八年，兵備徐榜，知州趙仕際改築陰城爲陽城。是年小南門至西門，新擴城

328 裴 : 저본에는 '裴'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3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329 나정주(羅定州) : 현재 중국 광둥성의 서부에 있는 원푸시[雲浮市]에 속한 뤼딩시[羅定市]이다.

七十五丈二尺. 雉堞改作一千一百, 又開西門,【曰安慶.】小南門,【曰迎曦.】又創西樓. 崇禎十七年, 知州包爾庚修城加西門月城一. 順治十年, 兵憲鄔象鼎, 知州慎倬引, 增高城垣三尺, 增小南門月城.

■ 168 계림부(桂林府)³³⁰ 성지

처음 당 무덕 연간(618-626) 계주 총관 이정(李靖)이 자성을 쌓았는데 나강의 서쪽 물가에 있다. 성의 둘레는 3리 18보이고 높이는 1장 2척이다. 송 황우 연간 경략사 여정(余靖)이 외성을 쌓았다. 1356년(고려 공민왕 5, 원 지정 16) 염방사 야아길니(也兒吉尼)³³¹가 처음으로 성을 둘로 쌓아 신성이라 하였다. 1375년(고려 우왕 원년, 명 홍무 8) 남쪽 성을 증축했다. 1376년(홍무 9) 서패를 막고 성의 해자를 열어 양강을 끌어서 신성으로 통하게 했다. 서문 밖의 영원교를 통과하여 2개의 물줄기로 나뉘었다.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서 치산의 옛 강과 합해졌고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흘러 마왕각 뒤를 지나서 상비산으로 나와 나강과 합류했다. 문은 12개이다.【동진, 취일, 계수, 행춘, 동강, 무승, 정서, 이택, 보현, 서청, 영원, 안정문이다.】임계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桂林府城池, 初唐武德中, 桂州總管李靖築子城, 在灕江西潯, 周三里十八步, 高一丈二尺. 宋皇祐間, 經略使余靖築外城. 元至正十六年, 廉訪使也兒吉尼始甃石謂之新城. 明洪武八年增築南城, 九年塞西壩開城壕, 導陽江經于新城, 西門外通寧遠橋分二派, 一南注合雉山舊江, 一東注經馬王閣後, 出象鼻山, 與灕江合, 爲門十二.【曰東鎮, 曰就日, 曰癸水, 曰行春, 曰東江, 曰武勝, 曰定西, 曰麗澤, 曰寶賢, 曰西清, 曰寧遠, 曰安定.】臨桂縣附郭.

³³⁰ 계림부(桂林府) : 현재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의 북동부에 있는 구이린시[桂林市]이다.

³³¹ 야아길니(也兒吉尼) : 원대 당울(唐兀) 사람으로 결대보제(乞臺普濟)의 아들이다. 성종(成宗) 대덕(大德) 3년(1299) 반군(叛軍) 해도(海都)와 독왜(篤哇)의 군대를 정벌해 공을 세웠다. 1307년 무종(武宗)이 즉위하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使)를 맡고 태부원사(太府院使)와 당울위친군도지휘사(唐兀衛親軍都指揮使)를 겸하면서 좌승상(左丞相)을 지냈다. 문종(文宗) 천력(天曆) 2년(1329) 운남제왕(雲南諸王) 답실불화(答失不花)가 병사를 일으키며 그의 열 가지 죄목을 열거하자 팔번(八番)으로 달아났다.

■ 169 평락부(平樂府)³³² 성지

1064년(고려 문종 18, 송 치평 원년) 태수 왕제(汪齊)가 처음 성을 쌓았다. 높이는 2장 1척이고 둘레는 416보이다. 1380년(고려 우왕 6, 명 홍무 13)에 수어천호소를 설치하였다. 천호 유원등이 3척을 더 넓혔으며 둘로 둘려 쌓았다. 높이는 2장 4척이며 둘레는 541장이다. 동쪽은 산꼭대기에 걸쳐 있고 남쪽은 큰 강을 굽어본다. 서쪽은 연못과 접해 있고 북쪽은 해자를 내려다본다. 망루가 있는 문이 3개이다. 【안정, 영원, 진이문이다.】 냉포는 17개이다. 만력 연간(1573~1620) 지부 구양동봉(歐陽東鳳)이 성타를 증축하여 높였고, 마도를 열었다. 1667년(조선 현종 8, 청 강희 6)에 이르러 총독, 순무 및 사·도관과 부·현관이 재물을 내어서 북문성루 1좌, 적루 2좌를 수리하였다.³³³ 1670년(강희 9) 지부 양영음(楊榮蔭)과 지현 진광용이 재물을 내어서 봉황루 뒤쪽 성 담장과 서북 일대 마도를 보수하였다. 1671년(강희 10) 또 남문성루는 1좌를 수축했다. 평락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平樂府城池, 宋治平元年, 太守汪齊始築城, 高二丈一尺, 周四百一十六步. 明洪武十三年, 設守禦千戶所. 千戶劉源等, 拓加三尺, 包砌以石, 高二丈四尺, 周五百四十一丈, 東跨山巔, 南瞰大江, 西臨池塘, 北俯壕塹, 爲門三有樓. 【曰安定, 曰寧遠, 曰鎮彝.】 冷鋪一十七. 萬曆間, 知府歐陽東鳳, 增高城垛開馬道. 至康熙六年, 督撫司道府縣官捐修北門城樓一座, 敵樓二座. 九年, 知府楊榮蔭, 知縣陳光龍, 損³³⁴資修鳳凰樓後城垣, 西北一帶馬道. 十年, 又修南門城樓一座. 平樂縣附郭.

■ 170 오주부(梧州府)³³⁵ 성지

옛 성이 대운산 기슭에 있다. 동북쪽은 산에 걸쳐 있고 서쪽은 계수와 접하였고 남쪽은 큰 강을 두르고 있다. 968년(고려 광종 19, 송 개보 원년) 벽돌로 증축하였

³³² 평락부(平樂府) : 현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북동부에 있는 구이린시에 속한 핑러현[平樂縣]이다.

³³³ 1667년……수리하였다 : 『고금도서집성』 「방여휘편 직방전」 제1424권, 평락부 산천고 2에 의하면 총독·순무·포정사사·안찰사사·병비도·지부·추관 등이 녹봉을 출연한 것으로 나온다.

³³⁴ 捐 : 저본에는 ‘損’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휘편 고공전」 제23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³³⁵ 오주부(梧州府) : 현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동부에 있는 오주시(梧州市)이다.

다. 둘레는 3리 237장이다. 문 4개를 열었다. 1379년(고려 우왕 5, 명 홍무 12) 전축(展築)하였다. 둘레는 860장이다. 문이 5개이고, 망루가 있다.【동쪽은 정동, 서쪽은 서강, 북쪽은 대운, 남쪽은 남훈, 서남쪽은 덕정문이다.】관루가 덮여 있는 것이 196칸이다. 해자는 성의 동·서·남쪽 3면을 두르고 있다. 북쪽은 산이 있어서 험지이다. 1446년(조선 세종 28, 명 정통 11) 지부 주충(朱忠)이 덕정문 위에 각루(刻漏)를 설치했다. 1466년(조선 세조 12, 명 성화 2) 총독 도어사 한옹(韓雍)이 높이 1장을 더했다. 관루 569칸을 지어서 성 아래를 두루 덮었다. 와포 36칸을 설치하고 밤에 군사가 머물면서 지키게 했다. 해자의 깊이는 3장, 너비는 5척이다. 해자 안팎에는 모두 목책을 세웠는데 길이는 3,350장이다. 1468년에는 동쪽·남쪽·북쪽 문에 웅성을 만들었다. 문루 5개를 중건했다. 종고루(鐘鼓樓)의 규제를 크게 마련했다. 1618년(조선 광해군 11, 명 만력 46) 서문에 웅성을 더하여 세웠다. 1623년(조선 인조 원년, 명 천계 3) 지현 양자번(梁子璠)이 양성으로 고쳤다. 성의 위쪽에 와포 8칸을 세웠다. 창오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梧州府城池, 舊城在大雲山麓, 東北跨山, 西臨桂水, 南邊大江. 宋開寶元年, 重砌以磚, 周三里二百三十七丈, 闢四門. 明洪武十二年, 展築, 周八百六十丈, 爲門五有樓【東曰正東, 西曰西江, 北曰大雲, 南曰南薰,³³⁶ 西南曰德政.】覆串樓一百九十六間, 壕環城東西南三面, 北因山爲險. 正統十一年, 知府朱忠置刻漏於德政門上, 成化二年, 總督都御史韓雍增高一丈, 造串樓五百六十九間, 遍覆之城下. 設窩鋪三十六間, 宿守夜軍士, 壕深³³⁷三丈闊五尺, 壕內外皆樹木柵, 長三千三百五十丈. 四年, 作東南北門甕城, 重建五門樓. 鐘鼓樓規制大備. 萬曆四十六年, 添設西門甕城. 天啓三年, 知縣梁子璠改爲陽城, 設城上窩鋪八間. 蒼梧縣附郭.

■ 171 심주부(潯州府)³³⁸ 성지

옛날에 성이 있었는데 오래되어 무너졌다. 1062년(고려 문종 16, 송 가우 7)에 자성을 처음 증축하였다. 1201년(고려 신종 4, 가태 원년) 지부 주희와 지현 요덕명(廖德

³³⁶ 薰 : 저본에는 '薰'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3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³³⁷ 深 : 저본에는 '深'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3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³³⁸ 심주부(潯州府) : 현재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의 남동부에 있는 구이강시[貴港市]에 속한 구이핑시[桂平市]이다.

明)이 잇달아 흙담을 쌓았다. 1340년(고려 충혜왕 원년, 원 지원 6)에 추관 범야가 철거하고 새로 쌓았다. 1373년(고려 공민왕 22, 명 홍무 6) 백호 오승(吳勝)이 다시 옛 성을 넓혔는데 성의 둘레는 374장이다. 1382년에 천호 도성(陶成)이 서쪽으로 100여 장 늘렸다. 1396년에 지부 심충이 다시 동쪽으로 수백 장을 늘렸다. 둘레는 1,320장이다. 동서쪽으로 해자를 열고 목책을 세웠다. 남북쪽은 강변 근처이다. 6개의 문을 열었는데 남쪽에 2개【영원, 영은이다.】, 북쪽에 2개【선무, 위무이다.】, 동쪽【공신이다.】, 서쪽【안원이다.】에 있다. 1467년(조선 세조 13, 성화 3) 지부 손탁이 벽돌로 쌓았는데, 높이는 2장이고, 너비는 1장 2척이다. 망루는 6좌이다. 각루와 현루는 모두 5좌이다. 포대와 와포는 모두 22좌이다. 공신문은 심양문이라 고쳤다. 계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潯州府城池, 舊有城久毀,³³⁹ 宋嘉祐七年, 拓之始增築子城. 嘉泰元年, 知府周禧, 知縣廖德明繼築土垣. 元至元庚辰, 推官范埜撤而新之. 明洪武六年, 百戶吳勝復廣舊城, 周三百七十四丈. 十五年, 千戶陶成西展百餘丈. 二十九年, 知府沈忠復東展數百丈, 周一千三百二十丈, 東西開壕立柵, 南北際江, 關六門, 南二【曰寧遠, 迎恩.】, 北二【曰宣武, 威武.】, 東【拱辰.】, 西【安遠.】. 成化三年, 知府孫暉³⁴⁰因砌以磚, 高二丈, 闊一丈二尺, 樓六座, 角樓, 懸樓, 共五座, 砲臺, 窩鋪, 共二十二座, 改拱辰門曰潯陽. 桂平縣附郭.

172 남령부(南寧府)³⁴¹ 성지

송 황우 연간(1049~1054)에 처음 지어졌다. 대대로 성을 보수하였다. 성의 너비와 둘레는 1,030보이고 높이는 1장 9척이다. 문 5개를 열었는데 망주가 있다. 【동문, 영은, 진강, 창서, 안새문이다.】 1602년(조선 선조 35, 명 만력 30) 지부 설반(薛藩)이 남문을 증축하여 열었다. 이전 것과 합하면 성루는 모두 6좌이다. 1636년(조선 인조 14, 송정 9) 지부 오소지(吳紹志)가 성 담의 높이를 3척 더하였다. 동서쪽에는 해자가 있는데 성을 두르고 있다. 선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339 久毀 : 저본에는 없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3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40 暉朋 : 저본에는 '暉'으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3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341 남령부(南寧府) : 현재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의 주도(主都)인 난닝시[南寧市]이다.

南寧府城池, 宋皇祐間始築, 城歷代修葺, 廣闊周圍一千三十步, 高一丈九尺, 闢五門有樓。【曰東門, 曰迎恩, 曰鎮江, 曰倉西, 曰安塞。】明萬曆壬寅年, 知府薛潘, 增開南門, 并前共城樓六座。崇禎九年, 知府吳紹志增高城垣三尺, 東西有壕繞城。宣化縣附郭。

■ 173 태평부(太平府)³⁴² 성지

1372년(고려 공민왕 21, 명 홍무 5) 벽돌로 성을 쌓았다. 둘레는 642장이고 높이는 1장 5척 너비는 1장 3척이다. 문은 5개이다. 【동쪽은 장춘, 남쪽은 진안, 서남쪽은 안원, 서쪽은 진변, 북쪽은 공신문이다】 각각 망루가 문 위에 세워졌으며, 적루는 8좌, 관루는 564칸이다. 1519년(조선 중종 14, 정덕 14) 지부 등병(鄧炳)이 안원문을 막아서 동·서·남쪽 3면이 하천을 의지해 험지가 되게 했다. 동서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양어장[魚塘]을 모두 취하여 해자로 만들었다. 송선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太平府城池, 明洪武五年築磚城, 周六百四十二丈, 高一丈五尺, 廣一丈三尺, 爲門五。【東曰長春, 南曰鎮安, 西南曰安遠, 西曰鎮邊, 北曰拱辰。】各建樓於上, 敵樓八座, 串樓五百六十四間。正德十四年, 知府鄧炳塞安遠門, 東西南三面據河爲險, 又東西并取居民魚塘爲壕。崇善縣附郭。

■ 174 유주부(柳州府)³⁴³ 성지

옛날에 성이 없었다. 송 원우 연간(1086~1094)에 지주 필군경(畢君卿)이 처음 수축하였다. 명 대에 부(府)로 바꿨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명 홍무 4) 토성으로 쌓았다. 1379년(고려 우왕 5, 홍무 12) 지휘 소전(蘇銓) 등이 확장하면서 돌로 바뀌 쌓았다. 높이는 1장 8척이고 너비는 2장 6척이다. 성곽의 크기는 9백여 장이다. 문은 5개이다. 【동문, 서문, 진남문, 정남문, 북문이다.】 성 바깥쪽은 해자가 둘러져 있다. 마평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柳州府城池, 舊無城。宋元祐間, 知州畢君卿始修築。明改府。洪武四年, 築土

342 태평부(太平府) : 현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서남부에 있는 충쥬시[崇左市]이다.

343 유주부(柳州府) : 현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중부에 있는 류저우시[柳州市]이다.

城. 十二年, 指揮蘇銓等, 拓之易以磚, 高一丈八尺, 廣二丈六尺, 延袤九百餘丈, 爲門五【曰東門, 西門, 鎮南門, 靖南門, 北門.】, 外環以壕. 馬平縣附郭.

■ 175 경원부(慶遠府)³⁴⁴ 성지

한 대에 토성으로 쌓았다. 742년(당 천보 원년) 자사 오회충(吳懷忠)이 벽돌로 바꾸었다. 둘레는 453보이다. 문은 4개인데 이것이 바로 구성(舊城)이다. 1396년(조선 태조 5, 명 홍무 29) 경원위를 설치하여, 동문 밖의 땅을 개척하여 성을 쌓아 확장했다. 계산하면 5리 58보이다. 이것이 신성(新城)이며, 구성과 가운데가 통하여 하나로 합쳐진다. 둘레는 1,229장이다. 구성과 신성의 문은 총 6개이다. 【동쪽은 영안, 서쪽은 영정, 구성의 남쪽은 진안, 신성의 남쪽은 무정, 구성의 북쪽은 공신, 신성의 북쪽은 태화문이다.】 1488년(조선 성종 19, 홍치 원년) 지부 왕부(汪溥)가 북성을 강에 붙였다. 동서남쪽 3곳의 관은 평평하고 넓어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사람을 시켜 해자를 파게 했다. 깊이는 2장이고 너비는 1장 5척이다. 성곽의 크기는 모두 3,000장이다. 관의 제방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댔다. 의산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慶遠府城池, 漢築土城. 唐天寶元年, 刺史吳懷忠易以磚石. 周四百五十三步, 爲門四, 是爲舊城. 明洪武二十九年, 開設慶遠衛, 拓東門外地, 築城以廣之, 計五里五十八步, 是爲新城, 中通爲一共, 周圍一千二百二十九丈, 總新舊城門有六. 【東曰永安, 西曰永定, 舊南曰鎮安, 新曰武定, 舊北曰拱辰, 新曰泰和.】 弘治元年, 知府汪溥以北城附江, 東西南三關平曠, 受敵乃傭工鑿壕, 深二丈, 闊一丈五尺, 延袤凡三千丈. 引官陂水注之. 宜山縣附郭.

■ 176 사은부(思恩府)³⁴⁵ 성지

과거에는 채성산(寨城山)에 있었다. 토관 영영(岑瑛)이 쌓았다. 명 대 신건백 왕수인(王守仁)이 다시 황전으로 옮겨서 쌓았다. 성의 둘레는 312장 5척이다. 높이는 2장 2척이다. 문은 3개이다. 【동쪽은 명황, 남쪽은 은정, 서쪽은 열화문이다.】 북쪽에

344 경원부(慶遠府) : 현재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의 서부에 있는 허초시[河池市]에 속한 이저우시[宜州市]이다.

345 사은부(思恩府) : 현재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의 주도인 난닝시[南寧市]에 속한 우밍현[武鳴縣]이다.

는 문이 없다. 동서남쪽 3개의 문에는 각각 옹성이 있다. 성루는 4좌이다. 네 모퉁이에 각루도 4좌이다. 동서로 흐르는 두 하천이 마주하고 흐르다가 남문에 이르면 서로 합해져서 그대로 해자가 된다. 북면은 산록에 의지해서 물이 없다.

思恩府城池, 舊在寨³⁴⁶城山內, 土官岑瑛築, 明新建伯王守仁, 再遷於荒田築之, 周圍三百一十二丈五尺, 高二丈二尺, 爲門三,【東鳴鳳, 南恩正, 西悅化.】北無門, 東西南三門各有甕城. 城樓四座, 四隅角樓四座. 東西兩河夾流至南門交合, 儼然壕塹, 北面依山麓無水.

■ 177 진안부(鎭安府)³⁴⁷ 성지

송 대부터 토성이 있었는데 치첩은 없었다. 높이는 1장 5척이고 너비는 3척이다. 마도는 5척이다. 성의 둘레는 225장이다. 동서남쪽에 문이 3개가 설치되었으며 문마다 성루 1좌가 있다. 북면은 뒤에 있는 산을 의지해서 담장을 만들었다. 지금은 옛 제도에 따랐다.

鎭安府城池, 自宋時有土城, 無雉堞. 高一丈五尺, 闊三尺, 馬道五尺, 周圍二百二十五丈. 設東西南三門, 各有城樓一座, 北面倚後山作牆垣. 今仍舊制.

■ 178 운남부(雲南府)³⁴⁸ 성지

당몽씨(唐蒙氏)가 세웠다. 1382년(고려 우왕 8, 명 홍무 15)에 넓혀 쌓았다. 둘레는 9리 3푼이고 높이는 2장 9척 남짓이다. 문은 6개이다.【남쪽은 녹정, 누는 근일, 대동쪽은 함화, 누는 은춘, 소동쪽은 부택, 누는 벽광, 북쪽은 공신, 누는 조경, 대서쪽은 보성, 누는 척변, 소서쪽은 성원, 누는 강부이다.】남문을 기준으로 서쪽편에 종루를 만들었다. 성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이 있다. 성의 바깥에는 중관(重關)이 있다. 곤명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雲南府城池, 唐蒙氏建, 明洪武十五年拓築, 周九里三分, 高二丈九尺有奇, 六

346 寨 : 저본에는 '寨'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3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347 진안부(鎭安府) : 현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서부에 있는 바이씨시[百色市]의 더바오현[德保縣]이다.

348 운남부(雲南府) : 현재 중국 윈난성[元南省]의 성도인 쿤밍시[昆明市]이다.

門【南曰鹿正, 樓曰近日, 大東曰咸和, 樓曰殷春, 小東曰敷澤, 樓曰璧光, 北曰拱辰, 樓曰姚京, 大西曰寶成, 樓曰拓邊, 小西曰盛遠, 樓曰康阜.】居南門西偏者爲鍾樓, 環城有河, 外有重關. 昆明縣附郭.

■ 179 곡정부(曲靖府)³⁴⁹ 성지

1387년(고려 우왕 13, 명 홍무 20)에 세워졌다. 성의 둘레는 6리 3푼이고 높이는 3장이다. 4개의 문이 설치되었다. 【동쪽은 낙정, 남쪽은 내훈, 서쪽은 승봉, 북쪽은 영은문이다.】성 북쪽에 있는 2개의 적루를 증축하였다. 해자가 있다. 남령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曲靖府城池, 明洪武二十年建, 周六里三分, 高三丈, 設四門.【東曰樂耕, 南曰來薰, 西曰勝峯, 北曰迎恩.】增二敵樓于城北, 有池. 南寧縣附郭.

■ 180 임안부(臨安府)³⁵⁰ 성지

옛날에 토성으로 만들었다. 1387년(고려 우왕 13, 명 홍무 20)에 선령후 김조흥(金朝興)이 지휘 만중(萬中)에게 격문을 보내어 땅을 넓히고 벽돌로 바꾸어 쌓도록 했다. 둘레는 6리 3푼이고 높이는 2장 7척이다. 문 4개를 설치했다. 【동쪽은 영휘, 남쪽은 부안, 서쪽은 청원, 북쪽은 영정문이다.】동남쪽에는 종루를 만들었고, 동북쪽 모퉁이에서 서북쪽과 서남쪽 모퉁이까지 둘렀으며 해자를 두었다. 정동쪽과 정남쪽에는 해자가 없다. 건수주가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臨安府城池, 舊爲土城. 明洪武二十年, 宣寧侯金朝興檄指揮萬中拓地, 易以磚石, 周六里三分, 高二丈七尺, 設四門.【東曰迎暉, 南曰阜安, 西曰清遠, 北曰永貞.】東南爲鍾樓, 東北角遠, 西北及西南角有池, 正東及東南無池. 建水州附郭.

349 곡정부(曲靖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동부에 있는 취징시[曲靖市]이다.

350 임안부(臨安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동남부에 있는 홍하합니족민족자치주[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의 젠수이현[建水縣]을 치소(治所)로 두었던 부(府)이다.

■ 181 징강부(澂江府)³⁵¹ 성지

옛날에 수구산에 세웠다. 1518년(조선 중종 13, 명 정덕 13)에 지부 동새(童璽)가 다시 금련산 기슭으로 옮겼다. 1541년(조선 중종 36, 명 가정 20) 지부 주조면(周朝俛)이 다시 이전 위치로 옮겼다. 1571년(조선 선조 4, 명 용경 5)에 지부 서가구(徐可久)가 무봉산으로 옮겨서 벽돌로 성을 쌓았다. 둘레는 5리 3푼이고 높이는 1장 9척이다. 누대와 돈포를 모두 갖추었다. 그 문은 【동쪽은 옹휘, 남쪽은 징파, 서쪽은 남수, 북쪽은 의봉문이다.】 해자가 있다. 하양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澂江府城池，舊建於繡毬山。明正德十三年，知府童璽改遷金蓮山麓。嘉靖二十年，知府周朝俛復遷前地。隆慶五年，知府徐可久遷于舞鳳山，築磚城，周五里三分，高一丈九尺，樓臺墩鋪俱備。其門【東曰擁暉，南曰澄波，西曰攬秀，北曰儀鳳。】有池。河陽縣附郭。

■ 182 무정부(武定府)³⁵² 성지

1569년(조선 선조 2, 명 용경 3) 지부 유종인(劉宗寅)과 동지 등세언(鄧世彦)이 옮겨서 석성(石城)을 세웠다. 둘레는 6리이고, 높이는 2장이다. 문 4개를 세웠다. 【동쪽은 영상, 남쪽은 옥수, 서쪽은 영원, 북쪽은 풍운문이다.】 만력 연간(1573~1620)에 동지 원국번(袁國藩)이 높이 3척을 더했다. 해자가 없다. 화곡주가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武定府城池，明隆慶三年，知府劉宗寅，同知鄧世彦移建石城，周六里高二丈，設四門。【東曰迎祥，南曰毓秀，西曰寧遠，北曰豐潤。】萬曆間，同知袁³⁵³國藩增高三尺，無池。和曲州附郭。

351 징강부(澂江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중부에 있는 위시시[玉溪市]의 청장현[澂江縣]이다.

352 무정부(武定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중북부에 있는 추송이족자치주[楚雄彝族自治州]의 우딩현[武定縣]이다.

353 袁 : 저본에는 '袁'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회편 고공전」 제24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 183 광서부(廣西府)³⁵⁴ 성지

옛날에 의방과 생납 두 마을이며, 토관(土官)이 다스렸다. 1478년(조선 성종 9, 명 성화 14)에 토관을 없애고 유관(流官)을 보냈다.³⁵⁵ 지부 하훈(賀勳)이 토성을 쌓았다. 1571년(조선 선조 4, 명 용경 5)에 지부 대시옹(戴時雍)이 벽돌로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740장이고, 높이는 1장 8척이다. 문 4개를 세웠다.【동쪽은 공화, 남쪽은 청파, 서쪽은 현서, 북쪽은 웅상문이다.】해자가 없다.

廣西府城池, 舊爲矣邦生納二村, 土官治之. 明成化十四年, 改土設流. 知府賀勳築土城. 隆慶五年, 知府戴時雍甃以磚石, 周圍七百四十丈, 高一丈八尺, 設四門.【東曰拱化, 南曰清波, 西曰獻瑞, 北曰擁祥.】無池.

■ 184 대리부(大理府)³⁵⁶ 성지

일명 자성(紫城)으로 바로 한엽유(葉榆) 지역이다. 1382년(고려 우왕 8, 명 홍무 15)에 중축했다. 다음해에 도독 풍성(馮誠)이 동서로 100장을 늘렸다. 둘레는 12리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다. 적대 15좌, 포사 39소이다. 해자의 너비는 4장이고 깊이는 8척이다. 문 4개를 세웠다.【동쪽은 통해, 남쪽은 승은, 서쪽은 창산, 북쪽은 안원문이다.】성 위 사방의 경계에 곡루(曲樓)를 만들었다. 태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大理府城池, 一名紫城, 即漢葉榆地. 明洪武十五年重築. 明年都督馮誠展東西一百丈, 周十二里, 高二丈五尺, 敵臺十五座, 鋪舍三十九所, 池闊四丈, 深八尺, 開四門.【東曰通海, 南曰承恩, 西曰蒼山, 北曰安遠.】城上四陲爲曲樓. 太和縣附郭.

354 광서부(廣西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동남부에 있는 홍하합니족민족자치주[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의 루시현[瀘西縣]이다.

355 토관을……보냈다 : 원문에서는 ‘개토설류(改土設流)’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명, 청대에 시행했던 ‘개토귀류(改土歸流)’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개토귀류 정책은 토사(土司)·토관(土官)을 없애고 조정에서 임명한 유관(流官)을 보내 통치하는 정책이다. 중국의 북서부와 남서부 변경에 거주하고 있던 소수민족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356 대리부(大理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북서부에 있는 다리바이족자치주[大理白族自治州]의 주도(州都)인 다리시[大理市]이다.

■ 185 영창부(永昌府)³⁵⁷ 성지

당 대 피라각(皮羅閣)³⁵⁸이 창건했다. 원 지원 연간(1264~1294)에 도원수 단아경(段阿慶)이 증축했다. 1385년(고려 우왕 11, 명 홍무 18)에 지휘 이관(李觀)이 다시 벽돌로써 쌓았다. 또한 태보산의 깎아지른 듯한 곳에 자성을 만들었다. 1387년(고려 우왕 13, 명 홍무 20) 지휘 호연(胡淵)이 광서산까지 확장하여 태보산이 성의 내부에 늘어섰다. 동남북쪽 3면 모퉁이의 높이는 2장 2척이다. 서쪽은 3분의 1을 줄였다. 둘레는 13리 남짓이다. 문 8개를 세웠다. 【동쪽은 승양, 남쪽은 진남, 서남쪽은 용천·안정, 서쪽은 영진, 서북쪽은 인수, 북쪽은 통화, 동북쪽은 공북문이다.】 진남문과 공북문의 밖에 다시 자성을 만들고, 2개의 소문을 만들었다. 가정 연간(1522~1566)에 부사 한정위(韓廷偉)가 서쪽에 성을 세웠고, 높이는 5척을 높였으며 해자는 없다. 보산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永昌府城池, 唐皮羅閣創, 元至元間, 都元帥段阿慶重築. 明洪武十八年, 指揮李觀復甃以磚, 又于太保山絕巘爲子城. 二十年, 指揮胡淵闢廣西山羅太保山於城內, 東南北三隅高二丈二尺, 西省三之一, 周十三里有奇, 設八門. 【東曰昇陽, 南曰鎮南, 西南曰龍泉, 曰安定, 西曰永鎮, 西北曰仁壽, 北曰通華, 東北曰拱北.】 鎮南拱北門外復爲子城, 闢二小門. 嘉靖中, 副使韓廷偉築西城, 增高五尺, 無池. 保山縣附郭.

■ 186 초웅부(楚雄府)³⁵⁹ 성지

1383년(고려 우왕 9, 명 홍무 16)에 세웠다. 높이는 2장 5척이고 두께는 1장이며 둘레는 7리 3푼이다. 해자의 깊이는 1장 5척이다. 문 6개를 세웠다. 【동쪽은 평산, 남쪽은 광운, 서쪽은 덕승, 북쪽은 영진, 동남쪽은 덕화, 서남쪽은 인북문이다.】 1568년(조선 선조 원년, 명 융경 2)에 분순(分巡) 임유균(任惟均)이 개축했다. 1632년(조선

³⁵⁷ 영창부(永昌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서부에 있는 바오산시[保山市]이다.

³⁵⁸ 피라각(皮羅閣) : 680~748. 남조(南詔)의 제5대 왕으로 시호는 귀의왕(歸義王)이다. 728년(당 현종 17)에 하만(河蠻)을 축출하고 태화성(太和城)과 대리성(大理城)을 점령했다. 738년(당 현종 27)에 육조(六詔)를 통일하고 국호를 남조(南詔)라고 하고 수도를 외산(巍山)에서 태화성(太和城)으로 옮겼다. 당은 피라각을 운남왕(雲南王)으로 책봉했다. (『신당서』, 「열전」 권222, 제147 남만 상.)

³⁵⁹ 초웅부(楚雄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중북부에 있는 추송이족자치주의 추송시[楚雄市]이다.

인조 10, 명 순정 5)에 동지사 두경우(竇敬禹)가 다시 수리했는데 높이 3척, 두께 2척을 늘렸다. 말년에 부사 양외지(楊畏知)가 적대 15좌를 세웠다. 초웅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楚雄府城池, 明洪武十六年建, 高二丈五尺, 厚一丈, 周七里三分, 池深一丈五尺, 設六門。【東曰平山, 南曰廣運, 西曰德勝, 北曰永鎮, 東南曰德化, 西南曰仁福。】隆慶戊辰, 分巡任惟均改築。崇禎五年, 同知事竇敬禹復修, 增高三尺厚二尺, 末年副使楊畏知建敵臺十五座。楚雄縣附郭。

■ 187 요안부(姚安府)³⁶⁰ 성지

710년(당 경운 원년)에 어사 이지고(李知古)가 토성을 쌓았다. 명 홍무 연간(1368~1398) 초기에 벽돌로 바꿨는데 둘레가 2리 3푼이고 높이가 2장이다. 문 3개를 설치했다. 1528년(조선 중종 23, 명 가정 7)에 병비 주숭의(周崇義)가 남문 밖에 월성을 쌓았다. 1529년에 지부 왕정(王鼎)이 성 내부를 너비 5척, 높이 3척씩 증축했다. 1560년(조선 명종 15, 가정 39)에 지부 양일찬(楊日贊)이 남쪽 관문 밖에서 새로 토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장 2척이고 넓이가 130장으로 좌우에 적루를 세웠다. 흙 담장으로 돌렸다. 1618년(조선 광해군 10, 명 만력 46)에 어사 반준(潘濬)이 700여 장을 증축하고 남성루를 두었다. 서남쪽에 각루를 세웠다. 청정하를 의지하여 해자로 삼았다. 요주는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姚安府城池, 唐景雲元年, 御史李知古築土城。明洪武初易以磚石, 周二里三分, 高二丈, 設三門。嘉靖七年, 兵備周崇義築月城於南門外。八年, 知府王鼎于城內增廣五尺增高三尺。三十九年, 知府楊日贊於南關外新築土城, 高一丈二尺, 廣一百三十丈, 左右建立敵樓, 繚以土垣。萬曆四十六年, 御史潘濬增築七百餘丈, 置南城樓, 西南建角樓。因蜻蜒河爲池。姚州附郭。

³⁶⁰ 요안부(姚安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중북부에 있는 추송이족자치주의 야오안현[姚安縣]이다.

■ 188 학경부(鶴慶府)³⁶¹ 성지

송 대 단씨 때 쌓았고, 원 말기에 무너졌다. 1382년(고려 우왕 8, 명 홍무 15)에 옛터를 회복하고 목책을 벌여 세웠다. 1403년(조선 태종 3, 명 영락 원년)에 지휘 이무(李茂) 등이 벽돌로 성을 쌓았다. 1545년(조선 인종 원년, 명 가정 24)에 지부 주집(周集)이 땅을 넓히고 개축했다. 문 4개를 세웠다.【동쪽은 관활, 남쪽은 영은, 서쪽은 양지, 북쪽은 공극문이다.】1600년(조선 선조 33, 명 만력 28)에 지부 기여동(祁汝東)이 다시 서쪽에 다시 문 1개를 만들어 백성을 편리하게 했다. 둘레는 5리 5푼이다. 해자의 너비는 1丈이고 깊이는 5척이다.

鶴慶府城池, 宋段氏時築, 元末圯. 明洪武十五年, 復舊址, 列排柵. 永樂元年, 指揮李茂等甃以磚石. 嘉靖二十四年, 知府周集拓地改築, 設四門.【東曰觀闊, 南曰迎恩, 西曰仰止, 北曰拱極.】萬曆二十八年, 知府祁汝東更開一門於西偏以便民, 周五里五分, 壕廣一丈, 深五尺.

■ 189 순녕부(順寧府)³⁶² 성지

봉산의 가운데에 있다. 1600년(조선 선조 33, 명 만력 28)에 순무 진용빈(陳用賓)이 지부 여무학(余懋學)에게 격문을 보내 세웠다. 성의 둘레는 720丈이고 높이는 2丈 1척으로 벽돌로 쌓았다. 문 4개를 세웠다.【동쪽은 조천, 남쪽은 경운, 서쪽은 영정, 북쪽은 용창문이다.】1664년(조선 현종 5, 청 강희 3)에 지부 미충(米聰)이 누각 4개를 중건했다.

順寧府城池, 在鳳山之中. 明萬曆二十八年, 巡撫陳用賓檄知府余懋學建, 周七百二十丈, 高二丈一尺, 甃以磚, 設四門.【東曰朝天, 南曰慶雲, 西曰永定, 北曰隆昌.】康熙三年, 知府米聰重建四樓.

361 학경부(鶴慶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북서부에 있는 다리바이자치주의 허칭현(鶴慶縣)이다.

362 순녕부(順寧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중서부에 있는 린창시(臨滄市)의 평칭현(鳳慶縣)이다.

■ 190 경동부(景東府)³⁶³ 성지

위성(衛城)을 이은 것이다. 1390년(고려 공양왕 2, 명 홍무 23)에 세웠는데 성의 둘레는 2리다. 문 4개를 세웠다.【동쪽은 이성, 남쪽은 태안, 서쪽은 정이, 북쪽은 숙정문이다.】1670년(조선 현종 11, 청 강희 9)에 성을 지키기 위해 영방(營房)을 세웠다. 별도로 작은 성을 만들었는데, 둘레는 1리 4푼이며 위성 밖의 경동산 정상에 있으며 이름은 옥필성으로 해자는 없다.

景東府城池, 係衛城. 明洪武二十三年建. 周二里, 設四門.【東曰利城, 南曰泰安, 西曰定彝, 北曰肅靖.】康熙九年, 設城守建營房, 別爲小城, 周一里四分, 在衛城之外景東山頂, 名曰玉筆城, 無池.

■ 191 귀양부(貴陽府)³⁶⁴ 성지

바로 성성(省城)이다. 1382년(고려 우왕 8, 명 홍무 15)에 도사 마엽이 돌로 성을 세웠다. 성의 둘레는 9리 7푼이고 높이는 2장 2척이다. 문은 5개이다.【동쪽은 소문, 남쪽은 영은, 서남쪽은 광제, 서쪽은 진무, 북쪽은 포덕문이다.】동북쪽은 해자가 있고, 서남일대는 하천을 끼고 있다. 1626년(조선 인조 4, 명 천계 6)에 총독 장학명(張鶴鳴), 순무 왕감(王瑊)이 북문 밖을 증축했다. 외성을 겹쳐 쌓았는데 600여 장이었다. 문은 4개이다. 신귀와 귀축 2개의 현이 모두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貴陽府城池, 即省城. 明洪武十五年, 都司馬曄建石城, 周圍九里七分, 高二丈二尺, 門五.【東曰昭文, 南曰迎恩, 西南曰廣濟, 西曰振武, 北曰布德.】東北有池, 西南一帶濱河.³⁶⁵ 明天啓六年, 總督張鶴鳴, 巡撫王瑊, 於北門外增. 砌外城六百餘丈, 門四. 新貴貴筑二縣俱附郭.

³⁶³ 경동부(景東府) : 현재 중국 윈난성의 남서부에 있는 푸얼시[普洱市]의 징둥이족자치현[景東彝族自治縣]이다.

³⁶⁴ 귀양부(貴陽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의 성도인 구이양시[貴陽市]이다.

³⁶⁵ 河 : 저본에는 '海'로 되어 있으나, 『고금도서집성』 「경제휘편 고공전」 제24권, 성지부에 근거하여 고감하였다.

■ 192 안순부(安順府)³⁶⁶ 성지

원 태정(泰定)³⁶⁷ 7년(1330)에 창건되었다. 1372년(고려 공민왕 21, 명 홍무 5)에 안릉 후 오복(吳復)이 세웠다. 1379년에 증수했는데 성의 둘레는 9리 3푼이고, 높이는 2장 5척이다. 문 4개를 만들었다.【동쪽은 조천, 서쪽은 회원, 남쪽은 영안, 북쪽은 진이문이다.】성루 4좌, 수관 3개, 수루 3개, 치첩 2,700개에 이르렀다. 1672년(조선 현종 13, 청 강희 11)에 지부 호종우(胡宗虞)가 돌을 쌓아서 높이를 높였다. 4개의 성문을 증수했으며 문에 쇠를 부착했다. 보정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安順府城池, 元泰定七年創. 明洪武五年, 安陸侯吳復建. 十二年增修, 周圍九里三分高二丈五尺, 爲門四.【東曰朝天, 西曰懷遠, 南曰永安, 北曰鎮彝.】城樓四座, 水關三, 水樓三, 雉堞二千七百零. 至康熙十一年, 知府胡宗虞壘石增高. 重修四城門, 附以鐵. 普定縣附郭.

■ 193 평월부(平越府)³⁶⁸ 성지

1381년(고려 우왕 7, 명 홍무 14)에 지휘 이복(李福)이 세웠다. 1401년(조선 태종 원년, 홍무 34)에 돌을 쌓아 고쳤다. 성의 둘레는 1,400장이고 높이는 2장 2척이며 너비는 1장 5척이다. 성문 4좌, 월성 3개, 성루 4좌, 경포 45좌를 만들었다. 성 내부에는 물이 없다. 성화 연간(1465~1487)에 지휘 장능(張能)이 서쪽 성에 수성(水城)을 세웠다. 성 밖에 별도로 문 1개를 만들고 소서문이라 했다. 1603년(조선 선조 36, 명 만력 31)에 지부 양가도(楊可陶)와 지휘 해국주(奚國柱)가 수성 밖에 외성을 쌓았는데 55장이었다. 물을 성내로 끌어들여서 물 길는 이들이 편리하게 했다. 승정 연간(1628~1644)에 지부 진소영(陳紹英)이 성의 북쪽 모퉁이에 적대를 세우고 웅진루라고 불렀다. 망루 12개를 만들었다. 평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平越府城池, 明洪武四十年, 指揮李福建. 三十四年改甃以石, 周圍一千四百丈, 高二丈二尺, 廣一丈五尺, 城門四座, 月城三, 城樓四, 警鋪四十五. 城內無水.

366 안순부(安順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의 중부에 있는 안순시[安順市]이다.

367 태정(泰定) : 원 진종의 연호로 1324년에서 1328년까지 4년까지만 사용되었다. 저본에 '七年'은 필사과정의 오류로 보인다.

368 평월부(平越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의 중부에 있는 첸난부이족 마오족 자치주[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푸취안시[福泉市]이다.

成化間, 指揮張能建水城於西城, 外別開一門曰小西門. 萬曆癸卯, 知府楊可陶, 指揮奚國柱, 於水城外, 築外城五十五丈. 水經城內, 汲者便之. 崇禎間, 知府陳紹英於城北隅, 建敵臺, 名雄鎮樓, 造望樓十二. 平越縣附郭.

■ 194 도균부(都勻府)³⁶⁹ 성지

바로 도균위의 성이다. 1394년(조선 태조 3, 명 홍무 27)에 평강장군 하복(何福)이 토성을 쌓았다. 그 뒤에 지휘 황용(黃鏞)이 돌로 성을 쌓았는데 모두 1,072장이며 높이는 2장, 너비는 1장이다. 관루 384칸, 타 620개, 성루 5좌, 월성과 전각, 적루는 8좌이다. 성화 연간(1465~1487)에 부사 이인준(李麟濬)이 하천의 물을 끌어 와서 성을 두르는 해자로 만들었다. 도균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都勻府城池, 即都勻衛城. 明洪武二十七年, 平羌將軍何福築土城. 後指揮黃鏞砌石, 共一千七十二丈, 高二丈, 寬一丈, 串樓三百八十四間, 垛六百二十箇, 城樓五座, 月城, 轉閣, 敵樓, 八座. 成化間, 副使李麟濬便河引水, 環城爲壕. 都勻縣附郭.

■ 195 진원부(鎮遠府)³⁷⁰ 성지

1449년(조선 세종 31, 명 정통 14) 병비도 조지병(趙之屏)이 건의해서 성을 쌓았고, 지부 정절이 서쪽의 목가만(木家灣)을 다스릴 때 강을 건너 벼랑에 의지해서 벽돌로 성을 쌓았다. 둘레가 45장이고, 높이가 1장 5척이다. 타구는 76개, 성루는 1좌이다. 1583년(조선 선조 16, 명 만력 11)에 순안 빙혁원(馮奕垣)이 지부 장수양(張守壤)에게 격문을 보내 목가만의 성 외부에 석성을 120장으로 쌓았다. 우측에 나무꾼들이 다니는 작은 길을 닦았으며 돌로 동문(洞門)을 달았다. 우측에 노호(老虎)가 출몰하는 요처(凹處)에 거둑 돌을 쌓게 했다. 1642년(조선 인조 20, 숭정 15)에 지부 장종위가 또한 서문 근처 관(關) 터 위에 돌을 겹쳐서 대를 만들었으며, 높이는 1장 남짓이다. 동서 양쪽에 관을 만들었다. 진원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³⁶⁹ 도균부(都勻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 중부에 있는 첸난부이족 먀오족 자치주[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두원시[都勻市]이다.

³⁷⁰ 진원부(鎮遠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 중부에 있는 첸난부이족 먀오족 자치주의 전위안현(鎮遠縣)이다.

鎮遠府城池, 明正統己巳, 兵備道趙之屏建議築城. 知府程櫛於治西木家灣, 跨江據崖甃城, 四十五丈, 高一丈五尺, 垛口七十六箇, 城樓一座. 萬曆癸未, 巡按馮奕垣檄知府張守壤, 於木家灣城外築石城一百二十丈. 治右樵採小徑, 爲石圈硐門, 又於治右老虎衝空凹處, 壘石塞之. 崇禎壬午, 知府張宗偉又于西門臨關磯上砌石爲臺, 高丈許, 東西兩關. 鎮遠縣附郭.

■ 196 사남부(思南府)³⁷¹ 성지

1501년(조선 연산군 7, 명 홍치 14) 지부 나박(羅璞)이 처음 토성으로 쌓았다. 1549년(조선 명종 4, 명 가정 28) 지부 이몽상(李夢祥)이 중건하였다. 성의 둘레는 770여 장이고 높이는 1장 5척 너비는 8척 남짓이다. 문은 5개이다. 【동쪽은 청주, 서쪽은 청계, 남쪽은 청강, 북쪽은 청천, 동북쪽은 준화문이다.】 성루는 5좌가 있고 수문의 성루는 1좌이다. 1608년(조선 선조 41, 명 만력 36) 지부 완가상(宛嘉祥)이 벽돌로 바꾸어 쌓았다. 안화현이 이 성에 부속되어 있다.

思南府城池, 明弘治辛酉年, 知府羅璞始築土城. 嘉靖二十八年, 知府李夢祥重建. 周圍七百七十餘丈, 高一丈五尺, 寬八尺餘, 爲門五. 【東曰清州, 西曰清溪, 南曰清江, 北曰清泉, 東北曰遵化.】 城樓五座, 水門城樓一座. 萬曆三十六年, 知府宛嘉祥易以磚石. 安化縣附郭.

■ 197 석천부(石阡府)³⁷² 성지

1522년(조선 중종 17, 명 가정 원년) 지부 하방헌(何邦憲)이 토성으로 창건하였다. 1561년(조선 명종 16, 가정 40) 지부 소립(蕭立)이 돌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606장이고 높이는 1장 8척, 너비는 1장 5척, 성문은 4개이다. 【동쪽은 대옥, 서쪽은 징청, 남쪽은 영은, 북쪽은 공극문이다.】 성루는 4좌이다. 수관은 4동(洞)이다. 1564년(가정 43) 지부 왕관이 건의하여 관루를 증설했다.

石阡府城池, 明嘉靖元年, 知府何邦憲創建土城. 四十年, 知府蕭立甃以石, 周

371 사남부(思南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 동북부에 있는 퉁런시[銅仁市]에 있는 쓰난현[思南縣]이다.

372 석천부(石阡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 동북부에 있는 퉁런시에 있는 스첸현[石阡縣]이다.

圍六百六丈, 高一丈八尺, 廣一丈五尺, 城門四。【東曰對旭, 西曰澄清, 南曰迎恩, 北曰拱極。】城樓四座, 水關四洞. 四十三年, 知府王管議增串樓.

■ 198 사주부(思州府)³⁷³ 성지

1415년(조선 태종 15, 명 영락 13) 지부 최언준(崔彦俊)이 토성으로 창건했다. 1569년(조선 선조 2, 명 융경 3) 지부 장자중의 건의로 평계위(平溪衛)에 성을 세웠다. 1577년(조선 선조 10, 명 만력 5) 옛날에 다스리던 곳을 다시 회복시켜 바깥을 돌로 감싸 증축하였다. 둘레는 320장 높이는 1장 5척이고 문 3개와 성루 3좌를 만들었다. 1582년(만력 10) 지부 채무소(蔡懋昭)가 건의하여 뒤의 산을 둘러서 축성하여 내석성으로 하였다. 둘레는 120장이고 적대는 12좌를 증축하였다.

思州府城池, 明永樂十三年, 知府崔彦俊創築土城. 隆慶三年, 知府張子中, 議建平溪衛城. 萬曆五年, 復舊治重築外包以石, 周圍三百二十丈, 高一丈五尺, 爲門三, 城樓三座. 十年, 知府蔡懋昭議包築後山於內石城, 周一百二十丈, 增築敵臺十二座.

373 사주부(思州府) : 현재 중국 구이저우성 중부에 있는 첸난부이족 먀오족 자치주의 천궁현(岑鞏縣)이다.

III 동국성제(東國城制)와 동국성제제론

동국성제

■ 1 경성(京城)

1396년(태조 5) 백성 20만을 동원하여 돌로 쌓았다. 둘레는 9,975보이며 높이는 40척이다. 1422년(세종 4)에 개수하였고, 문 8개를 만들었다.【정남쪽은 승례, 정북쪽은 숙정, 정동쪽은 흥인, 정서쪽은 돈의, 동북쪽은 혜화, 서북쪽은 창의, 동남쪽은 광희, 서남쪽은 소의문이다.】

京城, 太祖五年, 發民丁二十萬石築. 周九千九百七十五步, 高四十尺. 世宗四年, 改修立門八. 【正南曰崇禮, 正北曰肅靖¹, 正東曰興仁, 正西曰敦義, 東北曰惠化, 西北曰彰義, 東南曰光熙, 西南曰昭義.】

■ 2 대흥산성(大興山城)²

【개성부에 있다.】1676년(숙종 2) 돌로 쌓았다.

大興山城, 【在開城府.】肅宗二年石築.

■ 3 강도 내성(江都內城)

처음에는 돌로 쌓았다. 둘레는 1,658보이다.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으로 관아가 훼손되었는데 1677년(숙종 3) 앞쪽은 돌, 뒤쪽은 흙으로 다시 쌓았다. 1710년(숙종

1 靖 : 저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으나 『만기요람』 「군정편(軍政編)4 관방(關防)」 한성부(漢城府)조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2 대흥산성(大興山城) : 경기도 개풍군의 천마산과 성거산 사이에 있는 석축산성이다. 17세기 후반 청의 대규모 내란인 이른바 삼번(三藩)의 난을 계기로 집권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과 윤희 등이 중심이 되어 북벌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허적은 천마산 일대에 산성을 축조하고 이를 대흥산성으로 명명할 것을 건의하여 숙종의 허락을 받았다. (『숙종실록』 숙종 1년 9월 18일(계묘)) 당시 북벌 준비의 일환으로 군권을 통제하는 도체찰사부가 복구되었고 도성 주변의 방어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개성 지역의 경우 개성 주변 주민의 피난을 위해 박연폭포가 있는 천마산 일대에 대한 축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대흥산성은 개성 지역 방어와 함께 도체찰사부의 진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축성이 이루어졌다. (『숙종실록』, 숙종 2년 4월 25일(정축))

36)에는 이전에 비해 점점 사면의 위치가 물러나서 다시 쌓게 되었다. 둘레는 15리 343보이고 타는 1,813개이다. 외성은 처음에는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43리 290보이고 타는 4,740개, 수문은 17개이다. 이번에 개축하면서 벽돌과 돌을 섞어서 쌓았다. 창성(倉城)은 창고로 삼았으며 돌로 쌓아두었다. 둘레는 703보이고 타는 311개이다.

江都內城, 初石築. 周一千六百五十八步. 仁祖十五年爲兵亂所毀. 肅宗三年改築. 前面以石, 後面以土. 三十六年, 改築比前稍退四面地步, 周十五里三百四十三步, 堞一千八百一十三. 外城初土築. 周四十三里二百九十步, 堞四千七百四十, 水門十七. 今改築壁石相雜, 倉城爲倉庫設石築. 周七百三步, 堞三百一十一.

■ 4 정족산성(鼎足山城)³

【강화부에 있다.】일설에 삼랑성(三郎城)이라고도 한다. 단군의 아들인 삼랑(三郎)이 쌓았다고 대대로 전해진다. 본조의 선원각(璿源閣)⁴이 이곳에 있다. 1738년(영조⁵ 14) 개축하였으며 둘레는 5리고 타는 705개이다.

鼎足山城,【在江華府.】一云三郎城. 世傳檀君子三郎所築, 本朝璿源閣在其中. 英宗十四年改築, 周五里, 堞七百五.

3 정족산성(鼎足山城) : 강화도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정족산성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지형적으로 방어에 매우 유리한 곳으로, 삼국시대 최초 축조되었고 이후 조선 후기 영조 대에 들어서 다시 수축되었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당시 강화부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양현수 휘하의 조선군의 공격에 크게 패하여 물러나기도 한 곳이다.

4 선원각(璿源閣) : 조선시대의 어첩(御牒), 왕비의 세보(世譜), 어제(御製), 어필(御筆), 어압(御押), 존호(尊號), 세자행록(世子行錄), 종반행적(宗班行蹟) 등을 보관하던 곳이다.

5 영조 : 원문은 영종이다. 1889년(고종 26) 영종의 묘호를 영조로 변경하였다. 조종법(祖宗法)에 따라 영종의 묘호를 부여했다. 중국 한 대의 고조와 세조[광무제(光武帝)]가 변란을 평정하여 왕조를 중흥시킨 사례를 근거로 영조가 무신란을 정벌한 공로를 인정하여 영조로 묘호를 올렸다. (『승정원일기』 2991책, 고종 26년 12월 5일(병자); 2992책, 고종 27년 1월 5일(병오))

■ 5 광주 남한산성(廣州南漢山城)⁶

바로 온조고성(溫祚古城)이다. 신라 문무왕이 또 일장성(日長城)을 돌로 쌓았다. 둘레는 4,360보이다. 1626년(인조 4) 돌로 개축하였다. 둘레는 6,297보이고 여첩은 1,897개이다. 웅성은 3개이며 웅성 하나는 둘레가 336보, 하나는 둘레가 247보, 하나는 91보이다.

廣州南漢山城, 即溫祚古城. 新羅文武王又築日長城石築, 周四千三百六十步. 本朝仁祖四年改爲石築, 周六千二百九十七步, 女堞一千八百九十七. 甕城三, 一周三百三十六步, 一周二百四十七步, 一周九十一步.

■ 6 연주봉성(連珠峰城)

【남한산성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307보이고 여첩은 73개이다.

連珠峰城, 【屬南漢.】石築, 周三百七步, 女堞七十三.

■ 7 봉암성(蜂巖城)

【남한산성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859보이고 여첩은 294개이다.

蜂巖城, 【屬南漢.】石築, 周一千八百五十九步, 女堞二百九十四.

■ 8 한봉성(汗峰城)

【남한산성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970보이고 여첩은 272개, 치성은 17개이다.

汗峰城, 【屬南漢.】石築, 周九百七十步, 女堞二百七十二, 雉城十.

■ 9 양주 북한산성(楊州北漢山城)

경도(京都)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동북쪽으로 양주까지 30리이며, 경도에서

6 남한산성(南漢山城) :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북한산성과 함께 도성을 지키던 남부의 산성이었다. 지금은 동·서·남문루와 장대(將臺)·돈대(墩臺)·암문(暗門)·우물·보(堡)·누(壘) 등의 방어시설과 관해(官廨), 군사훈련 시설 등이 있다. 둘레는 약 8km이다.

관할한다. 1711년(숙종 37)에 돌로 쌓았고, 둘레는 7,620보이다.

楊州北漢山城, 在京都北三十里, 東北距本州三十里, 管於京都. 肅宗三十七年石築, 周七千六百二十步.

■ 10 파주 장산진성(坡州長山鎭城)

북쪽 20리 되는 임진강변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길이는 100보이고, 여덟 곳에 돈대를 쌓았다. 1755년(영조 31)에 설치되었다.

坡州長山鎭城, 在北二十里, 臨津邊, 石築, 長百步, 築墩八所, 英宗乙亥設置.

■ 11 교동 읍성(喬桐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006척이며, 곡성은 4개이다.

喬桐邑城, 石築, 周一千六尺, 曲城四.

■ 12 화개산성(華蓋山城)

【교동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3,534척, 높이는 3장이다. 1737년(영조 13)에 개축되었다.

華蓋山城, 【在喬桐.】石築, 周三千五百三十四尺, 高三丈, 英宗十三年改築.

■ 13 수원 독성산성(水原禿城山城)⁷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水原禿城山城, 在東七里, 石築.

7 독성산성(禿城山城) : 경기도 오산의 독산(禿山)에 위치한 산성으로 남쪽에서 한성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로서 군사적 요충지였다. 백제 때 처음 구축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 전라도관찰사 권율(權慄)이 이곳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면서 그 전략적 유용성이 확인되었고, 이후에 수차례의 개축이 이루어졌다.

■ 14 통진 문수산성(通津文殊山城)⁸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리다. 1693년(숙종 19) 후릉에 행차할 때⁹ 이 산을 보고는 승전색(承傳色)¹⁰을 보내어 그 형태를 지도로 그려서 들이게 했는데 강화도 진로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1694년(숙종 20) 봄에 축성할 것을 처음 명령했다.¹¹

通津文殊山城, 在西二十里, 石築, 周十五里. 肅宗十九年幸厚陵時, 望見此山遣承傳, 圖形以納, 而以江都津路重地. 甲戌春始命築之.

■ 15 충주 읍성(忠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3,650척, 높이가 8척이다.

忠州邑城, 石築, 周三千六百五十尺, 高八尺.

■ 16 영춘 고성(永春古城)

남쪽 7리 되는 곳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23척이고 높이는 11척이다. 세상에서 전해지기를 고구려의 장수 바보온달이 을아조(乙阿朝)¹²를 지키기 위해 축성할 것을 청했다고 한다.

永春古城, 在南七里, 石築, 周一千五百二十三尺, 高十一尺. 世傳, 高麗將愚溫達, 請守乙阿朝築之.

8 문수산성(文殊山城) : 김포의 문수산에 수축된 산성으로, 조선 후기 삼남에서 한강을 통하여 서울로 들어가는 수로를 통제하며 강화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17세기 후반 최초 축성이 이루어지고 19세기 초 개축이 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과 전투가 벌어져 남문과 그 일대 성곽이 파괴되었다.

9 행차할 때 : 1693년 8월에 숙종이 개성을 거쳐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에 행행하였다. 제릉에 전알(展謁)하고, 후릉에 작헌례(酌獻禮)를 올렸다. (『숙종실록』, 숙종 19년 8월 30일(신축))

10 승전색(承傳色) : 조선시대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내시.

11 1694년……명령했다 : 강화도 축성에 대한 논의는 『숙종실록』에 자세하다. (『숙종실록』, 숙종 20년 6월 3일(기해))

12 을아조(乙阿朝) : 단양군 영춘(永春)의 옛 지명인 '을아단(乙阿旦)'이다.

■ 17 청주 읍성(淸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3,328척 5촌, 높이가 8척 8촌이며, 웅성은 2개이다. 병마절도사영(兵馬節度使營)이 성내에 있다.

淸州邑城, 石築, 周三千三百二十八尺五寸, 高八尺八寸, 甕城二. 兵馬節度使營在城內.

■ 18 상당산성(上黨山城)

【청주에 속한다.】주(州)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7,275척, 높이는 9척이며, 타는 1,176개, 치성은 3개이다.

上黨山城,【屬淸州.】在州東十五里, 石築, 周七千二百七十五尺, 高九尺, 堞一千一百七十六, 雉城三.

■ 19 홍주 읍성(洪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5,850척, 높이는 16척이며, 타는 368개, 곡성은 7개이다.

洪州邑城, 石築, 周五千八百五十尺, 高十六尺, 堞三百六十八, 曲城七.

■ 20 공주 쌍수산성(公州雙樹山城)

예전 이름은 공산성이었다. 1624년(인조 2)에 이괄의 난이 있었는데, 인조가 성내의 쌍수 아래에서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¹³ 산성의 이름을 쌍수라고 하였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포척으로 계산하면 5,469척이고, 높이는 3장 9척, 타는 805개다. 동북 사이에 수구문이 있으며 그 외부에 연못 하나를 팠다. 외성을 쌓았는데, 그 길이는 35장 52척, 높이는 6장 18척, 타는 30개다. 좌측 가장자리 익성의 길이는 25척, 타

13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 원문은 '駐蹕'이다. 인조는 1624년(인조 2)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공주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동안 공주의 공산성에서 국가의 주요 정사가 이뤄졌다. 보통 임금이 본궁을 떠나 난을 피하고자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을 파천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주필(駐蹕)'은 왕이 행행(幸行) 중에 잠시 쉬거나 숙박하는 일이다. 인조의 경우 5박 6일의 기간이지만 난을 피했고 그 안의 행정기능을 생각하면 주필보다는 파천이 적합해보이나, 당대 자료에서 주필 등의 표현을 주로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선빈, 「仁祖의 公山城 駐蹕과 후대의 記憶」, 『조선시대사학보』68, 조선시대사학회, 2014, 147~179쪽.)

30개이고 우측 가장자리 익성(翼城)과 좌측 가장자리 익성은 석축으로 같다. 암문¹⁴이 하나 있다.

公州雙樹山城, 古名公山城. 甲子李适之變, 仁祖駐蹕于城內雙樹下, 故因以雙樹名. 石築, 周以布尺計之則五千四百六十九尺, 高三丈九尺, 堞八百五. 東北間水, 口門外鑿一池. 築外城, 長三十五丈五十二尺, 高六丈十八尺, 堞三十. 左邊翼城長二十五丈, 堞三十. 右邊翼城與左邊翼城同石築, 暗門一.

■ 21 한산 읍성(韓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071척, 높이는 11척이며, 웅성은 5개, 곡성은 1개이다.

韓山邑城, 石築, 周二千七十一尺, 高十一尺, 甕城五, 曲城一.

■ 22 서천 읍성(舒川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525척, 높이는 10척이다.

舒川邑城, 石築, 周三千五百二十五尺, 高十尺.

■ 23 서산 읍성(瑞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717척, 높이는 9척이다.

瑞山邑城, 石築, 周二千七百十七尺, 高九尺.

■ 24 비인 읍성(庇仁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505척, 높이는 2척이며, 타는 20개, 웅성은 2개이다.

庇仁邑城, 石築, 周三千五百五尺, 高二尺, 堞二十, 甕城二.

14 암문(暗門) : 성벽에 누(樓)없이 만든 문이다.

■ 25 남포 읍성(藍浦邑城)

둘레는 2,476척, 높이는 15척이며, 타는 26개이고 웅성이 있다.

藍浦邑城, 周二千四百七十六尺, 高十五尺, 垛二十六, 有甕城.

■ 26 결성 읍성(結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325척이고 높이는 14척이다.

結城邑城, 石築, 周三千三百二十五尺, 高十四尺.

■ 27 보령 읍성(保寧邑城)

둘레는 2,109척이고 높이는 12척이다.

保寧邑城, 周二千一百九尺, 高十二尺.

■ 28 아산 공진창성(牙山貢津倉城)

서쪽 10리 되는 곳에 있는데 대내산 위이다. 1631년(인조 9)에 돌로 쌓은 것으로 둘레는 380척, 높이는 5척 5촌이다.

牙山貢津倉城, 在西十里, 大迺山上. 仁祖九年石築, 周三百八十尺, 高五尺五寸.

■ 29 해미 읍성(海美邑城)

둘레는 6,630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치성이 380개이다.

海美邑城, 周六千六百三十尺, 高十三尺, 雉城三百八十.

■ 30 강릉 읍성(江陵邑城)

예전에 흙으로 쌓았었다. 1512년(중종 7)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2,782척이다.

江陵邑城, 舊有土築. 中宗七年石築, 周二千七百八十二尺.

■ 31 삼척 읍성(三陟邑城)

3개 면을 돌로 쌓았다. 둘레는 2,054척이다. 서쪽은 절벽으로 둘레가 431척이다.

三陟邑城, 三面石築, 周二千五十四尺, 西絶壁, 周四百三十一尺.

■ 32 옥원성(沃原城)

【삼척에 속한다.】부(府) 남쪽 90리 되는 곳에 있다.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507척, 높이는 8척이다.

沃原城, 【屬三陟.】在府南九十里, 土築, 周五百七尺, 高八尺.

■ 33 평해 읍성(平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325척이다.

平海邑城, 石築, 周二千三百二十五尺.

■ 34 월송진성(月松鎭城)

【평해에 있다.】둘레는 628척이다.

月松鎭城, 【在平海.】周六百二十八尺.

■ 35 울진 읍성(蔚珍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560척이다.

蔚珍邑城, 石築, 周二千五百六十尺.

■ 36 황주 읍성(黃州邑城)

둘레는 14,170척, 높이는 30척이며, 동북의 높이는 15척이다. 타는 1,288개, 웅성은 1개, 치성은 7개, 곡성은 15개, 포루는 4개이다. 병마절도사영이 성내에 있다.

黃州邑城, 周一萬四千一百七十尺, 高三十尺, 東北高十五尺. 堞一千二百八十八,

甕城一, 雉城七, 曲城十五, 砲樓四. 兵馬節度使營在城中.

■ 37 정방산성(正方山城)

【황주에 있다.】주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1637년(인조 15)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24,475척, 높이는 30척이며, 동·서·북 3개 면의 높이는 15척이다. 타는 1,306개, 치성은 7개이다.

正方山城,【在黃州.】在州南三十里. 仁祖十五年石築, 周二萬四千四百七十五尺, 高三十尺, 東西北三面高十五尺. 垛一千三百六, 雉城七.

■ 38 평산 태백산성(平山太白山城)

성의 둘레는 12,111척, 높이는 20척이며, 곡성은 4개이다.

平山太白山城, 周一萬二千一百一十一尺, 高二十尺, 曲城四.

■ 39 서흥 대현산성(瑞興大峴山城)

동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0,238척, 높이는 21척이며, 여성은 694개, 치첩은 745개, 옹성은 3개이다.

瑞興大峴山城, 在東三十里, 石築, 周二萬二百三十八尺, 高二十一尺, 女城六百九十四, 雉堞七百四十五, 甕城三.

■ 40 봉산 사인암성(鳳山舍人巖城)

일명 동선관이다. 북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길이는 1,970보, 여장은 305개이다.

鳳山舍人巖城, 一名洞仙關, 在北十五里. 長一千九百七十步, 女牆三百五.

■ 41 산산극성(蒜山棘城)

【봉산에 있다.】군(郡) 서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예전에 토성(土城)으로 쌓았다. 가시나무를 심어 만든 목책(木柵)이 정방산(正方山) 꼭대기부터 박배포(朴排浦)에

이르기까지 길이가 43,659척이다. 1452년(문종 2)에 돌로 성을 다시 쌓았다. 길이는 5,030척, 높이는 7척이다.

蒜山棘城,【在鳳山.】在郡西四十里, 昔築土城. 樹之以棘自正方山頂至朴排浦, 長四萬三千六百五十九尺. 本朝文宗二年, 改築石城, 長五千三十尺, 高七尺.

■ 42 재령 장수산성(載寧長壽山城)

군 남쪽 70리 되는 곳에 있다. 둘레는 31,908척이다.

載寧長壽山城, 在郡南七十里, 周三萬一千九百八尺.

■ 43 수안 방원진(遂安防垣鎭)

북쪽 24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600여 척이고 좌우에 행성(行城)이 있다.

遂安防垣鎭, 在北二十四里, 石築, 周六百餘尺, 左右有行城.

■ 44 해주 읍성(海州邑城)

고려 공민왕 때(1351~1374)에 축성되었다. 1555년(명종 10)에 중수했고, 1591년(선조 24)에 중수했고, 1747년(영조 23)에 개축했다. 둘레는 13,120척, 높이는 28척, 여첩은 1,128개, 치성은 13개, 옹성은 1개이다.

海州邑城, 高麗恭愍王時築, 本朝明宗十年重修, 宣祖二十四年重修. 英宗二十三年改築. 周一萬三千一百二十尺, 高二十八尺, 女堞一千一百二十八, 雉城十三, 甕城一.

■ 45 지성산성(池城山城)

【해주에 있다.】1676년(숙종 2)에 돌로 다시 쌓았다. 둘레는 24,795척이다. 이에 수양산성(首陽山城)이라 칭해졌다.

池城山城,【在海州.】肅宗二年改石築, 周二萬四千七百九十五尺, 仍稱首陽山城.

■ 46 연안 읍성(延安邑城)

1555년(명종 10)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89척, 치성은 693개이다.

延安邑城, 明宗十年石築, 周一千三百八十九尺, 雉城六百九十三.

■ 47 봉세산성(鳳勢山城)

【연안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5,400척이다.

鳳勢山城, 【屬延安.】石築, 周五千四百尺.

■ 48 배천 치악성(白川雉嶽城)

세상에 전하기를 고구려 때 쌓았다고 한다. 둘레는 12,600척이다.

白川雉嶽城, 世傳高句麗時所築, 周一萬二千六百尺.

■ 49 웅진 읍성(甕津邑城)

둘레는 5,880척, 높이는 20척이며, 타는 507개이다.

甕津邑城, 周五千八百八十尺, 高二十尺, 堞五百七.

■ 50 소강행영성(所江行營城)

【웅진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540보이고 높이는 9척이다.

所江行營城, 【在甕津.】石築, 周一千五百四十步, 高九尺.

■ 51 은율 구월산성(殷栗九月山城)

동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4,366척이고 높이는 15척이다.

殷栗九月山城, 在東二十五里, 石築, 周一萬四千三百六十六尺, 高十五尺.

■ 52 전주 읍성(全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618보이다. 여첩은 1,307개, 치성은 11개, 웅성은 1개이다.

全州邑城, 石築, 周二千六百十八步, 女堞一千三百七, 雉城十一, 甕城一.

■ 53 위봉산성(威鳳山城)

【전주에 속한다.】 주 동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5,097파(把),¹⁵ 여첩은 2,427개이다.

威鳳山城, 【屬全州.】 在州東四十里, 石築, 周五千九十七把, 女堞二千四百二十七.

■ 54 고부 읍성(古阜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369척, 높이는 13척이며, 치첩은 480개이다.

古阜邑城, 石築, 周二千三百六十九尺, 高十三尺, 雉堞四百八十.

■ 55 만경 읍성(萬頃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820척이고 높이는 20척이다. 치첩은 2,410개, 웅성은 4개이다.

萬頃邑城, 石築, 周二千八百二十尺, 高二十尺, 雉堞二千四百十, 甕城四.

■ 56 임피 읍성(臨陂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674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웅성은 1개, 곡성은 7개이다.

臨陂邑城, 石築, 周三千六百七十四尺, 高八尺, 甕城一, 曲城七.

■ 57 고진성(古鎭城)

【임피에 속한다.】 현(縣) 서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10여

15 파(把) : 1파는 주척(周尺)의 1척(尺) 9분(分) 9리(厘)에 해당하는 영조척(營造尺)의 반을 기준으로 한 10척의 길이이다.

리이다. 고려 초기 조창(漕倉)으로써, 12개의 창고 중 하나이다.

古鎮城,【屬臨陂】在縣西十里,土築,周十餘里.高麗初爲漕倉,卽十二倉之一.

■ 58 부안 읍성(扶安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16,450척이다. 높이는 15척이다.

扶安邑城,石築,周一萬六千四百五十尺,高十五尺.

■ 59 옥구 읍성(沃溝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3,330척이다. 높이가 20척이고 치첩이 3,410개, 웅성이 4개이다. 옛 현성(縣城)은 돌로 쌓았다. 둘레가 3,490척이다. 1514년(중종 9)에 옛 성을 중수했다.

沃溝邑城,石築,周三千三百三十尺,高二十尺,雉堞三千四百十,甕城四.古縣城,石築,周三千四百九十尺,中宗九年重修舊城.

■ 60 용안 읍성(龍安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4,240척이다. 높이는 7척이다.

龍安邑城,石築,周四千二百四十尺,高七尺.

■ 61 나주 읍성(羅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126척이고 높이는 9척, 여첩은 2,512개이다.

羅州邑城,石築,周三千一百二十六尺,高九尺,女堞二千五百十二.

■ 62 장성 입암산성(長城笠巖山城)

북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동쪽 주변의 둘레는 1,300여 파이고, 서쪽 주변의 둘레는 1,400파이다.

長城笠巖山城, 在北四十里, 石築, 周東邊一千三百餘把, 西邊一千四百把.

■ 63 영암 읍성(靈巖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369척, 높이는 15척이며, 치첩은 1,025개이다.

靈巖邑城, 石築, 周四千三百六十九尺, 高十五尺, 雉堞一千二十五.

■ 64 이진진성(梨津鎭城)

【영암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470척, 높이는 8척이며, 치첩은 334개이다.

梨津鎭城,【在靈巖.】石築, 周一千四百七十尺, 高八尺, 雉堞三百三十四.

■ 65 어란진성(於蘭鎭城)

【영암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407척이고 치첩은 325개이다.

於蘭鎭城,【在靈巖.】石築, 周一千四百七尺, 雉堞三百二十五.

■ 66 영광 읍성(靈光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469척이고 높이는 6척이다.

靈光邑城, 石築,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六尺.

■ 67 함평 기산성(咸平箕山城)

북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850척이다.

咸平箕山城, 在北五里, 石築, 周一千八百五十尺.

■ 68 고창 읍성(高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080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高敞邑城, 石築, 周三千八十尺, 高十三尺.

■ 69 무장 읍성(茂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639척이고 높이는 7척이다.

茂長邑城, 石築, 周二千六百三十九尺, 高七尺.

■ 70 무안 읍성(務安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700척이고 높이는 15척이다.

務安邑城, 石築, 周一千七百尺, 高十五尺.

■ 71 목포진성(木浦鎭城)

【무안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302척이고 높이는 7척 2촌이다.

木浦鎭城, 【在務安.】石築, 周一千三百二尺, 高七尺二寸.

■ 72 진도 읍성(珍島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400척, 높이는 11척이며, 옹성은 14개, 치성은 58개이다.
옛 진도성은 동북쪽 15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는 3,870척이다.

珍島邑城, 石築, 周二千四百尺, 高十一尺, 甕城十四, 雉城五十八. 古珍島城,
在東北十五里, 石築, 周三千八百七十尺.

■ 73 남도진성(南桃鎭城)

【진도에 있다.】군 서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040척, 높이는 12척이며, 치첩은 43개이다.

南桃鎭城, 【在珍島.】在郡西四十里, 石築, 周一千四十尺, 高十二尺, 雉堞四十三.

■ 74 금갑도진성(金甲島鎭城)

【진도에 있다.】군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050척, 높이

는 11척이며, 치첩은 45개이다.

金甲島鎮城,【在珍島.】在郡南三十里, 石築, 周一千五十尺, 高十一尺, 雉堞四十五.

■ 75 강진 읍성(康津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8,402척이고 높이는 9척이다. 치첩은 870개, 곡성은 8개이다.

康津邑城, 石築, 周八千四百二尺, 高九尺, 雉堞八百七十, 曲城八.

■ 76 가리진성(加里鎮城)

【강진에 있다.】완도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리이다. 1521년(중종 16)에 왜구에 대한 요해지(要害地)이므로 진을 설치하였다.

加里鎮城,【在康津.】在莞島, 石築, 周三里. 中宗十六年以倭要害設鎮.

■ 77 해남 읍성(海南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857척, 높이는 15척이다. 여첩은 455개, 웅성은 3개이다.

海南邑城, 石築, 周二千八百五十七尺, 高十五尺, 女堞四百五十五, 甕城三.

■ 78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성(全羅右道水軍節度使營城)

해남현치 동쪽 70리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848척, 높이는 11척이다. 여첩은 607개, 웅성은 4개이다.

全羅右水軍節度使營城, 在海南縣治東七十里, 石築, 周三千八百四十八尺, 高十一尺, 女堞六百七, 甕城四.

■ 79 남원 읍성(南原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8,199척, 높이는 13척, 웅성은 16개, 치첩은 1,016개이다.

南原邑城, 石築, 周八千一百九十九尺, 高十三尺, 甕城十六, 雉堞一千十六.

■ 80 교룡산성(蛟龍山城)¹⁶

【남원에 속한다.】부의 북쪽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5,717척, 높이는 11척이다. 선조 시기(1567~1608) 임진왜란 때 중수했다.

蛟龍山城,【屬南原.】在府北, 石築, 周五千七百十七尺, 高十一尺, 宣祖朝倭亂時重修.

■ 81 담양 금성산성(潭陽金城山城)

북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4,940척, 높이는 12척이다. 치첩은 1,818개, 웅성은 72개이다.

潭陽金城山城, 在北二十里, 石築, 周四千九百四十尺, 高十二尺. 雉堞一千八百十八, 甕城七十二.

■ 82 무주 적상산성(茂朱赤裳山城)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6,920척, 높이는 7척이다.

茂朱赤裳山城, 在府南三十里, 石築, 周一萬六千九百二十尺, 高七尺.

■ 83 광주 읍성(光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8,253척이다.

光州邑城, 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16 교룡산성(蛟龍山城) :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임진왜란 당시 호남의 대표적인 방어 산성이었다. 교룡산성의 축성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백제 때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선조와 숙종 대에 수축되었다.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3일(임자); 『숙종실록』 권51, 숙종 38년 6월 14일(병인)) 산세가 험준하여 방어에 용이하다. 정유 재란 때, 조선군은 교룡산성에서 방어하고자 했으나 명의 장수 양원이 평지성인 남원성에서 싸울 것을 명하여 패했다.

■ 84 장흥 읍성(長興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9,004척, 높이는 8척이며, 치첩은 1,014개이다.

長興邑城, 石築, 周九千四尺, 高八尺, 雉堞一千十四.

■ 85 회령진성(會寧鎭城)

【장흥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990척, 높이는 8척이며, 치첩은 993개이다.

會寧鎭城,【在長興】石築, 周一千九百九十尺, 高八尺, 雉堞九百九十三.

■ 86 순천 읍성(順天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383척, 높이는 14척이다.

順天邑城, 石築, 周三千三百八十三尺, 高十四尺.

■ 87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성(全羅左道水軍節度使營城)

순천부치 동쪽 80리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336척, 높이는 13척이다.

全羅左水軍節度使營城, 在順天府治東八十里, 石築, 周三千三百三十六尺, 高十三尺.

■ 88 낙안 읍성(樂安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90척이고, 높이는 8척, 웅성은 6개, 치성은 660개이다.

樂安邑城, 石築, 周一千五百九十尺, 高八尺, 甕城六, 雉城六百六十.

■ 89 보성 읍성(寶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953척, 높이는 9척이다.

寶城邑城, 石築, 周二千九百五十三尺, 高九尺.

■ 90 광양 읍성(光陽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974척, 높이는 13척, 치첩은 483개, 웅성은 3개이다.

光陽邑城, 石築, 周九百七十四尺, 高十三尺, 雉堞四百八十三, 甕城三.

■ 91 구례 읍성(求禮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481척, 높이는 13척이다.

求禮邑城, 石築, 周四千四百八十一尺, 高十三尺.

■ 92 흥양 읍성(興陽邑城)

둘레가 3,800척이다. 높이는 12척, 치성 322개, 웅성 2개, 곡성 13개이다.

興陽邑城, 周三千八百尺, 高十二尺, 雉城三百二十二, 甕城二, 曲城十三.

■ 93 사도진성(蛇渡鎭城)

【흥양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800척, 높이는 13척, 치성이 55개이다.

蛇渡鎭城,【在興陽.】石築, 周一千八百尺, 高十三尺, 雉城五十五.

■ 94 녹도진성(鹿島鎭城)

【흥양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400척, 높이는 13척, 치성이 49개이다.

鹿島鎭城,【在興陽.】石築, 周一千四百尺, 高十三尺, 雉城四十九.

■ 95 여도진성(呂島鎭城)

【흥양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100척, 높이는 12척, 치성이 44개이다.

呂島鎭城,【在興陽.】石築, 周一千一百尺, 高十二尺, 雉城四十四.

■ 96 발포진성(鉢浦鎭城)

【흥양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200척, 높이는 13척, 치성이 47개이다.

鉢浦鎭城,【在興陽.】石築, 周一千二百尺, 高十三尺, 雉城四十七.

■ 97 동북 웅성산성(同福甕城山城)

북쪽 10리 되는 곳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는 3,874척이다.

同福甕城山城, 在北十里, 石築, 周三千八百七十四尺.

■ 98 제주 읍성(濟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5,489척, 높이는 11척, 격대는 27개, 치첩이 404개이다.

濟州邑城, 石築, 周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擊臺二十七, 垛堞四百四.

■ 99 조천진성(朝天鎭城)

【제주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428척, 높이는 9척이다.

朝天鎭城,【屬濟州.】石築, 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

■ 100 애월진성(涯月鎭城)

【제주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549척, 높이는 8척이다.

涯月鎭城,【屬濟州.】石築, 周五百四十九尺, 高八尺.

■ 101 명월진성(明月鎭城)

【제주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3,020척, 높이는 8척이다.

明月鎭城,【屬濟州.】石築, 周三千二十尺, 高八尺.

■ 102 별방진성(別防鎭城)

【제주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2,390척, 높이는 7척이다.

別防鎭城,【屬濟州.】石築, 周二千三百九十尺, 高七尺.

■ 103 정의 읍성(旌義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980척이다.

旌義邑城,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尺.

■ 104 수산진성(水山鎭城)

【정의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164척, 높이는 16척이다.

水山鎭城,【屬旌義.】石築, 周一千一百六十四尺, 高十六尺.

■ 105 서귀진성(西歸鎭城)

【정의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825척, 높이는 12척이다.

西歸鎭城,【屬旌義.】石築, 周八百二十五尺, 高十二尺.

■ 106 대정 읍성(大靜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090척, 높이는 17척 4촌, 타는 240개이다.

大靜邑城, 石築. 周四千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垛二百四十.

■ 107 화북성(禾北城)

【대정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660척이고 높이는 12척이다.

禾北城,【屬大靜.】石築, 周六百六十尺, 高十二尺.

■ 108 차귀진성(遮歸鎭城)

【대정에 속한다.】현 서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466척이다.

遮歸鎭城,【屬大靜.】在縣西二十五里, 石築, 周一千四百六十六尺.

■ 109 동해방성(東海防城)

【대정에 속한다.】현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511척이다.

東海防城,【屬大靜.】在縣西四十五里, 石築, 周五百一十一尺.

■ 110 경주 읍성(慶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075척이고 높이는 12척이다.

慶州邑城, 石築, 周四千七十五尺, 高十二尺.

■ 111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성(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城)

【울산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9,316척이고 높이는 12척, 타는 851개이다.

慶尙左兵馬節度使營城,【在蔚山.】石築, 周九千三百十六尺, 高十二尺, 垛八百五十一.

■ 112 양산 읍성(梁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710척, 높이는 13척이다.

梁山邑城, 石築, 周三千七百十尺, 高十三尺.

■ 113 성황산성(城隍山城)

【양산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4,368척이고, 높이는 6척이다.

城隍山城,【屬梁山.】石築, 周四千三百六十八尺, 高六尺.

■ 114 흥해 읍성(興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1,493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興海邑城, 石築, 周一千四百九十三尺, 高十三尺.

■ 115 청하 읍성(淸河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1,353척이고 높이는 9척이다.

淸河邑城, 石築, 周一千三百五十三尺, 高九尺.

■ 116 영일 읍성(迎日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2,940척이고 높이는 12척이다.

迎日邑城, 石築, 周二千九百四十尺, 高十二尺.

■ 117 장기 읍성(長鬐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2,980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長鬐邑城,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尺, 高十尺.

■ 118 언양 읍성(彦陽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3,064척이고 높이는 13척, 여첩은 834개이다.

彦陽邑城, 石築, 周三千六十四尺, 高十三尺, 女堞八百三十四.

■ 119 동래 읍성(東萊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3,090척이고 높이는 13척, 1731년(영조 7)에 옛터를 개척해서 조금 넓혀서 다시 쌓았다. 둘레는 17,291척이고 높이는 17척이다.

東萊邑城, 石築, 周三千九十尺, 高十三尺. 英宗七年, 拓其舊址而稍廣之改築. 周一萬七千二百九十一尺, 高十七尺.

■ 120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성(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城)

【동래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9,190척, 높이는 1장 3척, 타는 375개이다.

慶尙左水軍節度使營城,【在東萊.】石築, 周九千一百九十尺, 高一丈三尺, 垛三百七十五.

■ 121 다대포성(多大浦城)¹⁷

【동래에 있다.】부 남쪽 54리 되는 곳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는 1,806척, 높이는 13척이다.

多大浦城,【在東萊.】在府南五十四里, 石築, 周一千八百六尺, 高十三尺.

■ 122 두모포성(豆毛浦城)

【동래에 있다.】1510년(중종 5)에 처음 돌로 쌓았다. 둘레는 1,250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豆毛浦城,【在東萊.】中宗五年始石築, 周一千二百五十尺, 高十尺.

■ 123 안동 읍성(安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947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安東邑城, 石築, 周二千九百四十七尺, 高八尺.

■ 124 영해 읍성(寧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278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寧海邑城, 石築, 周一千二百七十八尺, 高十三尺.

17 다대포성(多大浦城) : 다대진(多大鎭)으로 시작되어 조선대에 항상 왜구 방어 문제를 논의하면 다대포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했던 진영으로, 북방의 만포진(滿浦鎭)과 함께 남방의 군사상 요충지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중종실록』, 중종 17년 2월 27일(갑진)) 다만 진영의 개념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조선후기까지도 다대포라는 명칭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고종대까지도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라는 관직명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125 영덕 읍성(盈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397척, 높이는 12척이다.

盈德邑城, 石築, 周二千三百九十七尺, 高十二尺.

■ 126 대구 읍성(大丘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124보, 높이는 22척, 여첩은 955개이다.

大丘邑城, 石築, 周二千一百二十四步, 高二十二尺, 女堞九百五十五.

■ 127 밀양 읍성(密陽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670척, 높이는 9척, 여첩은 1,580개이다. 1479년(성종 10)에 쌓았다.

密陽邑城, 石築, 周四千六百七十尺, 高九尺, 女堞一千五百八十. 成宗十年築.

■ 128 청도 읍성(淸道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70보, 높이는 5척 5촌, 여첩은 600개이다.

淸道邑城, 石築, 周一千五百七十步, 高五尺五寸, 女堞六百.

■ 129 경산 읍성(慶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200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慶山邑城, 石築, 周一千二百尺, 高十尺.

■ 130 인동 천생산성(仁同天生山城)¹⁸

천생산(天生山)에 있다. 4면에 있는 석벽(石壁)이 깎아질러져 있어 마치 성이 천연으로 된 것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1601년(선조 34)에 찰리사 곽재우가 외성을 쌓았다.¹⁹ 둘레가 3,612척이다.

仁同天生山城, 在天生山, 四面石壁削立爲城如天作故名, 宣祖三十四年, 察理使郭再祐築外城. 周三千六百十二尺.

■ 131 칠곡 읍성(漆谷邑城)

내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가 4,710보이고, 여첩이 1,887개이다. 1640년(인조 18)에 쌓았다. 외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가 3,754보이고, 여첩이 1,890개이다. 1700년(숙종 26)에 쌓았다. 중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가 602보이고, 여첩이 402개이다. 1741년(영조 17) 쌓았다.

漆谷邑城, 內城石築, 周四千七百十步, 女堞一千八百八十七, 仁祖十八年築. 外城石築, 周三千七百五十四步, 女堞一千八百九十, 肅宗二十六年築. 中城石築, 周六百二步, 女堞四百二, 英宗十七年築.

■ 132 상주 읍성(尙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가 3,883척, 높이는 9척이다.

尙州邑城, 石築, 周三千八百八十三尺, 高九尺.

■ 133 성주 읍성(星州邑城)

1520년(중종 15)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6,052척, 높이는 9척이다. 1591년(선조 24)에 개수했다. 여첩은 500개이다.

星州邑城, 中宗十五年石築, 周六千五十二尺, 高九尺. 宣祖二十四年改修, 女堞五百.

18 천생산성(天生山城) : 영남대로의 낙동강 유역을 수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된 성이다. 경상도 인동현 천생산에 축성되었다. 천생산성은 박혁거세가 축조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어 곽재우 등이 수축했다. 금오산성, 가산산성과 함께 낙동강 유역의 영남대로를 수비했다. 서울에서 동래로 이어지는 영남대로는 의주대로와 함께 조선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또한 낙동강은 수로로써도 중요했다. 천생산성은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영남대로에 위치했다. 임진왜란 중에 류성룡이 천생산성 축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군사적 역할이 재개되었다. (『선조실록』, 선조 29년 4월 2일(무술))

19 1601년……쌓았다 : 『선조실록』에 따르면 곽재우가 1604년 찰리사로 임명되어, 축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조실록』 권173, 선조 37년 4월 14일(갑오))

■ 134 독용산성(禿用山城)

【성주에 속한다.】주 서쪽 5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수도산(修道山) 아래이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4,581보이다.

禿用山城,【屬星州.】在州西五十里, 修道山下. 石築, 周四千五百八十一步.

■ 135 선산 읍성(善山邑城)

1734년(영조 10)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1,448척이다. 높이는 9척이다.

善山邑城, 英宗十年石築, 周一千四百四十八尺, 高九尺.

■ 136 금오산성(金烏山城)

【선산에 속한다.】부 남쪽 5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7,644척, 높이는 7척이다. 성이 없는 절벽은 661보이다. 외성의 둘레는 4,135척이고 높이는 14척이다.

金烏山城,【屬善山.】在府南五十里, 石築, 周七千六百四十四尺, 高七尺. 無城絕壁六百六十一步, 外城周四千一百三十五尺, 高十四尺.

■ 137 문경 조령성(聞慶鳥嶺城)

1708년(숙종 34)에 돌로 쌓았다. 남북으로 18리이고, 둘레는 18,509보이다. 성은 3곳에 있다. 한 곳은 조령의 꼭대기에 있어서 충청도와 경상도를 경계 짓는다. 하나는 응암 북쪽에 있는데 충원의 옛 성을 고쳐 쌓은 것으로 중성(中城)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초곡에 있는데 군향 창고가 있다. 이 3개의 성은 모두 홍예문이 있어서 대로와 통한다. 영성은 조령관(鳥嶺關)이라 하고 중성은 조동문(鳥東門)이라 하며 초곡성은 주흘관(主屹關)이라 한다. 또한 수구 홍예문 3칸을 두어서 성내의 여러 물줄기가 이곳을 지나 흐르게 했다.

聞慶鳥嶺城, 肅宗三十四年石築. 南北十八里, 周一萬八千五百九步. 城在三處, 一在嶺上限湖嶺界, 一在鷹巖北因忠, 元舊城改築謂之中城, 一在草谷有軍

餉倉庫, 三城皆有虹霓門, 以通大路. 嶺城,【曰鳥嶺關.】中城,【曰鳥東門.】草谷城,【曰主屹關.】又置水口虹霓門三間, 城內諸澗, 皆流出於此.

■ 138 고모성(姑母城)

【문경에 속한다.】토천 서쪽의 단봉 위의 양 협곡에 있으며 중반을 묶은 것처럼 대천과 대로가 그 성 아래를 경유한다. 좌도와 우도가 서로 만나는 곳에 둘로 쌓았다. 둘레는 990척이다.

姑母城,【屬聞慶.】在兎遷西斷峰上兩峽, 如束中盤, 大川路出其下, 據左右道交會之處. 石, 周九百九十尺.

■ 139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영성(慶尙右道兵馬節度使營城)

진주의 남강변에 있다. 내성의 둘레는 1,930척, 높이는 25척, 여첩은 158개이다. 외성의 둘레는 10,330척이고, 높이는 25척, 타 938개, 웅성 3개, 수문 2개, 암문 1개가 있다.

慶尙右兵馬節度使營城, 在晉州南江邊. 內城周一千九百三十尺, 高二十五尺, 女堞一百五十八. 外城周一萬三百三十尺, 高二十五尺, 堞九百三十八, 甕城三, 水門二, 暗門一.

■ 140 적량성(赤梁城)

【진주에 있다.】주 남쪽 113리 되는 곳에 있다. 둘로 쌓았다. 둘레는 1,182척이다.

赤梁城,【在晉州.】在州南一百十三里, 石築, 周一千一百八十二尺.

■ 141 삼천진성(三千鎭城)

【진주에 있다.】주 남쪽 74리 되는 곳에 있다. 둘로 쌓았다. 둘레는 2,050척이다.

三千鎭城,【在晉州.】在州南七十四里, 石築, 周二千五十尺.

■ 142 함양 읍성(咸陽邑城)

본래 흙으로 쌓았다. 1729년(영조 5)에 다시 돌로 쌓았다. 둘레는 735척이다.

咸陽邑城, 本土築. 英宗五年改石築, 周七百三十五尺.

■ 143 곤양 읍성(昆陽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765척이고, 높이는 12척, 여첩은 767개이다.

昆陽邑城, 石築, 周三千七百六十五尺, 高十二尺, 女堞七百六十七.

■ 144 남해 읍성(南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876척, 높이는 13척, 여첩은 590개, 웅성은 18개이다. 1459년(세조 5)에 쌓았다.

南海邑城, 石築, 周二千八百七十六尺, 高十三尺, 女堞五百九十, 甕城十八. 世祖五年築.

■ 145 평산포성(平山浦城)

【남해에 있다.】부 남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58척이다.

平山浦城, 【在南海.】在府南二十五里, 石築, 周一千五百五十八尺.

■ 146 성고개보(城古介堡)

【남해에 있다.】부 남쪽 22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760척이다.

城古介堡, 【在南海.】在府南二十二里, 石築, 周七百六十尺.

■ 147 미조항성(彌助項城)

【남해에 있다.】부 남동쪽 87리 되는 곳에 있다. 1522년(중종 17)에 진을 두고 돌로 쌓았다. 둘레는 2,146척, 높이는 11척이다.

彌助項城,【在南海.】在府東八十七里. 中宗十七年置鎮, 石築, 周二千一百四十六尺, 高十一尺.

■ 148 우고개성(牛古介城)

【남해에 속한다.】부 남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913척이다.

牛古介城,【屬南海.】在府南二十五里, 石築, 周九百十三尺.

■ 149 곡포성(曲浦城)

【남해에 속한다.】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960척, 높이는 11척이다. 1522년(중종 17)에 우고개를 혁파하고 이곳으로 옮겨 설치했다.

曲浦城,【屬南海.】在府南三十里, 石築, 周九百六十尺, 高十一尺. 中宗十七年, 革牛古介移置于此.

■ 150 거창성산성(居昌城山城)

북쪽 5리 되는 평강 위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리이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삼국시대에 쌓았다고 한다.

居昌城山城, 在北五里, 平岡上, 石築, 周三里. 世傳三國時築.

■ 151 건흥산성(乾興山城)

【거창에 속한다.】부 북쪽 8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리이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삼한시기에 쌓았다고 한다.

乾興山城,【屬居昌.】在府北八里, 石築, 周三里. 世傳三韓時築.

■ 152 사천 읍성(泗川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5,015척, 높이는 15척, 여첩은 630개, 웅성은 3개이다.

泗川邑城, 石築, 周五千十五尺, 高十五尺, 女堞六百三十, 甕城三.

■ 153 삼가 읍성(三嘉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259척, 높이는 9척이다.

三嘉邑城, 石築, 周三千二百五十九尺, 高九尺.

■ 154 의령 읍성(宜寧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70척, 높이는 4척 5촌이다. 1589년(선조 22)에 쌓았다.

宜寧邑城, 石築, 周一千五百七十尺, 高四尺五寸. 宣祖二十二年築.

■ 155 김해 읍성(金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683척, 높이는 15척, 여첩은 333개, 웅성은 4개이다.

金海邑城, 石築, 周四千六百八十三尺, 高十五尺, 女堞三百三十三, 甕城四.

■ 156 창원 읍성(昌原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004척, 곡성 18개, 웅성 4개, 여첩은 600개이다.

昌原邑城, 石築, 周二千四尺, 曲城十八, 甕城四, 女堞六百.

■ 157 함안 읍성(咸安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7,003척, 높이는 13척, 여첩은 504개이다.

咸安邑城, 石築, 周七千三尺, 高十三尺, 女堞五百四.

■ 158 옥포성(玉浦城)

【거제에 있다.】 부 동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074척, 높이는 3척이다.

玉浦城, 【在巨濟.】 在府東四十里, 石築, 周一千七十四尺, 高三尺.

■ 159 지세포성(知世浦城)

【거제에 있다.】부 동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605척, 높이는 13척이다.

知世浦城,【在巨濟.】在府東四十里, 石築, 周一千六百五尺, 高十三尺.

■ 160 고성 읍성(固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524척, 높이는 15척이다.

固城邑城, 石築, 周三千五百二十四尺, 高十五尺.

■ 161 삼도통제사영성(三道統制使營城)

【고성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1,730척, 높이는 15척, 타는 707개이다.

三道統制使營城,【在固城.】石築, 周一萬一千七百三十尺, 高十五尺, 垛七百七.

■ 162 소을비포성(所乙非浦城)

【고성에 있다.】현 서쪽 47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825척, 높이는 14척이다.

所乙非浦城,【在固城.】在縣西四十七里, 石築, 周八百二十五尺, 高十四尺.

■ 163 칠원 읍성(漆原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95척, 높이는 11척, 여첩은 136개, 웅성은 6개이다.

漆原邑城, 石築, 周一千五百九十五尺, 高十一尺, 女堞一百三十六, 甕城六.

■ 164 진해 읍성(鎭海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46척, 높이는 9척, 곡성은 5개, 여첩은 229개이다.

鎭海邑城, 石築, 周四百四十六尺, 高九尺, 曲城五, 女堞二百二十九.

■ 165 웅천 읍성(熊川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514척, 높이는 15척이다.

熊川邑城, 石築, 周三千五百十四尺, 高十五尺.

■ 166 제포성(濟浦城)

【웅천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4,313척이다.

濟浦城,【在熊川.】石築, 周四千三百十三尺.

■ 167 안골포성(安骨浦城)

【웅천에 있다.】현 동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714척, 높이는 10척이다.

安骨浦城,【在熊川.】在縣東二十五里, 石築, 周一千七百十四尺, 高十尺.

■ 168 함흥 읍성(咸興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2,659척, 높이는 2장 1척, 타는 466개, 관찰사영이 성내에 있다.

咸興邑城, 石築, 周一萬二千六百五十九尺, 高二丈一尺, 堞四百六十六. 觀察使營在城內.

■ 169 영흥 성력산성(永興聖歷山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982척이다.

永興聖歷山城, 石築, 周二千九百八十二尺.

■ 170 산창동성(山倉洞城)

【영흥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5,058척이다.

山倉洞城,【屬永興.】石築, 周五千五十八尺.

■ 171 고원 산곡사성(高原山谷社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68척이고, 높이는 5척이다.

高原山谷社城, 石築, 周一千五百六十八尺, 高五尺.

■ 172 문천 운림진성(文川雲林鎭城)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213척, 높이는 12척, 고려 현종 시기(1009~1031)에 처음 쌓았다.

文川雲林鎭城, 在西三十里, 石築, 周一千二百十三尺, 高十二尺. 高麗顯宗時始築.

■ 173 북청부성(北靑府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6,000척이다.

北靑府城, 石築, 周六千尺.

■ 174 단천 읍성(端川邑城)

돌로 쌓았다. 1448년(세종 30)에 처음 쌓았다. 1733년(영조 9)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948장 9척이고, 높이는 668척,²⁰ 여첩은 138개이다.

端川邑城, 石築. 世宗戊辰始築, 英宗癸丑修築. 周九百四十八丈九尺, 高六百六十八尺, 女堞一百三十八.

20 둘레는……668척 :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권22,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에서 이 부분 내용이 오류임을 지적하고 '둘레는 3968척이고 높이는 8척'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端川邑城.【周九百四十八丈九尺, 高六百六十八尺, 女堞一百三十八】案 注大誤, 當作周三千九百六十八尺, 高八尺.”]

■ 175 쌍청보(雙靑堡)

【단천에 있다.】부 서북쪽 231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63척, 높이는 9척이다.

雙靑堡,【在端川.】在府西北二百三十一里, 石築, 周一千三百六十三尺, 高九尺.

■ 176 황토기보(黃土岐堡)

【단천에 있다.】부 북쪽 230리 되는 곳에 있다. 둘레는 1,031척, 높이는 5척이다.

黃土岐堡,【在端川.】在府北二百三十里, 周一千三十一尺, 高五尺.

■ 177 이성 읍성(利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026척, 높이는 8척이다.

利城邑城, 石築, 周三千二十六尺, 高八尺.

■ 178 홍원 읍성(洪原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861보, 치성은 435개이다.

洪原邑城, 石築, 周八百六十一歩, 雉城四百三十五.

■ 179 갑산 읍성(甲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300척, 높이는 3장, 성가퀴는 530개, 타는 533개, 웅성은 6개, 치성은 13개이다.

甲山邑城, 石築, 周三千三百尺, 高三丈, 堞五百三十, 垛五百三十三, 甕城六, 雉堞十三.

■ 180 삼수 읍성(三水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5,735척, 높이는 9척, 치첩은 191개, 타는 58개이다.

三水邑城, 石築, 周五千七百三十五尺, 高九尺. 雉堞一百九十一, 堞五十八.

■ 181 인차외보(仁遮外堡)

【삼수에 있다.】부 동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63척, 높이는 9척이다.

仁遮外堡,【在三水.】在府東三十里, 石築, 周三百六十三尺, 高九尺.

■ 182 나난보(羅暖堡)²¹

【삼수에 있다.】부 북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360척, 높이는 9척이다.

羅暖堡,【在三水.】在府北六十里, 石築, 周三千三百六十尺, 高九尺.

■ 183 소농보(小農堡)²²

【삼수에 있다.】부 북쪽 16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00척이다.

小農堡,【在三水.】在府北十六里, 石築, 周一千三百尺.

■ 184 가을파지보(茄乙波知堡)

【삼수에 있다.】부 북쪽 9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500척, 높이는 9척이다.

茄乙波知堡,【在三水.】在府北九十里, 石築, 周三千五百尺, 高九尺.

21 나난보(羅暖堡) : 조선시대 함경도 삼수군에 설치한 군사시설인 보(堡)이다. 나난보가 소속돼 있는 삼수군(三水郡)은 조선초기 본래 갑산군(甲山郡) 소속이었는데 만호를 두어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1446년(세종 28) 삼수보가 적의 침입 경로에 요해처가 된다고 하여 군을 설치하고 함흥부(咸興府)의 관할로 삼았다. 지군사(知郡事) 1인이 배속되어 함흥도 우익병마(咸興道右翼兵馬)를 겸하였다. 삼수군의 요해는 크게 두 곳이 있었는데, 바로 삼수동구(三水洞口)와 나난보였다.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삼수군」)

22 소농보(小農堡) : 조선시대 함경도 삼수군에 설치하여 권한이 지휘하던 군사시설 보(堡)로, 소농보는 나난보에서 20리 정도에 위치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군사적 중요성이 높은 진보였다.

■ 185 구(舊) 가을파지보

【삼수에 있다.】부 서북쪽 10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70척, 높이는 10장이다.

舊茄乙波知堡,【在三水.】在府西北一百五里, 石築, 周一千五百七十尺, 高十丈.

■ 187 자작보(自作堡)

【삼수에 있다.】부 서쪽 9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765척, 높이는 6척 여이다.

自作堡,【在三水.】在府西九十里, 石築, 周七百六十五尺, 高六尺餘.

■ 188 어면보(魚面堡)

【삼수에 있다.】부 서쪽 12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915척, 높이는 7척이다.

魚面堡,【在三水.】在府西一百二十里, 石築, 周一千九百十五尺, 高七尺.

■ 189 신방보(神方堡)

【삼수에 있다.】부 서쪽 25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57척이다.

神方堡,【在三水.】在府西二百五十里, 石築, 周一千三百五十七尺.

■ 190 묘파보(廟坡堡)

【삼수에 있다.】부 서쪽 28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800척, 높이는 4척이다.

廟坡堡,【在三水.】在府西二百八十里, 石築, 周一千八百尺, 高四尺.

■ 191 별해진(別害鎭)

【삼수에 있다.】부 서쪽 37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00척, 높

이는 9척이다.

別害鎮,【在三水.】在府西三百七十里, 石築, 周一千三百尺, 高九尺.

■ 192 가을파지폐보(茄乙波知廢堡)²³

【삼수에 있다.】부 서쪽 14리 되는 곳에 있다. 웅성으로 축성했다. 둘레는 726척이다.

加乙波知廢堡,【在三水.】在府西十四里, 甕築, 周七百二十六尺.

■ 193 종성 읍성(鍾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610척, 높이는 15척, 곡성은 1개, 타는 505개이다.

鍾城邑城, 石築, 周四千六百十尺, 高十五尺, 曲城一, 堞五百五.

■ 194 길주 읍성(吉州邑城)

둘레가 1,185장이다. 높이는 1장 9척이고, 성가퀴는 631개, 타는 110개, 웅성은 4개이다.

吉州邑城, 周一千一百八十五丈, 高一丈九尺, 堞六百三十一, 堞一百十, 甕城四.

23 가을파지폐보(茄乙波知廢堡) : 가을파지보는 처음에는 평안도의 강계도호부에 속했는데 함경도의 갑산도호부(甲山都護府)의 삼수보(三水堡)를 떼어 군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삼수군(三水郡)에 편입되면서 함경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가을파지보의 정확한 설치 시기는 알 수 없다. 1443년(세종 25) 9월에 세종이 여진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체찰사 황보인(皇甫仁)에게 가을파지보를 조사하고 연대(煙臺)를 설치하라고 했다.(『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 9월 20일(신미)) 그리고 1452년(문종 2) 4월 기사에 가파지(加波知) 농보(農堡)가 보인다. 이것은 농번기에 경작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수호(守護)였다.(『문종실록』 권13, 문종 2년 4월 27일(신묘)) 1500년(연산군 6) 2월에 축성사(築城司) 제조(提調) 이계동(李季全)의 건의에 따라 가을파지에 새로운 보를 축조하게 된다.(『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1일(을유)) 연산군대에 설치된 가을파지보에는 병마첨절제사를 두었다. 1511년(중종 6)에 삼수군으로부터 북쪽으로 90리가 되는 지점에 새로운 가을파지보를 쌓으면서 연산군대의 가을파지보를 구가을파지보(舊茄乙波知堡), 중종대의 가을파지보를 신가을파지보(新茄乙波知堡)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가을파지보가 축조된 이후 이곳에 첨절제사를 옮겨 두었고, 구가을파지보에는 권관을 두었다. 이 두 보는 함께 사용되다가 1895년(고종 32)에 군무대신서리(軍務大臣署理) 권재형(權在衡)의 건의로 신가을파지보의 첨절제사를 혁파하고 삼수부에 소속시키게 된다.(『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2월 23일(을축)) 이와 같이 가을파지보는 위치가 계속 변하여 가을파지폐보, 구가을파지보, 가을파지보 등 세 곳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가을파지폐보는 일찍이 폐지되었고, 연산군대 이후로는 구가을파지보와 가을파지보를 함께 경영하게 된다.

■ 195 성진진성(城津鎭城)

【길주에 있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1,034척, 높이는 20척, 여첩은 116개이다.

城津鎭城,【在吉州.】石築, 周一千三十四尺, 高二十尺, 女堞一百十六.

■ 196 명천 읍성(明川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970척, 여장은 403개이다.

明川邑城, 石築, 周四千九百七十尺, 女牆四百三.

■ 197 재덕보성(在德堡城)

【명천에 있다.】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4,900척이다.

在德堡城,【在明川.】在府南三十里, 石築, 周四千九百尺.

■ 198 사마동성(斜乚洞城)

【명천에 속한다.】부 서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173척이다.

斜乚洞城【屬明川.】在府西北三十里, 石築, 周一千一百七十三尺.

■ 199 회령 읍성(會寧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83보 4척, 높이는 21척, 여장은 444개, 웅성은 5개, 치성은 19개이다.

會寧邑城, 石築, 周一千三百八十三步四尺, 高二十一尺, 女牆四百四十四, 甕城五, 雉城十九.

■ 200 행성(行城)

【회령에 있다.】부 서북쪽 3리 되는 곳에 있다. 1451년(문종 원년)에 처음 쌓았다. 돌로 쌓기도 하고 흙으로 쌓기도 했다. 길이는 11,720척, 높이는 50척이다.

行城,【在會寧.】在府西北三里, 文宗元年始築, 或石或土. 長一萬一千七百二十尺 高五十尺.

■ 201 고품산보(古豊山堡)

【회령에 있다.】부의 남쪽 고품산사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038척, 높이는 13척, 여장은 105개, 웅성은 5개, 치성은 5개이다.

古豊山堡,【在會寧.】在府南古豊山社, 石築, 周一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女牆一百五, 甕城五, 雉城五.

■ 202 폐보(廢堡)

【회령에 속한다.】부 남쪽 5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신평산의 옛 터이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205척, 높이는 5척이다.

廢堡,【屬會寧.】在府南五十里, 新豊山舊基. 石築, 周二千²⁴二百五尺, 高五尺.

■ 203 종성 읍성(鍾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882척, 높이는 12척, 성가퀴는 300개, 웅성은 4개, 치성은 9개이다.

鍾城邑城, 石築, 周四千八百八十二尺, 高十二尺, 堞三百, 甕城四, 雉城九.

■ 204 동관진성(潼關鎭城)

【종성에 있다.】부 북쪽 18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980척, 높이는 9척이다.

潼關鎭城,【在鍾城.】在府北十八里,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尺, 高九尺.

24 千 : 저본에는 '十'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교감하였다.

■ 205 북도절도사 행영성(北道節度使行營城)²⁵

【종성에 있다.】부 남쪽 8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8,305척, 높이는 25척이다.

北道節度使行營城,【在鍾城.】在府南八十五里, 石築, 周八千三百五尺, 高二十五尺.

■ 206 방원보(防垣堡)

【종성에 있다.】부 남쪽 32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288척이다.

防垣堡,【在鍾城.】在府南三十二里, 石築, 周二千二百八十八尺.

■ 207 두만강 행성(豆滿江行城)

【종성에 있다.】돌로 쌓은 길이는 62,408척이다. 흙으로 쌓은 길이는 85,600척이고, 목책은 3,580척이다.

豆滿江行城,【在鍾城.】石築, 長六萬二千四百八尺. 土築, 長八萬五千六百尺, 木柵三千五百八十尺.

■ 208 동건성(童巾城)

【종성에 속한다.】부 북쪽 27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632척, 절벽은 1,121척이다.

童巾城,【屬鍾城.】在府北二十七里, 石築, 周六百三十二尺. 絕壁一千一百二十一尺.

■ 209 온성 읍성(穩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556장, 높이는 9척, 여장은 470개, 웅성은 4개, 곡성은 12개이다.

25 행영(行營) : 함경도의 관방 관리 형태의 하나이다. '행'은 임시라는 의미로써 절도사가 관리하는 군영은 군대의 이동에 따라 영을 설치하였다. 절도사가 한 지역에 장기 주둔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순회하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함경도에 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순회하면서 두만강 지역 영역의 사군(四郡)·육진(六鎭)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穩城邑城, 石築, 周一千五百五十六丈, 高九尺, 女牆四百七十, 甕城四, 曲城十二.

■ 210 유원진성(柔遠鎭城)

【온성에 있다.】부 서쪽 8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687척, 높이는 9척이다.

柔遠鎭城,【在穩城.】在府西八里, 石築, 周三千六百八十七尺, 高九尺.

■ 211 미전진성(美錢鎭城)

【온성에 있다.】부 동쪽 26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639척, 높이는 8척이다.

美錢鎭城,【在穩城.】在府東二十六里, 石築, 周三千六百三十九尺, 高八尺.

■ 212 영달보(永達堡)

【온성에 있다.】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308척이다.

永達堡,【在穩城.】在府南三十里, 石築, 周三千三百八尺.

■ 213 황자파보(黃柘坡堡)

【온성에 있다.】부 동쪽 27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690척, 높이는 8척이다.

黃柘坡堡,【在穩城.】在府東二十七里, 石築, 周一千六百九十尺, 高八尺.

■ 214 두만강 행성(豆滿江行城)

【온성에 있다.】길이는 143,768척, 높이는 12척이다.

豆滿江行城,【在穩城.】長十四萬三千七百六十八尺, 高十二尺.

■ 215 풍천보(豊川堡)

【온성에 있다.】부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1,560척이다.

豊川堡,【在穩城.】在府東十里, 土築, 周一千五百六十尺.

■ 216 경원 읍성(慶源邑城)

1428년(세종 10)에 처음 쌓았다. 1603년(선조 36)에 다시 쌓았다. 둘레는 10,475척, 높이는 9척, 성가퀴는 477개, 타는 440개, 웅성은 3개, 곡성은 8개이다. 1574년(선조 7)에 더 증축하여 높이가 13척이 되었다.

慶源邑城, 世宗十年始築, 宣祖三十六年改築. 周一萬四百七十五尺, 高九尺, 堞四百七十七, 垛四百四十, 甕城三, 曲城八. 宣祖七年加築, 高十三尺.

■ 217 동림성(東林城)

【경원에 있다.】부 동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5,811척이다. 1400년(태종 원년)에 쌓았다.

東林城,【在慶源.】在府東四十里, 石築, 周五千八百一十一尺. 太宗元年築.

■ 218 경흥 읍성(慶興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5,026척, 높이는 9척, 곡성은 5개, 여장은 217개, 웅성은 3개이다.

慶興邑城, 石築, 周五千二十六尺, 高九尺, 曲城五, 女牆二百十七, 甕城三.

■ 219 아오지성(阿吾地城)

【경흥에 있다.】부 북쪽 5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100척, 높이는 8척이다.

阿吾地城,【在慶興.】在府北五十五里, 石築, 周二千一百尺, 高八尺.

■ 220 부령 읍성(富寧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139척, 높이는 9척, 타는 140개, 성가퀴는 710개, 웅성은 1개이다.

富寧邑城, 石築, 周三千一百三十九尺, 高九尺, 堞一百四十, 堞七百十, 甕城一.

■ 221 옥련보(玉連堡)

【부령에 있다.】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480척이다.

玉連堡,【在富寧.】在府南六十里, 石築, 周一千四百八十尺.

■ 222 폐무산보(廢茂山堡)²⁶

【부령에 있다.】부 서북쪽 4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764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廢茂山堡,【在富寧.】在府西北四十五里, 石築, 周二千七百六十四尺, 高八尺.

■ 223 양영보(梁永堡)

【부령에 있다.】부 북쪽 5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670척이다.

梁永堡,【在富寧.】在府北五十里, 石築, 周六百七十尺.

■ 224 무산 읍성(茂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6,226척, 높이는 15척이다.

茂山邑城, 石築, 周六千二百二十六尺, 高十五尺.

26 부령(富寧) 폐무산보(廢茂山堡) : 원래 무산보(茂山堡)라고도 불렀는데, 부의 북쪽 40리에 있다. 만호 옛날에는 부의 북쪽 18리에 있었는데, 토지가 자갈이 많고 또 적의 국경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509년(중종 4)에 이설(移設)하였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권17, 변어전고.)

■ 225 풍산성(豊山城)

【무산에 있다.】부 북쪽 8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4,920척, 높이는 11척이다. 1730년(영조 6)에 처음 쌓았다.

豊山城,【在茂山.】在府北八十五里, 石築, 周四千九百二十尺, 高十一尺. 英宗六年始築.

■ 227 평양 읍성(平壤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8,800척, 높이는 3장, 치첩은 1,920개, 웅성은 2개이다. 북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1,818척이다. 을밀대의 성 모퉁이에서 시작되어 모란봉을 둘러싸고 부벽루(浮碧樓)를 지난다. 본성에 소속시켜 염탐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중성은 남쪽에 있는데 둘레는 5,260보, 높이는 4장이다. 외성은 중성의 남쪽에 있다.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3,681보, 높이는 4장이다.

平壤邑城, 石築, 周二萬八千八百尺, 高三丈, 雉堞一千九百二十, 甕城二. 北城, 石築, 周一千八百十八尺, 起自乙密臺城, 隅繞牧丹峯過浮碧樓屬之本城, 以防窺覘. 中城在南, 周五千二百六十步, 高四丈. 外城在中城南, 土築, 周三千六百八十一歩, 高四丈.

■ 228 보산진성(保山鎭城)

【평양에 속한다.】영(營) 서남쪽 8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910보이다.

保山鎭城,【屬平壤.】在營西南八十里, 石築, 周九百十步.

■ 229 용강 황룡성(龍岡黃龍城)

둘레가 12,580척, 높이는 18척, 치첩 2,887개, 웅성 3개이다.

龍岡黃龍城, 周一萬二千五百八十尺, 高十八尺, 雉堞二千八百八十七, 甕城三.

■ 230 안주 읍성(安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043보, 높이는 13척, 초루 70개, 타 1,014개, 치첩 16개, 곡성 1개이다. 병마절도사영이 성내에 있다.

安州邑城, 石築, 周三千四十三步, 高十三尺, 譙樓七十, 垛一千十四, 雉堞十六, 曲城一. 兵馬節度使營在城中.

■ 231 남당성(南塘城)

【안주에 속한다.】1769년(영조 45) 읍성에 붙여서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1,800보, 신성(新城)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410보, 높이는 12척, 초루 1개, 타는 139개이다.

南塘城,【屬安州.】英宗四十五年附邑城土築, 周一千八百步. 新城石築, 周四百十步, 高十二尺, 譙樓一, 垛一百三十九.

■ 232 정주 읍성(定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2,228척, 높이는 15척, 치첩은 1,026개, 웅성 2개, 포루는 21개이다.

定州邑城, 石築, 周一萬二千二百二十八尺, 高十五尺, 雉堞一千二十六, 甕城二, 砲樓二十一.

■ 233 성동성(城洞城)

【정주에 속한다.】서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흙과 돌을 섞어서 쌓았다. 둘레는 31,709이다.

城洞城,【屬定州.】在西十里, 土石雜築, 周三萬一千七百九.

■ 234 의주 읍성(義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644보, 높이는 3장, 웅성 19개, 포루 10개, 치첩은 23개이다.

義州邑城, 石築, 周三千六百四十四步, 高三丈, 甕城十九. 砲樓十, 雉堞

二十三.

■ 235 백마산성(白馬山城)

【의주에 속한다.】내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2,600보, 높이는 2장, 웅성과 치각은 각각 7개이다. 외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2,103보, 높이는 2장, 치각은 4개이다.

白馬山城,【屬義州.】內城石築, 周二千六百步, 高二丈, 甕城雉閣各七. 外城石築, 周二千一百三步, 高二丈, 雉閣四.

■ 236 고연주성(古延州城)

【의주에 속한다.】부 동쪽 28리 되는 곳에 있다.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480척이다.

古延州城,【屬義州.】在府東二十八里, 土築, 周四百八十尺.

■ 237 옥강성(玉江城)

【의주에 속한다.】돌로 쌓았다. 둘레는 620척이다. 사면이 절벽이다.

玉江城,【屬義州.】石築, 周六百二十尺, 四面絕壁.

■ 238 가미성(嘉彌城)

【의주에 속한다.】부 북쪽 10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7,300척이다.

嘉彌城,【屬義州.】在府北一百里, 石築, 周七千三百尺.

■ 239 고장성(古長城)

【의주에 속한다.】고려 덕종 시기(1031~1034)에 쌓았는데 속칭 만리장성이라 한다. 부의 경계에 있는 것은 길이는 302척, 높이와 두께는 모두 25척이다.

古長城,【屬義州.】高麗德宗時所築, 俗稱萬里長城. 在府境者, 長三百二尺, 高厚皆二十五尺.

■ 240 임천성(林泉城)

【의주에 속한다.】횡산 북쪽에 있고, 둘레는 10여 리이다.

林泉城,【屬義州.】在橫産北, 周十餘里.

■ 241 고위원진성(古威原鎭城)

【의주에 속한다.】고려 현종 시기(1009~1031)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4,840척이다.

古威原鎭城,【屬義州.】高麗顯宗時石築, 周四千八百四十尺.

■ 242 고령덕진성(古寧德鎭城)

【의주에 속한다.】고려 현종 시기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4,012척이다.

古寧德鎭城,【屬義州.】高麗顯宗時石築, 周四千十二尺.

■ 243 고령삭진성(古寧朔鎭城)

【의주에 속한다.】고려 문종 시기(1046~1083)에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7,760척이다.

古寧朔鎭城,【屬義州.】高麗文宗時土築, 周七千七百六十尺.

■ 244 철산 서림산성(鐵山西林山城)

부 북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1747년(영조 23)에 돌로 쌓았다. 둘레는 2,485보 6척 이고, 치첩은 760개, 포루와 돈대는 1개이다.

鐵山西林山城, 在府北十五里. 英宗二十三年石築, 周二千四百八十五步六尺, 雉堞七百六十, 砲樓, 墩臺一.

■ 245 운암산성(雲暗山城)

【철산에 속한다.】남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445보 높이는 6척 치첩은 356개, 여첩은 239개, 웅성은 1개 포루는 1개이다.

雲暗山城,【屬鐵山.】在南二十里, 石築, 周二千四百四十五步, 高六尺, 雉堞三百五十六, 女堞二百三十九, 甕城一, 砲樓一.

■ 246 용천 읍성(龍川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308척이고, 높이는 3장이다.

龍川邑城, 石築, 周一萬三千三百八尺, 高三丈.

■ 247 용골산성(龍骨山城)

【용천에 속한다.】내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370보, 높이는 3장, 치성은 55개, 곡성은 11개, 웅성포루는 3개이다. 외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73보, 높이는 3장, 치첩은 316개, 웅성은 1개이다.

龍骨山城,【屬龍川.】內城石築, 周三百七十步, 高三丈, 雉城五十五, 曲城十一, 甕城砲樓三. 外城石築, 周一千三百七十三步, 高三丈, 雉堞三百十六, 甕城一.

■ 248 창성 읍성(昌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155보, 높이는 7척, 치첩은 330개, 포루는 2개이다.

昌城邑城, 石築, 周二千一百五十五步, 高七尺, 雉堞三百三十, 砲樓二.

■ 249 당아성(當峨城)

【창성에 속한다.】1408년(태종 8)에 처음 돌로 쌓았다. 1746년(영조 22)에 다시 돌로 쌓았다. 둘레는 7,471보, 높이는 3장, 치첩은 1,345개, 포루는 2개이다.

當峨城,【屬昌城.】太宗八年始土築, 英宗二十二年改石築, 周七千四百七十一歩, 高三丈, 雉堞一千三百四十五, 砲樓二.

■ 250 삭주 읍성(朔州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933척, 높이는 9척, 치첩은 235개이다.

朔州邑城, 石築, 周二千九百三十三尺, 高九尺, 雉堞二百三十五.

■ 251 압록강 행성(鴨綠江行城)

【삭주에 있다.】구령구자동(仇寧口子洞)에 있다. 돌로 쌓았다. 길이는 1,230척이다.

鴨綠江行城, 【在朔州.】在仇寧口子洞, 石築, 長一千二百三十尺.

■ 252 구성 읍성(龜城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075보, 여첩은 779개, 곡성은 23개이다.

龜城邑城, 石築, 周四千七十五步, 女堞七百七十九, 曲城二十三.

■ 253 선천 김산성(宣川劍山城)

부 북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내성의 둘레는 1,025보, 높이는 2장, 성가퀴는 125개이다. 1627년(인조 5)에 축성하고, 1631년(인조 9)에 증축하였다. 외성의 둘레는 995보, 높이는 1장, 성가퀴는 181개이다.

宣川劍山城, 在府北二十里, 石築, 內城周一千二十五步, 高二丈, 堞一百二十五. 仁祖五年設築, 九年增築. 外城周九百九十五步, 高一丈, 堞一百八十一.

■ 254 동림성(東林城)

【선천에 있다.】부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둘레는 4,016보, 높이는 2장, 성가퀴는 905개, 곡성은 26개이다.

東林城, 【在宣川.】在府北三十里, 周四千十六步, 高二丈, 堞九百五, 曲城二十六.

■ 255 객산 능한산성(郭山凌漢山城)

군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고려시대에 쌓았다. 둘레는 3,907보, 높이는 13척, 치첩은 1,707개이다.

郭山凌漢山城，在郡東十里。麗朝所築，周三千九百七步，高十三尺，雉堞一千七百七。

■ 256 영변 읍성(寧邊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26,815척이다. 1416년(태종 16)에 신축했다. 1674년(숙종 원년)에 개축했다. 둘레는 73,081척, 높이는 2장이다.

寧邊邑城，石築，周二萬六千八百十五尺。太宗十六年新築，肅宗元年改築。周七萬三千八十一尺，高二丈。

■ 257 약산성(藥山城)

【영변에 속한다.】부의 서쪽 약산의 위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760척, 높이는 1장이다. 1760년(영조 36)에 개축했다.

藥山城，【屬寧邊.】在府西藥山之上，石築，周二千七百六十尺，高一丈。英宗三十六年改築。

■ 258 신성(新城)

【영변에 속한다.】약산 아래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140척, 높이는 2장이다.

新城，【屬寧邊.】在藥山下，石築，周一萬三千一百四十尺，高二丈。

■ 259 북성(北城)

【영변에 속한다.】성내 북변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0,154척, 높이는 2장이다. 1674년(숙종 원년)에 쌓았다.

北城，【屬寧邊.】在城內北邊，石築，周一萬一百五十四尺，高二丈。肅宗元年築。

■ 260 성천 흘골산성(成川紇骨山城)

부 서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3,510척, 높이는 5척이다.

成川紇骨山城, 在府西五里, 石築, 周三千五百十尺, 高五尺.

■ 261 자산 자모산성(慈山慈母山城)²⁷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2,733척, 높이는 15척, 성가퀴는 909개, 치는 24개이다.

慈山慈母山城, 在府西三十里, 石築, 周一萬二千七百三十三尺, 高十五尺, 堞九百九, 雉二十四.

■ 262 우마성(牛馬城)

【자산에 있다.】부 서쪽 37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6,721보, 높이는 15척, 성가퀴는 374개이다.

牛馬城,【在慈山.】在府西三十七里, 石築, 周六千七百二十一步, 高十五尺, 堞三百七十四.

■ 263 은산 읍성(殷山邑城)

흙으로 쌓았다. 5,168척이고, 높이는 5척이다.

殷山邑城, 土築, 五千一百六十八尺, 高五尺.

■ 264 강계 읍성(江界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4,660척, 높이는 16척, 타는 1,466개이다.

江界邑城, 石築, 周一萬四千六百六十尺, 高十六尺, 堞一千四百六十六.

27 자모산성(慈母山城) : 평안도 자천에 있는 자모산(慈母山)을 둘러싼 산성으로 고구려 때 평양 일대의 방어를 위해 처음 축성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여진족 침입의 대비에 따라 이 성의 중요성이 재고되었다.『광해군일기』 권173, 광해군 14년 1월 5일(신축) 정묘호란 직후인 1627년(인조 5) 10월 평안도 지역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평안감사 김기종(金起宗)의 건의로 산성의 수축이 시작되었다.('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10월 6일(기해)) 당시 평안도관찰사 민성휘(閔聖徽)가 의주의 백마산성과 선천의 감산성 등을 동시에 축조하게 했다. 병자호란시에는 평안감사 홍명구(洪命喬)가 이곳을 근거로 청군에 대응하였다. 호란 이후에도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현종과 정조 대에 개축되었다.

■ 265 마마해보(馬馬海堡)

추파진, 종포진, 상토진, 외괴진, 만포진, 벌등진, 고산리진.【강계에 있다.】이상의 모든 진은 성을 갖추고 있다.

馬馬海堡, 楸坡鎮, 從浦鎮, 上土鎮, 外怪鎮, 滿浦鎮, 伐登鎮, 高山里鎮.【在江界.】右諸鎮俱有城.

■ 266 위원 읍성(渭原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4,047보, 치첩은 1,557개이다.

渭原邑城, 石築, 周四千四十七步, 雉堞一千五百五十七.

■ 267 압록강 행성(鴨綠江行城)

돌로 쌓았다. 길이는 1,170척이다.

鴨綠江行城, 石築, 長一千一百七十尺.

■ 268 초산 읍성(楚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905척, 높이는 9척, 치첩은 216개이다.

楚山邑城, 石築, 周三千九百五尺, 高九尺, 雉堞二百十六.

■ 269 압록강 행성(鴨綠江行城)

돌로 쌓았다. 길이는 2,870척이다.

鴨綠江行城, 石築, 長二千八百七十尺.

■ 270 아이진성(阿耳鎭城)

【초산에 있다.】군 서쪽 5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9,784척, 높이는 3척이다.

阿耳鎮城,【在楚山.】在郡西五十五里,石築,周九千七百八十四尺,高三尺.

■ 271 산양회보(山羊會堡)

【초산에 있다.】군 서쪽 23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914척, 높이는 3척이다.

山羊會堡,【在楚山.】在郡西二十三里,石築,周九百十四尺,高三尺.

■ 272 벽동 읍성(碧潼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3,000척이고, 높이는 8척, 성가퀴는 1,300개이다.

碧潼邑城,石築,周一萬三千尺,高八尺,堞一千三百.

■ 273 압록강 행성(鴨綠江行城)

돌로 쌓았다. 북쪽에 있는 것은 길이가 190척이다. 서쪽에 있는 것은 길이가 13,030척이다. 대파아보와 소파아보 사이에 있는 것은 길이가 24,020척이다.

鴨綠江行城,石築,在北者,長一百九十尺.在西者,長一萬三千三十尺.在大小坡兒間者,長二萬四千二十尺.

■ 274 대파아보(大坡兒堡)

【벽동에 있다.】군 북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480척이다.

大坡兒堡,【在碧潼.】在郡北二十五里,石築,周四百八十尺.

■ 275 소파아보(小坡兒堡)

【벽동에 있다.】군 북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420척이다.

小坡兒堡,【在碧潼.】在郡北四十里,石築,周四百二十尺.

■ 276 추구비보(楸仇非堡)

【벽동에 있다.】군 서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400척이다.

楸仇非堡,【在碧潼.】在郡西四十里, 石築, 周四百尺.

■ 277 광평보(廣坪堡)

【벽동에 있다.】군 북쪽 55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55척이다.

廣坪堡,【在碧潼.】在郡北五十五里, 石築, 周五十五尺.

■ 278 소길호리보(小吉號里堡)

【벽동에 있다.】군 서쪽 66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254척이다.

小吉號里堡,【在碧潼.】在郡西六十六里, 石築, 周二百五十四尺.

■ 279 벽단진(碧團鎭)

【벽동에 있다.】군 서쪽 50리 되는 곳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는 1,754척이다.

碧團鎭,【在碧潼.】在郡西五十里, 石築, 周一千七百五十四尺.

■ 280

이상은 《문헌비고》에 보인다.

右出文獻備考

동국성제제론(東國城制諸論)

■ 1

류성룡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을 쌓을 때는 마땅히 포루를 만들어야 하며 그 방법은 웅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웅성은 아래로 좌우만 내려다보고 쏠 수 있지만, 포루는 바로 성 밑까지 내려다보고 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공간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게 하고,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전면에 모두 구멍을 만들어 아래에 천자총통(天字銃筒)·지자총통(地字銃筒)·현자총통(玄字銃筒)을 배치하고 조금 위에는 승자총통(勝字銃筒)을 배치합니다. 그 위에는 망루를 만들어 활도 쏘고 적의 동정을 감시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적병이 성 오른쪽으로 달려들면 오른쪽 구멍에서 포를 쏘고, 성 왼쪽으로 달려들면 왼쪽 구멍에서 포를 쏘며, 그 전면으로 달려드는 적은 전면에서 포를 쏩니다. 그리고 여장(女牆)을 만들 때는 항상 흙과 돌을 섞어서 한두 장 높이로 견고하게 쌓고 그 위에는 기와를 덮어서 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구멍을 많이 뚫어서 창으로 찌르고 적의 동정을 살피는 곳으로 만듭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만첩(萬堞)의 성이라도 불과 수십 명만으로도 충분히 지켜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염려가 없으니, 성을 수비하는 중요한 계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은 공역이 많이 들지 않으니, 성 하나에 불과 두세 개의 포루만 설치해 둔다면 백만의 적병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글로 더 이상 자세한 것을 설명할 수 없으나, 대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도 단시일에 전쟁이 평정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 성을 지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지금의 급선무입니다. ‘성주(星州)가 새로 수복되었다.’²⁸라고 하니, 이곳도 마땅히 굳게 지켜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성 역시 수축해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호받게 해야 합니다.”²⁹

28 1593년(선조 26)에 성주의 적이 군사를 철수하여 퇴각하여 내려가므로 연로에 있던 호남·영남 여러 군사가 본성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대동야승』, 「난중잡록」 권2)

29 류성룡이……것입니다 : 『서애집(西厓集)』 권10, 「답김사순서(答金士純書)」에 보인다.

柳成龍曰, 築城當作砲樓, 其制如甕城, 而但甕城則但可下臨左右以射, 此則直下城底而中空之, 使多容人, 左右前面, 皆作孔穴, 下安天地玄字銃箭, 次上安勝字銃箭. 其上作樓, 以爲射矢瞭望之所. 賊兵來附城右則從右穴放砲, 來附城左則從左穴放砲, 其在前面者, 從前面放砲. 而常時女牆則以土石相雜堅³⁰築, 高一二丈, 上覆以瓦, 勿令踰越, 亦可多穿孔穴, 以爲搶刺瞭望之所. 若是則雖萬堞之城, 可使數十人守之而有餘, 萬不一失, 守城要策, 無出於此. 且其功役不多, 一城不過設數三砲樓, 而敵兵百萬, 不敢近矣. 文字間, 不能細陳, 大槩如此. 兵患恐未可以時日望平, 守城保民之事, 最爲今日急務. 聞星州新復云. 此亦當堅守, 無令再失, 山城亦不可不修繕入保也.

2

류성룡이 또 이렇게 말하였다. “옛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수성(守城)을 잘한다고들 한다. 예컨대, 안시성에서 당나라 병사를 물리치고, 원주성에서 거란 군사를 막아 내고, 귀주성(龜州城)과 자주성(慈州城)에서 몽골 군사를 막아 낸 것은 모두 대단하다고 언급되는 일들이다.

그러나 임진년 이후부터 한결같이 왜적을 만나면 번번이 패하여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알 만하다. 대개 우리나라는 활과 화살만을 잘 사용하였고, 또 산을 이용하여 성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적군이 단지 활과 화살만을 사용해서 공격해 오면 아군과 적군의 높고 낮은 지세는 아주 크게 차이가 있으니, 성을 굳게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지금 왜적은 조총을 전적으로 써서 성을 공격할 때에 수백 보 멀리까지 미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활과 화살은 이미 적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성면이 조금이라도 평평한 곳만 있으면 적들은 흙으로 보루를 만들고 높은 누대[飛樓]를 만들어서 성 내부를 내려다보며 총을 쏘기 때문에 성안의 사람들은 몸을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패해서 함락되니, 그 형세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에 익숙하지 않고, 성을 쌓는 일에 대해서도 소견이 전혀

30 堅 : 저본에는 緊으로 되어 있으나 『서애집(西厓集)』 권10, 「답김사순서(答金士純書)」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없었다. 다만 구불구불한 산세를 따라서 성의 형체를 만들고 성 내부를 넓게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하니, 넓으면 넓을수록 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다.

또한 옛날에 성의 형태는 50타(槩)에 1치(雉)를 두었다. 이른바 타란 바로 오늘의 여장(女牆)이고, 치란 바로 오늘의 웅성이다. 타를 만드는 높낮이는 성에 따라서 3분의 1이 되게 만들며, 성의 높이가 2장이 되면 타 역시 1장으로 한다. 그 높이가 이렇다 보니 타 안의 사람들이 마음 놓고 곳곳이 서서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장은 겨우 몇 척밖에 되지 않아 성을 지키는 사람은 몸을 숙이고 허리를 굽혀 쥐처럼 엎드려 가더라도 적의 탄환을 피하지 못하니, 이는 그 옳지 못한 첫 번째이다.

타와 타 사이는 좁을수록 좋아서 겨우 화살을 쏘고 적의 동정을 살필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적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을 만드는 제도의 치밀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장은 중간이 넓고 커서 가끔 두어 사람이 드나들 수도 있다. 이것이 그 옳지 못한 두 번째이다.

웅성도 매우 드물어서 한 개의 성 위에 겨우 한두 개가 있다. 도성(都城)같이 큰 곳에도 동문 밖에 곡성(曲城)이 있기는 하지만 웅성은 하나도 없으니, 치도 없는 성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이것이 옳지 못한 세 번째이다.

성 위에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머리를 내밀고 성 밑을 볼 수가 없으면, 성 밑에 붙어서 기어오르는 적을 결국은 막아 낼 수가 없다.

근래에 중국에는 현안(懸眼) 제도가 있다. 만드는 방식은 타 안에서 구멍을 뚫어 성 밖으로 나오게 해서 성 밑의 적을 환히 내다보고 격투해서 적을 죽일 수 있게³¹ 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도 좋으나 다만 반드시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많이 만든 연후에야 만들 수 있으니, 지금은 쉽사리 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또 양마장(羊馬牆)의 제도가 있다. 이것은 성 밖의 참호 안에 높이 1장쯤 되게 담을 쌓고 밑에는 큰 구멍을 뚫어 대포를 쏘게 하고,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어 소포(小砲)를 쏘게 하며, 따로 용맹하고 힘이 센 사람에게 지키게 해서 성 위의 사람들과 서로 돕는 형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효신서』에 ‘백만 명이 침범

31 격투해서……있게 : 원문은 ‘격살(格殺)’이다. ‘格’의 풀이에 ‘격투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格 謂格闘 殺人之事也]’라고 하여 이를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대청률집주 하(大清律輯註 下)』 962쪽)

하여도 염려 없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을 많이 들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사람을 써서 이를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능력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포루 하나만 설치한다면 위에 말한 허다한 성의 제도는 모두 필요 없게 된다. 이는 대개 웅성·현안·양마장의 제도를 종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니, 많은 사람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사람의 기술을 쓰지 않으며 아주 간단하고 쉬워서 전혀 실패가 없다. 그러나 돌로 만들고 또 그 위에 누대를 세우려면 또한 상당한 힘이 들게 된다.

요즘에 전주에서 공사를 시작하고서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제 사세가 위급하여 적의 공격이 당장이라도 있을 것이니, 이른바 ‘강 가운데에서 배를 잃으면 바가지 하나도 천금(千金)이 간다.’³²는 격이니 군용선[蒙衝]이나 거함(巨艦)이나를 따지겠는가. 마땅히 힘이 되는대로 서둘러서 기회를 잃지 않고 적을 방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각 읍의 진(鎭)과 보(堡) 또는 성이나 목책이 있는 곳에는 흙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기도 하되, 바깥쪽은 흙을 두껍게 발라서 적이 불을 질러도 타지 않게 한다. 또한 화약과 화포를 많이 준비해 두어 때때로 구멍으로 쏘는 것을 연습해서 지세의 굽고 곧음과 대포가 얼마나 날아가는지를 살피게 한다. 이것을 눈으로 본 백성들에게 이 방법이 성을 지키는 진정한 묘책이라 적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면, 비록 성안으로 들어오라고 독촉하고 명령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옛날에는 한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그 지방에서 죽었고, 성을 지키는 신하는 그 성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성을 지키고 변란을 대비하는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자연히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이니 성을 지키면 살고 잃으면 죽기 때문이다. 지금은 적이 왔다는 소문을 한 번 듣기만 해도 대소 관원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에 들어가 이리저리 숨어 재빨리 피하고, 가운데에 한 줄기 큰 길을 열어 군부(君父)를 적에게 넘기려고 한다. 이것은 자신에게 별로 큰 이해가 없

32 강……간다 : 일호천금(一壺千金)이라고 한다. 강 가운데서 배를 놓쳤을 경우, 바가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허리에 차면 물을 건널 수 있어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천금같이 귀중하다고 한 것이다. (『갈관자(鵠冠子)』 「학문(學問)」)

으므로 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 태만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힘을 괴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비할 만한 군사가 없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진심과 실제 생각을 살펴보면 오직 ‘피난’이라는 두 글자만이 마음속에 가로놓여 있어서 타일러 힘쓰게 할 수가 없으니, 아! 이런 무리의 죄는 위로 하늘에 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비록 늦기는 했지만 만일 충성스러운 선비와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신하가 있어서 서울을 보장(堡障)하려고 마치 장순(張巡)이 수양성(睢陽城)을 지킨 것³³처럼 직접 적과 맞서 싸우기를 밤낮으로 해서, 죽기 살기로 애써 충성이 확고하여 민심이 감동된다면 이 한 가지 일에 반드시 대처할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수성과 절제와 분군(分軍) 등의 사항은 『기효신서』 수초편(守哨篇)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구해서 볼 것이다.”³⁴

又曰, 古人以我國爲善於守城. 如安市之却唐兵, 原州之禦契丹, 龜州慈州之拒蒙古, 皆表表著稱者也. 然而自壬辰以後一遇倭賊, 動輒奔潰者何也. 其故可知也. 蓋我國善用弓矢, 而又因山爲城. 故敵之但用弓矢而來攻者, 則主客高下之勢, 大有懸絕, 其能堅守也無難. 今倭賊專用鳥銃攻城, 能及於數百步外, 我國弓矢, 既不相及. 而且城面初平之處, 賊必設土樓飛樓, 下瞰城中而放丸, 故城中之人不能遁形, 終至陷敗, 其勢無足怪也. 大抵我國之人, 最不習兵, 其於築城一事, 亦全無意思. 但從山勢逶迤作形, 務以城內廣闊爲主, 不知大愈³⁵而愈³⁶不可守也. 且古之城制, 五十垛而置一雉, 所謂垛者即今之女牆, 雉者即今之甕城也. 垛制高下, 與城爲三分之一, 城身二丈則垛亦一丈矣. 其高如此, 故垛內之人, 能放意平立, 以避外面矢石. 我國女牆則僅至數尺, 守城者鞠躬曲腰, 鼠伏以行, 而愈不免於賊丸, 此其不可者一也. 兩垛之間, 貴於狹窄, 纔可放矢眺望而已, 使賊

33 장순(張巡): 709~757. 당 현종 때의 충신이다. 당(唐) 천보(天寶) 연간에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허원(許遠)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반란군을 막았다. 그 뒤에는 수양성을 몇 달 동안 사수하고 있었는데 포위된 지 수개월이 지나 양식이 떨어져 결국 함락되어 피살되었다. (『신당서』 권187, 「장순열전(張巡列傳)」)

34 류성룡이……것이다: 『서애집』 권14, 잡저 「전수기의십조(戰守機宜十條)」에 보인다.

35 愈: 저본에는 逾로 되었으나 『서애집』 권14, 잡저(雜著) 「전수기의십조(戰守機宜十條)」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36 愈: 저본에는 逾로 되었으나 『서애집』 권14, 잡저 「전수기의십조」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不得以踰入，則是乃城制之纖密。而我國之城，則女牆中間闊大，往往可容數人，此其不可者二也。甕城亦甚稀設，一城之上，但有一二，雖以都城之大，只有東門外曲城，而無一甕城，無雉之城，將何用乎。此其不可者三也。城上雖有守禦之人，不能引頸下視，則賊之附城下者，終不能禦矣。近世中原有懸眼之制，其法從堞內穿穴，直出城外，使洞見城下之賊，以施格殺之方。此制亦好，但必須燒土多作磚甃然後可以有成，今難易辦。此外又有羊馬牆之制，於城外壕子內，築牆高一丈許，下面鑿大穴，使放大砲，中穿小穴，使放小砲，別使勇力之人守之，與城上之人，互爲輔車之勢。紀効新書所謂，任他百萬來犯者是也。然此則用功既多，亦必須用人而守之，非我國今日之力所易言者。若一砲置樓則上項許多城制，皆不須用。蓋兼甕城懸眼羊馬牆之制，合以爲一，而不煩衆力，不用人工，至簡至易，萬無一失者也。然若用石爲之，又起樓其上，亦頗費力。近日全州所以始役而不成者，以此故也。今事勢危迫，賊之衝突，非朝則夕，所謂中流失船，一壺千金，何必問蒙衝巨艦也。惟當隨力所及而汲汲爲之，無失機會，使可禦賊足矣。各邑鎮堡有城柵處，或用土爲之，或用木爲之，而外面厚塗以土，勿令爲賊所焚。多備火藥火砲，時時從孔穴習放，以觀形勢迂直，砲道遠近，使民之目見者，曉然知此法眞爲守城之妙策，賊至必無所憂，則雖不督令入城，而自無潰散之心矣。古者守土之臣，死於其土，守城之臣，死於其城。故凡所以守城待變之具，自然殫竭心力，無所不至，得之則生，失之則死。今則一聞賊至，大小之官，皆登山入谷，左右閃避，中間一條大路，直欲以賊虜遺君父。於身別無大段利害，故其於守城之事，漫不入思慮，一則曰民力不可勞也，一則曰無軍可守也，一則曰事無可爲也。察其真心實意之所在，則惟避亂二字橫在肚裏而不可勸勉，嗚呼，此輩之罪，可謂上通於天矣。今雖已晚，如有忠志之士，死國之臣，欲爲京師堡障，而以身當賊，如張巡之守睢陽，晝夜經營，死生以之，忠誠既著，民心感動，則於此一事，必有所處矣。此外守城節制分軍等項，詳在紀効新書守哨篇。有志者，當自得之。

■ 3

또 이렇게 말하였다. “당 태종(唐太宗)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여러 신하에게 계책을 물으니, 모두,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함락하기

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 거란이 고려를 치려 할 때, 그 신하가, ‘고려 사람들은 까마귀처럼 산성에 깃들어 있는 듯하니 대군이 가서 정벌하여도 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제대로 살아 돌아오지도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국경을 보존하여 적을 막은 것은 모두 산성을 유리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이며, 적이 두려워한 것도 역시 산성에 있었다.

병법에 ‘먼저 고지를 차지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였고, 손자(孫子)도 ‘적이 고지에 있으면 피하고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그 의미를 알 만하다. 대개 지형의 특질은 병가의 승패의 이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니, 그 지형을 잃고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은 없고, 그 지형을 얻고서도 패배하는 전쟁 역시 없다.

이제 보건대, 우리나라의 군읍에서 대개 산세가 약간이라도 험준한 곳 치고 옛 성터가 없는 데가 없다. 한 개 읍에 어떤 곳은 두서너 곳이 있으며 많게는 대여섯 곳이나 있다. 이로써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때까지 전쟁하는 시기에 군읍의 위치는 반드시 험지(險地)를 점거할 뿐만 아니라, 촌락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마저도 험지를 확보하여 공사의 물자를 모두 그 가운데 쌓아 두었다가 적이 오면 들판에서 깨꿋이 철수하고 들어와서 함께 지키고, 적이 물러가면 산을 내려와 경작하였으니, 이는 실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좋은 계책이었다. 이 내용은 포은 정몽주가 「김해산성기(金海山城記)」에서 자세히 서술하면서 당시에 산성을 수리하지 않은 일을 탄식하였으니, 선현들의 세상을 위한 염려가 실로 원대하였다.

국가가 태평한 200년 동안 편안함에 젖어 위태로움을 잊어버리고, 성이 무너져 그 흙이 해자를 메우는 것이 곧 변란이 일어날 조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사방의 군읍이 비록 바둑돌이나 별처럼 널려 있다 하더라도, 성과 못을 살펴보면 모두 다 내려앉아 평지가 되었고, 너무 심하게 무너져 내려 한 곳도 험한 곳을 점거한 곳이 없으니, 식견 있는 사람의 걱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1591년(선조 24)에 조정은 왜구가 장차 출병할 것을 우려하여, 호남과 영남의 성을 수리하도록 명하였으나, 흙을 쌓고 다지는 것[板築]이 허술하고 수축한 것도 모두 평지의 성이었다. 산성의 이로움을 말하면서 포은 정몽주 같은 분의 선견지명을 지닌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정말 개탄스럽다.

산성의 이로움이 옛날에도 그러하였으니, 오늘날 왜구를 막는 데에도 더욱 수축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옛날부터 우리를 침범한 자는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왜

적에 불과하다. 오랑캐의 특기는 말을 잘 타는 것이고, 왜적의 특기는 단병기를 잘 쓰는 것이니, 우리는 성 위에서 화살로 이에 대항하면 막아내고도 남는다. 그런데 지금은 왜적이 조총을 사용하여, 그 사정거리가 화살보다 10배는 더 된다. 성을 포위할 때에 반드시 먼저 성첩의 높이와 해자의 깊이를 둘러보고 나서 침입할 만한 곳을 찾는다. 그리고 성을 향해 수천의 조총을 난사하여 탄환이 성첩에 비 오듯 쏟아지면, 성안에서 지키는 병졸들은 쥐처럼 숨고 무릎으로 기어 다니느라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니, 더구나 감히 이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럴 때 다른 적들은 이 틈을 타고 곧장 진격하여 나무나 돌, 짚단 등을 마구 집어던져 해자를 메우면 그 높이가 성과 같게 되어 순식간에 성은 함락된다. 왜란 초기에 적이 김해를 함락하고, 정유재란에 남원을 함락했던 것은 모두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아, 지금의 왜적은 옛날의 왜구가 아니다. 이들을 막는 것은 산성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살피지 못하고 산성을 쓸데없다고 하는가.

대개 산성이란 높은 곳에 있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왜적의 특기가 여기에서는 모두 소용이 없다. 비록 조총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향해서 쏘아대어 한껏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탄환은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 이것이 첫째로 유리한 점이다. 토산(土山)에는 사닥다리[雲梯]를 놓을 곳이 없어서 성안의 동정을 끝내 엿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로 유리한 점이다. 왜적이 아무리 용감하고 사나워 돌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산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겨우 성 아래까지 접근하면 숨이 차고 기운이 빠지는데 이에 반하여, 우리의 군사는 마음이 차분하고 기운이 안정되어 적이 향하는 데로 맞서 싸우면 큰 돌만 굴려 내려도 저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나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셋째로 유리한 점이다. 산성의 이해득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다.

또한 내가 직접 본 사례를 증거로 들어 말하겠다. 임진왜란 때에 적의 침입에 천리의 지방이 바람에 쓸리듯 하여 왜적의 앞길을 막아 끊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황해도 황주(黃州)에 토박이 이사림(李思林)이란 자는 홀로 그 마을의 남녀노소 400여 명을 거느리고 마늘산[蒜山]에 올라 목책을 설치하고 지켰다. 그 산은 그다지 높거나 험하지 않고 넓은 들판의 큰길 가운데 있었다. 산의 모양새가 마늘과 같이 툭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마늘산이라 불렀다. 이사림이 인솔한 자들은 모두 농민들로 활과 화살 같은 병장기도 없이 다만 큰 돌만 잔뜩 모아놓고 적을 기다

렸다. 그때 왜적의 보루(堡壘)는 배모항(排毛巷)에 있었다. 마늘산과의 거리가 몇 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밤에는 불빛이 비칠 정도로 가까웠으나 이사림은 동요하지 않았다. 왜적이 여러 번 와서 공격하여 목책 수십 보까지 접근하여 포위하였으나 산 위의 사람들은 석거(石車)로 돌을 쏘아 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하니, 적이 바로 참패하여 달아났다. 얼마 있다가 평행장(平行長,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이 1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산 아래를 포위하여 종일 서로 대치하였으나,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로부터 이사림의 군대는 적과의 대치에 익숙하여 담력이 더욱 강해져서 두세 명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 땅을 보게 하고, 목책 안의 사람이 산 밑에 내려가 땀나무를 마련하거나 밭 갈고 수확하도록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책 안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잘 뛰는 사람을 뽑아 산 아래에서 왕래하는 왜적의 빈틈을 노려 요격하고 소나 말을 약탈하여 군대를 먹이기도 하였다. 1592년 6월부터 1593년 1월까지 명 군대가 평양을 함락하여 연도(沿道)에 있던 적의 진지가 다 철수한 뒤에야 산에서 내려왔다. 당시 다른 곳으로 피난했던 백성들은 대부분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림의 목책 안에 있던 사람들만 한 사람도 병화의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그 뒤 순찰사(巡察使) 권율의 행주 대첩의 승리도 역시 먼저 산 위를 점거했기 때문이었다. 왜적이 행주에서 패한 뒤에 매우 분하여 여러 진(陣)을 합한 뒤 모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기필코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였다. 권율이 이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서 행주를 버리고 임진강에 있는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에게 갔다. 나[류성룡]는 동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파주산성에 올라갔다. 그 성이 큰길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홀로 우뚝 솟아 적이 점거할 만한 마주보는 봉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순찰사 권율과 순변사 이빈(李蘊)에게 군대를 합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10여 일이 못 되어, 왜적이 과연 경성에서부터 대거 출동하였다. 명의 파발꾼(擺撥軍)이 모두 퇴각하면서 사색이 되어 강을 건너면서 말하길, ‘왜놈들이 물려온다’라고 했다. 시간이 사시(巳時)에서 오시(午時) 즈음 이 되자, 왜적의 무리가 산성의 몇 리 밖의 광탄 나룻가에 모여서 배회하며 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시(未時)에 아무 이유 없이 군대를 돌려 공격하지 않고 떠났다. 당시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여겼다.

몇 년 뒤 남쪽에서 투항한 왜놈 하나가 있었는데, 일찍이 경성에 있다가 나와서

행주와 파주를 공격한 자였다. 왜놈이 말하기를 ‘행주는 험하다고 해도 산허리에 바위가 꽤 있어서 화살과 돌을 피할 수 있어 힘써 공략했다가 패배하였다. 하지만 파주 산성은 흙산이어서 몸을 숨길 데가 없어, 공연히 군사들만 많이 죽을 것이므로, 공격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나는 또 항복한 왜놈인 여여문(呂汝文)이란 자도 만나 보았다. 그자도 ‘우리나라에도 산성이 많은데, 만약 적병이 먼저 그곳을 점령한다면 병법으로는 공격하지 않고, 오직 여러 날 포위하여 지키면서 적의 양식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찌 분명한 효과이며 뚜렷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대체로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형세이므로 어느 한 쪽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다음에 싸우는 것이지, 지킬 수 없으면서 싸울 수 있는 적은 없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론은 싸우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피로하고 쇠잔한 병졸들을 데리고 강한 적과 하루아침의 생명을 다투려고만 할 뿐, 지키는 일은 크게 금지할 것만 주장하여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그르치게 한다. 참으로 그것이 무슨 견해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할 말이 있으니 적의 강약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싸우고 지키는 형세의 쉽고 어려움도 매우 달라, 옛사람이 쌓은 산성은 지금 수축하여 쓸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만약 개혁하여 쓸 줄은 모르고 옛것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³⁷과 거의 다름이 없다. 대개 산성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형세가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웅거하는 것이다. 형세가 편리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적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 바로 그것이다. 비유한다면 제방을 만들어 물을 막을 때에 반드시 물살이 매우 세찬 곳에다 설치한 이후에 막을 수 있다. 만약 물살이 이리저리 돌아 흘러서 어떤 이로움이 없는 곳이라면, 수고롭기만 하고 아무 이익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을 쌓는 것도 이와 같다.

이제 옛 성을 살펴보면, 지형상 깊숙하고 궁벽하여 숨을 만한 곳에 많이 있다. 이것은 난리를 피하는 계책은 될 수 있겠지만 적을 통제할 지혜는 아니다. 이것이 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다. 성이란 견고하고 작은 것이 좋다. 만약 성이 크고 넓으

37 각주구검(刻舟求劍) :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행위를 뜻한다. 초(楚)나라의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칼을 빠뜨렸는데, 서둘러 배에 표시를 하고는, 그 표시가 있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찾으려고 했으나 배가 이미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찾지 못했다는 고사가 있다. (『여씨춘추(呂氏春秋)』 권15, 「찰금(察今)」.)

면 비용만 많이 들고 수비하기 어렵다. 옛날의 성은 산을 따라서 성첩을 만들어서 높이가 수척이 못 되고 능선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이 너무 멀리 떨어져 깃발과 북소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장수가 호령해도 즉시 전달되지 못한다. 이것이 쓸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이다.

『기효신서』에 ‘성 밖에 만약 풀이 엉켜 있는 언덕이나, 돌담과 가옥이 있는데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적이 와서 그곳에 의지하게 되니 화살이나 돌이 소용없게 되어 결국 성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만약 산성의 경우 홀로 우뚝 솟아있어 사면에 수목도 없고 암석도 없어 적이 와도 엎드려 숨을 데도 없기 때문에 성 위에서 돌을 굴리면 마치 판 위에서 탄환이 굴러가듯 하는 이런 곳이라야 천연의 험한 요새가 된다. 지금의 사람은 이 뜻을 모르고, 적을 두려워하여 이기지 못한다고만 하며 숨으려는 마음만 가지고서 산림이 매우 뺄뺄하고, 벼랑이 입을 벌린 듯한 지형을 보기만 해도 적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이야말로 지킬 만한 험지다’라고 말한다. 아, 이른바 험하지 않다는 곳이 사실은 정말 험한 곳이며, 크게 험하다는 곳이 사실 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러한 지역은 스스로를 은폐할 수 있으므로 적이 다람쥐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숨거나, 뱀처럼 구불구불 기어들어 갈 수 있다. 성 위의 사람은 적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으니, 아무리 화살이나 돌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모두 나무숲이나 큰 돌에 막혀 적을 맞힐 수 없다. 혹 어두운 밤에 적병 한 명이라도 허점을 틈타 개미처럼 붙어 올라와 한 곳에서만 놀라 소리치면 온 성이 전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곽준(郭遵)이 황석산성(黃石山城)³⁸을 지키다가 저지른 잘못과 같다. 안타깝게도 한갓 충성스럽고 호기로운 마음만 가지고서 전쟁의 형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후에 산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톡하면 황석산성의 예를 강력하게 내세워서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어찌 그럴겠는가.

예전부터 양진(兩陣)이 서로 상대하여 승부를 다퉴 때에도 오히려 하루도 지키는

38 황석산성(黃石山城)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천리에 있던 산성이다. 삼국시대 6세기 후반부터 축조된 산성으로 고려를 거쳐 조선 초 태종대에 수축된 바가 있다. 1597년(선조 30) 왜군이 다시 침입하자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은 이 성이 호남과 영남을 잇는 요새이므로 왜군이 반드시 노릴 것으로 판단하여 인근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해부사 백사림(白士霖)이 성을 넘어 도망하자 왜군이 난입하여 끝까지 싸우던 함양군수 조종도(趙宗道)와 안음현감 곽준(郭遵)은 전사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31년 1월 5일(신묘))

곳이 없어서는 안 되었다. 마치, ‘백마진(白馬津)을 지키고 비호구(飛狐口)를 차지하여 성고(成皋)의 요새를 막아 천하 형세를 보이리니, 세 지역이 견고해진 뒤에는 천하의 형세가 초(楚)에 있지 않고 한(漢)에 있을 것입니다.’³⁹ 한 것과 같다. 나라를 지키는 급선무는 무엇보다 요새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말이다. 이른바 우(虞)의 하양(下陽), 진(秦)의 동관(潼關), 촉(蜀)의 검문(劍門), 백제(百濟)의 백강(白江)과 탄현(炭峴)은 중요한 곳인가 중요하지 않은 곳인가. 그곳을 잃고서는 어떻게 되었으며 차지하고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과거의 일을 살펴 오늘날을 비추어 보면 한심스럽다. 만약 이 외에 별도로 국가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뛰어난 계책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늘로 오르거나 땅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주역』 감괘(坎卦)에, ‘왕공(王公)이 험한 시설을 설치하여 나라를 지킨다.’⁴⁰ 라고 하였고,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여기에 성을 높이 쌓고 여기에 해자를 깊게 파서 백성과 함께 목숨을 바쳐 지키고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성현의 가르침은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아,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치며 말을 잃고 마구간을 수리하는 것은 지나간 일은 말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의 일을 잘하려는 것이다. 지금 말을 잘하는 선비가 많으니, 이 늙은 사람이 한 가지 아는 것으로 그 사이에서 입을 놀릴 수 없겠지만, 나라를 위한 간절한 정성 때문에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마침 한두 가지를 기록하여 말하였다. 훗날 반드시 내 말을 옳게 여길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군자에게 바라는 것은 아니니, 슬프다.”⁴¹

又曰唐太宗欲征高句麗，問計於群臣，皆曰高麗依山爲城，卒難拔。其後契丹欲擊高麗，其臣諫之曰高麗鳥⁴²棲山城，大軍往征，非惟無功恐不得自還。以此見

39 백마진(白馬津)…… 것입니다 : 한(漢)과 초(楚)가 형양(滎陽)에서 싸울 때 역이기(鄼食其)가 한 고조(漢高祖)에게 한 말이다. (『사기』 권97, 「역생육고열전(鄼生陸賈列傳)」.)

40 왕공(王公)이…… 지킨다 : 왕공은 임금을 지칭하는 말이며, 험지는 성곽(城郭)이나 해자 같은 곳을 말한다. 습감괘(習坎卦)의 단사(彖辭)에 보인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은 하늘의 험함이고, 산천과 구름은 땅의 험함이다. 그래서 왕공이 시설을 험하게 해서 나라를 지키나니, 험한 이치를 때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그 뜻이 크다고 할 것이다.[天險不可升也 地險山川丘陵也 王公設險以守其國 險之時用 大矣哉]” 이 내용의 정전(程傳)의 주(註)에 “성곽을 쌓고 그 주위에 못을 파서 험하게 만들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였다

41 또……슬프다 : 『서애집(西厓集)』 권15, 잡저(雜著) 「산성설(山城說)」에 보인다.

42 鳥 : 저본에는 ‘鳥’로 되어 있으나 『서애집』 권15, 「산성설(山城說)」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之，則我國自古，保境禦賊，皆以山城爲利，敵人之所憚者，亦惟在於山城也。兵法先據高地者勝。孫子亦言敵居高地則避而勿攻，其意可見也。蓋地形得失，於兵家勝敗之數最重，未有失其地形而能濟者，亦未有得其地形而陷敗者。以今觀之，我國郡邑凡山勢稍斗絕處，無不有古城基址。一邑或二三處，多者五六處。是知自三國以降，以及高麗，爭戰之際，不但郡邑之居必據險地，雖村落民居，處處保險，置公私積畜於其中，敵來則清野入守，敵退則下山耕種，實保民守國之長策也。此事鄭圃隱於金海山城記備言之，嘆其時不修山城，先賢之爲世慮遠矣。國家昇平二百年，狃安忘危，不講於城復于隍爲生亂之兆。於是，四境郡邑，雖碁布星羅，而觀其城池，則悉皆下就平地，頽廢已甚，無一據險之處，識者之憂，非一日矣。至辛卯歲，朝廷憂倭寇將發，命修兩南城子，而板築草草，且所修皆平地之城。不聞有謂山城之利，如鄭圃隱之先見者，良可慨也。山城之利，在古固然，至於今日禦倭，尤不可不修。蓋古之侵我者，不過北虜與南倭，而虜之長技在馬足，倭之長技在短兵，我在城上以弓矢制之而有餘矣。今則倭用鳥銃，及遠之力十倍於弓矢。凡圍城，必先環視城堞高卑，濠塹淺深，得可入處。於是數千鳥銃，向城亂放，彈丸雨集於城堞，城內守卒，方且鼠伏勝行，不敢出頭，況敢禦之耶。他賊乘勢直進，以木石草束，亂投填壕，高與城齊，頃刻陷城。亂初賊陷金海，丁酉陷南原，皆用此術。嗚呼，今之倭，非昔之倭也。欲禦此，獨有山城，奈何人不能察，以山城爲無益也。夫山城，居高臨下，倭之長技，到此盡失。雖有鳥銃，不過向天而放，力盡即墜，不足以傷人，此一利也。土山雲梯，無處可施，城中動靜，終不得窺，此二利也。倭雖勇悍善於突鬪，自山下攀緣而上，才近城下，喘急氣竭，我軍則心閒氣定，隨賊所向而應之，只以大石滾下，而彼無不奔潰，無如我何，此三利也。其利害曉然如此。又舉一事所親見者爲證，壬辰之變，千里風靡，一無遮截賊鋒者。黃海道黃州，有土人李思林者，獨率其里老弱男婦四百餘人，登蒜山設寨守之。其山不甚高險，在廣野大路中，形勢聳起如蒜故名。思林所率皆農民，無弓矢器械，但多聚大石以待之。時賊壘在排毛巷，與蒜山距數里，夜則火光相照，其近如此，而思林不爲動。賊屢至攻圍，近寨數十步，山上人撥石車，聲振山谷，賊輒摧敗而去。既而平行長以萬兵來圍山下，終日相對，不攻而退。自是思林之軍與賊慣，心膽益堅，令數人登高候望，寨中人下山樵採耕穫自如。又久則於寨內選敢戰能走者，有時乘間突出，要往來之賊，掠奪牛馬，以餉其軍。自六月至明

年正月, 天兵擊破平壤, 沿路賊屯盡撤, 然後始下山. 是時他處避亂之民, 多不能全. 獨思林寨內人無一被兵而死者. 其後權巡察慄幸州之捷, 亦以先據山上故耳. 賊既敗於幸州, 憤甚, 合諸陣倭, 皆刺指出血爲誓期必報. 慄聞之, 懼甚棄幸州. 就都元帥金命元于臨津. 余在東坡聞之, 遂登坡州山城, 以爲其城當大路西下之衝, 而孤起突出, 無他對峯可以據守. 使權巡察與巡邊使李蕢合軍守之. 未十餘日, 倭果從京城大出. 唐擺撥軍皆退走渡江, 面無人色曰, 倭子大至矣. 日向巳午間, 倭衆悉聚於山城數里外廣灘邊, 遲徊不進, 未時無故還軍, 不攻而去, 當時人皆幸且怪之. 數年後南方得降倭一人, 乃曾在京城, 出攻幸州及坡州者也. 其倭言幸州雖險, 山腰頗有巖石, 可避矢石, 故力攻見敗. 坡州山城, 乃土山, 無隱身處, 徒多殺士卒, 故不攻而還. 又余見降倭呂汝文者, 亦言其國中亦多山城, 若敵兵先據之, 則法不進攻, 惟積日圍守, 以待其糧盡云. 此非其明效大驗耶. 凡戰守相資, 不可偏廢. 然必可守然後戰, 未有不能守而能戰者. 今我國之議, 徒貴於戰, 欲以疲殘之卒, 與強敵爭一朝之命, 而守爲大禁, 以爲厲民誤國, 誠未知其何見也. 然於此又有一說, 敵之強弱, 古今有異, 而戰守之形, 難易頓別, 古人所築山城, 今多不可繕修而用之. 若不知改圖, 而惟古之從, 則殆無異於刻舟求劍也. 蓋爲城必擇形便之處而據之, 所謂形便者, 何也. 敵所必由, 而我所必守者是耳. 譬如作障水, 必置於湍激衝悍之處然後乃可. 若洄洑散流, 利害不關者, 則徒勞而無益, 爲城亦猶是也. 今觀古城往往多在深僻隱藏之地, 斯乃避難之計, 非控制之謀, 此其不可用者一也. 城以堅小爲貴, 若大闊則費衆而難守. 古城沿山起堞, 高不滿數尺, 而包絡岡巒, 彼此懸遠, 旗鼓耳目不能相及, 將帥號令, 不卽相通, 此其不可用者二也. 紀效書云, 城外若有土葑⁴³石牆房屋, 不卽毀撤, 賊來依其中, 而矢石不施, 爲不守之城. 若山城則尤當童童兀兀, 四面無樹木, 無巖石, 賊來無所隱伏, 而從城上轉石, 如板上走丸, 如此之地, 方爲天險. 今世之人, 不知此意, 但不勝其畏賊竄匿之心, 纔見山林深密, 崖石嵒呀, 則疑賊不能入, 乃曰此誠險地可守. 嗚呼, 誰知所謂不險者真險, 而所謂大險者真不險耶, 如此之地, 得以自蔽, 散伏藏匿如鼯鼠, 逶迤漸進如蛇鱗, 城上人既不能詳知賊所在, 雖發矢石, 皆爲林木大石所遮碍, 不能中賊, 或於昏夜, 一賊乘虛蟻附, 一處驚呼, 滿

43 葑 : 저본에는 '葑'으로 되어 있으나 『서해집』 권15, 「산성설」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城皆潰. 如郭趨守黃石山城, 正犯此忌. 惜乎, 徒有忠義之心, 而不察於兵勢以至此. 此後攻山城者, 動以黃石立幟, 其然, 豈其然乎. 自古兩陣相對爭衡, 猶不可一日而無守. 如云守白馬之津, 據飛狐之口, 塞成臯之險, 以示天下形勢, 三處既固, 則天下形勢, 不在楚而在漢矣. 至於守國先務, 尤在於此, 所謂虞之下陽, 秦之潼關, 蜀之劍門, 百濟之白江, 炭峴, 重乎, 不重乎. 失之而如何, 得之而如何. 監古撫今, 可謂寒心. 若謂捨此, 別有奇策可以保邦, 可以安民, 則除升天入地, 不可. 易曰王公設險, 以守其國. 孟子曰築斯城也, 鑿斯池也, 與民守之效死而民不去, 是可爲也. 聖賢之訓, 必非欺人. 嗚呼, 亡羊補牢, 失馬修廄, 往者不諫, 來者可追. 今能言之士多矣, 老朽一得, 誠無所容喙於其間, 只緣爲國惓惓之誠, 不能自已, 偶記一二爲說, 後必有是吾言者, 非所望於今之君子也. 噫.

■ 4

또 이렇게 말하였다. “왜적은 야전에 능할 뿐만 아니라 수성에는 더욱 능하다. 그들이 성을 쌓을 적에 겹겹이 이중으로 쌓아 비록 한 겹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 겹이 있고, 성안에는 구불구불한 골목이 많아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게 만들며, 좌우에 구멍을 뚫어 대포와 소포를 설치하니, 이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축성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들이 평양에서 성을 지킬 때 밖에서는 본성을 지키고 안에서는 따로 성을 여러 곳에 쌓았다. 하나는 칠성문 안 서쪽 부근의 높은 언덕에 의지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대동문(大同門) 안의 풍월루(風月樓)를 헐어서 만들었는데 부벽루(浮碧樓)와 청운교(靑雲橋)의 돌을 운반하여 쌓았다. 또한 모란봉에 토굴을 100여 개 만들어서 왜적들이 지켰다.

명의 제독 이여송의 병사들이 성 아래에 이르러 칠성문과 보통문을 공격할 때 불화살을 성안으로 쏘아 날리니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불화살이 떨어지는 곳마다 모두 불길에 휩싸이고, 나무 위에 박힌 화살이 마치 고슴도치의 털 같았다. 불화살에 맞은 자는 옷과 갑옷에 불이 붙어 결국 모두 불타니, 왜적은 버티지 못하고 내성으로 물러났다. 명군이 칠성문으로 들어가고 우리 군사는 함구문(含毬門)으로 들어가 내성 아래에 이르니, 왜적이 총알을 난사하여 우리 사졸이 많이 다쳤다.

날이 저물어 이여송은 군사를 지휘하여 퇴각하였다. 또 이여송은 모란봉 토굴을 공격하였는데 역시 불리해서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포위망을 풀어 적이 달아날 길을 열어 주었다. 그날 밤에 왜적은 대동강을 따라 얼음을 타고 도주하였다.”⁴⁴

이상의 내용은 『서애집』에 나온다.

又曰倭非徒善野戰，尤善於守城。其築城也重重疊疊。一重雖不守，而又有一重，城內多委巷曲徑，使人不知所之，左右鑿穴，安小大砲，與中原及我國城制絕異。故攻之極難，其在平壤，外守本城，而於內別築城數處。一在七星門內西邊據高阜，一在大同門內，毀風月樓而爲之，運浮碧樓青雲橋石築之，又於牧丹峯爲土窟百餘賊守之。李提督兵至城下，攻七星，普通門，以火箭射入城中，煙氣蔽天，火箭所墮皆火起，林木上亦箭攢如蝟毛。有中者，連衣甲燒盡。賊遂不支，退入內城。天兵入自七星門，我軍入自含毬門，至內城下，銃丸亂發，士卒多傷。日暮，提督揮其軍退。又攻牧丹峯土窟，亦不利，提督知堅不可攻，撤圍開走路，其夜，賊從大同江乘水遁去。

右出西厓集。

5

류성룡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은 포악한 적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마땅히 견고함을 최우선으로 한다. 옛날 사람들은 성의 제도를 말할 때 모두 성 위의 치(雉)를 말하였는데, 이른바 천치(千雉) 백치(百雉)니 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나는 평소 군사에 관련된 책을 잘 읽지 않아서 성 위의 치가 어떠한 형태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늘 타(堞)가 이에 해당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일찍이 ‘타가 다만 천 개나 백 개 정도면 그 성이 지극히 작아서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없겠으니 장차 어떻게 할까’ 하고 의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왜란의 변고가 일어난 뒤에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얻어서 읽어 보고는 곧 성 위의 치가 타가 아니고, 바로 지금의 이른바 곡성과 웅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 성에 곡성

44 또……도주하였다 : 『서애집(西厓集)』 권4, 잡저(雜著) 「왜선수성(倭善守城)」에 보인다.

과 웅성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타를 수비하고 타 사이에 방패를 세워 외부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가려 막는다 해도 적들이 성 밑에 와서 바짝 달라붙는 것을 보고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효신서』에는 50개의 타마다 치 하나를 쌓되 밖으로 2, 3장 정도 나오게 하고, 두 치 사이의 거리는 50타이며 치 하나가 타 25개를 맡게 하면 화살의 위력이 강성해지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활을 쏘기에 편리하므로, 적군이 와서 성 밑에 붙을 수가 없게 된다. 1592년(선조 25) 가을에 나는 오랫동안 안주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왜적이 지금 평양성에 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행재소의 전면에서는 한 곳도 막아주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가진 능력을 헤아려보지도 않고 안주성을 수축하여 지키려고 하였다.

중양일(重陽日)에 우연히 청천강 근처로 나가서 안주성을 돌아보며,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하다가 한참 만에 문득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었다. 성 밖의 형세를 이용하여 별도로 뽕죽한 성[凸城]을 치의 구조처럼 쌓고 그 속을 텅 비워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전면과 좌우에 대포 구멍을 내어 대포를 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서로 마주보는 누를 세우되 누 사이의 거리는 서로 천 보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포 속에는 새알과 같은 쇠 탄환을 몇 말 넣어 두었다가 왜적들이 성 밖에 많이 모여들면 대포 탄환을 양쪽에서 번갈아 쏘면 사람이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쇠와 돌이라도 다 부수어져 가루가 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다른 타에는 지키는 병사를 두지 않고 다만 수십 명만으로 포루를 지키게 하여도 적은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실로 성을 지키는 묘한 방법이다. 이 제도는 비록 치(雉)를 모방한 것이지만 그 효과는 치보다도 훨씬 나을 것이다. 대개 천 보의 거리 안에 적이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닥다리[雲梯]나 충차(衝車)⁴⁵라는 것들도 소용이 없게 된다. 내가 우연히 이 생각이 떠올라 그때 즉시 행재소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경연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 말을 하였다. 또 사람을 시켜 그것이 반드시 쓸 만한 것임을 보이려 하여 1596년(선조 29) 봄에 서울 동쪽 수구문(水口門) 밖에 적당한 곳을 선택해 돌을 모아 포루를 만들다가 완성하지도 못하였고, 이론(異論)이 분

45 충차(衝車) : 병거(兵車)의 일종으로, 성에 돌진하여 공격하는 용도의 수레이다.

분하여 폐지되고 만들지 못하였다. 뒷날에 만약 원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 이런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한다면 그것은 적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징비록』⁴⁶에 나온다.

柳成龍曰, 城者禦暴保民之所, 當以堅固爲主, 古人言城制皆曰雉, 所謂千雉百雉者是也. 余平時, 讀書鹵莽, 不知雉爲何物. 每以堞當之, 嘗疑堞但千百, 則其城至小不能容衆, 將何以哉. 及變後 始得戚繼光紀效新書讀之, 乃知雉非堞, 卽今之所謂曲城甕城者也. 蓋城無曲城甕城, 則雖人守一堞, 而堞間立盾以遮外面矢石, 賊之來傳城下者, 不可見而禦之也. 紀效新書, 每五十堞置一雉, 外出二三丈, 二雉間相去五十堞, 一雉各占地二十五堞, 矢力方盛, 左右顧盼便於發射, 敵無緣來附城下矣. 壬辰秋, 余久留安州, 念賊方在平壤, 若一朝西下, 則行在前面無一遮障處, 不量其力欲修安州城而守之. 重陽日, 偶出清州江上, 顧視州城, 默坐深念者, 久之忽思得一策. 城外當從形勢, 別築凸城如雉制, 而空其中使容人, 前面及左右鑿出砲穴, 可從中放砲, 上建敵樓, 樓相距千步以上, 大砲中藏鐵丸如鳥卵者, 數斗賊多集, 城外砲丸從兩處交發無論人馬, 雖金石無不糜碎, 若是則他堞, 雖無守兵, 只使數十人守砲樓, 而敵無敢近矣. 此實守城妙法, 其制雖倣於雉, 而功勝於雉萬萬矣. 蓋千步之內, 敵既不敢近, 則所謂雲梯衝車者, 皆不得用. 此事余偶思得之, 其時卽啓聞行在, 後於經席屢發之, 又欲使人見其必可用. 丙申春, 京城東水口門外擇地, 聚石作之未成, 而異論紛起, 廢而不修. 後日如有遠慮者, 勿以人廢言, 修舉此制, 則其於備禦之道, 所益不小矣.

右出懲毖錄.

■ 6

유형원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성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

46 징비록(懲毖錄) :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 동안에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총 16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징비(懲毖)'란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의,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대일 관계에 있어서 교린사정(交隣事情)도 일부 기록했는데, 그것은 임진왜란의 단초(端初)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 1969년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해서 되도록 지형에 맞게 쌓아야 한다.【성은 비록 작고 튼튼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고을의 성들은 너무 협소하여 그중 어떤 것은 한둘의 백성도 있을 수 없으니 전혀 생각 없이 만든 것이다. 이런 성은 반드시 넓게 개축해야 하며 새로 쌓는 곳은 반드시 모든 실정을 잘 따져 그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생각해보면 성이 너무 넓으면 방어하기에 곤란하고 협소하면 사람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5판이 1도(堵)【판은 8척이다.】, 5도가 1치【치는 200척이다.】100치가 1성【성은 20,000척이다. 6척이 1보며, 300보가 1리가 되니 즉 둘레 11리 22보 2척이다. 100치는 바로 공작이나 후작의 성 규모이다.】인데 천자는 1,000치, 공작과 후작은 100치, 백작은 70치, 자작과 남작은 50치이다. 이는 대개 천자의 도성 근처의 땅은 사방 1,000리로서 그 성은 1,000치이며【혹은 100치 되는 성 10개를 수용한다고 한다.】공작과 후작의 땅은 사방 100리로서 그 성은 100치이며, 백작의 땅은 70리로서 그 성은 70치이며 자작과 남작의 땅은 50리로서 그 성은 50치이다. 또 주나라 제도에는 천자의 성은 사방 12리【둘레는 48리이다.】, 공작의 성은 사방 9리【둘레는 36리이다.】, 후작과 백작의 성은 사방 7리【둘레는 28리이다.】, 자작과 남작의 성은 사방 5리【둘레는 20리이다.】이다. 『주례』에 ‘공경(公卿)의 땅은 사방 500리, 제후의 땅은 사방 400리, 백작의 땅은 사방 300리, 자작의 땅은 사방 200리, 남작의 땅은 사방 100리다.’⁴⁷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두 시대의 성의 제도가 비록 같지 않지만 다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그 땅의 크기에 맞게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주(州)나 군(郡)의 성들 역시 그 고을의 크기와 인구 및 물산의 정도를 헤아려서 적합하게 쌓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과 계곡이 많고 평지가 적으므로 고을들은 대부분이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고 있다. 이 성들을 한결같이 평지에서처럼 가지런하게 쌓기는 어렵겠지만 요컨대 옛 제도를 참작해서 그 지형에 알맞게 하는 것이 좋다.

柳馨遠曰, 凡城審度大小之宜, 務使適其所當. 【城雖曰宜小而固, 我國列邑城子太狹窄, 或不得容接一二民居, 殊甚無意. 如此者當拓而廣之, 其新築處, 則必須審度事實, 適當其宜.】按城過闊則難守, 狹小則無容, 是以合制爲貴. 古者, 五

47 공경(公卿)……100리다 : 이 내용은 『주례』 권8에 보인다. “鄭司農云, 此制亦見大司徒職曰, 諸公之地方五百里, 諸侯之地方四百里, 諸伯之地方三百里, 諸子之地方二百里, 諸男之地方百里.”

板而堵.【八尺曰板.】五堵而雉,【二百尺.】百雉而城.【二萬尺,〇六尺爲步,三百步爲里,卽周十一里,三十三步二尺.百雉乃公侯之制也.】天子千雉,公侯百雉,伯七十雉,子男五十雉.蓋天子畿內之地,方千里,其城千雉.【或以爲受百雉之城十.】公侯之地方百里,其城百雉.伯七十里,其城七十雉.子男五十里,其城五十雉也.又周制,天子城方十二里,【周四十八里.】公城方⁴⁸九里,【周三十六里.】侯伯城方七里,【周二十八里.】子男城方五里.【周二十里.】蓋以周禮,諸公之地方五百里,諸侯方四百里,諸伯三百里,諸子二百里,諸男百里,而爲制也.二代之制,雖有不同,皆各有規度,而稱其地之大小也.然則今州郡之城,亦當量其土地大小,民物眾寡而制其宜也.我國山谿不平,邑居多因山而爲城,縱難以一如平地之均齊,酌以古意,而要不失其地形之便爲可.

17

또 전해 오는 기록을 살펴보면, 수양성 안에 사는 주민이 수만 호였고 즉묵성에 서는 소 천여 마리를 징발했다고 한다. 수양성은 당나라 때의 큰 고을이니 물론 그렇게 흥성했을 것이나 즉묵성은 열국의 속읍인데 3년 동안 포위되어 많은 곤란을 겪는 중에도 오히려 소 천여 마리를 징발했으니 평소에 이 성에 사는 주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장순(張巡)이나 전단(田單)처럼 유능한 장수라도 능히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 읍의 성들은 실로 형편이 없어서 대부분이 한 사람의 백성도 수용할 수 없다. 이와 같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 대체로 성지(城池)는 반드시 그 규모와 제도를 헤아려 제정하여 마을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우리나라의 고을들에는 성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다. 혹 성이 있다 해도 너무 협소하여 주민들을 수용할 수 없으며 또 어떤 성은 관청 소재지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내가 『주서』를 보았더니, ‘고구려가 평양성을 관리하는데 성안에는 군량과 병기만 저장해놓고 적을 대비하다가 적군이 들이닥치면 그제야 성안으로 들어가서 지킨다. 국왕은 그 옆에 별도로 집을 지어놓고 평소에는 거처하지 않는

48 城方 : 저본에는 ‘侯城’로 되어 있으나,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兵制後錄) 성지(城池)」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다.’⁴⁹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옛날 미개한 유습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습(因習)하고 있으니 변화가 미진한 것이다.】⁵⁰

○又按傳記, 睢陽城中, 居人數萬戶, 卽墨城中, 得牛千餘. 睢陽則唐時大邑, 固宜其盛, 卽墨乃列國屬邑, 而三年圍窘之際, 猶得牛千餘, 則其平時城中居民之眾可知. 不然, 雖以張巡田單, 亦無能保守矣. 我國列邑城子, 不成模樣. 多不得容一民居. 如是, 安能責人以守乎. 凡城池, 必須量定規制, 容糞閭閻也. 【我國郡邑無城處, 固多矣. 其有城者, 亦狹窄不容民居. 又或有城, 與邑治別處者, 其不合事理甚矣. 嘗觀周書云, 高句麗治平壤城, 而城內唯積倉儲器備, 寇至日方入守. 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此蓋亦夷狄遺俗, 而至今猶有因習, 未盡變也.】

■ 8

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 성을 쌓는 공사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하되 마땅히 농사철은 피해야 하며, 군정들을 징발하되 반드시 규정대로 하고, 번을 면제해주고 부역을 시키면서 규정 외에 따로 징발하거나 부역을 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체로 성을 쌓는 공사는 반드시 겨울 농한기에 해야 하며 바쁜 때에 백성을 동원하여 농사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성을 보수하는 작은 공사의 경우 경부(頃夫)⁵¹나 샅꾼만을 부릴 것이나 개축이나 신축과 같은 공사는 큰 규모이니 군사를 동원해야 한다. 먼저 공사의 규모를 헤아리고 공사에 필요한 일군의 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정군만 동원하고 보인(保人)⁵²을 함께 동원하지는 말아야 한다. 보군은 30일 간 부역을 시키되 한 차례의 번상과 그 기간의 군사훈련[習操] 및 사격 시험을 면제한다. 기병과 속오군은 15일간 부역을 시키되 1년 간의 군사훈련 및 사격 시험

49 고구려가……않는다 : 『주서(周書)』 권49, 「열전(列傳)」 이역(異域) 상에 보인다. 내용은 약간 상이하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治平壤城. 其城, 東西六里, 南臨溟水. 城內唯積倉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50 유형원이……것이다 :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兵制後錄) 성지(城池)」에 보인다.

51 경부(頃夫) : 논밭 1경을 경작하는 사람. 또는 그가 지는 역(役)을 말한다.

52 보인(保人) : 조선조 때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두었던 조정(助丁). 즉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을 면제해야 한다. 모두 관청에서 식량을 공급하되 열흘에 쌀 3말로 규정하고 부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잘 먹여서 보내야 한다. 대개 성을 쌓는 공사가 있으면 지방의 거리를 계산해서 근방 가까운 여러 고을의 군인 중에 징발할 인원수를 계산하여 성을 쌓는 공사를 나누어 맡기며 군이 일시에 모여들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인원수를 참작하여 한 차례에 1,000명 혹은 수천 명을 넘지 말고 그들에게 계속 차례로 오게 한다. 또 부대 배정을 정확하게 하여 인력을 낭비하거나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한다. 그때 만약 준공하지 못했다면 공사를 중지하여 내년에도 다시 계속하더라도 절대로 서둘러 준공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영구하고 견고하게 쌓을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대체로 고을 군사 중에 공사에 참가한 자들은 성을 쌓는 그 지방 장관의 통솔을 받아야 하지만 각기 그들의 장관이 데리고 와서 작업을 감독하게 해야 한다. 대체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에는 승려들도 마땅히 규례에 따라 부역을 해야 하나 또한 그 일수를 헤아려서 제정해야 한다. 상세한 것은 태승조(汰僧條)에 있다.】

又曰, 一. 築城必以其時, 無當農節, 其調軍丁, 必依常格, 除番赴役, 慎無格外別調及添役. 【凡城役, 必以冬月農隙之時, 不得非時動眾以妨農務. ○凡修弊小役, 則但可役以頃夫及雇役, 若改築新築役巨則調發軍士. 先計事功大小, 量定該用丁夫, 只發正軍, 勿竝發其保. 步軍則役三十日, 免一次番上及其間習操, 試射. 騎軍, 束伍軍, 則役十五日, 免一年習操, 試射, 皆官給糧一旬米三斗爲式. 準役放送時, 則犒饗以送. ○凡有城役, 量其遠近, 計調旁近諸郡軍士, 晝赴城西, 而不必一時俱集以致煩擾, 酌宜定數, 每巡毋過千人或數千人, 使之排次以赴. 部分精明, 無憊力無惰事. 其時, 若未畢功, 停待明年, 勿圖速畢, 惟以永久牢固爲務. 凡各邑軍士赴役者, 雖總統於城所主將, 各其將官領來監役. ○凡有役事, 僧徒則自當依例赴役, 而亦量定其日數, 詳見汰僧條.】

■ 9

생각해보면 군인들이 한 달 부역을 하면 두 달의 번을 면제해주며 또 군사훈련과 사격 시험을 면제해준다. 또한 급료와 보가 있으니 군사들이 힘은 들어도 괴로울 것은 없다. 서울이나 각 도 병영에 번을 서는 군인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평소에는

별로 긴급한 방어가 없으니 참작해서 일부 인원을 이동하여 공사의 일부를 떼어 부역을 시켜야 한다. 급료미[料米]는 양을 계산하여 축성하는 고을의 조세(漕稅)에서 남겨 놓고 또 그 군대의 보미를 넘겨받으면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만일 보인이 서울 근처에 있어 성을 쌓는 고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평소의 사례에 근거하여 서울로 갈 쌀과 교환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군인들에게 부역을 시키더라도 별로 괴로울 것도 없을 것이나 그들의 노동과 휴식을 헤아려서 주와 군에 성을 쌓을 곳이 있으면 한두 해씩 사이를 두고 차례로 쌓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은 태만하여 모든 일을 다 되는대로 해버린다. 성지(城池)의 경우 더욱 형편이 없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고을마다 모두 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지금의 10개의 성을 쌓는 힘을 합하여 차라리 하나의 성을 쌓는다면 반드시 내구성 있고 견고하게 쌓을 것이니 반드시 그 제도로 해야 한다. 구차한 습속이 전해져 온 것이 이미 오래되어 말로서는 깨우쳐 주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한 곳에 먼저 성 하나를 규정대로 쌓아 놓고 다른 곳에서 본받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외적의 난리를 한 번 겪고 난다면 모두 다 그 이해득실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며, 습속도 역시 변하게 될 것이다.】

○按軍士立役一朔, 除其二朔之番, 又除試操, 有料有保, 則軍士力無所苦矣. 京及兵營, 番軍甚多, 而平居別無緊防, 可量宜移, 畫以赴役. 其料米, 則量留本邑漕稅, 又移奉本軍保米, 足以支用. 若保夫近京, 而遠於築城邑, 則依常例收保米於京, 而以本處他穀, 換支亦可. 如是則雖役軍士而別無所苦, 量其勞逸, 州郡當築處, 間數歲次第築之, 亦無不可. 【我國人心怠慢, 百事皆苟且憑假, 至於城池, 尤無狀. 若是則雖邑皆有城, 奚益. 合今十城之力, 寧築一城, 必期永固, 必如其制也. 習俗苟且, 其來已久, 殆難以言說開悟, 必於一處, 先築如制之城, 使他處見以取法可也. 若經一番寇難則庶眞知其利害, 而俗亦爲之變矣.】

10

또 생각해 보면, 성을 쌓는 것은 큰 공사다. 그 고을의 능력이 성을 완공하기에 부족하다면 조정에서는 반드시 이웃 고을과 힘을 합하여 쌓게 해야 한다. 옛날 형성(邢城)이나 초구성(楚丘城) 같은 성들이 모두 제후들의 힘을 합하여 만든 것이다. 그

부역을 하던 군인들은 비록 성 소재지의 책임 장수의 통솔을 받으나 반드시 그 본고을의 장수에게 자기 군대를 인솔하고 와서 공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사리에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공사도 빨리 끝나게 된다. 대개 많은 사람을 모을 때에는 또한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 역시 옛사람들이 일을 대처하는 방식이다.

○又按築城, 大役也. 本邑之力, 不足以成之, 必須朝廷移合旁郡之力以爲之. 古者如城邢城, 楚丘之類, 皆合諸侯爲之者是也. 其所役軍士, 雖總統於城所主將, 必各使其本處將領率來分役, 非惟事理攸當, 功役易就. 凡合大眾, 亦慮其或有意外之變, 此亦古人處事之道也.

11

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 성을 쌓을 때에는 절대로 군인을 많이 동원하여 일시에 급하게 쌓지 말고 마땅히 지리를 측량하고 공사량을 헤아려서 인원수를 나누어 공사를 분담시켜야 한다. 부역에 동원된 군정을 좌우군으로 나누고 각기 지휘관을 두며 10명당 1명의 패장을 정한다.【본래 군대의 대장을 그대로 지정하거나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 중에서 적당한 자를 뽑아 지정해도 좋다. 5명당 1명의 오장이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법에 의한 것이다. 또 30명에 도패 1명을 지정한다.】100명에 감장을 두어【또 500명 혹은 1,000명마다 별장을 두어야 하나 모두 일에 따라 실정을 참작하여 지정하는 것이 좋다.】각각 그 공사를 책임지고 반드시 오래가고 견고하게 쌓을 것을 다짐하게 한다.【책임진 곳마다 반드시 아무 부대가 이곳을 쌓았다고 돌에 새겨두며 혹 건축한 것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겹쳐 쌓아서 무너지게 생긴 부분은 즉시 개축하게 하며, 10년 내에 무너질 경우 해당 감장과 영장을 논죄하며 각기 그 군대를 인솔하여 자신이 식량을 준비해 와서 고쳐 쌓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인식시켜야 한다.】

又曰, 一, 凡築城, 切勿多發軍丁, 一時促迫, 宜量地度功, 分人授役, 於役丁數內, 分爲左右軍, 各置領將, 每十人, 定一牌長.【以元軍隊長仍定, 或於役眾中, 定擇亦可. 五人有伍長, 此則固自依法. 又三十人, 定一都牌.】百人置監將,【又五百人, 或千人, 又置別將, 皆隨事, 量宜定之可也.】令各任其功, 必以永固爲期.【每

其分地, 各有記刻, 或所築不合規制, 或疊以塊礫, 則卽令改築, 十年內崩潰處, 監領論罪, 各率其軍, 自備糧改築事, 先爲知委。】

■ 12

두우의 『통전(通典)』에 성 쌓는 것을 논한 것을 보면, 이것은 중국의 평지에 흙으로 성을 쌓는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만일 험한 산에다 돌이나 벽돌로 쌓게 되면 마땅히 그 지형의 편리성과 사람들이 일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참작해서 계산해야 한다. 요즘 듣건대 입암산성(笠巖山城)⁵³을 개축할 때 서쪽 2,000보 지역은 승려군 6,000여 명이 돌을 운반해서 쌓았으며 11일 만에 공사를 끝냈다고 한다. 그리고 공사가 쉬운 곳은 매 2보에 3~4명, 어려운 곳은 7~8명이 완료했다고 하니 대략 2보에 평균 6명이 필요한 셈이다. 이것은 옛 성을 고쳐 쌓은 경우이니 만일 새로 쌓는다면 30일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설령 성이 높고 못이 깊다고 해도 지금의 낮고 얇은 것만은 못하니 오래도록 견고하게 있을 성을 쌓으려면 매 2보에 12명이 30일간 일하면 된다.

○按杜佑通典所論築城, 此以中國平地城土築之功而論也. 若夫緣山因險石磚以築, 則又當參其地形便否人功難易, 而爲之量度也. 頃聞笠巖山城改築時, 西邊二千步, 僧軍六千餘名, 并運石築城, 十一日畢役. 每二步, 功易處三四名, 功難處七八名, 大約二步六名. 此是改舊重修也, 若新創, 則役三十日. 可准此, 倘令城高池深, 不如今之低微, 而永得牢固, 則每二步, 可十二人, 三十日役.

■ 13

또 살펴보니, 근래 여러 산성들을 수축하는 것은 대부분 군인들을 동원하여 열흘이면 끝낸다. 그러나 매년 성이 무너져서 그것을 보수하느라 백성들의 수고가 끝이 없어서 결국 울퉁불퉁한 볼품없는 성이 되고야 마니 어찌 그 성이 나라를 지키

53 입암산성(笠巖山城) : 전라도 장성과 정읍 사이에 자리한 입암산에 총조된 산성이다.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수축되었는데, 1256년(고려 고종 43) 송군비(宋君斐) 등이 이끈 고려군이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낸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중에 방어체제 정비 차 각지의 산성을 정비하였는데, 당시 장성현감 이귀(李貴)의 주도로 1597년(선조 30)에 개축되어 완성되었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의 복성을 저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의 주요 거점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고 백성을 보호하기를 바라겠는가? 정말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성을 쌓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직 남한산성만은 그나마 완전하고 견고하여 믿을 만하다. 그러나 이 성도 3년 만에 공역을 마쳤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지휘관과 아전들이 성지의 규모와 제도에 서툴러서 일하는 양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분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이미 쌓은 것이 또 허물어져서 다시 쌓은 데가 많다. 대체로 공사의 대부분이 두 번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에 마칠 공사를 3년이나 낭비했다고 한다. 이로 보면 사업을 맡은 자가 먼저 규모와 제도에 대해 연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또 듣건대 그동안 여러 성들을 수축할 때에 색리와 장교로부터 상급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뇌물을 받고 혹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대가를 받거나 혹 지면례(知面禮)⁵⁴나 견장례(見將禮)와 같은 것으로 술과 음식을 강제로 요구하여 먹기도 하고 포필을 대납받기도 하여 지치고 힘없는 군인이 받는 고통을 차마 말할 수도 없다고 한다. 대체로 지금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고도 급료를 주지 않으며 그 본래의 번은 면제해주지도 않으면서 모두 이처럼 일을 추가로 시키니 이보다 더 애달프고 가련한 일이 없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이렇게 각박하게 빼앗아 간다.【승군이 나 승장의 경우 이런 폐단이 없다고 한다.】지금의 장령이나 이서들은 젊을 때부터 늙어서까지 전심으로 빼앗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한다. 아, 임무에 적당한 사람을 선발하여 쓰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니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들이 먼저 임금의 덕을 밝히고 교화를 먼저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사업의 성과에만 힘쓰려 하니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又按, 近時諸山城之修築, 多發軍丁, 旬日而畢, 而每歲崩頽補築, 勞民無已時, 而終爲硯礪可笑之城, 何望其守國而保民乎. 果如此, 則寧不築之爲愈也. 唯南漢山城, 稍爲堅完可恃, 然此則三年而畢功. 蓋緣當初將吏, 不習城池規制, 度功不詳, 分數不明, 既築而還毀, 復築者多, 凡事太半再役, 故實可一年之功, 而枉費三年云. 以此觀之, 當事者不先講究規制可乎. 又聞前後諸城修築時, 自色吏將校以上, 至於領將, 皆受賄賂, 或減軍受價, 或稱以知面禮, 見將禮, 徵索酒食,

54 지면례(知面禮) : 본래 새로 출사하는 관원이 처음 얼굴을 익힌다는 의미인데 재직 관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의미한다. 또는 재직 관원들에게 돈을 바치는 일종의 잡징(雜徵)을 일컫는다. 면신례(免新禮)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代納布疋, 疲殘軍士, 未勞先苦, 不可忍言云. 凡今役民不給料, 不除其本番, 都是加役, 哀矜莫甚, 而此輩剝割如此.【僧軍僧將, 則無此弊云.】可見今日將領吏胥, 自少至老一心在得習以爲常, 無復廉恥, 觸事皆然也. 嗚呼. 不擇任人, 不正人心, 天下事無可爲也. 彼不知先明君德, 先立教化而欲務事功者, 不知孰甚焉.

■ 14

고려 말기에 헌사(憲司)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다. ‘각 도, 주와 군의 산성은 국가에서 왕왕 사신을 보내 수축하는데 대부분 군정을 동원하여 며칠 만에 공사를 마쳤지만 이내 허물어져서 그 폐단이 매우 큼니다. 이제부터 더는 사신을 보내지 말고 그 지방 수령에게 근처 고을의 군정을 징발하여 농한기에 수축하게 하고, 만일 그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중지하고 다음 해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으로 연례를 삼았으면 합니다.’

○麗末, 憲司請曰諸道州郡山城, 國家往往遣使修築, 多發軍丁, 不日畢功, 旋致崩毀, 其弊甚巨. 自今勿復遣使, 令守令徵發傍郡軍丁, 農隙修葺, 若未畢則停待明年 以爲年例

■ 15

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 대체로 성의 높이는 반드시 5장 이상이어야 한다.【성 높이는 모두 타의 높이를 빼고 말한 것이다. 서울의 큰 성은 반드시 6장 이상이어야 하고 산 위에 성을 쌓는다면 그 험준함에 따라서 높낮이를 헤아려야 한다. 주척(周尺)⁵⁵으로 10척을 1장이라고 하는데 『기효신서』에서는 성 높이가 비록 3~4장이라고 했으나 그것은 관척(官尺)으로 말한 것이니 이는 주척의 길이에 비하여 실제로 배가 된다.】타의 높이는 1장이 되어야 하며, 성 밑에서 4장밖에 해자를 파며 해자의 너비는 반드시 4장, 깊이는 2장 이상으로 한다.【해자는 깊고 넓을수록 더 좋

55 주척(周尺) : 중국 주나라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던 자이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 제도를 본떠 길이의 단위로 사용해 왔으나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여 정확한 표준을 갖지 못하였다. 이 자는 주로 토지·도로의 측정 등에 사용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주척 1자는 황종척(黃鐘尺) 6치[寸] 6리(釐)로서 곡척(曲尺)으로는 6치 6푼이며, 약 20cm에 해당된다.

으며, 물을 끌어오면 성지가 더욱 좋다.】해자 가장자리는 또한 반드시 벽돌로 쌓아야 한다. 모든 성은 밑에서부터 2장까지는 비스듬히 쌓아 올리고 2장 이상부터는 점차 곧게 올린다.【왜성도 이렇게 쌓는다.】성의 치와 옹성 및 우마장은 모두 『기효신서』의 규정에 의거한다.【『기효신서』에 50타마다 치 하나씩 쌓고, 방법은 그 지형을 참작하여 한다. 대략 치는 성 밖으로 4~5장을 나오게 쌓는데 가로 길이는 6~7장 정도가 된다. 해자 가장자리에는 우마장을 규정대로 쌓는데 만일 산성의 지형이 험한 곳이나 해자에 물이 깊은 곳이라면 우마장을 꼭 쌓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쌓아야 한다. 만일 치를 쌓을 곳에 대신 포루를 설치하면 더욱 좋다. 포루를 쌓는 법은 아래에 있다. 이와 같으면 우마장을 쌓을 필요가 없다.】해자 밖에는 길을 내야 한다.【길의 너비는 4~5장이다.】성 밖의 300보 이내에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다.【도성은 400보이다. 산에다 성을 쌓아 가파른 곳은 100보 이내로 한다.】성안 20보 이내에도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다.【도성은 30보 이내이다.】대체로 평지에 쌓는 성은 안쪽을 평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안팎의 높이를 모두 똑같이 쌓아야 한다.【그 모양을 담장처럼 만드는데 두껍게 쌓아야 한다. 중국의 성도 이와 같다.】골짜기 입구의 오목한 곳에 쌓는 성은 성 안팎에다 제방을 쌓아서 해자를 만드는 것이 좋다.【산을 의지하여 쌓은 모든 성의 경우 한쪽이 평지와 접한 곳은 그 안팎에 연못이나 해자를 만드는데 깊고 넓게 하는 것이 좋다. 대개 세찬 물살은 험한 산세와 다름이 없으니 모두 이익이 된다. 성 밖의 금지 구역 내에 집을 지은 자가 있으면 곤장 백 대를 치고 그 가옥을 헐어 버린다.】

又曰, 一, 凡城高, 必五丈以上, 【城高, 皆除堞而言. ○京都大城, 必六丈以上, 若山上城, 則因其險夷, 量爲高卑. ○用周尺十尺爲一丈. 紀効新書, 城高雖以三四丈爲言, 然彼以官尺, 則比周尺實加倍矣.】堞高一丈, 城底四丈外開濠, 濠廣必四丈, 深二丈以上, 【愈深濶愈好, 引水成池尤妙.】濠岸, 亦必築以磚石. 凡城自下二丈斜倚以築, 二丈以上, 斜直漸上. 【倭城如此.】其雉及甕城, 牛馬牆, 竝依紀効新書法. 【新書, 每五十堞一雉, 更當量其地形而爲之, 大約雉出城外四五丈, 則橫長六七丈. ○濠岸內築牛馬牆, 如其式, 若山城地勢峻處及有池濠水深, 則不必有牛馬牆 不然則必有之. ○若設雉處, 代設砲樓, 則尤好, 其制見下. 如此則不必爲牛馬牆.】濠外開路, 【路廣四五丈.】城外三百步內, 勿許作家. 【都城則四百

步。○緣山峻阪處，以百步爲限。】城內二十步內，亦勿許家。【都城則三十步。】凡城平地，則不必內平，可令內外竝高。【其形如牆而厚，中國城如此。】其當谷口窪下處，則城內城外，因作堤，以開池濠可也。【凡依山爲城，而一面迤就平下處，則於其內外鑿築池湖，令極深廣爲可。蓋水險無異山險，而兼有利益也。○城外限內作家者，杖一百毀家。】

■ 16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산천이 가파르고 좁아서 주와 군의 읍성들은 대개 산 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성이 산에 눌리게 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 또한 성이 계곡이나 물길에 걸쳐서 쌓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직 지형의 편리함에 따른 것이니 계곡이나 물길에 걸쳐서 쌓는 것을 어렵다고만 할 필요는 없다. 전해지는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중국 남방의 절강과 소흥 등지의 성들의 경우 모두 큰 강에 걸쳐있어 수문을 여러 겹으로 설치하였으며, 심지어 3중, 4중으로 된 곳도 있는데 돛단배도 그 물길을 따라 출입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록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이 또한 마땅히 조치하여 각각 그 일을 다 하고 그 지형의 편의에 따라 계곡이나 물길에 걸쳐서 쌓는 것을 꺼릴 필요는 없다.

○按我國山川迫隘，州郡邑城，每以近於山底，被其所壓爲嫌。又有難於跨越溪澗處，此則唯在形勢便宜，不必以跨越溪澗爲難也。嘗按傳錄，中國南方如浙江紹興等城，皆跨越大水，重設水門，至於三重四重，而檣帆亦緣水出入。本國財力雖不逮，此亦當措置，各盡其事。苟其地形便宜，則跨越川水不必忌也。

■ 17

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 성의 높이가 5장이라면 밑너비는 3장이며 반드시 안팎을 다 쌓아 올린 뒤에야 흙을 부어 안을 채울 것이며, 한쪽을 쌓으면서 바로 흙을 부어 메워서 돌이 흙에 의지하거나 흙과 돌이 서로 섞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대체로 성을 전부 순전히 돌로 두껍게 해서 성면을 차례대로 층층이 쌓는다면 아무리 큰 장맛비가 오더라도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바깥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쌓아 돌이 흙에 의지한다면 비록 안에 돌과 흙을 섞어 넣더

라도 겨울에는 흙이 얼어 부풀고 여름 장마에 흙이 축축해지면 오래지 않아 허물어 지게 된다. 만일 중국의 성처럼 안팎 높이를 똑같이 쌓으려면 밑너비를 반드시 8장, 윗너비를 3장이 되게 쌓아야 한다.】성의 기초는 반드시 땅을 깊고 넓게 파서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먼저 큰 반석부터 깔고 반석 위에서 3~4척을 끌어올린 다음에야 돌을 쌓아 올려 높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비스듬히 쌓는다.】 다시 그 밖을 흙으로 채워서 정강이가 묻힐 정도로 된 뒤에 이를 넓게 다진다. 【성이 산을 의지한 곳은 기초를 닦을 때에 산 등마루에 기대지 말고 반드시 등마루 밖에 기대며, 성가퀴와 등마루를 살펴서 가지런하게 하되 기초를 깊고도 넓게 파며 굳게 다지되 법식대로 해야 한다.】 성의 허리 아래는 정으로 큰 돌을 쪼아서 길이로 쌓고 허리 위로는 벽돌로 쌓되 모두 석회를 이겨 그 사이를 붙이면서 쌓는다. 【이렇게 하면 오래도록 견고할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이 많은 지역이라도 성을 절반도 쌓기 전에 가까운 곳의 돌은 벌써 소진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돌을 운반해야만 하니 더욱 힘들게 되는 이유다. 그러므로 벽돌을 구워서 쓰는 일이 먼 곳에서 운반하는 것과 비하면 훨씬 힘이 적게 들 뿐이 아니다. 척남당(戚南塘, 척계광)이 말하기를, 성을 쌓음에 벽돌로 만드는 것이 첫째고 돌로 만드는 것이 그다음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진실로 옳다.】 타는 【즉 여장이다.】 반드시 벽돌로 쌓고 석회를 이겨서 바른다. 【벽돌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기효신서』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만일 돌로 쌓는다면 타구(埽口)와 현안은 제도처럼 하기 어렵고 또 쉽게 무너져버린다. 우리나라 성들의 타의 높이는 몇 자 정도여서 사람의 허리에 겨우 닿아 적의 탄환을 피하지 못한다. 타 사이는 거리가 너무 넓어서 사람이 들어가도 여유가 있다. 게다가 타의 밑에서부터 산(山)자 모양이어서 적이 올라오기 더욱 쉽다. 고안(高眼)을 설치하였으나 현안은 없으니 모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마땅히 타의 높이는 반드시 1장으로 하며 타구는 또한 절반쯤 올라와서 입구를 만들게 하고 그 사이는 좁게 하여 양옆이 등마루를 이루어 좌우에서 멀리 바라보며 총을 쏘기에 편리하게 한다. 고안을 고쳐서 현안으로 만들어야 하니 이렇게 한 연후에야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상세한 설명은 모두 『기효신서』에 있다. 또 근래에 여러 성들은 모두 석회로 바깥 면을 바르는데 1~2년 안에 모두 떨어져서 남는 것이 없으니 그저 백성의 힘만 낭비할 뿐이며 진실로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한쪽만 그렇게 하고 내년을 기약할지언정 쌓는 곳만큼은 반드시 석회를 발라서

쌓아야 한다.】

又曰, 一, 城高如五丈, 則底濶三丈, 必表裡成築然後, 方補土以平內岸, 慎勿旋築旋補, 使石倚於土, 或土石相雜,【凡城全厚純石, 方面順, 疊則雖有大霖雨, 永無崩頽, 若表石裏土, 而使石倚於土, 雖裏石而間雜以土, 則冬凍土墳, 夏霖土濕之際, 不久崩頽. ○若內外竝高, 如中國城制, 則底濶必八丈, 上面濶三丈.】城基必開土深廣固杵, 先鋪大盤石, 石上引入三四尺, 始疊石爲高.【自此斜倚.】復實土其外, 使沒脛而廣杵之.【凡城緣山處, 則開基勿緣岡脊, 必緣脊外, 量令垛與脊齊, 開基深廣, 固杵如法.】城腰以下則以大面石, 釘削縱疊, 腰上則以磚皆間, 粘石灰築之.【如此則非但永爲堅固, 雖是多石之地, 城未及半, 近石已盡, 故未免運於遠處, 所以費力尤多, 燔磚之功 若比遠運, 不啻減矣. 戚南塘曰, 凡城磚第一石次之, 此言誠是.】垛則,【卽女牆.】必以磚粘和石灰爲之.【其造磚時, 必依紀効新書之式. 若以石則垛口懸眼, 難以如制, 又易頽落. 本國諸城, 皆垛高數尺, 僅及人腰, 不避賊丸. 垛間濶大, 容人有餘. 又自垛根, 成山字形, 尤易登越. 設高眼而無懸眼, 皆犯至忌. 宜令垛高必一丈, 垛口亦及半開口, 其間狹小而兩邊成脊, 便於左右瞭射, 改高眼爲懸眼, 如此然後可以爲城. 其詳皆具新書. 且近來諸城, 石灰塗其外面, 一二年內, 頽剝無餘, 徒費民力, 實不得分毫之益. 力若不達, 則寧止一面, 以待後年, 其築處, 則必粘和以築.】

18

어떤 사람이 남당 척계광에게 묻기를, ‘여러 곳의 성지(城池)는 모두 제도대로 쌓았다. 만일 『기효신서』의 방법대로 다 바꾸려고 한다면 경비가 부담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척계광이 대답하기를, ‘이 법은 모두 옛 성을 다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부족하고 진척하기 어려운 일을 어찌 살피지 않겠는가. 즉 성을 새로 쌓을 때에는 진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성이 허물어지면 수리해야 하고 해자가 메워지면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대로 하지 않겠는가. 옛 성을 전체를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타구에 드는 비용은 매우 적으니 그 제도대로 하지 않겠는가. 평소에 자주 고치면 백성들이 분노하여 강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적이 들이닥치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적절하게 참작하여 고치는 것

은 그 제도대로 하지 않겠는가. 1척을 고치면 1척의 이익이며 1장을 고치면 1장의 이익이니 다만 때에 맞게 변통할 뿐이다. 지금 계진(薊鎭)의 삼둔영성(三屯營城)과 준화현성(遵化縣城)은 고북(古北) 각로(各路)의 새로 수축한 변장(邊牆)과 같이 모두 도식대로 하였다. 터무니없는 빈말을 하지 말고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하니 사람의 일은 미리 준비해야만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或問於戚南塘曰, 諸處城池, 俱有成制, 若如新書之法, 將盡易之, 貲且不贍奈何. 戚公曰, 此法 非盡欲易其舊也. 夫力屈舉羸, 豈可不察. 卽創業之秋, 固不能措, 圯則修, 填則改, 不可如其制乎. 舊城身固難易, 垛口所費甚微, 不可如其制乎. 平居重遷, 眾怒難犯. 萬一賊至, 順人情之所欲, 酌量更改, 不可如其制乎. 改一尺, 一尺之利, 改一丈, 一丈之利, 但在適時變通爾.⁵⁶ 今薊鎭之三屯營城, 遵化之縣城, 如古北各路之新修邊牆, 俱依圖式. 言非鑿空而先事, 人惟豫則立.

19

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 성에는 포루【혹은 적루라고도 한다.】를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한 법이다. 그 방식은 치를 만드는 법과 같으나 다만 치성(雉城)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좌우로 쏠 수 있다. 포루는 바로 성 밑까지 곧바로 내려가서 가운데를 비게 하여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좌우와 전면에 포 구멍을 많이 만든다. 【그 3면은 모두 벽돌에다 석회를 발라서 쌓고 열린 포 구멍은 또한 바깥쪽은 좁고 안쪽은 넓게 만들어서 총을 쏘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또 구멍 위에 직봉(直縫) 하나를 더하는 것은 우마장(牛馬牆)의 제도와 같이하여 눈으로 멀리 감시하기에 좋고, 벽돌을 만들 때에는 모두 모형을 떠서 만든다.】아래에는 천자(天字), 지자(地字), 현자(玄字)총통을 두고 다음으로 위에는 승자(勝字)총통을 두고 그 위에는 누를 지어 활을 쏘고 적을 감시하는 곳으로 한다. 만일 적이 성 오른쪽으로 달라붙으면 오른쪽 구멍에서 포를 쏘고 왼쪽으로 오면 왼쪽 구멍에서 포를 쏘며 앞으로 오면 정면 구멍에서 포를 쏜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큰 성이라도 수백 명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성 하나에 10여 개의 포루만을 설치하더라도 백만의 적병이 감히 접근할

56 爾 : 저본에는 ‘尔’로 되어 있으나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兵制後錄) 성지(城池)」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수 없을 것이다.”⁵⁷

又曰, 一, 城有砲樓【一云敵樓.】爲第一要法. 其制如雉, 而但雉城, 則只可下臨左右以射. 此則直下城底, 而中空之使容人眾, 左右前面, 多作穴眼.【其三面, 皆以磚粘石灰築之. 其開穴眼, 亦令外狹內寬, 以便放銃. 又眼上, 加一直縫, 如牛馬牆之制, 宜於眼瞭. 造磚時, 皆作模以造.】下安天地玄字銃, 次上安勝字銃, 其上作樓, 以爲射矢瞭望之所. 賊若來附右城, 則從右穴放砲, 來附左城, 則從左穴放砲, 其在前面者, 從前穴放砲. 若是則雖萬堞之城, 可使數百人守之而有餘, 一城不過十數砲樓, 而敵兵百萬不敢近矣.

20

중봉 조헌(趙憲)의 『동환봉사(東還封事)』⁵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가 보 건대 요양 서쪽으로부터 산해관에 이르는 길은 오랑캐의 땅과 가장 가깝게 접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리장성이라는 긴 담을 쌓고 해자를 파놓았으며 5리마다 연대(煙臺) 하나를 두고 연대 밑에 작은 방성(方城)이 있고 연대 위에 집이 있습니다. 성의 네 모퉁이에 각각 패옥을 지어놓고 모두 기와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성 밖에는 해자를 파고 해자 밖에는 담장을 쌓고 담장 밖에는 깊은 구덩이를 몇 겹으로 파고 구덩이 밖에는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등을 심어서 오랑캐가 말을 타고 오더라도 형세상 달려들 수 없게 했습니다. 성안에는 오래 군정 5명이 한 조가 되어 식구들과 살면서 지키게 하며 군정에게는 월급【은 2냥 반이다.】을 줍니다. 그들은 성 근처에 있는 빈터를 개간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만일 변고가 있을 때에는 해변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거기에 모여서 방어합니다. 15리마다 작은 포(鋪) 하나를 두고 30리마다 큰 포 하나씩을 두었습니다. 성이 점차 넓어지면서 인가가 점점 많아졌고【우가장(牛家莊)의 경우에는 원군(元軍)이 주둔하며 겨울에는 수자리 군사가 증가하여 천 명이 된다고 한다.】병기가 잘 완비되어 있으며 수비도 대단히 주밀하다고 함

57 또한……것이다 :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에 보인다.

58 동환봉사(東還封事) : 조헌(趙憲, 1544~1592)이 1574년(선조 7)에 질정관(質正官)으로서 명나라 신종(神宗)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사행(聖節使行)으로 중국에 다녀와서 작성한 상소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상소는 『동환봉사』라는 이름의 책자로 묶였고, 1626년(인조 4)에 순천(順天) 송광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주로 그가 중국에서 본 문물제도 중에서 주(周)나라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니다. 성이 혹 무너진 데가 있으면 관청에서 은냥을 내어 수리한다고 합니다. 산해관 안에는 비록 연대와 대성(臺城)은 없으나 15리에 작은 포 하나, 30리에 큰 포 하나씩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와 현의 성들은 모두 견고하고 웅장하게 구축되어서 아무리 강적이 침입하더라도 믿는 데가 있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은 방어시설을 설치해놓고 나라를 지키는 이와 같았으니 방어시설을 때에 맞게 이용함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계지대에 장성이 있기는 하나 말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연대를 쌓아 놓았다고는 하나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연대 위에다 성을 쌓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가집 한 칸도 없다.】그리하여 모진 바람이나 눈보라가 칠 때 얇은 옷 입은 수비군이 얼어 죽을 염려가 많으니 적이 오지 않더라도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이런 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지키겠습니까? 또한 각 주와 진에 있는 성은 들쭉날쭉하게 쌓아진 게 매우 심하여 만일 오랑캐가 들어온다면 모두 손쉽게 넘어 오지 못할 데가 없으며 성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자도 대단히 스산하니 거기에 있는 남녀를 전부 동원하여 막는다 해도 성의 모퉁이조차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남쪽 여러 도의 해변의 경우에는 왜적의 배가 닿을 만한 곳에 어민들의 부락이 즐비하니 왜적이 상륙하여 마음대로 분탕을 칠 것입니다. 만일 그런 포구에다 성을 쌓고 많은 무기를 준비해 두었다가 위급한 때에 방위를 삼엄하게 한다면 왜적이 감히 배에서 내려 상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 성을 쌓겠다고 백성을 동원한다면 성도 완공하기 전에 백성의 힘이 다하여 방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 각 도 병영에는 매년 사사로이 저장한 식량이 천여 섬이 되는데 개인이 청탁만 하면 쥐버리며 기타 포백(布帛)도 쓸데없이 쌓아 둔 것이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병조에서 해마다 받아들이는 포를 쓸데없이 저장해 둔 것이 대단히 많다 합니다. 만일 저 병조판서나 병사란 자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뜻을 지니고 자신의 살림살이를 도모할 생각 없이 포와 쌀을 내어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면서 성을 쌓는다면 1년에 두어 성은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도 내수사의 저장물을 내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신다면 저 변경의 장수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전하의 지극한 성의에 감동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다투어 내놓아 성을 쌓는

것에 보탬 것입니다.”⁵⁹

○趙重峯東還封事曰, 臣竊見遼陽以西, 至于山海一路, 距胡地最近以接, 長城爲長牆, 有濠子. 五里各置一烟臺, 臺下有小方城, 而臺上有屋, 城之四隅, 各有牌⁶⁰屋, 俱覆以瓦. 城外鑿濠子, 濠子外築牆, 牆外深坎數重, 坎外或列植榆柳, 雖胡兵眾驅, 而勢不得奔突也. 城中例令五軍丁, 率家而守之, 丁給月俸【銀二兩半.】各墾城旁空地, 以爲產業. 有警則沿海居民, 羣聚以守之. 十五里有一小鋪, 三十里有一大⁶¹鋪, 城子漸廣而人居者漸眾,【如牛家莊既有元軍, 而冬月益戍以千軍.】器械完繕, 而守備周密. 凡城頽之處, 則官撥銀兩以修之. 關內則雖無烟臺臺城, 而十五里鋪, 三十里鋪則無處無之, 州縣城池, 無不牢壯, 雖有勁敵, 人恃無懼, 皇朝之所以設險守國如此, 險之時用, 信乎其大矣. 我國兩界之地, 雖有長城而馬可超升, 雖有烟臺而人不能居,【臺上不唯無城, 而無草屋門閭.】風饕雪虐之際, 薄衣戍卒, 多有凍死, 不待賊來而反走也必矣. 孰肯以死守之. 且州鎮之城, 齟齬尤甚, 如有胡寇, 無非一呼而可登者, 城中人物, 到底蕭索, 雖盡男女, 或不能守城之一隅矣. 至於南道海邊, 賊船可泊之處, 漁人籬落, 多有櫛比者, 賊來登陸而肆其焚蕩. 若於浦口設城多置軍器, 有急嚴守, 則倭賊不敢舍舟而登陸矣. 然今若欲築城而一用民力, 則城池未完, 而民已不守矣. 竊聞各道兵營歲留私米, 累千石而只應私行之請, 其他布帛, 積於無用者, 不可勝數. 況兵曹歲入之布, 空積者甚多, 若彼爲兵判爲兵使者有徇國之志, 無營產之念, 則出此米布, 分募飢民, 歲完數城. 殿下又捐內需之儲以補其缺, 則彼爲邊將者, 雖是至愚之人, 亦感殿下之至誠, 爭出私用之物, 以造築其城矣.

■ 21

강항(姜沆)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에 일본인이 성읍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반드시 외딴 산꼭대기나 강, 혹은 바닷가에 성을 쌓되 산봉우리를 평편하게 만들고 그 4면을 깎아서 원숭이도 오를 수 없게 하였으며 성 밑은

59 제가……것입니다 : 『중봉선생동환봉사』, 「의상십육조소(擬上十六條疏) 성대지고(城臺之固)」에 보인다.

60 牌 : 조헌의 『동환봉사(東還封事)』에는 ‘陴’로 되어 있다.

61 大 : 저본에는 ‘丈’으로 되어 있으나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넓고 위는 뽕족하게 하였습니다. 성의 네 모퉁이에는 높은 누각을 지었는데 제일 높은 것은 3층으로 하고 주장(主將)이 거처하며 군량과 군기의 창고를 모두 그 누각에다 두었습니다. 성에는 문 하나를 내고 그 한길로만 출입하게 하고 성 밖에는 긴 담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한 장 남짓이며, 담 중턱에는 몇 보마다 포를 쏘는 구멍을 뚫으며 담 밖에는 해자를 팠는데 깊이를 8~9장 정도 되게 하고 강물을 끌어다 대고 있었습니다. 또 해자 밖에는 목책을 설치하고 강이나 바다가 가까운 곳에는 배가 거기까지 왕래하게 하였으며 정예하고 용맹스러운 병사들을 그 성 주변에 살게 하였습니다.【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딴 산꼭대기예다 쌓은 것은 우리는 적을 내려다볼 수 있지만 적은 높은 데서 우리를 놀려 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며 강이나 바닷가에 쌓는 것은 다만 한쪽만 방어하면 되는 것이니 일은 절반만 하고 성과는 배로 얻는 것이다. 성 밑을 넓게 하는 것은 적들이 구멍을 뚫어서 허물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위를 뽕족하게 하는 것은 적을 내려다보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문을 하나만 내고 그 한 길로만 왕래하는 것은 여러 곳으로 나누어 방어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배가 성 밑까지 통하게 하는 것은 수로를 방어하자는 것이다. 정예군을 성 주위에 살게 하는 것은 위급할 때 쉽게 들어와서 보호하게 하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성들은 그야말로 이와 정반대입니다. 정유년(1597, 선조 30) 난리에 적이 호남지방의 여러 성들을 보고 그 영성한 모양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담양의 금성(金城)을 보고는 ‘만일 조선 사람이 이 성을 굳게 지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 여러 곳의 산성은 읍내와 상당히 떨어져 먼 곳에 있는데 비상시에야 고을 백성을 데리고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적의 기세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기 살림살이에 연연하고 또 험하고 먼 길 가기를 꺼려서 성에 들어가 방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의 형세가 급박해지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끼안고 산과 들로 도망쳐 숨으면서 명령에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른 고을 성에 들어가서 지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호남과 영남의 성읍은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담양부를 금성산성으로 옮기고 그 근방의 두어 고을을 떼어 그곳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이 들이닥치면 그 고을 사람이 금성산성을 의지하여 지키게 하되 그 성을 지킬 관리는 반드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통솔할 능력이 있는 자를 뽑아 그 직무에 오래 두어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합

니다. 또 정읍과 장성을 입암산성으로 옮기고 역시 담양의 예와 같이 할 것입니다. 영남의 여러 산성까지도 모두 그 고을의 행정 소재지로 한다면 여러 주둔군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 형세상 서로 의지하게 될 것이니 적이 감히 그 전처럼 제멋대로 잠식하지 못할 것입니다.”⁶²

○姜沆曰臣在日本, 見日本爲城邑, 必於獨山之頂, 江海之濱, 夷山之巔, 而斷削其四面, 使猿狖不得上, 其城基廣而上尖. 四隅設高樓, 最高者三層, 主將居焉, 軍糧軍器之庫, 皆設於樓中. 開一門一路以通其出入. 城外設長垣, 高可一丈許, 垣中數步, 設砲穴, 垣外鑿濠, 深可八九丈, 引江水以注之. 濠外又設木柵, 濱江海處, 舳艫相連, 精勇之士, 環城而居之.【問之則曰獨山之頂者, 我可以俯瞰, 彼不得臨壓也. 江海之濱者, 只防一面, 事半而功倍也. 基廣者, 難於衝毀也. 上尖者, 易以俯瞰也. 一門一路者, 防守不分也. 舳艫連江者, 防水路也. 精銳⁶³之環城而居者, 爲倉卒易以入保也.】我國城池, 正與此相反. 丁酉之難, 賊見湖南諸城, 莫不笑其齟齬. 及見潭陽之金城, 則曰使朝鮮固守, 我何可攻陷云. 臣又竊念, 諸處山城, 頗與邑居懸遠, 臨急始收邑居之民, 使入山城. 賊勢稍緩則愚下之民, 顧戀家業, 憚其險遠, 不肯入保. 賊勢既迫則扶老携幼, 竄匿山野, 而又不肯從令, 況望其傍邑之疊入乎. 今者, 湖嶺城邑, 盡已蕩毀, 莫若乘其蕩毀. 移設潭陽府於金城山城, 省傍近數邑以益之. 賊至則因其人因其城而守之, 城守之官, 必擇有牧民御眾之才者, 久任責成. 移井邑長城於笠巖, 亦如之. 以及嶺南諸山城, 盡爲治所則複屯相望, 形勢相倚, 此賊不敢如前荐食矣.

■ 22

지금 강항의 말을 생각해보면, 읍을 반드시 산성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그대로 실시하기 어렵다. 성이 반드시 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험에서 얻은 깊은 의견이라고 할 만하니 반드시 지형을 참작하여 조치해야 한다. 즉 산성 가운데 읍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다면 읍을 옮겨 행정 소재지로 만들고 읍성 중에 성을 지킬 만한

62 제가……것입니다 :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에서 강항의 「간양록(看羊錄)」 「적중 봉소(賊中封疏) 왜국 팔도 육십육주도(倭國八道六十六州圖)」의 내용을 절록하여 인용하였다.

63 銳 : 저본에는 ‘銃’으로 되어 있으나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곳이 있다면 더 확충하고 개축하여 방어를 위주로 하는 성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일정한 규모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산성 중에 읍을 설치할 수도 없고 아주 형편이 없는 성은 다 폐지할 것이며 여러 고을 중에서 쇠퇴하고 몰락하여 형편이 없는 것은 떼어다 옆 고을에 소속시킨다. 요컨대 평소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은 난국에 반드시 지켜야 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지금은 평소에 백성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며 재물을 허비하여 민력을 낭비하니 위급한 일이 닥치면 그대로 버리고 가버려서 폐허로 변한다. 이는 관직을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고 민심이 비겁하고 나약한 까닭일 뿐만이 아니라 성의 구역을 잡는 것이 엉성하고 일정한 계획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그저 세월만 보내다가 위급한 때 하나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아,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현재의 방법대로 답습하며 지금 하던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성과 읍을 없애버려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今按姜沆之言, 謂邑必就山城, 則有難盡施, 而城必爲邑居, 則深有實見, 要當參酌形勢而措置之. 蓋山城之可設邑者, 移邑爲治, 邑城之可城守者, 增拓繕修, 定爲當守之城, 必有畫一之規. 其餘山城之不可設邑, 無甚形便者, 悉罷之. 諸邑之殘弊不成模樣者, 省屬傍邑, 要使平日所致力者 爲臨亂所必守之地也. 今則平時勞費財, 民力已殫而臨急委而去之, 任其蕩然. 此非但官授匪人, 民心懦弱之致, 亦緣區畫苟簡, 未有一定之計, 平時苟延歲月, 臨急無可恃倚而然也. 可勝痛哉. 由今之道, 無變今之爲, 寧無城無邑, 不勞民之爲愈也.

■ 23

또 생각해보면, 산과 험한 지대에 의지하여 성을 구축하는 것이 평지에다 구축하는 것보다 백배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성의 터전은 으레 산이 높고 험한 지대가 대부분이어서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없다. 만일 산성인데 읍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다면 정말 아주 좋다. 읍을 옮길 수 없는 산성이라면 평지에 성을 쌓고 거기에 읍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산천의 형세와 인사의 편의 여부를 잘 살펴서 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왜인의 제도와 같이하려면 다만 성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며 망루를 세우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 정도

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산 정상에 작은 성은 문 하나만으로 통하게 하고 백성들이 안에 들어가 거처하지 않으니 이른바 일본 사람의 토굴과 여진인의 산채와 비슷한 것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나온 시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산성인데 읍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차라리 읍이 있는 평지에 성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만 못하다. 비록 성은 작고 견고해야 한다고 하나 역시 마을의 백성들을 수용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又按因山據險, 比諸平地, 難易百什. 然山城之地, 例多高險傾危, 民不得居. 若山城而可設邑, 則固爲大善, 其不可移邑者, 莫如設險平陸, 因邑爲守, 此宜審察山川形, 要人事便否, 而定爲區劃也. 若倭人之制, 則只可取其城池樓櫓之高深牢固而已. 其山頂小城, 唯開一門, 民不居內則是所謂倭人土窟, 與北虜山寨, 其意相近, 非所施於體國奠民之地者. 故山城而不可邑, 則寧堅築平地之邑城. 城雖曰宜小而固, 亦不可不包納閭閻也.

■ 24

어떤 사람이 ‘성을 방어하는 데는 험한 지대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읍과 성을 방어하는데 험한 지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성이란 본래 읍을 지키기 위하여 구축한 것으로 사람이 사는 집에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읍이 쇠잔하고 산이 많기 때문에 산성과 읍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니 그 본말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대체로 읍에서 떨어진 곳에 산성을 쌓고 위급한 일이 닥쳐서야 비로소 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니 그러면 백성들은 선뜻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줄지에 빈 성으로 들어 왔으니 모든 일이 맞지 않으며 들어온 자도 돌아보고 살필 뜻이 없어서 너도나도 도망가니 장차 누구와 함께 성을 지키겠는가. 옛날 평소에 살던 곳에서 고을에 있는 기관, 창고, 백성의 물건을 이용하여 함께 방어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각각 부모, 가족을 염려하고 있어 이해가 서로 간에 매우 다르다. 가령 산성을 고수하더라도 읍리의 창고와 사람과 가족들을 전부 버려 적이 주둔하게 하면, 다만 산 정상을 지키는 것이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이것이 일본이나 여진 사람들처럼 전쟁만을 일삼고 항상 집이 없는 병사를 거느리고 활쏘기와 사냥을 업으로 하며 가는 곳마다

산 위에 산채를 세우는 경우와는 일의 이치상 전혀 다른 것이다.

或曰守城莫如地險，欲守邑城，則其於無地險何。曰城本所以衛邑，如人居舍有籬以衛之也。而我國邑殘山多，故因有山城邑居之異，其不知本末甚矣。夫築城於別處，臨急始抽邑居之丁，民不肯入，猝至空城，百爲齟齬。入者亦無顧戀之意，相率而逃，將誰與爲守。其與按平時之，舊因其府庫民物而與之共守，人各有父母家室之慮者，利害相萬萬矣。假令固守山城，盡棄邑里倉廩人民頭畜，付爲賊屯，則獨守山頂，終何歸乎。必亡之道也。此與倭人，北虜之只事戎戰，常屯無家之卒，射獵爲業，逐設山上之寨者，事理絕異矣。

■ 25

또한 공격과 방어는 본래 서로 맞물려 공격할 수 있는 뒤에야 방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백성을 보호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직 돈벌이하는 관리들은 군인에게 포를 받아먹는 것만을 일삼고 있다가 변란을 당하게 되면 멀리 놓고 험한 성으로 도망하여 혈떡이는 숨을 죽이고 틀어박혀서 끝내 감히 성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지경이 될 뿐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철옹성을 하늘에 닿게 쌓았더라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아! 이것은 보통 사람과 말하기는 어렵고 오직 이 일을 아는 자만 알 수 있다. 【산성을 아무리 높고 험한 곳에 구축했다 하더라도 만약 성에서 나와 적과 싸우려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며 길이 불편하여 기미를 틈타 습격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미 평지로 내려와도 아무 은폐물이 없어서 평지에서의 전투와 다름이 없다. 본래 가정이 없어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은 더욱 쉽게 뿔뿔이 흩어져 달아난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으레 산성을 말하며 또 성은 작고 좁아야 한다고 하면서 혹 그리 좁지 않은 성이 있다면 다 개축하여 좁히려고 한다. 장만(張晩)⁶⁴과 같

64 장만(張晩) : 1566~1629. 자는 호고(好古)이고 호는 낙서(洛西)이다. 이조판서 장철견(張哲堅)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인(舍人) 장계문(張季文)이고, 아버지는 군수 장기정(張麒禎)이며, 어머니는 조광침(趙光琛)의 딸이다. 1591년(조선 선조 24)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고명주청부사(誥命奏請副使)·세자책봉주청부사(世子冊封奏請副使)로서 두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다. 함경도관찰사로 있을 때 누르하치[奴兒哈赤]의 침입을 경고해 방어책을 세우도록 상소했고, 오래 폐지되었던 4군(郡)이 조선의 땅임을 인식시켜 주둔하던 여진인들을 철수시켰다. 인조반정 이후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고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의 모집해 진압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에 책록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라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35년(조선 인조 13)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변경의

은 이는 근세에 이른바 명장인데도 그렇게 말하니 무엇 때문인가?’라고 한다. 비단 장만뿐만 아니라 서애 류성룡도 그렇게 말했다. 이는 대개 지금의 군읍(郡邑)은 평시에 모두 형편이 없어서 민가가 모이지 않아 매우 스산하게 되었다. 이른바 읍성(邑城)이란 것은 가난한 집의 허물어진 담장과 같다. 갑자기 적의 침입을 당하여 지키고자 한다면 반나절도 못되어 바로 함락되니 반드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험한 바윗돌에 의지하여 싸워야만 잠시라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지고 다만 남은 몇 사람을 데리고 갑자기 빈 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넓어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렇게 때문에 생각이 매번 그와 같은 것이니 나라를 위한 방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고쳐서 고을을 모두 알맞게 배치하여 지금의 최잔한 고을들을 병합한다면 100리의 땅에 있는 각 군읍들은 자체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관리나 아전들에게 일정한 녹봉을 주며 장인이나 장사꾼에게 착취하는 행동을 금지시키면 백성들이 읍에 모여 살며 민가가 즐비하게 되고 시가에 점포가 서게 되어 완전히 중국의 여러 고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성을 구축하는 것도 그 방식과 같이 고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며 반드시 그 제도대로 성을 높게 쌓고 해자를 깊이 파서 견고하고 웅장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평소에는 모든 일이 다 볼 만하게 진척될 것이며 위급한 일이 닥쳐 성을 방어하는 것도 공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어느 고을이나 다 방어할 수 있고 형제도 서로 연결되어 국가가 영구히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 예로부터 지방 고을들 중에는 끝까지 방어해 1년 혹은 수년을 버텨낸 데가 무수히 많다. 아주 먼 옛날을 논하지 않더라도 예전 요동 금주성(金州城)은 평지에 있는 성이지만 여진 군대가 3년을 포위해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만일 이 금주성이 외딴 산봉우리에 있었거나 졸지에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곳이라면 몇 개월 못 되어 식량도 떨어지고 백성들도 분산되어 성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니 어찌 감히 몇 년을 지탱하기를 바랄 수 있었겠는가? 그 이해관계를 여기에 서도 알 수 있다. 대체로 성이란 반드시 지방의 읍에다 구축하는 것이 옳다. 읍에 구축하지 말고 별도로 백성이 살지 않는 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자들은 모두 전

군사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논한 『낙서집(洛西集)』을 집필하였다.

혀 생각이 없는 것이다.】

○又戰守本自相須, 可戰而後亦可守也. 我國人平居, 不知保民練兵之爲當務, 而唯以債帥收布爲常事, 及其應變, 則以遠避高險, 脅息竄身, 終不敢窺見城外爲心. 若是則雖懸天鐵城, 守不可得矣. 噫噫, 此難與俗人言, 唯知者知之.【山城雖絕高險, 若欲出兵要擊則自上至下, 徑途不便, 未易乘機. 又既下至平地, 則失其所以爲恃矣. 與野戰者無異, 而本無家室, 係戀之心者, 尤易於奔散. 或曰我國人例言山城, 又謂城宜狹小, 或有不甚狹者, 則皆欲改築小之. 如張晚近世所謂名將而亦然, 何也. 曰非但張晚, 西厓所論亦如此, 此蓋今之郡邑, 平時皆不成模樣, 民戶不聚, 絕爲蕭殘, 而所謂邑城者, 有若貧家破垣, 卒然當敵欲守, 則未及半日而直陷, 必奔上高山, 依阻巖石之險, 然後可以少支. 而人民四散, 只抽若干丁, 猝入空城, 故稍闊則不得守. 目下所見者惟此, 故意每如是矣, 殊不思爲國之道. 當定經修制置郡, 咸得其宜, 而併今殘零則百里之地, 各有郡邑規模, 吏隸皆給廩祿而至於工商, 舉絕橫侵之途, 則民聚邑居, 屋舍櫛比, 市肆成廛, 宛如中國之列邑矣. 其爲城池, 亦包納閭閻, 高深牢壯, 必如其制. 如此⁶⁵則平時, 萬事皆有可觀而臨急城守, 亦得堅實, 唯如此而後, 可以處處捍守, 形勢相連而國以永固矣, 而我國人意思, 曾不及於此也. 自古列邑堅守, 或經年閱歲者, 不可勝數, 遠者姑勿論, 而時遼東金州城, 亦是平地而虜兵圍住三年, 相戰而不能陷. 若如孤絕山城, 卒然投入者則不待數月, 糧盡人散, 不得保矣. 安敢望支過年歲. 其利害此亦可見也, 大抵城必邑城爲是, 非邑居而別設空城云者, 皆不思之甚也.】

■ 26

유형원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 고을은 모두 똑같은 법으로 완급을 살펴 정한다. 그 읍성이 있는 곳에는 증축하여 넓힌다. 그 형세가 축성할 만한 곳에는 새로 축성한다.【마땅히 연혁의 초기에 자세히 살펴 계획을 정하고 그 축성은 일과 힘을 갖추어놓고 천천히 수축한다.】산성은 읍이 있는 곳에 합하여 설치한다. 즉 읍을 옮겨서 각각 위급할 때에 반드시 지키야 하는 장소로 삼는다.【만약 지금과 같은 성이 있으

65 此 :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에는 ‘문’로 되어 있다.

면 난을 당하여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찌 백성들을 축성하는데 힘들게 부릴 수 있는가? 차라리 성이 없는 것이 낫다. 읍에는 백성이 있고 성과 못이 높고 깊은 후에야 목숨을 바쳐 지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금의 제도가 변하지 않고 평소에 그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로 맡긴다면 위급한 상황에 실제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담당하는 지역을 지키는 신하는 자신이 맡은 그 지역에서 죽는 것이 고금의 공통된 의리이다. 진실로 여러 고을의 토지와 백성이 그 규모가 충분히 군(郡)이 되도록 하며 백성의 일상적인 생산을 제정하고 정치와 교화를 닦아 밝히며 성과 못을 수축하며 난을 당하여 반드시 지킨다면 여러 성이 서로 바라보고 형세가 서로 연결될 것이니, 비록 백만의 강한 적이 오더라도 어찌 능히 멋대로 횡행하여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군읍이 영성하여 모두 성지가 없다. 대개 먼 지역의 오랑캐의 유풍을 오히려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간간이 읍성이 있는 곳도 역시 집의 담장처럼 협소하여 백성의 거처를 수용하지 못하고 돌덩이로 쌓아서 겨우 사람의 어깨에 미친다. 평시에 이미 그것이 비웃을 만한 것을 알고 난을 당하여 의례히 버리고 가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한 번 적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적이 가득 들어오기도 전에 온 나라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흩어져 달아난다. 이와 같은 것이 그치지 않으면 비록 천하의 거대함으로도 다시 무엇을 도모할 수 없으니 오히려 무엇을 더 말하리오.

또한 지금 시론(時論)이 산성이 중요하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산이 많아 본래 험한 곳을 의지하여 수비를 한다. 그러나 산성의 내부는 으레 아주 높고 기울어진 곳이 많아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위급한 일이 닥쳐서야 읍에 사는 장정을 뽑아서 빈 성으로 달려 들어가니 허둥지둥 어수선했다 무기와 모든 물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백성은 아무런 미련이 없어서 너도나도 도망간다. 가령 성을 고수하겠다고 읍리의 창고와 백성 및 가축을 모두 버리고 적이 주둔하게 하면 홀로 산꼭대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랑캐들처럼 성읍에 백성이 거주하는 궁실이나 창고도 없이 사냥하는 것을 일삼으며 가는 곳마다 산 위에 요새를 두는 것은 일의 이치상 절대로 다른 것이다. 이제 제도를 정해야 하는데, 그 산성이 백성이 살 수 있어 읍을 만들 수 있는 곳이나 형세가 편의하고 중요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 외에는 모두 없애야 한다. 읍에는 각각 성을 두고 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정하여 변치 않을 규정과 계획을 만들어 위급한 일이 닥쳐도 바꾸지 않게

해 사람마다 일정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⁶⁶

柳馨⁶⁷遠曰, 列邑皆定緩急劃一之規. 其有邑城處, 拓廣增築. 其形勢可築處, 則新築.【當於沿革⁶⁸之初, 審察定計而其築城, 則待事力完聚, 徐爲修築.】有山城可合設邑處, 則移邑, 各使爲臨急必守之所.【若如今日有城, 而臨亂不守, 則何用勞民築城, 寧無城之爲愈也. 夫邑有人民, 城池高深而後, 可責以死守. 若不變今之制, 而平日任其不成模樣, 則緩急實無可奈何也. ○守土之臣, 死於封疆, 古今之通義也. 誠使列邑土地人民, 足以爲郡, 而制民常產, 修明政教, 繕修城池, 臨亂必守, 則列城相望, 形勢相連, 雖有百萬強寇, 安能任其橫行, 糜潰一國哉. 我國自前郡邑, 不成模樣, 舉無城池, 蓋猶未免遐裔夷落之遺風也. 間有邑城者, 亦狹窄如家牆, 不容民居, 累以塊礫, 僅及人肩, 平時已知其爲可笑. 臨亂, 例作棄去之所. 是以一聞寇虜, 不待充斥, 而舉國先自潰散, 若此不已, 雖以天下之大, 而無復可爲, 尚何言哉. 且今時議, 以山城爲重, 我國地小山多, 固爲據險爲守. 然山城之內, 例多高危傾側, 人不得居. 臨急始抽邑居之丁, 而走入空城, 蒼黃紛亂, 器械百物, 無非齟齬, 民無顧變之意, 相率而逃. 此與因平時之舊, 按其官舍府庫, 閭閻民物, 而與之共守, 人各有父母家室之慮者, 利害較然矣. 假令固守, 盡棄邑里倉廩, 人民頭畜, 付爲賊有, 而獨保山頂, 終何歸乎. 其與戎虜, 無城邑民居宮室庫府, 而射獵爲事, 逐設山寨者, 事理絕異矣. 今當定制, 其山城之容, 奠民居, 可以設邑處, 及形勢便要, 可以必守者外, 悉罷之. 令邑各有城, 城必定守, 永⁶⁹爲規劃, 臨急無易, 使夫人人, 知有一定之法 可也.】

■ 27

또 이렇게 말하였다. “수원도호부는【광주(廣州) 아래 지역인 왕륜(王倫, 일용(一用), 월곡(月谷), 북방(北方), 송라곡(松蘿谷), 송곳(松串) 등 6개 면을 더해준다. 즉 광교(光敎)와 도양(道養)의 두 산의 남쪽 땅이다. 과천의 남면 및 서면의 반, 수리산 동

66 열읍은……좋다 : 『반계수록보유』 권1, 「군현제 각읍」에 보인다.

67馨 : 저본에는 ‘馨’으로 되어 있으나 유흥원의 이름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68革 : 저본에는 ‘草’로 되어 있으나 『반계수록보유』 권1, 「군현제(郡縣制) 각읍(各邑)」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69永 : 저본에는 ‘水’로 되어 있으나 『반계수록보유』 권1, 「군현제 각읍」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쪽 땅이다. 광덕과 가솔 2개 면을 빼서 아산(牙山)으로 편입시킨다. 삽교(插橋) 근처는 양성으로 편입시킨다. 치소를 북평(北坪) 평야로 옮긴다. 청호역(菁好驛)에 관사를 두고 겸하여 참점(站店)을 설치한다.】읍성을 축성할 수 있다.【북평의 들판 가운데에 흐르는 하천을 끼고 지세를 따른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읍거(邑居)⁷⁰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나, 북평에 비교한다면 천양지차일 뿐만이 아니다. 북평은 산이 크게 둘러싸고 있으며 땅은 매우 평탄하여 형국이 깊숙하고 규모가 넓고 광대하니 치소를 설치하고 성을 세울 수 있는, 진실로 큰 번진(藩鎭)의 기상이 있다. 지역의 안팎에는 만 호를 수용할 수 있다.】⁷¹

이상의 내용은 『반계수록』 및 『반계수록보유』에 나온다.

又曰水原都護府,【加廣州下道之王倫, 一用, 月谷, 北方, 松蘿谷, 松串六面. 卽光教道養兩山以南地也. ○果川之南面及西面半, 修理嶽以東地. ○除廣德, 加솔二面, 入牙山. ○插橋近處, 入陽城. ○移治於北坪平野. ○菁好驛置館兼設站店.】邑城可築,【北坪野中臨川, 因勢. ○按今之邑居, 亦云可矣. 然方之北坪, 則不啻霄壤. 北坪山大轉地太平, 結作深奧, 規模宏遠, 設治建城, 真是大藩鎭氣象也. 地內外可容萬戶.】

右出礪溪隨錄及隨錄補遺.

70 읍거(邑居) : 읍민들이 거주하던 마을, 또는 촌락으로 일반적으로 관사가 있고 읍치(邑治)가 행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관거(官居)라고도 했다. 특히 행정상의 필요나 변방의 방어와 관련하여 새로 성을 쌓고 읍을 설치하기도 했고, 인근의 읍거를 옮겨 새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71 수원도호부는……있다 : 『반계수록보유』 권1, 「군현제 역대제」에 보인다. 정조도 여기에 수록된 유흥원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의 치소를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고 화성을 축조하였다. (『홍재전서』 권34, 「고(故) 처사(處士) 유흥원(柳馨遠)에게 췌주(祭酒)를 더 증직하라는 하교」 참조.)

참고문헌

-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 논의」, 『군사』 34, 1997.
- 노영구,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1999.
- 노영구, 「正祖代 五衛體制 復舊 시도와 華城 방어체제의 개편」, 『진단학보』 93, 2002.
- 이민웅,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1995.
- 이왕무, 「조선후기 수도권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군사』 90, 2014.
- 이육, 「숙종대 상업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25, 1997.
- 이장희, 「임란중 산성수축과 견벽청야에 대하여」, 『부춘 신연철교수 정년퇴임기념 사학논총』, 일월서각, 1995.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유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군사』 33, 1996.
-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서울학연구소 연구총서』 10, 1998.
- 조정기, 「서애 류성룡의 성곽론」 『한국사의 이해 - 조선시대 1』, 신서원, 1991.
- 차용걸, 「행성·읍성·진성의 축조」,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